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박종서

최선영·김유경·변수정·조성호·김주현·노현주·염아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노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염아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연구보고서 2020-54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776-4 93330

발|간|사

세계 어느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가족의 의미는 늘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의 관점에서든 가족은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질서체계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유독 강력하게 작동하는 가족주의적 경향이 있다. 한편에서는 이런 경향의 장점을 주장하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적 가족주의의 강력함이 주로 여성이나 아동을 약자로 만들고 남성 아버지 중심의 불합리한 질서로 작동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제 한국의 가족은 점점 더 다양한 의미와 기능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미래에도 이런 복잡성은 더 가중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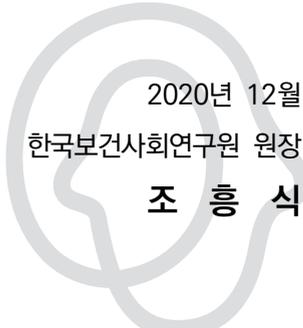
중요한 것은 가족이 고유한 형태나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 가지 모습이나 한 가지 이념만으로 가족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은 역사적으로 변해왔다. 세계사적으로도 그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통사회의 가족 모습과 운영원리가 근대를 거치고 현재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같을 수 없다. 가족의 형태도 변했고, 조직 원리나 운영원리도 달라졌고, 세대의 측면이나 젠더의 측면에서도 그 원리와 이념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바로 가족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의 제반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크게 4가지 측면으로, 가족의 인구학적 측면, 부부의 경제활동 측면, 부양기능의 측면, 가족 관계의 측면, 가족문화의 측면이 그 4가지에 해당한다. 가족의 인구학적 측면은 가구 가족의 규모와 형태 변화, 그리고 가족 형성의 관점에서 결혼과 출산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주로 맞벌이 형태의 변화과정을 검토

하여 젠더관계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기능적 측면에서는 노부모 부양과 자녀양육 기능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가족 문화의 변화는 일상적 가족개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을 제시하고 주요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당장의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지는 않지만, 미래 다가올 가족의 여러 측면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는 점이 의미 있을 것이다. 가족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체계임과 동시에 정책적으로도 제도 설계의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가족의 변화 방향을 정확히 진단해야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제도를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그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과제는 우리 연구원 박종서 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진행하였으며, 김유경 명예연구위원, 변수정 연구위원, 조성호 부연구위원, 최선영 부연구위원, 노현주 연구원, 염아림 전문원이 참여하였다. 특히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김주현 교수가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해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연구 결과를 입을 밝혀 둔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배경	15
제1절 기존 연구의 쟁점	17
제2절 이론적 배경	31
제3절 분석틀과 연구 질문	38
제3장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	43
제1절 가족의 규모와 형태 변화	45
제2절 혼인 및 출산 행동 변화	66
제3절 소결	81
제4장 가족의 경제 활동 변화	87
제1절 경제활동 추이 변화	91
제2절 인구 사회적 특성별 경제활동	99
제3절 경제활동 영향 요인의 변화	107
제4절 소결	109

제5장 가족 부양 기능의 변화	113
제1절 부모 돌봄과 부양의 변화	115
제2절 아동 양육의 변화	163
제3절 소결	229
제6장 가족 관계의 변화	239
제1절 부부관계의 변화	244
제2절 부모와 미성년자녀의 관계 변화	281
제3절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 변화	307
제4절 소결	329
제7장 가족문화의 변화: 일상적 가족개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335
제1절 가족 변동과 문화	337
제2절 개인의 복합적 가치관과 가족의식의 변화	341
제3절 가족의 의미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355
제4절 소결	394
제8장 미래 전망 및 정책적 함의	399
제1절 미래 가족의 변화 전망	401
제2절 정책적 함의	418
참고문헌	427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3-1〉 연도별 가구수 및 가구 증가율 변화 추이(1990~2020)	46
〈표 3-2〉 연도별 평균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가구 변화 추이(1990~2020)	47
〈표 3-3〉 연도 및 세대구성별 변화 추이(1990~2020)	49
〈표 3-4〉 연도 및 가족유형별 변화 추이(1990~2020)	50
〈표 3-5〉 연도별 1인 가구수 및 비율 변화 추이(1990~2020)	52
〈표 3-6〉 연도별 1인가구의 성 및 연령별 분포 변화 추이(1990~2020)	53
〈표 3-7〉 연도별 남성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 추이(1995~2019)	54
〈표 3-8〉 연도별 여성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 추이(1995~2019)	56
〈표 3-9〉 연도별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변화 추이(1990~2015)	57
〈표 3-10〉 연도별 노인가구수 및 비율 변화 추이(1990~2020)	59
〈표 3-11〉 연도별 노인가구 구성 비율 변화 추이(1990~2020)	60
〈표 3-12〉 연도별 한부모 가구수 및 비율 변화 추이(1990~2020)	61
〈표 3-13〉 연도별 한부모 가구유형 분포 변화 추이(1995~2020)	62
〈표 3-14〉 연도별 조손가구수 및 비율 변화 추이(1995~2015)	62
〈표 3-15〉 연도별 조손가구의 발생원인 분포 변화 추이(2000~2017)	63
〈표 3-16〉 연도별 다문화 혼인건수 및 다문화 혼인 비율 변화 추이(2008~2018)	64
〈표 3-17〉 연도별 다문화가족 규모 및 비율 변화 추이(2007~2018)	64
〈표 3-18〉 연도별 다문화 가구 혼인유형별 분포 변화 추이(2008~2018)	65
〈표 3-19〉 연도별 다문화가구의 혼인종류별 분포 변화 추이(2009~2018)	66
〈표 3-20〉 연령별-코호트별 미혼 여성의 비율	72
〈표 4-1〉 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참가 유형의 특징	97
〈표 4-2〉 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참가 추세의 특징	98
〈표 4-3〉 전체 기혼여성(15-49세) 맞벌이 가구 비율	99
〈표 4-4〉 기혼여성(15-49세) 연령 집단별 맞벌이 가구 비율	100
〈표 4-5〉 기혼여성(15-49세) 출생 코호트별 맞벌이 가구 비율	101
〈표 4-6〉 기혼여성(15-49세) 소득계층별 맞벌이 가구 비율	102
〈표 4-7〉 취업한 전체 기혼여성(15-49세)의 임금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103

〈표 4-8〉 기혼여성(15-49세) 연령별 가구소득에서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104
〈표 4-9〉 기혼여성(15-49세) 출생 코호트별 가구소득에서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 105	
〈표 4-10〉 기혼여성(15-49세)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에서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106
〈표 4-11〉 조사연도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영향요인 로짓분석	108
〈표 5-1〉 노인특성별 돌봄 기제 변화	125
〈표 5-2〉 노인특성별 가족 내 주돌봄자 변화(2011)	128
〈표 5-2〉 노인특성별 가족 내 주돌봄자 변화(계속, 2014)	129
〈표 5-2〉 노인특성별 가족 내 주돌봄자 변화(계속, 2017)	129
〈표 5-3〉 가족 돌봄자의 노인 돌봄 내용	130
〈표 5-4〉 노인특성별 지원 교환과 변화	135
〈표 5-5〉 노인특성별 동거 자녀 지원 수혜율 변화	138
〈표 5-6〉 노인특성별 비동거 자녀 지원 수혜율 변화	141
〈표 5-7〉 응답자 특성별 부모 부양 책임	144
〈표 5-8〉 부모와의 접촉 정도	147
〈표 5-9〉 부모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	149
〈표 5-10〉 부모에게 주는 도구적 지원	151
〈표 5-11〉 부모에게 주는 정서적 지원	152
〈표 5-12〉 배우자 부모에게 주는 지원	154
〈표 5-13〉 부모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의 영향 요인	156
〈표 5-14〉 부모에게 주는 도구적 지원의 영향 요인	157
〈표 5-15〉 부모에게 주는 정서적 지원의 영향 요인	158
〈표 5-16〉 배우자 부모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의 영향 요인	159
〈표 5-17〉 배우자 부모에게 주는 도구적 지원의 영향 요인	161
〈표 5-18〉 배우자 부모에게 주는 정서적 지원의 영향 요인	162
〈표 5-19〉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 취업 장애 요인	168
〈표 5-20〉 생활시간조사 연도별 아동 양육 항목 구분	171
〈표 5-21〉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시간 분석을 위한 가구 추출	173



〈표 5-22〉 만 0~5세 아동의 돌봄 형태	174
〈표 5-23〉 미취학 아동 양육 가족 형태	182
〈표 5-24〉 미취학 아동 양육 가족의 전체 아동 수	183
〈표 5-25〉 미취학 아동 양육 가족의 막내 아동 주된 돌봄 방식 1997년, 2003년	184
〈표 5-26〉 미취학 아동 양육 가족의 막내 아동 주된 돌봄 방식 2015년, 2018년	186
〈표 5-27〉 미취학 아동 양육 가족의 막내 아동 주된 돌봄 방식 변화	187
〈표 5-28〉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1997년	188
〈표 5-29〉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1997년: 여성경제활동-아동연령	189
〈표 5-30〉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03년	190
〈표 5-31〉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03년: 여성경제활동-아동연령	191
〈표 5-32〉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03년: 여성경제활동-소득수준	192
〈표 5-33〉 가족 특성별 낮 시간의 아동 돌봄 유형: 2009년	193
〈표 5-34〉 가족 특성별 낮 시간의 아동 돌봄 유형: 2012년	195
〈표 5-35〉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5년	197
〈표 5-36〉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5년: 여성경제활동-아동연령	198
〈표 5-37〉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5년: 여성경제활동-소득수준	198
〈표 5-38〉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8년	199
〈표 5-39〉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8년: 여성경제활동-아동연령	200
〈표 5-40〉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8년: 여성경제활동-소득수준	201
〈표 5-41〉 1일 평균 양육 시간(1999~2019년)	205
〈표 5-42〉 양육 활동 별 1일 평균 양육 시간(1999~2019년)	208
〈표 5-43〉 1999년 평균 양육 시간	212
〈표 5-44〉 2004년 평균 양육 시간	215
〈표 5-45〉 2009년 평균 양육 시간	218
〈표 5-46〉 2009년 평일 평균 양육 시간: 여성경제활동-미취학 아동 수	220
〈표 5-47〉 2014년 평균 양육 시간	222
〈표 5-48〉 2014년 평일 평균 양육 시간: 여성경제활동-가구소득	224

〈표 5-49〉 2014년 평일 평균 양육 시간: 여성경제활동-미취학 아동 수	225
〈표 5-50〉 2019년 평균 양육 시간	226
〈표 5-51〉 2019년 평일 평균 양육 시간: 여성경제활동-가구소득	228
〈표 5-52〉 2019년 평일 평균 양육 시간: 여성경제활동-미취학 아동 수	228
〈표 5-53〉 맞벌이-외벌이 가족의 남성과 여성 양육 시간 차이	237
〈표 6-1〉 연도 및 성별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2005~2015)	247
〈표 6-2〉 연도 및 연령별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2005~2015)	249
〈표 6-3〉 연도 및 소득수준별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2005, 2015)	251
〈표 6-4〉 연도별 부부간 의사결정권의 변화 추이(2005~2015)	252
〈표 6-5〉 연도 및 성별 부부간 의사결정권의 변화 추이(2005~2015)	253
〈표 6-6〉 연도 및 연령별 부부간 의사결정권의 변화 추이(2005~2015)	255
〈표 6-7〉 연도 및 소득수준별 부부간 의사결정권의 변화 추이(2005~2015)	258
〈표 6-8〉 연도별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1998~2018)	259
〈표 6-9〉 연도 및 성별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1998~2018)	261
〈표 6-10〉 연도 및 연령별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1998~2018)	262
〈표 6-11〉 연도 및 소득수준별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1998~2018)	264
〈표 6-12〉 연도별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 변화 추이(1998~2018)	265
〈표 6-13〉 연도 및 성별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 변화 추이(2006~2018)	266
〈표 6-14〉 연도 및 연령별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 변화 추이(1998~2018)	268
〈표 6-15〉 연도 및 소득수준별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 변화 추이(2006~2018)	270
〈표 6-16〉 연도 및 성별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 변화 추이(2005~2015)	271
〈표 6-17〉 연도 및 연령별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 변화 추이(2005~2015)	273
〈표 6-18〉 연도 및 소득수준별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 변화 추이(2005~2015)	274
〈표 6-19〉 연도 및 성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276
〈표 6-20〉 연도 및 연령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278
〈표 6-21〉 연도 및 소득수준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2006~2018)	280
〈표 6-22〉 연도 및 연령별 자녀양육관의 변화 추이(2005~2015)	284



〈표 6-23〉 연도 및 소득수준별 자녀양육관의 변화 추이(2005~2015)	286
〈표 6-24〉 연도 및 연령별 자녀양육 태도의 변화 추이(2010~2015)	289
〈표 6-25〉 연도 및 소득수준별 자녀양육 태도의 변화 추이(2010~2015)	291
〈표 6-26〉 연도별 자녀양육책임의 범위 변화 추이(2003~2018)	292
〈표 6-27〉 연도 및 성별 자녀양육책임의 범위 변화 추이(2003~2012)	293
〈표 6-28〉 연도 및 연령별 자녀양육책임의 범위 변화 추이(2003~2018)	295
〈표 6-29〉 연도 및 소득수준별 자녀양육책임의 범위 변화 추이(2003~2018)	296
〈표 6-30〉 연도 및 성별 자녀와의 항목별 관계 정도 변화(2010~2015)	299
〈표 6-31〉 연도 및 연령별 자녀와의 항목별 관계 정도 변화(2010~2015)	300
〈표 6-32〉 연도별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301
〈표 6-33〉 연도 및 성별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302
〈표 6-34〉 연도 및 연령별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304
〈표 6-35〉 연도 및 소득수준별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2006~2018)	306
〈표 6-36〉 연도 및 성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 변화 추이(1998~2017)	309
〈표 6-37〉 연도 및 연령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 변화 추이(1998~2017)	310
〈표 6-38〉 연도 및 소득수준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 변화 추이(2008~2017)	311
〈표 6-39〉 연도별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 추이(1998~2017)	313
〈표 6-40〉 연도 및 성별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 추이(1998~2017)	314
〈표 6-41〉 연도 및 연령별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 추이(1998~2017)	317
〈표 6-42〉 연도 및 소득수준별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 추이(2004~2017)	319
〈표 6-43〉 연도 및 성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정도 변화(2010~2015)	322
〈표 6-44〉 연도 및 연령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정도 변화(2010, 2015)	323
〈표 6-45〉 연도 및 성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2)	324
〈표 6-46〉 연도 및 연령별 본인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326
〈표 6-47〉 연도 및 소득수준별 본인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2006~2018)	328
〈표 7-1〉 한국종합사회조사(2006, 2016년)의 문항	347
〈표 7-2〉 잠재집단분석 1: 잠재집단 수의 통계적 확정	349



〈표 7-3〉 잠재집단분석 2: 가족가치관 유형과 특징	351
〈표 7-4〉 5개 초점집단 구성과 참여자 특징	359
〈표 7-5〉 FGI 주제와 세부내용	361
〈표 7-6〉 결혼한 사람들의 주관적 가족범위 (2015)	369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개념적 분석틀	38
[그림 3-1] 평균 초혼연령 추이 변화(1990-2019)	68
[그림 3-2] 성별, 연령별 혼인을 추이 변화(1990-2019)	69
[그림 3-3] 남성의 연령별 혼인을 추이 변화(1990-2019)	70
[그림 3-4] 여성의 연령별 혼인을 추이 변화(1990-2019)	71
[그림 3-5]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1993-2019)	74
[그림 3-6] 연령별 출산율 변화 추이(1993-2019)	75
[그림 3-7] 출산 순위별 출생 건수 및 비중	76
[그림 3-8] 출산 기간: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변화 추이(1993-2019)	77
[그림 3-9]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추이(1946~1977년 출생코호트)	78
[그림 3-10] 기혼여성의(15~49세) 출생 코호트별 평균 이상자녀수	79
[그림 3-11] 전체 출생 중 혼인의 비율	80
[그림 4-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9)	91
[그림 4-2]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9)	92
[그림 4-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9)	93
[그림 4-3] 출생코호트별(2세 간격) 경제활동참가율(1990-2019)	95
[그림 4-3] 출생코호트별(5세 간격) 경제활동참가율(1990-2019)	96
[그림 5-1] 부모 부양 책임자의 변화	120
[그림 5-2] 가족 중 부모 부양 책임자 변화	121
[그림 5-3] 노부모부양 책임 범위(2014)	122
[그림 5-4] 노인 돌봄 기제의 변화: 2004-2017 노인실태조사	124
[그림 5-5] 가족 내 주 부모 돌봄자: 2004-2017 노인실태조사	127
[그림 5-6] 정서적 지원 교환 (1998년, 2004년)	131
[그림 5-7] 신체적 지원 교환 (1998년, 2004년)	133
[그림 5-8] 경제적 지원 교환 (1998년, 2004년)	134
[그림 5-9] 2008-2017 동거자녀 지원 교환	136
[그림 5-10] 2008-2017 비동거자녀 지원 교환	139

[그림 5-11] 2006-2016 부모 부양 책임	143
[그림 5-12] 부모의 자녀와의 동거 형태 변화	146
[그림 5-13] 0-5세 아동의 부모 돌봄 비율 추이	176
[그림 5-14] 0-5세 아동의 어린이집(놀이방 포함) 이용율 추이	178
[그림 5-15] 3-5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율 추이	179
[그림 5-16]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소 수 추이	180
[그림 5-17] 아동 돌봄 유형(본인 및 가족 돌봄) 변화: 1997년~2018년	202
[그림 5-18] 여성과 남성의 주요 활동 별 미취학 아동 양육 시간	210
[그림 6-1] 연도별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변화(2005~2015)	245
[그림 6-2] 연도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275
[그림 6-3] 연도 및 성별 자녀양육관의 변화 추이(2005~2015)	282
[그림 6-4] 연도 및 성별 자녀양육태도의 변화 추이(2010~2015)	287
[그림 6-5] 연도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 변화 추이(1998~2017)	308
[그림 7-1] 가족가치관 잠재집단의 문항별 조건부 동의확률 분포	352
[그림 7-2] 4개 잠재집단비중의 변화: 2006년과 2016년의 비교	354



Abstract

Family Changes in Kore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Project Head: Park, Jongseo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Korean families since the end of the 1990s,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While Korea as a society has taken steps toward diversity, Korean families have not made much progress in that direction. The nuclear family is still the main form of families, with its proportion decreasing and diversity expanding. However, although some late-modern elements are observed in the expansion of diversity, early-modern features still persist or deepen. In the past 30 years, there has been little improvement in gender equality in family care and the labor market.

Having emerged in the system of developmental state, familism remains strong as a family support system. As policies and systems advanced, the dependence on public services for caring and child rearing increased, but the time and cost burden on the family did not reduce. Although the supply of services has expanded, the roles and functions required of the family

Co-Researchers: Kim, yukyeng, Byoun, Soo-Jung, Cho, Sung-Ho, Choi, Sun-Young, Kim, Ju-Hyun, No, Hyen Ju, Yeom, Ah-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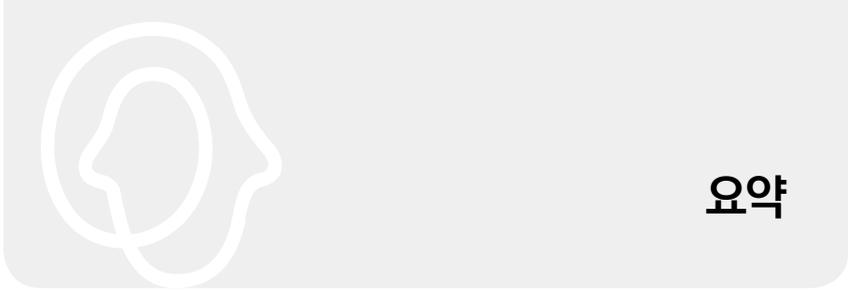
2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have not changed as the structure of Korean society as a whole remained unchanged.

Family changes in the future will go further. This is because society will continue to change amid rapid technological change and globalization, and it is not yet clear in which direction the new generation that makes up the family will move. Families will continue to change in the future. This requires flexible policies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Otherwise, there will emerge that can Otherwise, there will emerge many incidents of inconsistency between policy and the reality.

For the socialization of care, more proactive system improvement is needed.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further emphasized.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fami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ender-balanced system in working hours and child care hours. Final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marriage and childbirth as a way to help individuals in their early stages of family formation to improve their living conditions.

*Key words: family change, family diversity, gender relations,
family care, family polic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기존의 한국 가족변동의 연구사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을 고려하여, 1990년대 말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과 특성을 진단하고 미래 가족의 변화 전망과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족 변화를 인구학적 변화, 경제활동 변화, 부양기능의 변화, 관계의 변화, 문화의 변화라는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세대관계와 젠더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가족 변동의 특성을 밝히고 가족 변동의 정책적 함의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준거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모습을 다차원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우리는 가족의 다양성이 앞으로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가족변화는 규모의 축소, 핵가족화 및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가족의 단순화 특성을 보였다. 여전히 핵가족이 중심적 가족형태에 해당했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형태상으로 다양성은 확장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가족의 형태는 하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개인과 가족의 경계가 훨씬 더 가변적이 될 것이다.

가족의 변화는 정책적, 제도적으로 더 유연한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변화와 정책이나 제도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다. 제반 사회정책과 제도가 가족의 근대적 전형을 근거로 만들어 졌다면 이제는 유연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 가지 형태

4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의 가족을 전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중단기적으로, 적어도 향후 10년 이내에 사회정책과 제도가 가족을 단위로 하기보다는 개인을 전제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노부모 부양의식이 가부장적 부양관에서 점차 자기 부양 또는 공적부양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득계층 특성에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돌봄보다 외부 공적 서비스의 돌봄 기제가 두드러진다.

아동 양육 분야에서, 돌봄 주체가 가족 내에서 가족 밖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아동 돌봄 시간의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돌봄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이라도 학습을 돕거나 관리해야 할 양육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의미한다.

돌봄 영역에서 공적 서비스의 확대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탈가족화의 기초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노부모 돌봄의 주돌봄 주체와 영아기 아동돌봄이 아직도 가족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향후 노인 돌봄에서 정부가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가 탈가족화와 이용자의 욕구를 더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및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발표된 양육수당을 신설하여 현금지원을 확대한 것이 영아기 가족돌봄을 고착화해서는 안 된다. 기관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여, 아동 돌봄의 탈가족화 기초는 지속되어야 한다.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더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젠더관계의 변화과정을 고찰한 결과, 평등주의적 변화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념적 차원에서 성평등주의 또는 반차등주의는 가족의식의 면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상호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내 노인돌봄의 주담당자는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며느리의 돌봄이 감소했지만 또 다른 여성으로 돌봄의 책임이 이동하였다.

아동 양육 영역에서 영아기에 서비스를 활용한 것은 여성인 경우가 더욱 빈번하였고, 여성과 남성의 양육 시간 활용 결과를 보더라도 가정 내 남아있는 양육을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여성과 남성의 양육 할애 시간이 모두 증가했지만, 여성의 증가 폭이 남성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더욱 중요하게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양상이 계층에 따라 그 의미와 성과가 이질적인데, 그 어떤 것도 충분히 젠더 평등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소득계층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고소득 계층의 맞벌이 비중 증가 추세가 유독 두드러진다.

정책적으로 노동시장 성평등 기조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직장에서 경력관리의 성평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 아동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과 돌봄 시간에서 젠더 균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형성기의 세대효과이다. 혼인과 출산 행태에서 이와 같은 세대효과가 두드러지고 있고 향후에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으로 진입하지 않거나 늦추는 경향이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점차 강화되고, 출산의 시기와 자녀 수를 조정하면서 근대적 전형의 생애경로에서 벗어나는 추세가 확인된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 가족 형성 초기에 개인 및 가족의 생활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족형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한 영역으로 고용과 주거 안정을 들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국 가족의 변화는 다양성의 확장 속에서 그동안 추구했던 변화의 방향에서 의미 있는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다.

형태적 핵가족이 여전히 중심적 추세지만 그 비중은 감소하고 다양성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의 측면에서 후기근대적 요소가 일부 관찰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기근대적 양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가족 내 돌봄 영역과 노동시장에서 젠더관계의 불평등은 지난 30여년간 제한적인 진전만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의 부양 기능과 관련하여 개발국가 체제의 가족주의도 역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 제도가 발전하면서 돌봄과 양육의 공공서비스 의존도가 증가하였지만, 가족의 부담이 비용, 시간 등의 측면에서 크게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어도 사회가 구조적으로 재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변하지 않은 것이다.

미래의 가족 변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다. 사회는 더 빠른 기술변화와 세계화 속에서 변화를 거듭할 것이고 가족을 구성하는 새로운 세대는 어느 방향으로 변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의 가족은 다양성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며, 더욱 유연한 개인과 가족의 경계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용어: 가족 변동, 가족 다양성, 젠더관계, 가족 돌봄, 가족 정책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급격한 인구변동은 가족변동 및 사회변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혼인, 출산, 사망, 국내외 인구이동과 관련한 인구학적 지표가 사회현상을 함축하는 동시에 가족의 형성, 변화, 일상적 가족 생활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 및 이혼, 출생과 사망은 가족의 형성과 해체를 직접 의미하고, 가족 변화의 측면에서 가족의 규모와 형태에 또한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의 장기 지속, 출생아수 절대 규모의 급감, 비혼과 만혼화 현상,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집계수준에서 인구 변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족과 개인 차원에서는 미시적 행위 결정으로써 가족 변동의 한 측면들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인구변동의 맥락을 더욱 세밀히 이해하고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변동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가족변동 논의는 1960년대 이래 주로 핵가족 논의가 중심을 차지했다. 당시는 한국은 핵가족화되고 있는가? 한국의 핵가족은 어떤 핵가족인가와 같은 연구질문이 주요했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동안 한국에서도 근대적 전형으로 전제되었던 핵가족의 정상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성 1인생계부양자가 가족임금을 통해 전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어 진 것이다. 실제로 가족 안정성이 떨어지고 해체적 경향이 나타나면서 가족의 다양성이 더욱 진전되는 양상이었다. 이후 가족 연구 분야에서 가족 다양성 논의는 더욱 활발해 졌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말 이후 가족의 변화는 후기근대적

이론으로 적극적으로 설명되었다. 가족 변화는 근대화 이론에 따르면 단일한 형태로 수렴되어야 하지만, 이 시기 한국 가족의 현실은 그 경로를 벗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질서에 편입되면서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를 겪게 되고,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의 후기근대적 특징들이 표면화되어 갔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 변동을 설명하면서 페미니즘의 역할은 또한 지대했다. 가족이 세대관계라는 수직축과 젠더관계라는 수평축으로 직조된다고 할 때, 페미니즘 이론은 근본적으로 젠더 관계의 불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국 가족의 오랜 현실은 젠더 관계의 불형평성을 깊이 내재하고 있었고, 페미니즘의 문제 제기는 한국 가족의 문제에도 매우 적확하게 부합했다.

요컨대 한국 가족의 변동에 관한 연구의 맥락과 이론적 맥락에서, 1990년대 말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적이든 서구적이든 근대적 핵가족 이후의 다양성은 어떤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한 방향은 아닐 것이며, 변화의 양상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과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현대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 중에서 가족 변동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의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불평등의 문제이다. 가족변동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가족을 통하여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계층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신명호(2019)는 사회계층 간 학력자본의 격차와 양육 관행을 말하고 있다. 이런 연구 성과는 사실, 미국 사회의 가족과 계층의 관계를 연

구한 Annette Lareau(2012)의 <불평등한 어린시절>과 Robert D. Putnam(2017)의 <우리 아이들>과 정확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는 세대론과 관련이 있다. 최근의 청년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변동의 현실 분석과 미래전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대의 출현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적 국면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가족의 변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공유하는 특징적 '이념'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사회의 경쟁적 구조에서 형성되었다면(김홍중, 2015) 가족의 변동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 변동의 연구는 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가족(가구)은 많은 정책과 제도의 작동 단위로서, 가족의 급격한 변동은 제도의 안정성, 형평성, 정당성 등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가족의 구조, 기능 등의 변화는 미시적 차원에서 가족 지원 정책의 대상과 범위, 사회 보험의 부과 및 급여 지급 기준 등과 관련되며,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주체 간의 책임 분담 방식이나, 복지체제 구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한국 가족변동의 연구사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을 고려하여, 1990년대 말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과 특성을 진단하고 미래 가족의 변화 전망과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족 변화를 인구학적 변화, 경제활동 변화, 부양기능의 변화, 관계의 변화, 문화의 변화라는 5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세대관계와 젠더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가족 변동의 특성을 밝히고 가족 변동의 정책적 함의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준거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모습을 다차원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가족변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제2장에서 기존연구 동향과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기존 연구의 맥락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틀에서 한국 가족변동을 다섯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측면은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 가족의 경제활동 변화, 가족 부양기능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가족 문화의 변화이다.

우선 제3장에서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를 분석한다. 인구학적 변화는 가족의 규모와 형태 변화, 혼인 및 출산 행태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인구학적 변화에서 시기에 따른 변화의 특성과 출생코호트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는지 주목하여 관찰할 것이다. 제4장은 가족의 경제활동 변화를 분석한다. 경제활동의 변화에서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에 초점을 둘 것이며,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와 출생코호트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둘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와 함께 생계부양자 모델의 변화에서 유의미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변화가 가족의 변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제5장은 가족의 부양 기능의 변화를 고찰한다. 부양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데, 첫째는 노부모 돌봄과 부양의 변화이며 또 다른 한 측면은 아동 양육의 변화가 될 것이다. 부양 기능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연령 집단에 따른 차이, 가능한 경우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제6장은 가족 관계의 변화를 분석한다.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의

변화, 부모와 미성년자 관계의 변화, 그리고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의 변화 측면에서 고찰한다. 가족관계에서 전통적 관계가 유지되는지 또는 전통적 관계를 벗어나는 특징이 관찰되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제7장은 가족문화의 변화를 고찰한다. 특히 일상적 가족개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200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문화적 지형이 어떠한지, 개인의 복합적 가치관과 가족의식의 변화는 어떠한지 추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의미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본론 분석 결과를 제8장에서 종합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미래 전망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미래의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나타내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적용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문헌 고찰을 통하여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론적 논의를 설명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가족 변화는 양적자료의 시계열 변화가 중요하다. 각 주제별로 활용 가능한 양적 자료를 최대한 시계열로 정리하여 변화의 추세를 관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하여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 출생과 혼인 관련 인구동태조사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된다. 그리고 통계청 조사 자료에서 확인이 어려운 지표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보완적으로 사

14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용할 것이다. 경제활동 변화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한다. 가족부양기능 변화 분석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와 성균관대학교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통계청의 ‘사회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아동양육 실태 분석에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가족관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자료와 ‘사회조사’ 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가족 문화 변화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가족 문화 분석을 위해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연령과 성별을 반영하여 5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2개의 참조집단을 구성하였다. 질문은 가족의 의미와 범위, 가족 조직의 성격, 개인과 가족의 관계라는 세 개의 주제로 구분하고 각 주제별로 하위 질문을 구성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각 연구 주제별로 분석에 적용한 방법론과 자료는 해당 장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1절 기존 연구의 쟁점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분석틀과 연구 질문



제 2 장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1절 기존 연구의 쟁점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족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 볼 수 있으며, 초기 연구는 주로 최재석(1983)과 같이 가족제도사적 관점에서, 가족의 구조와 기능, 크기와 유형, 가족 구성원의 범위와 가족 주기를 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함인희, 2014, p.8). 이후 연구 분야와 주제는 가족의 형태적 특징의 다양성, 핵가족의 변화양성, 페미니즘 관점에서 젠더 관계, 가족의 물적 기반의 변화, 가족 정상성의 위기 또는 해체, (제도적)가족주의와 정책적 영역의 확대, 가족의 후기근대성 등으로 확장되어 왔다. 여기서는 가족의 변동 관점에서 주요 논의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1. 한국의 핵가족화

우선 기존 연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한국의 핵가족화에 대한 것이었다. 1960년대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가족형태는 좀 더 산업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변했다. 직업과 교육을 위해 도시를 향한 이동이 증가했고, 이동의 편의를 위해 대가족 또는 확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산업화 시기부터 시작한 산아제한 정책은 인구뿐만 아니라 가족의 수를 줄이는데도 기여했다(한국산업사회학회, 1998, p.130). 대체로 산업화나 도시화가 더욱 고도화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족의 관념이나 실질적인 관계의 범위가 핵가족에 더욱 유사해졌고, 결혼은 가

족 간의 결합이기 보다는 개인 간의 선택 문제로 점차 변화했다(김동춘, 2020, p.96). 전통적 부계가족의 가치가 핵가족의 근대적 요소에 의해 약화되고 대체되는 변화가 진행되었다(이재경, 2015, p.284).

일반론적 차원에서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산업화를 계기로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대 전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핵가족 보편론은 근대이후 핵가족이 새롭게 보편화 되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런 주장은 서구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서구 사회학자들은 전통시대에 서유럽의 중심적 가족형태는 확대가족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가족사 연구가 발전하면서 사실상 부모와 의존적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오랜 시간 중심적 가족 형태였음이 드러났다(Giddens & Sutton, 2014, p.414).

한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진행되었다. 조선 후기에 부계 중심성이 강화 되었어도 직계가족보다 핵가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최재석, 1983). 이미 조선시대에 소가족 또는 핵가족이 중심적이었으며 따라서 산업화가 핵가족화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조정문, 장상희, 2001, p.86; 김혜경, 2014, p.103). 다만 1970년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이념적으로 친족과 가족제도에서 독립적인 낭만적 사랑과 부부중심 결혼이란 이념이 규범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연애결혼이 확산되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3세대 가족 '이상'을 본격적으로 대체했다는 것이다(김혜경, 2014, p.108).

반면, 한국사회의 직계가족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핵가족화 경향에 반론도 제기되었다. 인구학적인 핵가족화 해석이나 가족형태 분류의 한계를 주장하는 연구가 있었고(장현섭, 1993), 장남의 분가현상을 핵가족 분화가 아닌, 임시적인 "분거"로 해석하기도 했다(안호용, 1991).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농촌 가족은 형태상으로는 핵가

족이었으나 관계의 측면에서는 친족, 씨족, 마을 공동체와 여전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형태상으로는 핵가족이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실제 관념적인 ‘집’의 범위는 여전히 형태상의 가족과 일치하지는 않는 친족이나 씨족 집단에 가까운 것이었다(김동춘, 2020, p.95). 또한 가족을 기본적인 생산조직으로 볼 때, 부부관계와 세대관계에서 친족으로부터 사회경제적 독립을 중시하는 핵가족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족생산체계에서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친족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의존관계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장경섭, 2009, p.55). 따라서 산업화시기에 형성된 한국의 핵가족화가 완전한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화, 도시화, 가족계획사업이 가족 변화에 영향을 미쳐 규모 측면에서 소가족화 추세를 따랐지만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대가족 체제가 지속되어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측면이 있었다(이재경, 2015, p.287).

이런 측면이 한국의 핵가족화가 서구의 그것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남성중심성은 그 뿌리가 이미 전통사회에서 비롯되었으며, 일부는 최근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력한 남성중심적 가부장제가 확산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로 본다. 조선 후기 주자의 성리학이 지배 질서가 되고, 장자를 통한 가계계승이 생활원리로 확산되면서 가부장제가 강화되었다(최재석, 1983; 이이효재, 2003; 이여봉, 2006, p.319).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호주에게 강력한 가족지배권과 법적 대표권을 부여하는 비민주적인 호주제도가 법제화되면서 전통적인 호주제가 더 강화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1958년 신민법은 가족제도의 근대화를 표방하였지만 여전히 제국주의 강점기 하의 호주 중심제도를 유지하였다. 적어도 2008년 호주제도가 폐지되기까지 법령상의 가부장제는 유지되고 있었다(양현아, 2012; 김혜경, 2014, pp.104-106; 김동춘, 2020, p.96).

지금도 여전히 핵가족화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핵가족화 여부가 아니라, 한국 핵가족화의 특수성이 무엇인 가일 것이다. 장경섭(2009)은 한국의 핵가족화를 ‘불균형 핵가족화’로 규정한다. 한국사회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구학적·물질적·심리적 측면의 핵가족화가 서로 불균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불균형 핵가족화’는 개개인들의 문제점에서 연유했다고보다는 주로 한국적 자본주의 사회변동의 거시적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불균형이 가족의 사회 부양 혹은 사회재생산 기능의 위기를 가져오게 했다고 설명한다(장경섭, 2009, p.51). 전체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핵가족화는 매우 불균형적인 것이었다(장경섭, 2009, p.320). 그리고 반복되는 경제불안과 부동산 등의 물가폭등, 최근 들어 특히 심각해진 고용불안과 빈부격차 그리고 여전히 제한적인 사회보장제도 등이 물질적으로 안정된 핵가족화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장경섭, 2009, p.230).

김동춘(2020)은 한국의 핵가족화를 ‘강요된 핵가족’이자 ‘수정 확대가족’으로 설명한다. 한국의 경우 농촌의 자족 경제가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가 외생적으로 주입되었고, 식민지 국가가 호주제라는 변형된 전통가족과 제한적 근대가족을 강요했으며, 한국전쟁과 국가주도의 산업화가 핵가족화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강요된 근대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형태상의 핵가족은 과거 유럽과 같은 개인주의를 수반하지 않았다(김동춘, 2020, p.97). 그리고 ‘관계의 질’ 측면에서, 부부중심, 사생활 중시, 개인주의, 자녀의 독립성 등을 수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형태상의 핵가족이 일반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 가족은 나름대로의 특성 즉 ‘수정확대가족’의 성격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김동춘, 2020, p.269) 이런 맥락에서 196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가족은 전통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서구적인 것도 아니었다(김동춘, 2020, p.97). 결국, 산업화가 정점에 이르고 '2차 근대' 단계로 진입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사회의 '전형적' 가족 모델은 무너졌다. 탈산업사회 노동시장 유연화, 대량의 실업 등으로 그나마 공공복지도 취약한 조건에서 핵가족의 물질적 기반이 와해되며 가족주의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한다(김동춘, 2020, p.269).

요컨대, 한국의 핵가족화는 형태상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1980년대 중반 경에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성 상 서구적 근대의 전형 또는 이론적으로 일반화된 산업화의 전형을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매우 강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 관계의 속성 측면에서 서구와 다른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물질적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가족의 변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 정상 가족의 위기와 다양성의 확장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가족이 형태상으로 핵가족화 되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핵가족적 특성이 심각하게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체로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김동춘, 2020; 이재경, 2015; 김혜경, 2014; 장경섭, 2011).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족 변화는 우선 형태적으로 더 다양해졌으며, 속성상 근대적 정상가족 규범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큰 방향 전환은 무엇보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가족생활의 급격한 변화와 정책적 대응에 대한 많은 사회적·정책적 담론이 확산되었는데, 외환위기를 계기

로 가족의 거의 모든 면이 변했기 때문이었다(이재경, 2015, p.284). 실제로 외환위기는 가족의 변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질적 변화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IMF 외환위기는 가족의 물질적 조건을 악화시켰고, 여기서 많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확산되기 시작한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사회 변화, 기업의 구조조정 확대와 고용 불안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남성생계부양자의 위기가 표면화되었으며(황정미, 2014, p.44), 1990년대 초 사회적으로 확산되던 개인화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외환위기로 인해 갑자기 침체된 측면도 있었다(김혜경, 2014, p.111).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외환위기는 그동안 공고한 것으로 인식되고 주장되었던 한국적 핵가족의 형태와 속성을 악화시키고 이전과 다른 변화의 국면을 진전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가족의 정상성에 대한 물음과 다양성의 포용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났으며, 다양한 형태를 띤 가족들(families)이 증가하여 정상가족 규범에 도전하고 있었다(이재경, 2015, p.284). 정상가족 규범은 특정 형태의 가족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이와 다른 유형의 가족들과 위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가족 다양성 담론은 가족생활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만들지 않고 다른 형태의 가족들을 제도적으로 동등하게 바라보는 입장으로, 1994년 UN이 정한 가족의 해 이후 가족 정상성(normality)의 대항담론으로 가족 다양성(diversity) 담론이 확산되었다(이재경, 2015, p.286).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한 만혼화 현상과 이혼으로 나타난 결혼 지속성의 약화를 예로 들 수 있다(이재경, 2015, p.292). 혼인율의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규범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혼 증가는 계부모와 부모가 다른 자녀가 결합하는 복합가족(complex)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순혈주의 전통을 가진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금기시되었지만, 점차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처럼 다양한 결혼 양상은 가족 형성의 경로가 과거보다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이재경, 2015, p.294).

외환위기 이후의 가족 변화는 결국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강력하게 자리 잡은 이른바 ‘정상가족’ 모델의 해체를 보여준다. 1960~70년대 ‘정상가족’의 이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4인 가족의 이념형(ideal type)이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에 뿌리내렸고, 이 과정은 혼인과 출산 등 개인의 생애주기를 표준화하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전개 과정이었다(박복순 등, 2020, p.26). 이와 같은 가족의 정상성이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점차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변화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다양성의 확장 추세와 재생산위기의 연관성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대체로 세대를 막론하고 사회재생산의 가족중심주의는 여전히 강고해서, 청년층 대다수가 혼인 및 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가 이러한 가족중심적 사회재생산의 물적 조건을 약화시켜 대다수 청년 남녀가 위험회피(risk aversion)적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갖게 된 것이다(장경섭, 2011, p.80). 따라서 ‘저출산 쇼크’와 같은 사회재생산 위기 이후 가족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이재경, 2015, p.286).

이론적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가족변화를 후기 근대로 관점에서 다원화 또는 다양성의 확장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런 변화를 둘러싸고 해체적 위기로 보느냐, 재구성 또는 재구조화로 보느냐 하

는 논쟁이 핵가족화 또는 다원화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로 논의되었지만 (김혜경, 2014, p.111; 함인희, 2014, p.21), 일반적으로 다양성의 확장으로 보는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경(2015)에 따르면, 기능주의적 논의에서는 후기 근대적 가족의 변화를 ‘가족해체(family breakdown)’, ‘가족쇠퇴(family decline)’, ‘결손가족(broken family)’, ‘위기의 가족(family in crisis)’ 등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가족변화를 다양성의 확대로 보는 논의들은 하나의 가족 개념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확장했다. 다양성 담론은 결손가족이나 가족 해체로 진단하며 비정상 가족으로 범주화하였던 가족들을 일탈로 보거나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의 이름으로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재경, 2015, p.288).

김동춘(2020)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2차 근대’ 혹은 후기근대 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그 이후 가족의 형태는 급격히 변하였으며 핵가족 이데올로기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독신가구의 증대와 부부와 자녀중심 핵가족 비중의 축소, 다양한 형태의 가족 등장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한부모 가족, 동성 가족, 동거가족, 공동체 가족 등 신가족 혹은 대안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김동춘, 2020, p.267). 김혜경(2014)도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근대와 후기근대를 압축적으로 통과하면서 도시화, 산업화,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 사회문화적 가치변동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본다(김혜경, 2014, p. 109).

실제로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가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후기 근대론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론적 설명으로 더욱 풍부해졌다. 사랑과 결혼을 주제로 한 연구는 특히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하였는데, 1960-70년대 초반 제도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던 연구 경향과

는 대비된다(함인희, 2014, p.10).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가족에 대한 이론이 주로 구조기능론적 관점에 집중되었다면, 1980년대 중후반 이후로부터 1990년대 중반의 약 십년간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적 가족이론, 해체주의적 포스트모던 가족이론, 페미니즘적 시각과 결합한 가족담론 등이 왕성하게 논의되었다(김혜경, 2014, p.110). 또한 1987년 이후 민주화체제 속에서 개인(주의)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사랑과 성, 자아정체성에 대한 논의 공간도 형성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국내에 소개된 기든스와 벡·벡-게른샤임의 대표 저작과 함께 탈근대라는 맥락에서 친밀성의 변화를 사유하도록 가족연구의 시각을 확장시켰다(김혜경, 2014, pp.110-111).

가족 다양성 논의는 최근에 새로운 논의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의 가족 다양성 논의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가족 다양성 논의가 전형적 가족개념이 유지된 상태에서 형태적인 다양성들을 계속 추가해 가는 논리구조를 갖는 문제가 있다거나(김혜경, 2019, p. 222). 다양성 관점은 상이한 형태의 가족을 정상가족을 기준으로 한 변이(variant) 현상으로 간주하는 한계를 가지며, 개인의 삶과 가족생활의 차이를 수평적으로 목록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재경, 2015, p.286). 문소정(2008)은 한국 가족 변화가 지닌 계층적 차이가 다양화 개념에서 무차별적이거나 다원적 의미의 다양성으로 이해됨으로써 가족의 다양성이 내포하고 있는 계급적 차이의 위계적 성격, 차별적 성격을 가리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문소정, 2008, p.99).

가족 다양성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는 이후 대안적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재경(2015)은 대안적 개념으로 가족 유연성(flexibility)을 제안하는데, 개인들은 생애과정에서 다양한 가족생활을 경험하면서 가족의 경계나 범위를 유연화하는 가족 형태의 탈표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

기 때문이다(이재경, 2015, p.305).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김혜경(2019)은 '가족'이라는 용어가 갖는 고정된 의미를 전제하지 않고, 개별 행위자들의 동기와 전략의 수행 결과 후차적으로 발생하는 가족 개념으로 가족에 대한 접근 방법을 바꾸는 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혜경, 2019, p.222).

현 시점에서 미래의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장은 이론적 논거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은 논의는 계속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3. 젠더 관계의 변화

젠더 관계에 대한 관심은 곧 가부장제도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의미하며, 페미니즘을 통하여 이런 논의가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서구 페미니즘이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면서 가족사회학 분야에서도 비판적 관점이 부각되었다. 이를 통하여 기능주의적 시각 및 온정적 요소에서 벗어나 젠더 정치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함인희, 2014, p.15). 이와 같은 초기의 진전은 대략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의 약 십년간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김혜경, 2014, p.110).

그렇다면 한국 가족 변동의 관점에서 젠더관계는 실제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젠더관계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가족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었다.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된 영역이 가족관계이며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일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연구의 초점이 변화하였

다는 점인데, 1970년대는 제도 중심의 관점에서 부부간의 역할 분업구조에 초점을 두었다면, 1980년대 후반부터는 부부간의 권력관계, 적응 및 커뮤니케이션, 부부간의 만족도, 부부관계의 질, 안정성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관심의 폭이 점차 다양화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부부관계가 부부간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institutional) 결혼'에서 부부관계의 친밀성이 중심이 되는 '우애(companionship) 결혼'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대체로 부부간의 권력관계는 '남편 우위형'에서 '부부 평등형'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함인희, 2014, p.11).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적 핵가족이 형태상으로 형성되었고, 이념적 차원에서 부부중심적 가족 문화가 형성되면서 연구의 관심 또한 부부관계의 다양성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부부관계가 전면적 차원에서 평등한 부부 관계로 전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대체로 평등 지향성을 향해 점차 변해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젠더 관계의 변화에서 부부관계의 변화가 가족 내 변화라면, 가족 내외적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연계된 부분은 노동시장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젠더 구조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가족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의 규범적·제도적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재경, 2015, p.301). 그만큼 젠더관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족의 변화 중 젠더관계의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근대적 성별 분업이 약화되고,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맞벌이 가구가 증가했다는 사실이다(이재경, 2015, p.295). 전통적으로 젠더관계는 근대적 성별분업에 기초해 있었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에 기초하여 가족 내의 보살핌노동이 화폐소득을 벌어들이는 공적노동과 대비되는 사적노동으로 규정되었고, 여기서 핵심은 집 안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보

살핌노동이 여성에 의해 전담된 것이다(배은경, 2009, p.47). 20세기에 들어 세계적으로 대량생산체제에서 여성노동력이 필요했고 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태도도 달라졌지만, 20세기 중반까지 기혼여성의 취업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강이수, 2009, p.55).

그러나 점차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여성 고용률 증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산업구조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경제의 전반적인 서비스화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탈산업화가 진행되었고, 남성 가장 중심의 전통적인 제조업 고용에 변화가 일어났다. 즉 서비스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여성들이 서비스업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이덕재, 2018, p.25-27). 탈산업화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노동시장 이중화가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우명숙, 2019, p.61).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이전의 젠더관계에 점차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대졸 여성 증가, 성평등의식 확산, 여성운동 진전, 다양한 차별금지 법제 마련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들에게 공적노동참여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전까지는 남성 1인생계부양자 모델이 여전히 삶의 기준으로 여겨졌다(배은경, 2009, p.64).

그러나 젠더관계의 변화조짐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남성1인생계부양자 모델이 급격히 약화되었다(배은경, 2009, p.66). 1990년대 말 이후 기혼가구에서

맞벌이 증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 산업화 등의 노동시장 변화와 맞물리면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본격화된 것이다(윤자영, 2012; 신경아, 2014b, 김수정, 2015, p.148). 신경아(2014b)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2배로 커졌고, 남성 가구주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물론 여전히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의 비중이 크고 취업한 여성배우자의 근로소득 기여도도 낮은 것은 사실이었다(신경아, 2014b, p170).

한국의 맞벌이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바로 불평등의 재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최선영과 장경섭(2012)은 1930년대 출생 코호트부터 1950년대 출생 코호트까지 남녀노동생애 관계를 검토하고, 한국의 맞벌이는 여성의 자율성 확대나 개인성 추구보다는 남성의 직업 불안정성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최선영, 장경섭, 2012). 김수정(2015)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의 한국의 맞벌이화는 여성의 생애주기의 영향력이 강하고 젊은 코호트의 참여가 낮으며 계층효과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맞벌이가구는 증가했지만 여성이 독자적인 노동경력을 형성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의 맞벌이화는 절반의 실패 속에 진행되었다고 설명한다(김수정, 2015, p.174).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젠더관계의 재편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4. 정책 영역의 확장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안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던 한국 가족의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혼가족, 한부모 가족, 기러기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된다. 학계의 일부 연구자는 이런 현상을 가족의 해체로 보기도 하였으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가족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가족위기와 가족담론의 정책화 경향은 2000년대 초반 이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다양성’,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확산되면서 급변하는 가족의 정책적 논의가 확산된 것도 이 시기였다(김혜경, 2019, p.220; 이재경, 2015, p.284; 함인희, 2014, p.10).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한국 근대화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정책에 의한 사회보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구성원들은 더욱 가족에게 의존하였다는 것이다(황정미, 2014, p.39). 한국의 국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공적인 과업을 사적 가족에게 거의 대부분 전가하였고, 그 결과 경제개발의 성공 이면에서 사회재생산의 심각한 위기가 누적되어 왔다는 것이다(황정미, 2014, p.44). 장경섭(2009)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구학적·물질적·심리적 측면의 핵가족화가 서로 불균형적으로 일어나 가족의 사회재생산 기능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불균형 핵가족화’는 가족을 구성하는 성원 개개인들의 문제점에서 연유한다기보다는 한국적 자본주의 사회변동의 거시적 문제점들을 더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장경섭, 2009, p.51).

이러한 위험들은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분출된 것이었다(황정미, 2014, p.45). 실업의 급격한 증가와 빈곤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와 일과 가족의 양립이 더욱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보육정책과 출산전 후휴가 및 육아휴가정책을 추진하게 된다(이미화, 2014, p.582). 또한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준비되기 시

작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전반적인 사회 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정책적 영역의 확장 속에서, 이삼식, 최효진, 윤희식(2015)의 연구는 가구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가구 유형을 재분류하고, 가구구성 변화 추이를 전망, 유형별 특성 및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다. 장혜경 등(2014) 연구는 2030년의 가족의 미래와 소득보장정책, 자녀/노인 돌봄 정책, 가족법 정비과제의 세 영역에서 2030년을 향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가족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기보다, 미래가족을 예측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유경, 진미정, 송유진, 김가희(2013) 연구는 가구 및 가족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변화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정경희 등(2012)의 연구는 1인 가구에 초점을 두어 한국 가족구조 변화를 고찰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김승권 등(2000) 연구는 한국 가족 변화의 원인, 변화 양상, 21세기 가족 변화의 전망과 정책적 대응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근대적 가족의 특성

서구에서 근대적 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19세기 중반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들어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전역의 중산층과 상류층 사이에서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결혼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는 상

이 그려지게 된다(Coontz, 2009, p.281). 20세기 중반 특히 1950년대는 서구 역사에서 결혼의 황금기로 표현되며, 1960년대에 결혼은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에서 전 인구의 95%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은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Coontz, 2009, p.390).

이 시기를 거치면서 서구의 가족은 안정적으로 보였고, 구조기능론적 가족관이 형성되는데 기여했다. 파슨스를 대표로 하는 구조기능론적 입장에서 가족은 항상 지속될 수 있는 사회제도로서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분업을 기능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한국산업사회학회, 1998, p.180). 가족은 사회질서를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핵가족이 현대 사회에서 구체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규정된다. 산업화가 진척되고 직장가 가족이 분화되고, 경제적 생산 단위로서의 가족은 약화되는 반면 자녀 출산, 양육과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능은 강조된다(Giddens & Sutton, 2014, p.452). 또 한편에서 낭만적 사랑과 친밀성이 강조된다. 여기서 낭만적 사랑은 가정을 창조하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가 보호와 친밀함으로 변하고, 모성의 발명과 연계된다(Giddens, 2001, p.81).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자들은 핵가족을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생물학적 요소(성·임신·출산·질병 등)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사회제도이며 통시적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재경, 2003, p.20). 이후 1960년대 말부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전前산업사회의 가족구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파슨스 이론은 큰 비판을 받게 된다(조정문, 장상희, 2001, p.84).

가족의 근대성에 대한 반론은 페미니즘 이론과 후기 근대론에 기반한 가족 연구의 중심이 된다. 여기서 논쟁이 되는 가족의 근대성은 몇 가지로 수렴된다. 예를 들어 아동 지위의 향상, 자애롭고 집중적인 모성

(mothering)의 창안, 가족을 단위로 한 사생활권(privacy)의 발견, 가정 중심성(domesticity) 등을 통하여 애정과 친밀성의 측면에서 독특한 중요성을 가진 우애적 가족(companionate family)이라는 인식이다(이재경, 2003, p.32).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아래에서 가족을 사적 영역으로 밀어내고, 다시 남녀의 역할 구분에서 여성이 가족의 영역으로 위계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이다(이재경, 2003; 김연숙, 2007).

가족의 근대성이 이데올로기화된 점은 어쩌면 더 중요한 비판의 지점이 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논의에서 이데올로기와 실제의 생활 방식을 명백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Gittins, 1997). 실제로 어머니의 사랑(모성성)은 그 어떤 감정이나 행위와도 맞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이상화된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이상화는 모성의 현대적 구성에서 한 축을 형성하였고,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활동과 감성에서 ‘두개의 성’ 모델을 강화했다는 것이다(Giddens, 2001). 핵가족 이데올로기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가족을 둘러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로서 가족의 영향력과 지속성은 그것이 특정 계급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 경험이라는 외양을 취하는데(Gittins, 1997, p.230), 가족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에게 가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의 진정한 본질을 볼 수 있게 되고, 가족을 둘러싼 현실의 문제가 개인이나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Gittins, 1997, p.243). ‘정상 가족’을 둘러싼 고정관념을 그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가족의 정상성에 대한 견고한 기준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비정

상적이거나 부족한 결혼상황 그래서 부끄러운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기 때문이다(함인희, 2014, p.6).

가족은 역사성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다른 시대와 다른 사회를 초월하는 보편적 형태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에 대한 근대적 논의는 이런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근대가 보편적이고 정상적이라고 가정했던 내용들은 후기근대이론과 페미니즘에 의해서 비판 또는 극복되고 있다.

2. 후기 근대적 가족의 특성

후기 근대적 가족 특성에 대한 논의는 근대 가족의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본격화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사랑을 기반으로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형태와 산업사회의 요구가 서로 부합한다고 생각했고,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전통사회의 다양한 결혼 형태와 가족 형태를 벗어나 근대적 가족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았다. 가족에 대한 근대적 이념형은 생각보다 단기간에 약화되었고, 1968혁명의 흐름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은 강화되었다(Coontz, 2009). 대체로 유럽에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 격렬한 사회운동의 시대에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반론이 진행되었다(신경아, 2014a, p.156).

이론적으로 후기 근대적 맥락과 탈근대적 맥락은 분명히 다르지만, 근대성에 대한 성찰적 맥락은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가족 논의에서 가족의 근대적 전형성에 대한 재검토의 관점이 그러할 것이다. 그것은 가족 생활의 다양성에 출발한다. 가족의 근대화론에 따르면, 사회는 핵가족이든 확대가족이든 단일한 형태의 가족생활이 보편화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

리지 않았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확대가족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핵가족’도 오늘날 2%정도뿐이며,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되었던 여러 형태의 가족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a).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모델은 20세기의 마지막 30여년 동안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전역에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가치관, 결혼관련 법률 등의 변화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혼은 또한 도처에서 성 행동, 삶의 구조, 자녀양육의 양상을 결정하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Coontz, 2009, p.449).

탈근대론자들은 현대의 가족생활의 경향이 전통적 이론으로는 적절하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관찰되는 가족생활의 다양성과 변이는 기능론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며 현대를 넘어선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a, p.444). ‘정상’ 가족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오늘날 가족 형태와 가족의 구성에는 더 큰 다양성이 존재하며, 그동안의 표준 모델은 규범적 힘을 상실했다. 가족은 훨씬 깨지기 쉬워졌으며, 이동성과 유동성의 요구가 보편화될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Beck & Beck-Gernsheim, 2010, p.135). 후기 근대적 관점에서 이제 가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협상된 가족, 대안적 가족, 복수의 가족, 이혼 후의 새로운 타협들, 재혼, 또 한번의 이혼, 당신 아이와 내 아이와 우리 아이로 구성된 그리고 과거의 가족과 현재의 가족들로 구성된 새로운 집합을 의미하게 된다(Beck & Beck-Gernsheim, 1999, p.22).

후기 근대적 특징은 개인화테제와 연관된다. 개인화는 남성과 여성이 산업 사회가 제시한 삶의 방식 즉 핵가족이라는 삶의 방식에 따라 남녀에게 주어지던 성별 역할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노동시장과 이동성 때문에 자기만의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인간관계에 대한 책무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다(Beck & Beck-Gernsheim, 1999, p.30).

생애과정의 탈근대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생애과정의 탈근대화는 탈성별화와 계층화, 탈보편화의 과정을 의미한다. 여성의 생애과정이 성별에 따라 이원화된 근대적 생애과정을 벗어나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성이 약화되고 더 성평등한 관계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순미, 2013). 이전까지 표준적인 일대기는 선택의 일대기로 변형되는 것이다(Beck & Beck-Gernsheim, 1999, p.28)

후기 근대론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단일한 정상가족을 지지하는 기능주의적 논의에서는 후기 근대가족의 변화를 가족해체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다양성 담론은 결손가족이나 가족해체로 진단하며 비정상 가족으로 범주화 하였던 가족들을 일탈로 보거나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의 이름으로 포용할 수 있게 해준다(이재경, 2015, p.288).

3. 가족에 대한 페미니즘의 설명

가족에 대한 페미니즘의 접근은 근대적 가족 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며, 특히 정상가족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있다(이재경, 2015, p.298).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페미니즘은 가족이 조화로운 제도라고 설명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비판하였다. 예전의 가족 연구가 가족 구조, 핵가족과 확대가족 및 친인척 관계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페미니즘은 사적 영역의 여성 경험을 고찰하기 위해서 가족 내부와 가족원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가족관계에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 주제를 강조

해 왔으나 그중에서 세 가지 주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우선 가사노동 분업으로서 가구원 간에 일이 분담되는 문제, 둘째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문제, 그리고 돌봄 노동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Giddens & Sutton, 2014, pp.452-454).

또한 페미니즘 시각을 가진 연구자는 생물학적 요소에 기반한 자연적 제도라는 가족의 보편성, 성별분업의 생물학적 기능적 필요성, 사랑이 충만한 인식처인 사(私)적 가족은 경험적 현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myth)라고 본다. 특정한 가족 형태를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자연적이라고 보는 입장은 이념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가족은 역사적으로 변화했으며,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형태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경, 2003, p. 21).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가족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구분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족을 편안한 보금자리로 설명하지만, 여기서 여성의 가사노동과 희생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페미니즘 이론은 남성과 여성 간의 전통적 역할분담을 비판하고 여성의 희생과 억압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조정문, 장상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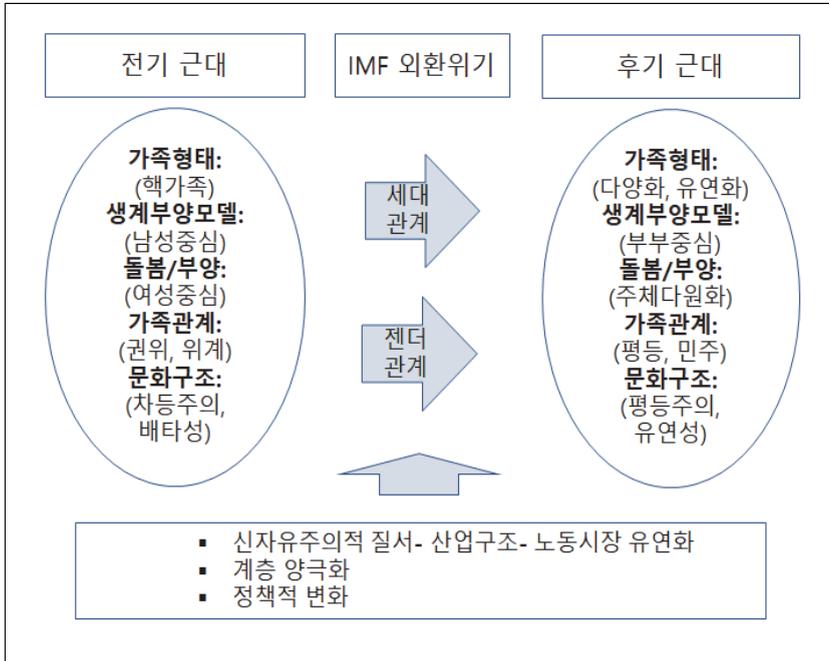
페미니스트들은 제도로서의 모성 또한 강제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경험으로서의 모성은 매우 다양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이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가졌다. 그들은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모성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일차적 양육자로 만드는 사회제도 때문이라고 본다(박혜경, 2014:127)

이렇게 페미니즘 연구와 이론화 작업은 제도로서 가족 그리고 실제 살아 움직이는 가족생활에 대해 더욱 현실적이며 균형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가족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심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의 문제제기가 온전히 그리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3절 분석틀과 연구 질문

이 연구의 목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의 맥락과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한국에서 근대화이후 지속되던 가족의 전형적 특징이 IMF 외환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한다. 이론적 전제는 한국 사회가 외환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전기 근대적 특징에서 후기 근대적 특징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특성도 전기 근대적 특성에서 후기 근대적 특성으로 변화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설정한다.

[그림 2-1] 개념적 분석틀



출처: 저자 작성

가족의 전기 근대적 특징으로 가족형태 및 속성이 한국적 핵가족성을 띠고 있다가 외환위기 이후 시기 동안 점차 다양화 또는 유연화되었을 것으로 가정한다. 경제활동의 측면과 관련하여 가족의 생계부양모델이 남성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전환하였을 수 있으며, 노부모 및 아동 돌봄에서 돌봄의 중심이 여성과 가족에서 돌봄주체의 다원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본다.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그 관계의 속성은 권위적 또는 위계적에서 평등적 또는 민주적으로 변화했을 것으로 본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차등주의와 배타성에서 평등주의와 유연성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족의 변동을 크게 5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각 주제 영역에서 변화의 과정과 주요 양상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다.

변화의 과정을 고찰할 때 연구 대상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변화의 기점을 IMF외환위기 전후로 설정하고, 이전 10년부터 이후 약 20년을 관찰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가정한다. 이상적인 가정인 이유는 가용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특히 양적 자료가 동일한 출처로 약 30년간 유지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인구통계의 경우 충분히 가능한 지표가 있는가 하면, 일반 사회조사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유지된 경우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양적 자료의 시계열 공백이 있을 경우, 다른 출처의 자료라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며, 양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해석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변화를 고찰하면서 두 가지 중심축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그것은 가족 구성의 수평·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세대관계 측면과 젠더 관계 측면을 의미한다. 각 주제별로 변화를 관찰하면서 세대관계의 변화와 젠더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가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연결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특성, 구조적 분절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노동시장 특성 변수를 주요하게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계층적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주요 분석에서 소득 계층에 따른 차이에 주목할 것이다. 가족의 변화에서 정책적 요인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 공적 서비스의 양적 질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의 부양기능 측면에서 이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분석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론적 전제들은 곧 연구 질문이 될 수 있다. 즉 첫째 질문은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핵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이행하는가이다. 특정한 한국적 핵가족이 형태적으로 또는 속성상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이 가족 변화의 중요한 단면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적 핵가족에서 다양성이 확장되는 분기점을 IMF 외환위기 시점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근대적 핵가족의 기반이 약화되고, 가족의 조직원리, 가족의 기능 등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형성의 방법으로써 결혼 및 출산은 지연되고 있는가 아니면 끝내 비선택될 것인가도 주요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후기 근대적 맥락으로, 서양에서 청년들이 결혼 및 가족을 제도로 인정하고 진입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면, 한국적 상황은 어떠한가? 서양에서 제도로써 결혼과 가족을 선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제도로써 결혼과 가족 밖에서 다른 방법으로 가족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Coontz, 2009).

둘째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족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젠더 관계의 관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은 어떻게 변화 하였는가 질문 할 수 있다. 가족이 정서적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가족의 경제활동 변화는 가족 변동의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경우 (초기)근대화 과정에서 가족의 변화가 가속화한 것은 결국 임노동화가 결정적이라 할 때,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시작된 여성의 본격적 노동시장 진출이후 가족은 세대관계와 젠더관계 양 측면에서, 그리고 가족 규모나 구성과 같은 구조적 측면과 돌봄과 사회화와 같은 기능적 측면에서 질적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질문이 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 부모세대 부양과 자녀세대 돌봄의 양태가 IMF 외환위기 전후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질문 할 수 있다. 기능적 측면은 특히 경제적 기반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전통적인 돌봄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됨에 따라 돌봄 주체의 변화를 주요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가족관계는 문화적 탈전통화 과정, 경제적 기반의 변화, 성역할과 생계부양자 모델의 변화에 따라 조용하면서 변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계의 속성이 전통적 권위와 수직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검토하고, 변화 양상을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가족의 조직 및 작동 원리로서 가족 문화는 한국적 핵가족의 형태와 속성 변화에 조용하여 어떻게 변화 하였는가 질문할 수 있다. 특히 일상적 가족 개념과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관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가족의 의미나 가족의 범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고, 그 특징이 차등주의적이거나 배타적인지 아니면 평등주의적이고 유연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주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여러 요인들은 현실적으로 상호 중첩 또는 연계되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구분

42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분석틀과 연구 질문은 개념적이고 이론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며, 본론의 실제 분석과정에서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제3장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

제1절 가족의 규모와 형태 변화

제2절 혼인 및 출산 행동 변화

제3절 소결



제 3 장 가족의 인구학적 변화

제1절 가족의 규모와 형태 변화

우리나라 가족 규모의 변화는 양적인 측면과 구성원의 특성 측면에서 추이를 진단할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가구 및 가구원 규모의 변화 추이를 보고자 한다. 구성원의 특성 측면에서는 세대구성과 가족유형의 변화, 그리고 가족형태의 다양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구규모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우리나라 가구규모의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에 11,355천가구에서 14,312천가구로 10년 간 2,957천가구가 증가하고, 26.04% 가구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대에는 10년 동안 3,027천가구가 증가하고, 21.15% 가구증가율을 보여서 절대적인 가구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가구증가율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큰 폭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대로 오면서 17,339천가구에서 20,350천가구로 증가하여 10년 간 3,011천가구가 증가하고, 17.36% 가구증가율을 보여서 절대적인 가구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가구증가율은 2000년대에 비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30년간 우리나라 가구규모는 79.22%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서 2010년대로 오면서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가족분거, 1~2인 가구증가 및 1세대 중심의 핵가족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46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표 3-1〉 연도별 가구수 및 가구 증가율 변화 추이(1990~2020)

(단위: 천가구,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가구수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19,111	20,350
가구 증가율	18.6	14.1	10.5	11.0	9.1	10.2	6.5

주: 1985년 일반가구수는 9,571천가구임.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우리나라 가족원의 규모는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추이로 측정된다. 평균 가구원수는 1990년대에 3.77명에서 3.12명으로 10년간 0.65명이 줄어들었고, 2000년대에는 3.12명에서 2.69명으로 동 기간 0.43명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대로 오면서 2.69명에서 2.40명으로 10년간 0.29명으로 줄어들어 2000년대보다 감소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30년간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1.37명이 줄어들었고 1990년대에서 2010년대로 오면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0년대에는 1~2인 가구는 10년간 22.8%에서 34.6%로 증가하였고, 3~4인 가구도 48.6%에서 52.0%로 증가한데 비해, 5인 가구는 28.6%에서 13.4%로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1~2인 가구는 동 기간 34.6%에서 48.5%로 증가하여 1990년대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높았고, 이에 비해 3~4인가구는 52.0%에서 43.8%로 감소하여 1990년대 증가추세에서 2000년대에 감소추세로 전환하였다. 5인 이상 가구는 13.4%에서 7.7%로 감소하여 1990년대보다 감소폭은 줄었으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0년대로 오면서 1~2인 가구는 10년간

48.5%에서 58.3%로 증가하여 2000년대에 비해 증가폭은 다소 둔화되었고, 3~4인 가구는 43.8%에서 36.8%로 감소하여 2000년대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인 이상 가구는 7.7%에서 4.9%로 감소하여 소폭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30년간 가구원 가구는 1~2인 가구는 2.6배 증가한데 비해, 3~4인가구와 5인 이상가구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평균 가구원수와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에서 나타나는 가구원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표 3-2〉 연도별 평균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가구 변화 추이(1990~2020)

(단위: 명, %)

구분	평균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1990	3.77	9.0	13.8	19.1	29.5	28.6	100.0
1995	3.40	12.7	16.9	20.3	31.7	18.4	100.0
2000	3.12	15.5	19.1	20.9	31.1	13.4	100.0
2005	2.88	20.0	22.2	20.9	27.0	9.9	100.0
2010	2.69	23.9	24.6	21.3	22.5	7.7	100.0
2015	2.53	27.3	26.1	21.5	18.8	6.3	100.0
2020	2.40	30.3	28.0	21.0	15.8	4.9	100.0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2. 세대구성 및 가족형태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

우리나라 세대별 가구구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에는 친족가구는 10년간 89.5%에서 83.3%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가구의 다수를 차지한데 비해, 1인가구는 9.0%에서 15.5%로 증가하였고, 비친족가구는 1.5%에서 1.1%로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친족가구 중

에서 1세대가구는 10.7%에서 14.2%로 소폭 증가하였고, 2세대가구는 66.3%에서 60.8%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절반을 상회하였으며, 3세대 이상 가구는 12.5%에서 8.3%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핵가족화로 세대별 가구구성은 다소 변화를 보여서 2000년대에 친족가구는 동기간 83.3%에서 74.9%로 감소하여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감소폭이 다소 높았다. 1인가구는 15.5%에서 23.9%로 증가하여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는 다소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비친족가구는 1990년대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친족가구 중에서 1세대가구는 증가한 반면, 2세대와 3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하여 1990년대와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대에 친족가구는 10년간 74.9%에서 68.0%로 감소하여 2000년대보다 2010년대에는 다소 둔화된 감소폭을 보였다. 1인가구는 23.9%에서 30.3%로 증가하여 2000년대보다 2010년대에 소폭의 증가를 보였고, 비친족가구는 1990년대 이후 비슷한 분포를 유지하였다. 친족가구 중에서 1세대가구는 증가한 반면, 2세대와 3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하여 2000년대와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30년간 친족가구는 21.5%p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3.4배 증가하였고, 비친족가구는 2% 미만 분포를 보였다. 친족가구 중에서 1세대가구는 7.7%p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2세대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9.2%p 감소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1인가구 증가와 세대별 분포 변화는 소가족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표 3-3〉 연도 및 세대구성별 변화 추이(1990~2020)

(단위: %)

구분	1인 가구	친족가구			비친족 가구	계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1990	9.0	10.7	66.3	12.5	1.5	100.0
1995	12.7	12.7	63.3	10.0	1.4	100.0
2000	15.5	14.2	60.8	8.3	1.1	100.0
2005	20.0	16.0	55.7	6.9	1.4	100.0
2010	23.9	17.1	51.6	6.2	1.2	100.0
2015	27.3	17.3	48.9	5.4	1.1	100.0
2020	30.3	18.4	45.2	4.4	1.7	100.0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우리나라 가족유형의 변화 추이를 보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에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형태는 10년간 68.0%에서 68.3%로 변화가 미미하나 3분의 2 분포를 보였고, 부부와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 등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확대가족형태는 12.5%에서 8.4%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1인가구는 9.0%에서 15.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혈연가구는 1.5%에서 1.1%로 미미한 분포를 보였고, 기타 가족유형은 9.0%에서 6.6%에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서 2000년대에 핵가족형태는 동 기간 68.3%에서 61.6%로 감소하여 1990년대에 소폭 증가에서 2000년대에 감소로 변화하였다. 확대가족은 8.4%에서 6.2%로 감소하여 1990년대와 유사한 변화를 보였고, 1인가구는 15.5%에서 23.9%로 증가하여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다소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비혈연가구는 1990년대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기타 가족유형은 6.6%에서 7.1%로 증가하여 1990년대에 감소에서 2000년대에 소폭이나 증가로 바뀌었다. 2010년대로 오면서 핵가족은 10년간 61.6%에서 55.6%로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50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에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확대가족은 6.2%에서 4.4%로 감소하여 2000년대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고, 1인가구는 23.9%에서 30.3%로 증가하여 2000년대보다 2010년대에 소폭 증가를 보였으며, 비혈연가구는 1990년대 이후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기타 가족유형은 7.1%에서 8.0%로 증가하여 2000년대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30년간 가족유형은 핵가족과 확대가족형태는 각각 12.4%p와 8.1%p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3.4배 증가 폭을 보였는데 이는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으로 1인가구 및 1~2세대 중심의 핵가족화 형태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표 3-4〉 연도 및 가족유형별 변화 추이(1990~2020)

(단위: %)

구분	핵가족	확대가족	1인 가구	비혈연가구	기타	계
1990	68.0	12.5	9.0	1.5	9.0	100.0
1995	68.6	10.0	12.7	1.4	7.4	100.0
2000	68.3	8.4	15.5	1.1	6.6	100.0
2005	65.0	7.0	20.0	1.4	6.6	100.0
2010	61.6	6.2	23.9	1.2	7.1	100.0
2015	58.6	5.5	27.3	1.1	7.6	100.0
2020	55.6	4.4	30.3	1.7	8.0	100.0

- 주: 1) 1990년 기타가구에는 기타 1세대가구, “부부, 양친”, “부부, 편부모”, “부부, 부부의형제자매”, 기타 2세대가구 포함
 2) 1995년 기타가구에는 기타 1세대가구, “부부, 양친”, “부부, 편부모”, “부부, 자녀, 부부의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기타 2세대가구 포함
 3) 2000~2005년 기타가구에는 “부부+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가구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기타 1세대가구, “부부+양친”, “부부+한부모(편부모)”, “부부+자녀+부부의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기타 2세대가구 포함
 4) 2010~2015년 기타가구에는 “부부+미혼형제자매”, “부부+기타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기타 1세대가구,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기타 2세대가구 포함.
 5) 2020년 기타가구에는 “가구주+미혼형제자매”, “1세대 기타”, “부부+미혼자녀+부부형제자매”, “2세대 기타” 포함.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3.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소가족화에 따라 많은 증가를 보인 1인가구와 노인가구, 그리고 이혼·별거 및 사별 등 가족 다양화로 인한 한부모와 조손가족,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1인가구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 1인가구 규모는 1990년대에 10년간 1,021천가구에서 2,224천가구로 증가하여 절대규모는 2.2배 증가하였고, 117.8% 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대에는 동 기간 2,224천가구에서 4,142천가구로 증가하여 절대규모는 1.9배 증가하였고, 86.24% 증가율을 보여서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1인가구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분의 2 정도로 둔화되었다. 2010년대로 오면서 10년간 4,142천가구에서 6,166천가구로 증가하여 절대규모는 1.5배 증가하였고, 48.86% 증가율을 보여서 2000년대에 비해 절대규모의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고, 증가율은 절반 정도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을 보면 1990년대에는 10년간 9.0%에서 15.5%로 6.5%p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동 기간 15.5%에서 23.9%로 8.4%p 증가하여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증가폭이 다소 높아졌다. 2010년대로 오면서 10년간 23.9%에서 30.3%로 6.4%p 증가하여 2000년대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낮아진 추세를 보였다. 30년간 1인가구규모는 6배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에 근접하여서 빠른 속도로 단독가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5〉 연도별 1인 가구수 및 비율 변화 추이(1990~2020)

(단위: 천가구,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가구수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19,111	20,350
1인 가구수	1,021	1,642	2,224	3,171	4,142	5,203	6,166
비 중	9.0	12.7	15.5	20.0	23.9	27.3	30.3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1인가구를 이루는 가구주의 성 및 연령, 혼인상태 등 인구적 특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주의 성별로는 1995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15.8%p 높은 분포를 보였고, 2005년에 남녀 간에 차이는 10.6%p로 이는 10년 간 여성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2015년 동 비율은 0.4%까지 낮아져서 남녀 모두 거의 50% 분포를 보였다. 이는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한 남성의 분거가구 증가에서 오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1990년대에는 10년간 30대 이하가 52.5%에서 43.9%로 다소 감소하였고, 40~64세는 28.6%에서 31.7% 소폭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도 18.9%에서 24.4%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즉 젊은 연령층의 가구주는 감소하고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가구주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되어 2000년대에는 동 기간 30대 이하가 43.9%에서 3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40~64세는 31.7%에서 35.6%로 증가하였고, 65세 이상은 24.4%에서 25.7%로 소폭 증가하였다. 2010년대로 오면서 10년간 30대 이하가 38.7%에서 34.1%로 감소하여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고, 40~64세는 35.6%에서 40.2%로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은 25.7%에서 25.8%로 소폭 증

가하여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30년간 1인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는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40~64세 중장년층은 5분의 2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층도 4분의 1 분포를 보였다. 이는 2000년대 이전에는 젊은 연령층의 학업으로 인한 분거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2010년대 이후로 오면서 직장 이동과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중장년층의 분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고령 인구의 증가로 배우자와의 사별 및 황혼이혼에 따른 나홀로 노인 가구의 증가에서 오는 노인층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6〉 연도별 1인가구의 성 및 연령별 분포 변화 추이(1990~2020)

(단위: %)

구분	성별		연령구성별			계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64세	65세 이상	
1990	-	-	52.5	28.6	18.9	100.0
1995	42.1	57.9	49.6	29.1	21.3	100.0
2000	42.5	57.5	43.9	31.7	24.4	100.0
2005	44.7	55.3	42.7	32.6	24.7	100.0
2010	46.5	53.6	38.7	35.6	25.7	100.0
2015	49.8	50.2	36.5	40.0	23.5	100.0
2020	-	-	34.1	40.2	25.8	100.0

주: 1990년과 2020년에는 1인 가구주의 성별 자료가 생산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함.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1인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연도별로 연령별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에는 30대 이하가 70.2%로 3분의 2를 상회하였고, 40~59세는 19.8%로 5분의 1에 근접하였으며, 60세 이상은 10.0%로 미미한 분포를 보였다. 2000년대로 오면서 30대 이하는 10년간 61.2%에서 48.9%

54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로 12.3%p 감소하여 19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40~59세 이하는 동 기간 26.4%에서 35.1%로 8.7%p 증가하였고, 60세 이상도 12.5%에서 16.1%로 3.6%p 상승하여 1995년 이후 계속 증가양상을 보였다.

〈표 3-7〉 연도별 남성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 추이(1995~2019)

(단위: %)

구분	남성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소계
1995	3.0	41.1	26.1	11.4	8.4	5.8	3.4	0.8	100.0
2000	2.5	30.5	28.2	16.3	10.1	7.2	4.1	1.2	100.0
2005	1.6	25.5	28.9	19.0	11.6	7.5	4.4	1.4	100.0
2010	1.3	21.2	26.4	19.8	15.3	8.7	5.5	1.9	100.0
2015	1.1	18.7	23.5	20.9	18.4	10.1	5.3	2.0	100.0
2016	1.1	18.8	22.7	19.9	18.6	11.2	5.5	2.2	100.0
2017	1.0	18.5	22.2	19.5	18.7	11.9	5.7	2.3	100.0
2018	1.0	18.7	21.9	18.8	18.7	12.6	5.9	2.5	100.0
2019	0.9	19.2	21.7	18.0	18.4	13.0	6.0	2.6	100.0

주 : 1995년도, 2000년도의 경우 연령 미상은 제외하여 산출함

자료 : 1)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 2) 통계청. (2020).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00년)_행정구역/성/연령/혼인상태/거처의 종류별 1인 총조사가구”(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 3) 통계청. (2005).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05년)_가구주의 성/연령/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 4)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10년)_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1인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 5)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15년 이후)_성 및 연령별 1인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2015년으로 오면서 30대 이하는 43.3%로 2010년보다 감소하였고,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41.6%였다가, 2019년에 41.8%로 소폭이나 증가추세를 보였다. 40~59세는 2015년 39.3%로 2010년보다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36.4% 분포를 보였다. 60세 이상은 2015년 17.4%로 2010년보다 소폭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21.6% 분포를

보였다. 24년간 1인 남성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는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40~59세 중장년층은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60세 이상 노인층도 5분의 1 분포를 보였다. 이는 2000년대 이전에는 학업에 따른 분거로 젊은 연령층의 남성 가구주의 비중이 높다가 2010년대 이후로 오면서 직장이동과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중장년층의 분거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배우자와의 사별 및 황혼이혼에 따른 남성 단독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연도별로 연령별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에는 30대 이하가 33.9%로 3분의 1 분포를 보였고, 40~59세는 22.1%로 5분의 1에 해당되었으며, 60세 이상은 44.0%로 5분의 2를 상회하였다. 2000년대로 오면서 30대 이하는 10년간 31.2%에서 29.8%로 1.4%p 감소하여 19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40~59세 이하는 22.8%에서 24.5%로 소폭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양상을 보였다. 60세 이상은 2000년 46.1%로 1995년에 비해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여 2010년 45.6% 분포를 보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30대 이하는 29.6%로 2010년보다 감소하였고,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부터 증가하여 2019년에 30.2% 분포를 보였다. 40~59세는 2015년 27.1%로 2010년보다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24.5% 분포를 보였다. 60세 이상은 2015년 43.2%로 2010년보다 소폭 감소하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45.3% 분포를 보였다. 24년간 1인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는 남성가구주와는 다르게 연도별로 큰 폭의 변화 없이 30대 이하와 노년층인구는 점진적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중장년층은 증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노년층은 배우자

와의 사별 및 황혼이혼에 따른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데 비해, 젊은 연령층은 2000년대 이전에는 학업에 따른 분거로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다소 높다가 2000년대로 오면서 이혼·별거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중장년층의 분거가 느린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8〉 연도별 여성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 추이(1995~2019)

(단위: %)

구분	여성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소계
1995	2.3	19.6	12.0	8.9	13.2	24.2	16.2	3.6	100.0
2000	1.8	17.7	11.7	11.0	11.8	22.2	19.3	4.6	100.0
2005	1.2	18.1	12.5	11.7	11.5	18.5	20.1	6.4	100.0
2010	1.1	16.0	12.7	11.1	13.4	16.2	20.6	8.8	100.0
2015	1.1	15.4	13.1	11.8	15.3	15.6	17.6	10.0	100.0
2016	1.2	15.6	12.5	11.4	15.2	16.4	17.2	10.5	100.0
2017	1.1	15.7	12.3	11.2	15.0	16.7	17.1	10.7	100.0
2018	1.0	16.2	12.1	10.8	14.7	17.1	17.0	11.1	100.0
2019	1.0	17.2	12.0	10.4	14.1	17.3	16.5	11.5	100.0

주 : 1995년도, 2000년도의 경우 연령 미상은 제외하여 산출함

자료 : 1)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 통계청. (2000).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00년)_행정구역/성/연령/혼인상태/거처의 종류별 1인 총조사가구”(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3) 통계청. (2005).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05년)_가구주의 성/연령/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4)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10년)_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1인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5)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15년 이후)_성 및 연령별 1인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가구주의 혼인상태별로는 1990년대에는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미혼 가구주는 10년간 46.7%에서 43.0%로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높은 사별은 34.6%에서 35.1%로 미미하게 상승하였으며, 유배우는 13.3%에서 12.0%로 소폭 감소하였고, 이혼은 5.3%에서 9.9%로 다소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는 미혼 가구주는 동 기간 43.0%에서 44.5%로 미미하나 증

가하여 1990년대에 감소에서 2000년대로 오면서 증가로 바뀌었다. 이에 비해 사별은 35.1%에서 29.2%로 다소 감소하여 1990년대 증가하다가 2000년대에는 감소추세로 전환하였다. 유배우는 12.0%에서 12.9%로 미미하나 증가하여 1990년대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고, 이혼은 9.9%에서 13.4%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미혼과 유배우 및 사별 가구주는 감소한데 반해, 이혼 가구주는 증가하여 1990년대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표 3-9〉 연도별 1인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 변화 추이(1990~2015)

(단위: %)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
1990	13.3	34.6	5.3	46.7	100.0
1995	12.1	35.5	6.2	46.2	100.0
2000	12.0	35.1	9.9	43.0	100.0
2005	11.6	31.6	11.8	45.0	100.0
2010	12.9	29.2	13.4	44.5	100.0
2015	11.2	29.4	15.6	43.8	100.0

주: 2020년에는 1인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자료가 생산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함.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30년간 1인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는 미혼 및 사별 가구주는 소폭의 감소를 보였고, 이혼 가구주는 약 3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1인 가구의 연령분포와도 관련이 높아서 젊은 연령층의 학업으로 인한 분거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미혼가구주의 분포가 높은 비중을 보였고, 2000년대 이후로 오면서 이혼 및 사별 등 가족 다양화로 인한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가족기능 및 응집성 약화, 그리고 빈곤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노출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나. 노인가구의 변화 추이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가구규모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 가구규모는 1990년대에 10년간 963천가구에서 1,734천가구로 증가하여 절대규모는 약 2배 증가하였고, 80.06% 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대에는 동 기간 1,734천가구에서 3,111천가구로 증가하여 절대규모는 1.8배 증가하였고, 79.4% 증가율을 보여서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노인가구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0년대로 오면서 10년간 3,111천가구에서 4,642천가구로 절대규모는 1.5배 증가하였고, 49.2% 증가율을 보여서 2000년대에 비해 절대규모의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되었고, 증가율은 3분의 2 정도로 감소하였다. 한편, 전체 가구 대비 노인가구 비율을 보면 1990년대에는 10년간 8.5%에서 12.1%로 3.6%p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동 기간 12.1%에서 17.9%로 5.8%p 증가하여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증가폭이 다소 높아졌다. 2010년대로 오면서 10년간 17.9%에서 22.8%로 4.9%p 증가하여 2000년대에 비해 미미하나 증가폭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0년간 노인가구 규모는 5배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분의 1 분포를 보여서 노인 가구규모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의 부양부담과 만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그리고 빈곤 노출 등으로 사회적 비용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0〉 연도별 노인가구수 및 비율 변화 추이(1990~2020)

(단위: 천가구,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가구수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19,111	20,350
노인 가구수	963	1,251	1,734	2,448	3,111	3,720	4,642
비 중	8.5	9.7	12.1	15.4	17.9	19.5	22.8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노인가구구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에 10년간 자녀동거가구는 44.5%에서 26.9%로 약 18%p 감소하였고, 노인부부가구는 23.8%에서 33.1%로 약 9%p 증가하였으며, 노인단독가구는 20.0%에서 31.3%로 11.3%p 증가하였다. 기타 가구는 11.7%에서 8.7%로 3%p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동 기간 자녀동거가구는 26.9%에서 23.4%로 감소하여 1990년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노인부부가구는 33.1%에서 33.6%로 미미하나 상승하였고, 노인단독가구도 31.3%에서 34.3%로 소폭 증가하여 1990년대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기타가구는 동 기간 감소와 증가의 반복적인 추세를 보였다. 2010년대로 오면서 10년간 자녀동거가구는 23.4%에서 21.1%로 소폭 감소하여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33.6%에서 33.1%로 미미하나 감소하여서 1990년대 이후 증가하다 2010년대에 감소추세로 전환되었고, 노인단독가구는 10년간 감소와 증가의 반복적인 추세를 보였다. 기타가구는 1990년대 이후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바뀌었다. 30년간 노인가구구성에서 자녀동거가구는 핵가족화·소화가족화 및 부양관의 약화에 따라 절반 이상 감소하는 반면,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단독가구는 3분의 2 정도로 상승하여서 노인의 보호체계의 약화와 함께 사회의 부양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3-11〉 연도별 노인가구 구성 비율 변화 추이(1990~2020)

(단위: %)

구분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계
1990	20.0	23.8	44.5	11.7	100.0
1995	27.9	30.4	31.9	9.8	100.0
2000	31.3	33.1	26.9	8.7	100.0
2005	31.9	33.8	25.9	8.4	100.0
2010	34.3	33.6	23.4	8.7	100.0
2015	32.9	33.1	23.1	10.9	100.0
2020	34.2	33.1	21.1	11.6	100.0

주: 기타에는 1~2세대의 기타가구와 비혈연가구 포함.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다. 한부모와 조손가구의 변화 추이

가족결속력의 약화 및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별거에 따른 우리나라 한부모가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에는 10년간 889천가구에서 1,124천가구로 절대규모는 1.3배 증가하였고, 26.43% 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대에는 동 기간 1,124천가구에서 1,594천가구로 증가하여 절대규모는 1.4배 증가하였고, 41.8% 증가율을 보여서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절대규모와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0년대로 오면서 10년간 1,594천가구에서 2,085천가구로 절대규모는 1.4배 증가하였고, 30.8% 증가율을 보여서 2000년대와 절대규모는 비슷한 증가양상을 보였으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은 1990년대에는 10년간 7.8%에서 7.9%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2000년대에는 동 기간 7.9%에서 9.2%로 소폭 증가하여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증가폭이 다소 높아졌다. 2010년대에는 10년간 9.2%에서 10.3%로 증가와 감소

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30년간 한부모가구 규모는 2.3배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가구 중 1가구는 한부모가구로 나타나서 생계자 부재 및 변화에 따른 가구의 빈곤화가 예상되며, 양육자의 결손으로 인한 자녀 양육 상의 어려움과 함께 가족결속력의 약화 등이 예상된다.

〈표 3-12〉 연도별 한부모 가구수 및 비율 변화 추이(1990~2020)

(단위: 천가구,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전체 가구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19,111	20,350
한부모가구	889	960	1,124	1,370	1,594	2,060	2,085
비 중	7.8	7.4	7.9	8.6	9.2	10.8	10.3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한부모가구 구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5년에는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형태가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형태보다 4.6배 높다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형태가 감소하는 반면,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형태가 증가하여 그 차이가 2000년대에는 10년 간 4.1배에서 3.6배로 줄어들었고, 2010년대에는 동 기간 3.6배에서 2.7배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25년간 이혼·별거 및 사별로 가족이 다양화되면서 자녀의 주된 양육자가 어머니에 집중되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아버지가 양육자의 역할을 맡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62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표 3-13〉 연도별 한부모 가구유형 분포 변화 추이(1995~2020)

(단위: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한부+자녀	17.9	19.6	20.9	21.8	26.1	26.7
한모+자녀	82.1	80.4	79.1	78.2	73.9	7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부모의 이혼·재혼 및 질병·사망, 그리고 가출·실종, 노령 등으로 인한 부모 부재 하에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35천가구에서 2005년 58천가구로 10년간 65.7% 증가하였고, 2010년부터 감소하여 2015년 43천가구로 동 기간 25.8%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년간 조손가구 규모는 8천가구가 증가하였다. 한편, 전체 가구 대비 조손가구 비율은 1995년 0.27%에서 2005년 0.31%로 소폭 증가하고 이와 같은 추세는 2005년까지 지속되다 2010년부터 감소하여 2015년에는 0.23% 비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조손가구는 1% 미만으로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고 201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한부모가구의 증가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3-14〉 연도별 조손가구수 및 비율 변화 추이(1995~2015)

(단위: 천가구,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전체 가구수	12,958	14,312	15,887	17,339	19,111
조손 가구수	35	45	58	51	43
비 중	0.27	0.31	0.37	0.29	0.23

자료: 1)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조손가구의 발생원인은 2000년에는 부모의 질병·사망이 51.9%로 절반을 상회하였고, 다음은 부모의 가출·실종이 31.4%로 3분의 1 분포를 보였으며 부모의 이혼·재혼은 11.6%로 높지 않았다. 2000년 이후 부모의 질병·사망과 가출·실종은 감소하는데 비해 부모의 이혼·재혼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7년 부모의 질병·사망과 가출·실종은 각각 46.3%와 19.5%로 감소하였고, 부모의 이혼·재혼은 22%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15〉 연도별 조손가구의 발생원인 분포 변화 추이(2000~2017)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7
부모의 이혼/재혼	11.6	19.2	22.3	23.4	22.0
부모의 질병/사망	51.9	44.9	48.8	43.8	46.3
부모의 가출/실종	31.4	30.3	23.4	25.7	19.5
기타	5.1	5.5	5.4	7.0	1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타에는 노령 등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2000~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라. 다문화가구의 변화 추이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 이주산업 활성화,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 이주정책의 강화에 따라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국제결혼건수 즉 다문화혼인건수는 2008년 36,629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22,462건으로 7년간 38.6%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23,773건으로 10년간 35.0%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전체 결혼 대비 다문화 혼인비율은 2008년 11.2%로 10건 중 1건은 다문화혼인으로 나타났고, 2010년 10.8%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5년 7.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고 2018년으로 오면서 9.2%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전반적으로 전체 결혼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지속적으로 다문화가구가 누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6〉 연도별 다문화 혼인건수 및 다문화 혼인 비율 변화 추이(2008~2018)

(단위: 건, %)

구분	2008	2010	2015	2018
전체 결혼건수	327,715	326,104	302,828	257,622
다문화 혼인건수	36,629	35,098	22,462	23,773
비 중	11.2	10.8	7.4	9.2

주: 다문화 혼인이라 함은 남녀 어느 한쪽이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또는 남녀 모두 귀화자인 경우를 말한다.
 자료: 통계청. (2011, 2015, 2018).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우리나라 다문화인구 즉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는 인구수는 2007년 298천명에서 2010년 485천명으로 3년간 62.7% 증가율을 보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15년에는 819천명으로 5년간 68.8%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1,009천명으로 3년간 23.1% 증가하여 다소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에서 다문화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0.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59%로 1%를 상회하였고, 2018년에는 1.95%로 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연도별 다문화가족 규모 및 비율 변화 추이(2007~2018)

(단위: 천명, %)

구분	2007	2010	2015	2018
전체 인구수	49,269	50,516	51,529	51,826
다문화 인구수	298	485	819	1,009
비 중	0.60	0.96	1.59	1.95

자료: 1) 통계청. (2007~2018). 주민등록인구자료.

2) 행정안전부. (2007~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다문화가구의 혼인유형별 분포를 보면 2007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구성된 가구는 76.9%로 3분의 2를 훨씬 상회한데 비해,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가구는 22.0%로 5분의 1 분포를 보였다. 2010년으로 오면서 외국인 아내의 비율은 74.6%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남편과 귀화자의 비율은 각각 22.7%와 2.7%로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2015년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여 외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 그리고 귀화자가 각각 62.6%와 22.9% 및 14.6% 분포를 보여서 5년간 귀화자인 경우는 5.4배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외국인 아내가 67.0%로 다시 소폭 증가한데 비해, 외국인 남편은 18.4%로 감소하였으며, 귀화자는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구는 최근 10년간 외국인 아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는 데 비해, 외국인 남편은 5분의 1 내외 분포를 보였고, 귀화자는 2015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여 동일한 분포를 유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18〉 연도별 다문화 가구 혼인유형별 분포 변화 추이(2008~2018)

(단위: %)

구분	2008	2010	2015	2018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	76.9	74.6	62.6	67.0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22.0	22.7	22.9	18.4
귀화자	1.1	2.7	14.6	14.6

주: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귀화자인 경우를 말함.
 자료: 통계청. (2011, 2015, 2018). 다문화인구동태통계.

다문화가구의 혼인종류별 분포를 보면, 2009년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경우는 52.1%로 절반을 상회한데 비해, 남편과 아내 중 한쪽이 재혼인 경우는 47.8%로 초혼이 재혼보다 다소 높았다.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60.7%로 6년간 16.5%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부부 중 한쪽이 재혼인 경우는 39.3%로 동 기간 17.7% 감소율을 보였다. 2018년으로 오면서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는 59.1%로

소폭 감소한데 비해, 부부 중 한쪽인 재혼인 경우는 40.9%로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부부가 초혼인 경우는 3분의 2에 육박하는 반면, 3분의 1은 재혼으로 나타나서 다문화 가구의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이해된다.

〈표 3-19〉 연도별 다문화가구의 혼인종류별 분포 변화 추이(2009~2018)

(단위: %)

구분	2009	2010	2015	2018
남편(초혼)+아내(초혼)	52.1	55.3	60.7	59.1
남편(초혼)+아내(재혼)	10.0	9.3	11.5	12.7
남편(재혼)+아내(초혼)	15.0	15.0	11.6	11.7
남편(재혼)+아내(재혼)	22.8	20.4	16.2	16.5

자료: 통계청. (2011, 2015, 2018).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제2절 혼인 및 출산 행동 변화

가족의 변화에서 혼인과 출산은 가족의 형성과 확장에 관한 특성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최근 혼인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개인의 생애주기 및 가족 경로에서 가족 형성 초기 시점과 자녀의 출산시기 등이 이어서 지연되고 있다. 출산 행동과 관련하여 첫 출산 시점은 생애 과정에서 가족의 확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치며, 출산의 수적 변화는 가족의 규모에, 출산의 간격 변화는 개인의 생애주기변화와 가족의 주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과 출산의 변화는 가족 변화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혼인 행태와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과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관찰대상 기간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기간으로 한다. 인구 통계자료는 다른 사회조사 자료와 달리 상대적으로 신뢰할만한 시계

열 자료가 충실한 상황이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가 충분하지 않아 세부 특성별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지표에 대한 장기간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세 변화의 특성 분석은 출생 코호트 간 차이와 성별, 연령 집단 간 차이에 초점을 둔다.

1. 혼인 행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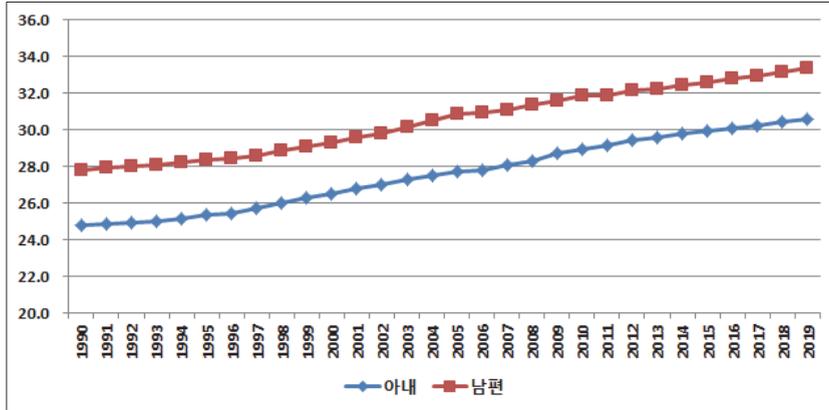
혼인 행태 변화에서 우선 주목할 현상은 혼인 연령의 변화이다. 혼인 동향에서 혼인연령의 상승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선 평균 초혼연령의 성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체로 평균 초혼연령의 성별차이는 작은 변화는 있지만 대체로 3세 정도 차이를 두고 지속되고 있고, 최근 연도로 올수록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약 지난 30년간의 변화에서 특징적인 점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초혼 연령의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1990년대는 평균초혼연령이 1세 증가하는데 여성은 약 6년, 남성은 약 8년 걸렸지만, 2000년대에는 평균 초혼연령이 1세 증가하는데 남성은 4~6년, 여성은 약 4년이 걸렸다. 2010년대 들어 여성은 약 4년 간격으로 1세씩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은 다시 길어져 6년씩 걸리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초혼연령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 모두 2010년대 이후 증가추세는 완만해지고 있다. 남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2세 수준이 6년간 지속되고 있고, 여성은 30세 수준에서 5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림 3-1] 평균 초혼연령 추이 변화(1990-2019)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2 23:27)

다음은 혼인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1990년 이후 지난 30년 간 성별, 연령별 혼인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평균 초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20대 후반 혼인율이 감소하고 30대 초반 혼인율은 상승했다. 그러나 1990년부터 2019년 사이에 20대 초반 혼인율 변화에서 여성은 82.0%p 감소하였고 남성은 23.0%p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 후반 혼인율 변화에서 여성은 20.5%p 감소한 반면, 남성은 78.3%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초혼연령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0대 중 후반 남성이 일반적으로 20대 초중반 여성과 결혼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평균초혼연령이 상승한다면 이와 같은 추세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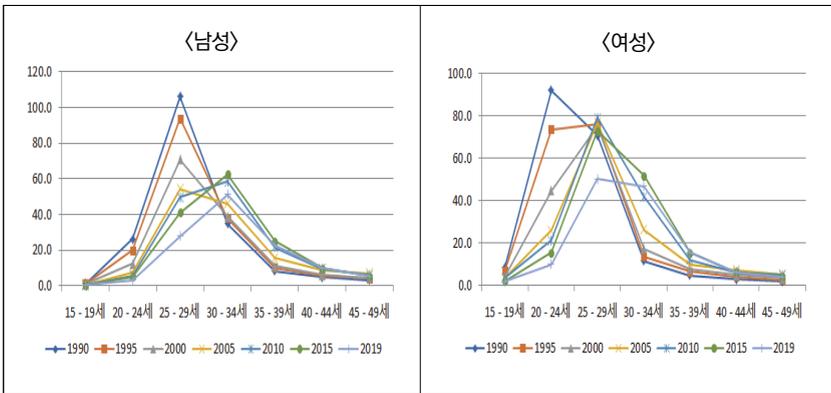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남성의 만혼화보다 여성의 만혼화가 더 일찍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혼인율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이 2008년에 20대 후반(25-29세)에서 30대 초반(30-34세)으로 바뀌었다. 즉

2007년까지 20대 후반 혼인율이 56.8%로 제일 높았으나, 2008년부터 30대 초반 혼인율이 54.5%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제일 높아지기 시작한다. 2008년을 기점으로 30대 초반 혼인율이 20대 후반 혼인율을 앞지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 전환이 여성의 경우는 이미 1995년에 발생하는데, 1994년까지는 20대 초반(20-24세) 혼인율이 75.1%로 제일 높았으나 1995년부터는 20대 후반(25-29세) 혼인율이 76.1%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제일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남성의 만혼화 추세보다 여성의 만혼화 추세가 더 일찍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 성별, 연령별 혼인율 추이 변화(1990-2019)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2 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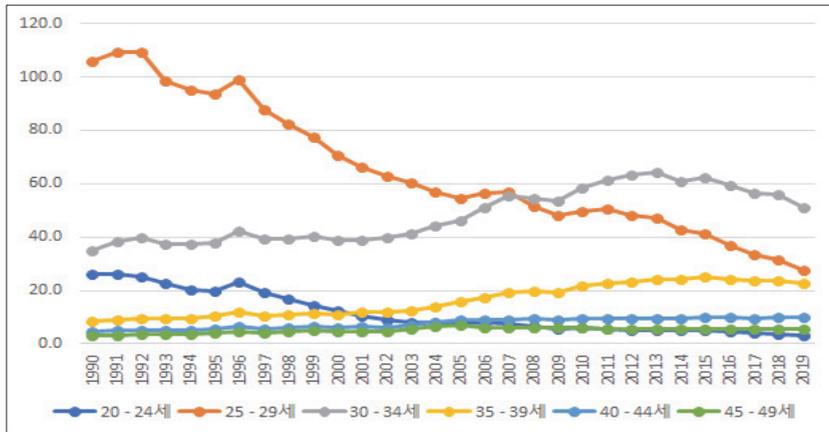
연령 축과 연도 축을 전환하여 다시 추세를 확인하면 연도별 변화가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남성의 연령별 혼인율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20대 후반 혼인율의 급격한 감소이다. 특히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부터 남성의 20대 후반 혼인율이 가파르게 감소한다. 1997년 이후부

터 크게 감소하였는데, 1996년 99.2%에서 2004년 56.8%로 거의 절반 수준인 42.4%p로 감소하였다.

반면 30대 초반 혼인율이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1년 39.0%에서 2013년 64.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총 25.2%p 상승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폭(42.4%p)에 비해서 2000년대 이후 회복된 수준(25.2%p)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1997년 이후 감소한 혼인율이 2000년대 들어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아, 남성들의 만혼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 남성의 연령별 혼인율 추이 변화(1990-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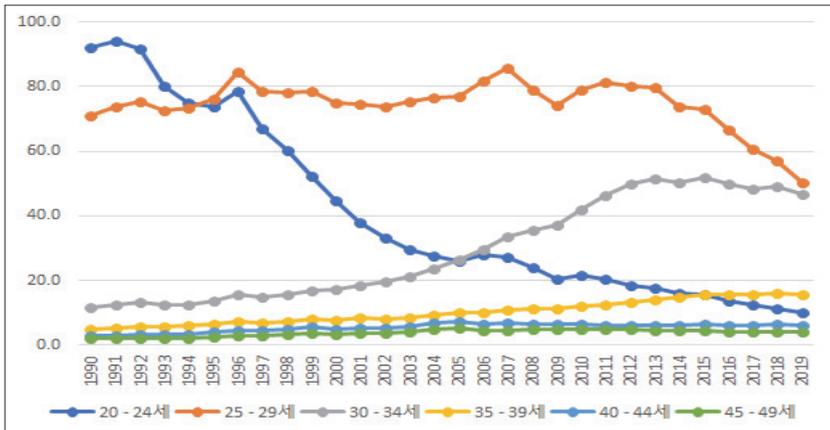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2. 23:27)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은 남성의 경향성과 동일하다. 남성이 20대 후반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면, 여성은 20대 초반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남녀 혼인연령 차이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1997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하여, 이후 회복추세가 2013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남성은 20대 후반에서 하락하여 30대 초반에서 많이 회복되고, 일부 30대 후반에서 회복되었다. 반면 여성은 20대 초반에서 하락하였고, 20대 후반 혼인율은 감소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30대 초반 혼인율에서 일부 회복되었다. 전체적으로 남성 혼인율은 다음(5세 간격)연령계층에서 회복되었지만, 여성 혼인율은 한 연령계층(5세 간격) 이후에 회복되어 여성의 만혼화 현상이 더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 추이 변화(1990-2019)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2. 23:27\)](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2. 23:27))

다른 한편, 혼인행동에서 쟁점 중 하나는 특정 세대에서 이전과 다른 이질적 변화가 관찰되는가 이다. 코호트별 미혼율을 추정된 기존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세대 간 이질성이 관찰된다(이태열, 2020; 최선영, 2020; 우해봉, 이지혜, 2019). 우선 40세를 기준으로 여성의 미혼율을

추정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우혜봉, 이지혜, 2019), 1944년 출생 코호트의 미혼율은 약 1.24%, 1954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는 2.59%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1974년 출생 코호트는 12.07%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출생 코호트가 이전 출생 코호트와 달리 혼인행동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는 분기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20〉 연령별-코호트별 미혼 여성의 비율

구분	출생 코호트			
	1944년	1954년	1964년	1974년
20세	0.7497	0.8174	0.9106	0.9678
30세	0.0397	0.0694	0.1141	0.2835
40세	0.0124	0.0259	0.0423	0.1207
중앙값(세)	22.03	23.07	24.63	27.02

출처: 우혜봉, 이지혜. (2019).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70년대 출생 코호트 이후 198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는 더 큰 이질성이 관찰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1983년 이전 출생 코호트까지는 하락한 혼인율이 지연되더라도 회복되는 만혼 현상이 관찰되지만, 1984년 이후 출생 코호트부터 전년도 출생자에 비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회복되지 않고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대 단절과 혼인 기피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이태열, 2020).

1970년 출생 코호트부터 혼인행동의 보편적 규범이 약화되어 1980년 출생 코호트와 그 이후 코호트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가 강화되는 경향이 관찰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보편혼 규범의 균열이 심화되는 과정을 밝힌 최선영(2020)의 연구는 197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가 20대 중반이었던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보편혼 규범이 약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2. 출산 행동 변화

가족 연구 관점에서 출산 행동 변화는 크게 출산 규모의 측면, 출산 시점과 기간의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출산의 규모는 가족의 규모를 나타내고, 출산 시점과 기간은 개인의 생애주기 변화 또는 가족의 경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출산의 양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가족의 규모 변화는 가족의 형태변화로 이어져 핵가족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핵가족화는 가족관계에서 세대관계의 변화를 야기한다.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서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동거관계의 변화 및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관계의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개인의 생애사적 사건으로써 첫째아 출산 연령과 같은 출산 시점의 변화는 개인의 생애 경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출산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전통적 생애 경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첫째아 출산시점부터 출산이 종료되는 총 출산 기간의 변화 역시 생애 경로의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분석의 쟁점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출산 행태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성별, 연령별, 세대별로 주요 출산행동의 지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반적인 출산율 수준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총출생아수의 변화와 합계출산율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총출생아수는 2002년에 처음으로 50만건이하로 감소하여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7년에 40만건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어서 2019년에 30만건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 출생아수는 30만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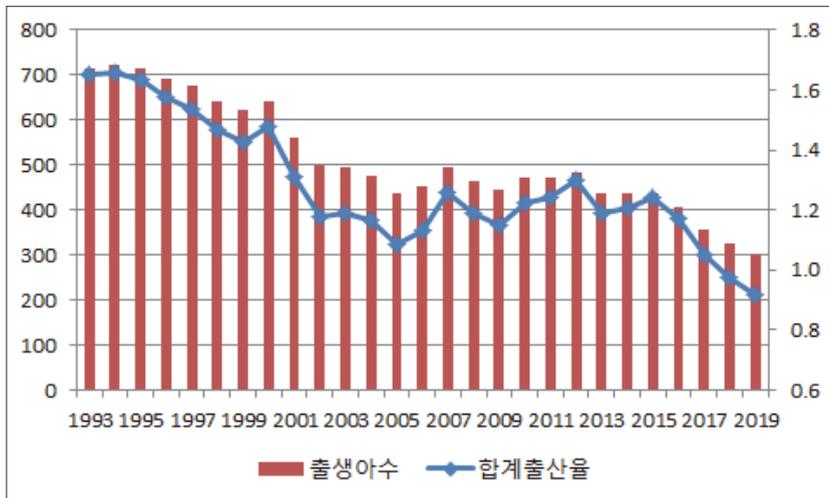
출산율 하락은 세계적으로 보편적 추세이지만 한국의 출산율 수준은

74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합계출산율 지표를 보면, 1983년 인구대체수준 2.1이하로 하락하여 현재까지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추세에서 2005년에 크게 감소한 1.08을 기록하고, 이후 다소 반등하였다가 2015년 이후 다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요컨대 주요한 변곡점은 1983년, 2000년대 초반, 2015년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림 3-5] 합계출산율의 변화 추이(1993-2019)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3. 2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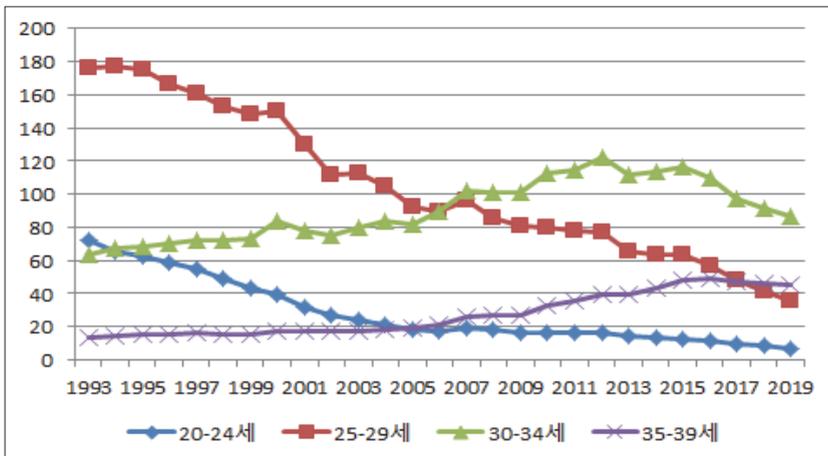
여성을 기준으로 연령별 출산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4세 연령 집단과 25-29세 연령집단 출산율은 1993년 이후부터 대체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30-34세 연령집단 출산율은 1993년 이후부터 점차 상승하여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21.9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대체로 2019년까지 하락하였다. 35-39세 연령집단 출산율도 1993년부터 2016년까지 대체로 상승하였지만, 특히 2004년 18.6에서 2016년 48.7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에서 20대 연령집단 출산율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크게 하락했고, 잠시 지체 후 다시 2019년까지 대체로 하락하였다. 반면 30대 연령집단 출산율은 2015년까지 대체로 상승하였고, 특히 2004년경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여성을 기준으로 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는 대체로 만혼화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전체적으로 가임기간을 단축시킨다. 늦은 결혼은 늦은 출산으로 이어지고, 늦은 출산은 조기에 출산을 종료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경제적 요인은 결혼과 출산 결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만혼화 현상이 저출산 현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 연령별 출산율 변화 추이(199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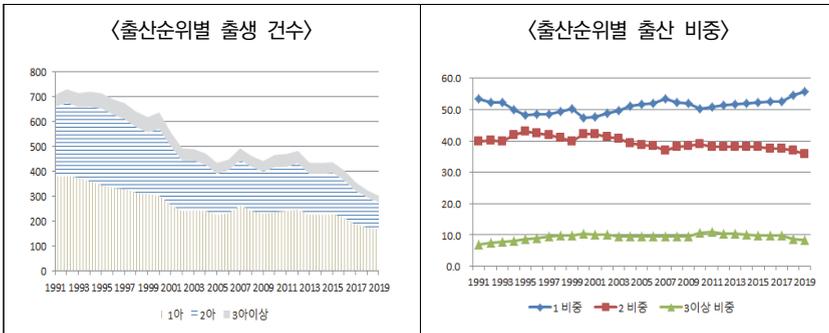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3. 20:59)

앞서 살펴본 것처럼, 30대 연령집단의 출산율이 2004년경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상승하였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20대 연령층의 지연된 출산이 30대에 이행되었거나, 또는 실제로 30대 연령집단의 출산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출산 순위별 출생 건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0대 연령층의 전반적 출산율 상승보다는 지연된 출산의 이행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매년 출산 건수 중 출산순위별 출산 건수를 확인하면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의 출산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산 순위별 출산 비중에서 둘째아와 셋째아의 비중은 큰 변화 없고, 오히려 2015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는 지연된 출산의 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7] 출산 순위별 출생 건수 및 비중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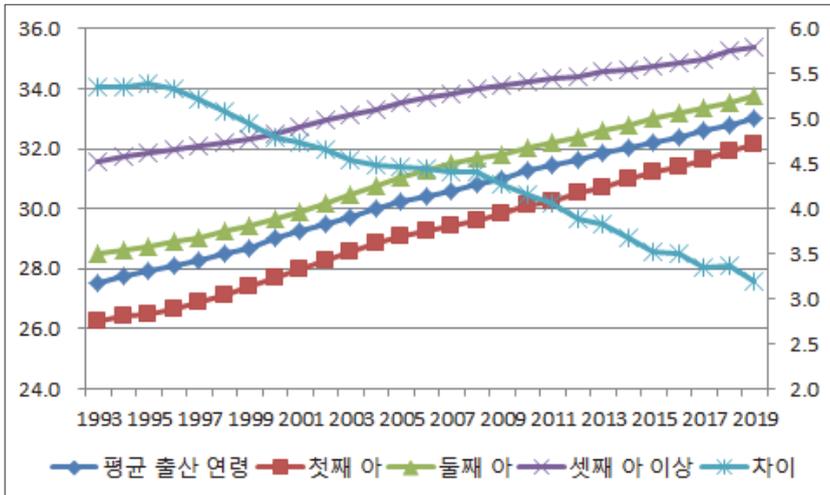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3. 20:59)

출산 행태에서 개인의 생애주기 관점과 가족주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출산 기간이다. 첫째아에서 셋째아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3년 첫째아 출산모의 평균연령은 26.2세, 셋째아 이상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31.6세로 5.4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과 셋째아 이상 평균 출산연령의 차이는 5세 미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3.2세로 좁혀졌다. 199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첫째아에서 셋째아 이상까지의 출산 간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것이다.

출산 기간의 단축은 개인의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 관점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혼인연령의 상승에 따른 가임기간 단축으로 인한 효과가 크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세대(코호트) 효과로 인하여 출산을 일찍 종료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다. 여성의 혼인연령 상승과 경제활동의 양상의 변화와 같은 개인의 생애 경로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예전에 비해 여성들이 출산 기간을 단축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 출산 기간: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변화 추이(199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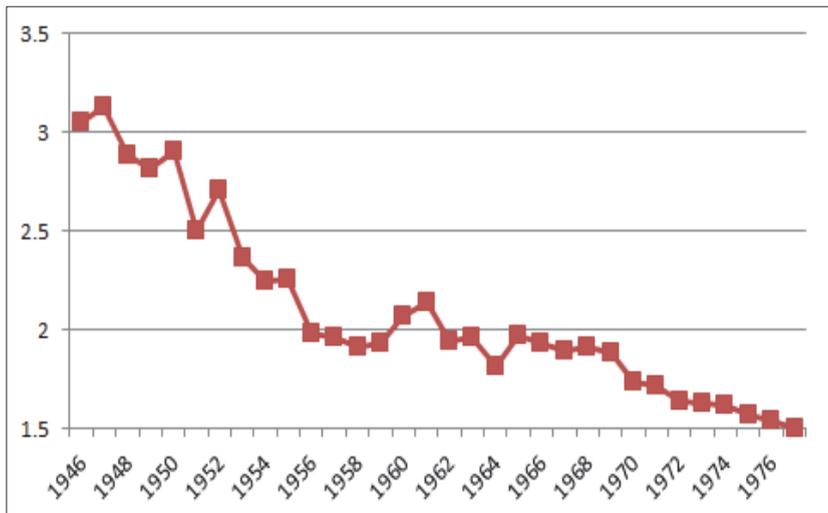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3. 20:59)

다른 한편, 출산 행동에서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관찰 할 수 있다. 출산 행동에서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세대의 생애 경로에서 출산 행동의 단절적 변화가 집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가족변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코호트 합계출산율에 관한 기존 연구(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에 따르면, 1960년대 출생 코호트까지는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2이하로 내려가지만 대체로 1.9~1.8수준에 정체해 있었다. 그러다 1970년 출생 코호트부터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산 행동에서 1970년 이후 출생 코호트는 이전 출생 코호트와 달리 이질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후 출생 코호트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추세는 강화되거나 최소한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림 3-9]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추이(1946~1977년 출생코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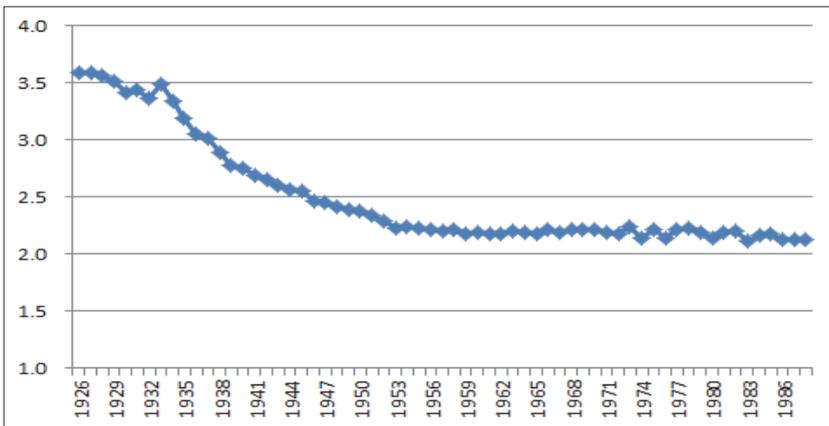
출처: 신윤정 등.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70년대 출생 코호트가 출산 행태에서 이질적 세대로 등장한다면, 이상적 자녀수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은 1974년부터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자료에서 기혼여성의 출생 코호트별 이상자녀수를 나타낸다. 자료에 등장하는 최초 코호트인 1920년대 생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3.5명이었다. 1930년대 출생 코호트부터 평균 이상자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50년생 코호트에 이르러 2.0명 초반 수준을 나타낸다. 195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부터 평균 이상자녀수는 대체로 2명 초반 수준에서 지속된다. 이런 변화는 1970년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고, 198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도 2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실제 출산율과 달리 적어도 문화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는 규범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다만 현실적 조건의 영향으로 실제 출생자녀수는 2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10] 기혼여성의(15-49세) 출생 코호트별 평균 이상자녀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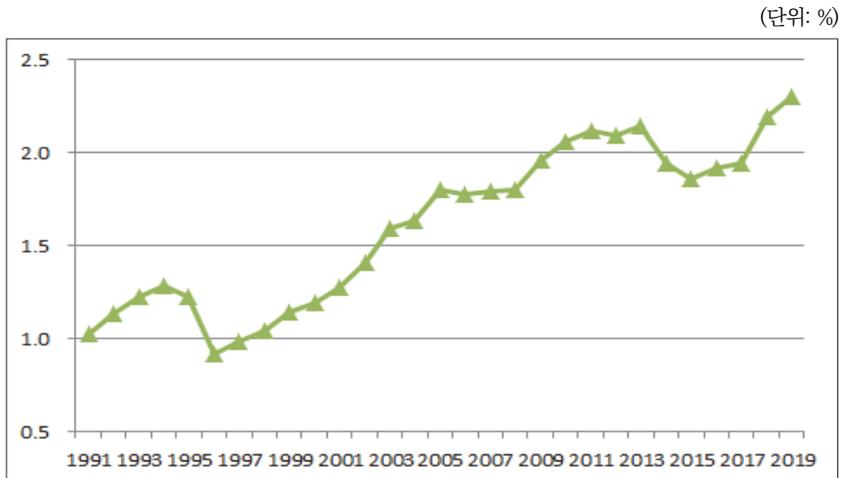
주: 각 년도 조사자료에서 가중치 계산 방법이 달라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974~2012년 원자료.

다른 한편, 출산 행동에서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 사회의 특수성 중 하나는 법적 혼인상태 외의 출생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강력한 제도 또는 규범이 작동하는 사회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규범의 변화는 급격한 가족 변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혼인의 출생의 비율을 중요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매년 전체 출생에서 법적 혼인의 출생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1991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낸다. 1990년대는 1%수준 이내에서 꾸준히 상승하였고, 2010년대에 들어 2% 수준에 도달한다. 아직 전체 출생에서 차지하는 절대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결혼제도가 더욱 유연해진다면 이런 추세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1] 전체 출생 중 혼인의 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3. 20:59)

제3절 소결

우리나라 가족 규모의 변화를 양적인 측면과 구성원의 특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가구 규모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에 11,355천 가구에서 2020년에는 20,350천 가구로 30년간 79.22%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서 2010년대로 오면서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족분거, 1~2인 가구증가 및 1세대 중심의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1990년 3.77명에서 2020년은 2.40명으로 30년간 1.37명이 줄어들었고 1990년대에서 2010년대로 오면서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원수별 가구분포의 변화추이를 보면 30년간 1~2인 가구는 2.6배 증가한데 비해, 3~4인가구와 5인 이상가구는 줄어드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속적인 가구원수의 감소는 가족 다양화 및 분거가족 증가 등으로 인한 소가족화·핵가족화의 변화속도를 반영하고 있다. 세대별 가구구성의 변화를 보면, 친족가구는 1990년 89.5%에서 2020년 68.0%로 30년간 21.5%p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동 기간 9.0%에서 30.3%로 3.4배 증가하였고, 비친족가구는 2% 미만 분포를 보였다. 친족가구 중에서 1세대 가구는 7.7%p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2세대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9.2%p 감소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 증가와 세대별 분포 변화는 가족 다양화와 가족분거 등으로 인한 소가족화와 핵가족화에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가족유형의 변화추이를 보면, 핵가족은 1990년 68.0%에서 2020년 55.6%로 30년간 12.4%p 감소하였고, 확대가족도 동 기간 12.5%에서 4.4%로 8.1%p 감소하였다. 반면 1인 가구는 동 기간 9.0%에서 30.3%

로 3.4배 증가 폭을 보였다. 이와 같은 가족유형변화는 소가족화·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으로 1인가구 및 1~2세대 중심의 핵가족화 형태에 집중된 특성을 보였다.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한부모와 조손가족가구, 다문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1인가구 규모는 1990년 1,021천 가구에서 2020년에는 6,166천가구로 30년간 6배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동 기간 9.0%에서 30.3%로 21.3%p 증가하여 가구의 원자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가구 규모는 1990년 963천가구에서 2020년 4,642천가구로 동 기간 약 5배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대비 노인가구 비율은 8.5%에서 22.8%로 14.3%p 증가하여 소가족화·핵가족화로 돌봄주체는 감소하는데 비해 돌봄수요는 증가하여서 불균형적인 부양환경을 시사한다. 한부모가구는 1990년 889천가구에서 2020년에는 2,085천가구로 30년간 2.3배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은 동 기간 7.8%에서 10.3%로 2.5%p 증가하였다. 조손가구는 1995년 35천가구에서 2015년 43천가구로 20년간 22.9%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 대비 조손가구 비율은 동 기간 0.27%에서 0.23%로 0.04%p 감소하였다. 한부모와 조손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다문화인구는 2007년 298천명에서 2018년 1,009천명으로 11년간 3.4배 증가하였고, 전체 인구 대비 다문화인구 비율은 동 기간 0.60%에서 1.95%로 1.35%p 증가하여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에서 주목되는 것은 30년간 우리나라의 가족변화는 가족규모의 축소와 확대가족에서 형태적 핵가족화로 이행하는 가족세대의 단순화 특징을 보인다. 즉 가구 수는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 및 취업 등으로 인한 가족분거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만혼화·비

혼화, 이혼증대 등으로 인해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원과 가족형태는 소규모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소가족화와 함께 돌봄 주체의 감소 및 가족결속력 약화, 가족가치관의 약화 측면에서 가족 부양 환경을 포함하여 가족관계, 가족문화, 가족형성과 가족주기 등에 복합·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혼인행동의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평균혼인 연령의 상승이다. 1990년대는 평균초혼연령이 1세 증가하는데, 여성은 약 6년, 남성은 약 8년 걸렸지만, 2000년대에는 평균 초혼연령이 1세 증가하는데 남성은 4~6년, 여성은 약 4년이 걸렸다. 2010년대 들어 여성은 약 4년 간격으로 1세씩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은 다시 길어져 6년씩 걸리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연령별 혼인율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1997년 이후부터 20대 후반 혼인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1996년 99.2%에서 2004년 56.8%로 거의 절반 수준인 42.4%p로 감소하였다. 반면 30대 초반 혼인율이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01년 39.0%에서 2013년 64.2%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총 25.2%p 상승하였다. 1997년 이후 감소한 혼인율이 2000년대 들어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아, 남성들의 만혼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은 남성의 경향성과 동일하다. 남성이 20대 후반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면, 여성은 20대 초반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남녀 혼인 연령 차이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1997년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하여, 이후 회복추세가 2013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남성은 20대 후반에서 하락하여 30대 초반에서 많이 회복되고, 일부 30대 후반에서 회복되었다. 반면 여성은

20대 초반에서 하락하였고, 20대 후반 혼인율은 감소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30대 초반 혼인율에서 일부 회복되었다. 전체적으로 남성 혼인율은 다음 (5세간격)연령계층에서 회복되었지만, 여성 혼인율은 한 연령계층(5세간격) 이후에 회복되어 여성의 만혼화 현상이 더 급격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코호트별 미혼율을 추정된 기존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세대 간 이질성이 관찰된다. 40세 기준 미혼 여성 비율에서 1944년 출생 코호트가 약 1%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나, 1974년 출생 코호트는 1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출생 코호트 이후 1980년대 코호트에서는 더 큰 이질성이 관찰된다. 1983년 이전까지는 하락한 혼인율이 지연 회복되는 만혼 현상이 관찰되지만, 1984년생 이후부터 전년도 출생자에 비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세대 단절과 혼인기피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출산행동 변화에서,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 2.1이하로 하락하여 현재까지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추세에서 2005년에 크게 감소하여 1.08을 기록하고, 이후 다소 반등하였다가 2015년 이후 다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에서 20대 연령집단 출산율은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크게 하락했고, 잠시 지체 후 다시 2019년까지 대체로 하락하였다. 반면 30대 연령집단 출산율은 2015년까지 대체로 상승하였고, 특히 2004년경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년간 출산 건수 중 출산순위별 출산 건수를 확인하면 둘째아 또는 셋째아 이상의 출산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 출산 순위별 출산 비

중에서 둘째아와 셋째아의 비중은 큰 변화 없고, 오히려 2015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는 지연된 출산의 이행으로 해석된다.

출산간격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첫째아에서 셋째아이상 출산까지의 기간을 살펴보았다. 1993년 첫째아 출산모의 평균연령은 26.2세, 셋째아 이상 출산모의 평균 연령은 31.6세로 5.4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과 셋째아 이상 평균 출산연령의 차이는 5세 미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3.2세로 좁혀졌다. 199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첫째아에서 셋째아 이상까지의 출산 간격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 것이다.

출생 코호트에 따른 출산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960년생 코호트부터 2이하로 내려가 1.9-1.8수준에 정체해 있다가, 1970년생 이후 코호트부터 코호트 합계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 행동에서 1970년 이후 출생 코호트는 이전 출생 코호트와 달리 이질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 출생 코호트는 적어도 출생 행동에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기혼여성의 출생 코호트별 이상자녀수를 살펴본 결과, 1920년대 출생 코호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3.5명이었다. 1930년대 출생 코호트부터 평균 이상자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50년 출생 코호트에 이르러 2.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5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부터 이후 출생 코호트의 평균 이상자녀수는 대체로 2명 초반 수준에서 지속된다. 이런 변화는 1970년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도 거의 변화가 없고, 198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도 2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제4장

가족의 경제 활동 변화

제1절 경제활동 추이 변화

제2절 인구 사회적 특성별 경제활동

제3절 경제활동 영향 요인의 변화

제4절 소결



제 4 장 가족의 경제 활동 변화

가족의 경제활동 변화는 전체 가족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근대초기 서구사회에서도 가족 변화를 이끌었던 것은 산업화에 따른 임금노동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은, 1993, p.15). 뿐만 아니라 근대 가족의 전형을 설명할 때도 성별 역할 분화에 따른 젠더관계의 위계구조가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되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젠더관계의 재조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재경, 2015). 그리고 후기 근대적 특징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근대적 가족의 전형을 이완 또는 해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특히 부각된 시기는 1990년에 접어들면서부터인데, 여성의 고학력화와 성평등의식의 확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약화되고, 기혼 가구의 맞벌이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배은경, 2009). 다른 한편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비교적 공고했다고 믿었던 남성생계부양자가구도 실은 안전한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산업화 이후 남성이 안정적 노동생애가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한국 고용체제의 구조화된 특징 때문에 45세 이전에 이직, 전업, 계층적 하락을 경험하면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최선영, 장경섭, 2012).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은 초기 산업화 이후 1970년대까지 대다수가 미혼이었고, 1980년대 들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

었지만 이는 주로 저소득계층에서 진행된 생계보조적 활동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졌지만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크게 확장되지는 않았다. 1990년 말 이후 기혼 가구에서 맞벌이 증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지만, 저학력자의 비율이 높고 최근 코호트에 한정하여 대졸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남성이 가구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남성 1인 생계부양자 가구는 1990년대 말 전체 가구의 1/3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근까지도 전체 가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배은경, 2009; 강이수, 2011; 신경아, 2014b; 김수정, 2015).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소득계층별로 차별적이며,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생계부양자 모델과 관련한 젠더관계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부차적이고 독립적이 못하며, 돌봄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어 더 평등한 젠더관계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부분적으로 노동생애 경로에서 근대적인 전형적 생애경로에서 이탈하는 추세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중 두 배우자의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런 추세가 소득계층별, 성별, 세대 간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반적 추세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 소득계층, 출생코호트별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장기 추세를 분석하고, 경제활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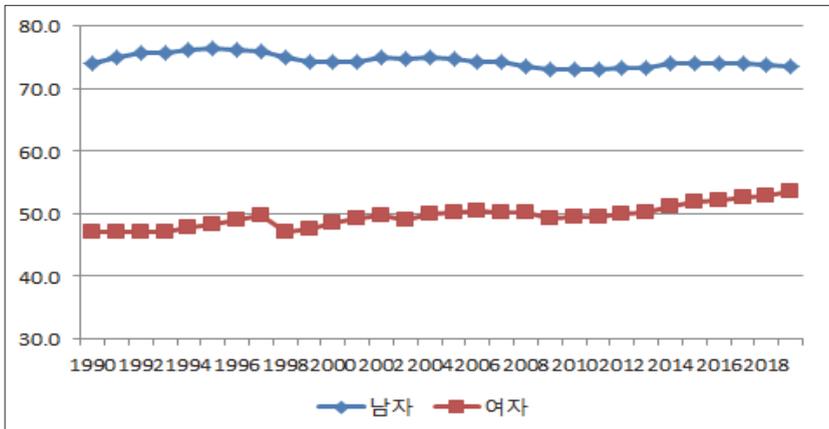
제1절 경제활동 추이 변화

경제활동의 전반적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본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추세인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74~7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성은 50%초반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적으로 정체되어있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대 초반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약 지난 30년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고, 그 이외에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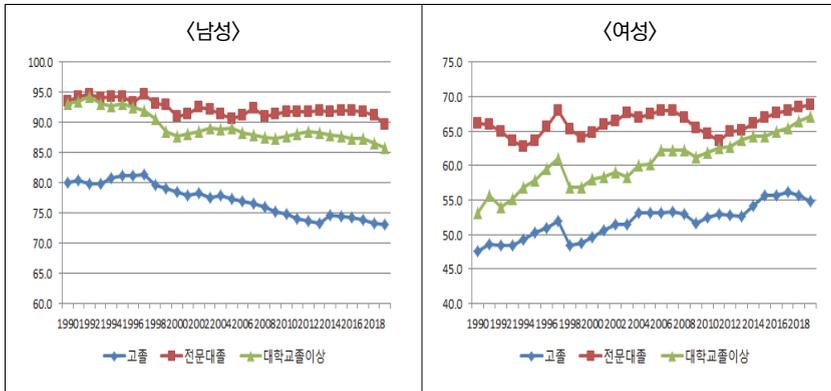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2020.11.21. 03:48\)](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2020.11.21. 03:4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47%수준을 유지하다가 1996년에 49.8%까지 증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다음해에 크게 하락하였다. 이후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2012년까지 49%수준을 유지하였다. 2013년부터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2019년에 53.5%에 이르렀다. 특히 2013년 이후 이전과 달리 증가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에서 학력별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여성 내 학력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학력 집단별 추이에서 큰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고졸자와 대학졸업자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특징이며, 전문대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의 격차가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 4-2]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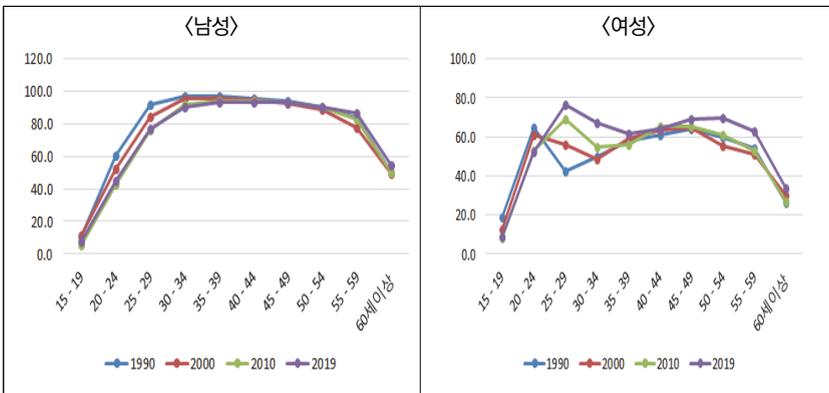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2020.11.21. 03:48)

여성의 경우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전문대 졸업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았고, 1997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이지만, 2013년 이후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의 격차가 거의 좁혀지며 점차 상승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2013년이면 1970년대 초반 출생자가 40세에 도달하는 지점이며, 1980년대 후반 출생자가 25세에 도달하는 지점이다. 이 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를 볼 수 있다.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년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연도로 올수록 감소하며, 50대 후반과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청년은 비취업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고, 반대로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9)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2020.11.21. 03:48\)](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2020.11.21. 0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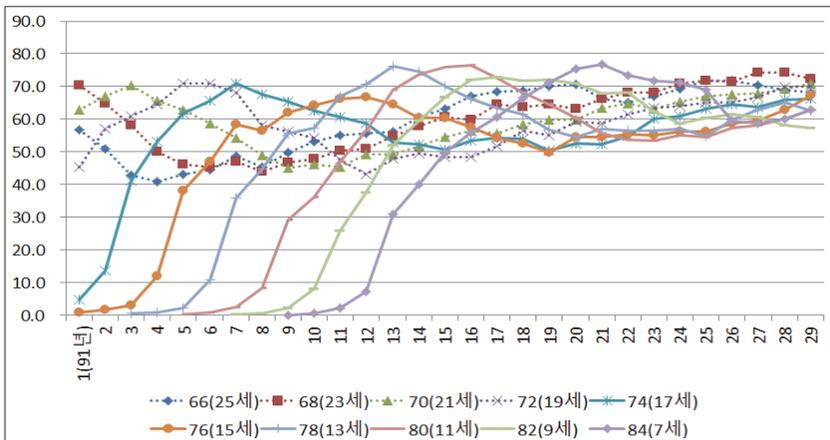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전형적인 M자 곡선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하락하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저점에 해당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저점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되는 정도는 연도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1990년도에 22.0%p였다면, 이 차이는 2000년도에 12.3%p, 2010년에 14.7%p, 2019년에 14.6%p 수준이었다. 즉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고점에서 저점으로 낮아진 이후 이전 고점까지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이탈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이전에 비해서 적어졌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이탈하는 비율은 이전에 비해서 감소하였지만, 이탈 후 재 진입하는 비율 역시 이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유형을 세대별로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코호트 각세별로 1991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여 횡으로 연결하고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세로축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1991년 기준으로 연 수의 증가를 나타낸다. 즉 아래 그림에서 점선 중 마름모 표식의 선이 나타내는 코호트는 1966년생이며, 이 코호트는 1991년 기준으로 25세이며, 다음 해에는 26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아래 그림은 1991년부터 29년이 지나 2019년이 되며, 1966년 출생 코호트부터 2세 간격으로 1984년 출생 코호트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이 나타내는 특징은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각 연령별로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감소함을 의미하며, 고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각 연령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68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 관찰기간 중(1991-2019년) 경제활동참가율 최고

점은 70.4%로 1991년 23세에 나타나고, 최저점은 44.0%로 1991년 이후 7년 뒤인 30세에 나타난다. 1970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의 최고점은 70.3%로 1991년 이후 2년 뒤인 23세에 나타나고, 최저점은 45.1%로 1991년 이후 8년 뒤인 29세에 나타난다. 1968년 출생 코호트와 1970년 출생 코호트를 비교하면 동일한 23세에 경제활동참가율 최고점을 나타내고, 1968년 출생 코호트는 30세에, 1970년 출생 코호트는 29세에 최저점이 나타난다. 1968년 출생 코호트에 비해서 1970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1.1%p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1968년 출생 코호트와 1974년 출생 코호트를 비교하면, 1974년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1968년 출생 코호트에 비해서 6.7%p 감소하였다. 1968년 출생 코호트에 비해서 1976년 출생코호트는 5.9%p, 1978년 출생 코호트는 10.5%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1976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 최고점이 이전 출생 코호트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66.7%를 나타내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해석된다.

[그림 4-3] 출생코호트별(2세 간격) 경제활동참가율(199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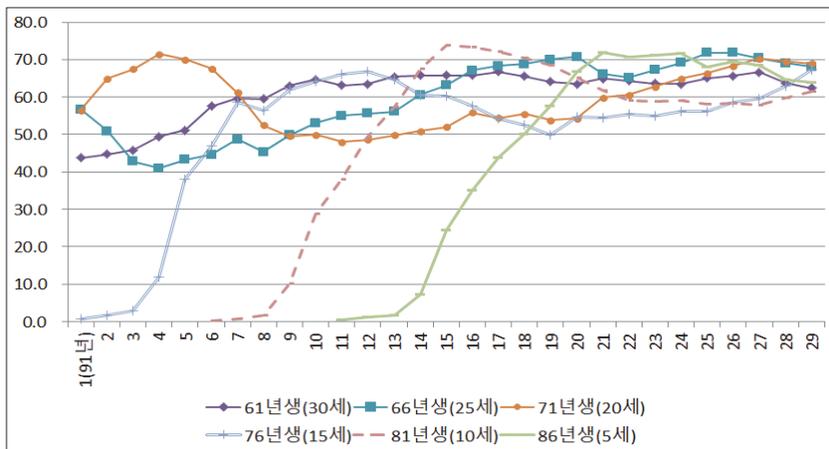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차이를 더 명확히 보기위해서 출생 코호트 간격을 5세 간격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1991년을 기준으로 1966년 출생 코호트는 25세, 1971년 출생 코호트 20세, 1976년 출생 코호트는 15세에 해당한다. 1966년 출생 코호트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탈한 최저점은 경제활동참가율 41.0%였고, 최고점은 관찰 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1971년 출생 코호트의 최고점은 71.5%이며 최저점은 47.9%였다. 1976년 출생 코호트의 최고점은 66.7%, 최저점은 49.9%였다. 1981년 출생 코호트의 최고점은 73.9%, 최저점은 58.0%였다.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최저점은 높아진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66년생 코호트와 1971년생 코호트의 저점 회복기간이 매우 길게 나타나는 반면, 1976년생 코호트의 회복기간은 짧아졌으며, 1981년생 회복기간은 관찰 기간에 나타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그림 4-3] 출생코호트별(5세 간격) 경제활동참가율(1990-2019)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출생 코호트별로 저점에서 회복되는 기간을 살펴보면 1976년 출생 코호트부터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66년 출생 코호트와 1971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 저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게 나타난다. 1966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 41.0%에서 완만하게 상승하고, 1971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는 저점 지속기간이 매우 길고 회복추세도 완만하게 나타난다. 반면 1976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 49.9% 저점에서 20%p 회복되는 속도가 이전 출생코호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 1981년생 코호트는 관찰기간 내에서 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저점에 도달하는 연령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선 혼인 연령의 지연과 출산 연령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의 차이도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최근 코호트의 경우 노동시장의 이탈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전 코호트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1〉 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참가 유형의 특징

구 분	1991년 기준시점	저점 도달 연령	고점과 저점 차이
66년생	25세	28세	
71년생	20세	30세	23.6%p
76년생	15세	33세	16.8%p
81년생	10세	34세	15.8%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각년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앞에서 1976년 출생 코호트의 특성이 두드러진 점을 보았다. 그런데 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에서 1976년생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관찰

기간(1991-2019년)동안 모든 출생코호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매우 특징적 현상을 찾을 수 있다. 1976년 출생 코호트 이전까지 경제활동참가율 최고점에 도달하는 연령은 23세에 해당하며, 최고점 경제활동참가율은 대체로 70-71%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976년 출생 코호트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최고점이 66.7%까지 감소하고, 최고점 도달 연령은 27세로 증가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해석된다. 1976년 출생 코호트가 23세에 도달하는 해는 1999년이었고, 그 해 경제활동참가율은 61.9%에 지나지 않았다. 최고점에 도달하는 해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02년 27세 때였다. 또한 1976년 출생 코호트 이후부터는 경제활동참가율 최고점 도달 연령이 26-27세로 고착되며, 1976년 출생 코호트 이전의 최고점 도달 연령 23세에 비해서 3-4년이 더 길어지고,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1976년 출생 코호트부터 경제활동참가율 최고점 도달 연령도 이전에 비해서 더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표 4-2〉 출생 코호트별 경제활동참가 추세의 특징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66	56.7	50.9	42.8	41.0	43.2	44.6	48.8	45.3	49.9	53.1	55.0	55.7	56.1	60.6	63.1	67.1	68.3	68.8	70.1	70.8	66.2	65.2	67.2	69.2	71.9	71.9	70.4	69.0	68.1
67	66.6	57.0	48.1	45.2	44.6	45.3	48.5	46.4	46.8	49.0	52.5	56.0	54.4	56.8	57.9	63.7	64.6	65.2	63.7	67.7	70.0	67.3	66.6	70.0	70.3	70.5	70.7	68.6	69.5
68	70.4	64.9	58.1	50.1	46.3	45.5	46.9	44.0	46.7	47.7	50.3	50.8	54.8	57.9	60.7	59.9	64.5	63.8	64.4	63.3	66.2	68.1	68.1	70.9	71.8	71.6	74.3	74.3	72.5
69	69.4	69.4	64.0	57.4	52.0	48.5	47.3	44.0	42.9	43.6	47.9	48.8	50.7	50.9	54.9	57.5	59.6	61.5	63.1	64.8	65.5	63.9	66.6	69.1	70.0	70.9	73.0	72.2	71.2
70	63.0	67.0	70.3	65.5	63.0	58.7	54.2	48.9	45.1	46.2	45.2	49.4	49.2	51.7	54.6	56.4	55.7	58.4	60.0	59.8	63.4	64.7	63.2	65.3	67.0	67.0	68.0	69.3	70.9
71	56.5	64.9	67.5	71.5	70.0	67.6	61.2	52.5	49.6	50.0	47.9	48.6	49.8	50.9	52.0	55.9	54.4	55.5	53.8	54.3	59.9	60.6	62.8	65.0	66.4	68.3	70.2	69.5	68.9
72	45.5	56.9	60.9	64.5	70.8	71.0	68.2	58.1	56.3	54.4	47.7	43.0	47.9	49.4	48.4	48.5	51.9	56.6	55.1	59.2	58.7	61.4	63.4	64.1	65.1	65.0	66.7	69.9	70.1
73	13.9	39.7	54.5	62.9	68.6	73.4	75.4	63.5	57.4	53.3	50.3	50.9	49.0	49.0	46.8	53.3	55.1	56.6	54.5	56.7	57.6	56.0	55.7	59.1	63.9	67.1	67.1	65.9	64.9
74	4.6	13.6	41.1	53.1	61.9	65.6	71.0	67.6	65.4	62.6	60.8	58.7	52.9	52.4	50.7	53.5	54.1	53.9	50.5	52.6	52.4	54.8	60.2	60.9	63.1	64.6	63.6	66.0	66.2
75	2.5	3.8	13.5	40.0	49.5	57.8	65.7	69.5	67.3	64.9	65.8	61.2	58.0	55.6	54.0	53.3	51.3	49.3	48.6	53.1	51.8	54.6	57.8	61.8	61.8	62.2	64.7	64.1	63.7
76	0.8	1.7	3.0	12.0	38.0	46.9	58.6	56.4	61.9	64.2	66.2	66.7	64.7	60.5	60.4	57.6	54.2	52.5	49.9	54.7	54.4	55.5	50.0	56.3	56.3	58.6	59.5	63.0	67.4
77	0.8	1.4	2.9	12.6	35.8	46.1	54.6	63.1	63.0	67.9	68.0	70.4	69.4	64.3	59.0	56.4	55.3	52.1	53.8	51.6	50.1	51.4	50.6	53.4	53.8	58.3	61.3	63.0	
78	0.6	0.9	2.2	10.9	35.8	44.8	55.7	57.3	67.0	70.8	76.3	74.5	70.1	66.2	63.4	61.5	56.6	54.5	57.1	56.4	56.4	57.1	54.9	59.7	62.9	65.2	62.6		
79	0.2	0.6	2.2	9.9	31.9	41.7	49.2	55.6	64.6	73.1	74.4	71.2	69.4	67.5	66.3	61.0	55.2	54.0	56.5	57.0	55.7	56.7	60.4	61.0	64.5	63.5			
80	0.2	0.9	2.5	8.4	29.2	36.2	47.1	56.6	69.0	73.6	76.0	76.5	72.5	68.3	64.6	60.4	55.8	53.6	53.5	55.2	54.5	57.3	58.1	60.1	62.9				
81	0.2	0.7	1.8	10.2	28.7	38.0	49.5	57.3	67.5	73.9	73.3	72.2	70.6	68.5	65.1	61.8	59.2	58.9	59.2	58.0	58.4	57.9	59.7	61.4					
82	0.3	0.6	2.3	8.1	25.7	37.5	52.0	59.6	66.8	72.1	73.0	71.9	71.9	71.0	68.0	68.0	62.3	58.6	60.5	61.4	60.7	58.2	57.4						
83	0.4	1.0	1.5	7.6	24.9	36.2	50.5	57.9	61.9	69.4	73.5	75.5	71.9	71.2	68.9	65.1	63.7	61.4	62.6	62.0	60.4	64.0							
84	0.1	0.7	2.2	7.2	30.8	40.1	49.7	55.9	60.6	66.5	71.2	75.5	76.8	73.5	71.7	71.3	68.9	59.7	58.8	60.1	62.8								
85	0.3	0.8	1.3	9.2	31.0	40.2	44.9	49.2	61.4	65.6	71.5	74.5	72.9	74.3	74.2	68.1	64.6	64.7	64.6	65.3									
86	0.5	1.2	1.8	7.2	24.5	35.2	43.8	50.0	57.6	66.9	71.9	70.6	71.3	71.6	68.1	69.5	68.5	64.6	63.8										
87	0.6	3.0	8.6	25.0	31.0	40.2	46.5	57.3	66.8	73.4	73.2	75.2	73.7	69.5	69.0	67.4	67.6												
88	0.1	0.4	1.6	5.1	23.4	30.7	41.1	49.8	54.2	63.8	67.0	74.2	75.6	73.9	75.3	75.1	74.8												
89	0.3	0.8	2.5	6.5	22.6	29.4	40.4	47.2	58.4	68.4	72.1	75.0	78.3	74.6	75.9	68.9													
90	0.6	0.7	2.8	6.5	21.1	32.8	42.7	53.6	57.8	68.4	72.8	78.8	76.4	79.2	8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각년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제2절 인구 사회적 특성별 경제활동

1. 인구 사회적 특성별 맞벌이 가구 변화

이 절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집단특성별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한다. 이 자료는 횡단조사로써 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생애과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동일한 변수를 기준으로 1991년 조사부터 2018년 조사까지 통합자료를 만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자료를 통합하였어도 기본적으로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각 조사 연도별로 각각 분석하여 결과를 함께 제시할 것이다. 주요한 분석의 초점은 맞벌이 가구의 변화추세이며, 따라서 분석 표본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한정하였다.

먼저 각 조사 연도별로 전체 기혼여성의 맞벌이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1991년에 32.1%로 나타나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에 55.7%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조사에서는 맞벌이 가구비율이 42.3%, 2009년 45.3%로 낮아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석된다.

〈표 4-3〉 전체 기혼여성(15-49세) 맞벌이 가구 비율

구 분	91	94	97	00	03	06	09	12	15	18
홀벌이	67.9	55.6	55.9	57.7	50.5	51.0	54.7	50.5	47.6	44.3
맞벌이	32.1	44.4	44.1	42.3	49.5	49.0	45.3	49.5	52.4	55.7
N	7015	5810	6233	6010	6735	6757	5803	6879	10464	1067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기혼여성 연령 집단별로 맞벌이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기혼여성의 맞벌이 비율은 1991년 24.2%, 2018년 42.6%로 전체적으로 최근 조사로 올수록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 기혼여성의 맞벌이 비율도 1991년 32.5%에서 2018년에 50.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40대 기혼여성의 맞벌이 비율도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전 연령층에서 2010년대 들어 경제활동이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특히 40대 기혼여성의 맞벌이 비율이 1991년 조사에서 38.6%, 2018년 조사에서 61.6%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대 연령층은 전체 관찰기간 동안 홀벌이가 맞벌이보다 늘 더 많았지만, 30대 연령층은 2009-2015년 동안은 홀벌이 가구가 더 많았고, 2018년에 다시 맞벌이 가구가 더 많아 졌다. 40대 연령층의 경우 1991년에는 홀벌이 가구가 더 많았지만, 1994년부터 계속 맞벌이 가구가 더 많았다. 40대 연령층의 경우 출산을 끝내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추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 기혼여성(15-49세) 연령 집단별 맞벌이 가구 비율

구 분	91	94	97	00	03	06	09	12	15	18
29세이하										
홀벌이	75.8	71.7	71.3	72.9	62.9	62.5	63.2	62.1	64.1	57.4
맞벌이	24.2	28.3	28.7	27.1	37.1	37.5	36.8	37.9	35.9	42.6
N	1796	1394	1315	1112	824	730	587	536	774	59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39세										
홀벌이	67.5	54.4	54.8	58.9	55.7	55.4	62.2	54.1	52.6	49.4
맞벌이	32.5	45.6	45.2	41.1	44.3	44.6	37.8	45.9	47.4	50.6
N	3237	2800	2923	2640	3050	3055	2494	2952	4793	469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홀벌이	61.4	44.0	47.4	48.8	41.3	43.7	46.1	45.4	40.0	38.4
맞벌이	38.6	56.0	52.6	51.2	58.7	56.3	53.9	54.6	60.0	61.6
N	1982	1616	1995	2258	2861	2972	2722	3391	4897	538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다음 표는 기혼여성의 출생 코호트에 따른 맞벌이 가구 비율을 나타낸다. 1950년대 출생코호트는 1990년대에 40대에 해당하며, 1960년대 출생 코호트는 2000년대에 40대에 해당한다. 각 출생 코호트의 40대 연령 기간 중 맞벌이 비율은 대체로 50%대 수준을 나타내며, 1950년대 출생 코호트, 1960년대 출생 코호트, 1970년 출생 코호트 중에서 1970년대 출생 코호트의 40대 연령 후반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맞벌이 가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30대 연령기간 중 맞벌이 비율은 1960년대 출생 코호트보다 197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198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표 4-5〉 기혼여성(15-49세) 출생 코호트별 맞벌이 가구 비율

구분	91	94	97	00	03	06	09	12	15	18
50~59년										
홀벌이	66.5	47.5	47.0	48.7	41.4	47.5	54.4			
맞벌이	33.5	52.5	53.0	51.3	58.6	52.5	45.6			
N	2825	2204	2170	2018	1726	1006	14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0~69년										
홀벌이	75.4	65.8	60.7	58.1	49.2	44.7	46.3	44.5	36.8	33.4
맞벌이	24.6	34.2	39.3	41.9	50.8	55.3	53.7	55.5	63.2	66.6
N	2252	2422	2796	2676	3243	3145	2751	2236	1877	65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79년										
홀벌이		76.8	72.5	72.4	61.3	59.2	62.7	50.7	45.6	40.4
맞벌이		23.2	27.5	27.6	38.7	40.8	37.3	49.3	54.4	59.6
N		241	640	1201	1720	2402	2418	3378	5455	557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89년										
홀벌이						68.1	62.9	60.4	57.4	50.9
맞벌이						31.9	37.1	39.6	42.6	49.1
N						204	485	1265	3132	444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기혼여성의 가구소득계층에 따른 맞벌이 가구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만 소득변수가 2000년 이후에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1991년부터 1997년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별 맞벌이 가구 비율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낮은 소득계층의 맞벌이 비율은 대체로 20%수준을 나타내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중간소득계층에서는 최근 연도로 올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간소득계층의 맞벌이 비율은 2000년에 41.1%에서 2018년 61.0%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은 상위소득계층에서 나타난다. 세 소득집단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상위소득계층의 2000년 맞벌이 비율은 58.7%였지만, 2018년에 76.3%까지 증가하였다. 소득계층에 따른 경제활동 특성의 차이가 최근 연도로 올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소득양극화의 효과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표 4-6〉 기혼여성(15-49세) 소득계층별 맞벌이 가구 비율

구 분	00	03	06	09	12	15	18
저소득층							
출벌이	70.1	63.9	68.2	72.5	72.7	77.2	75.2
맞벌이	29.9	36.1	31.8	27.5	27.3	22.8	24.8
N	1447	1656	1671	1679	1913	2633	269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간소득층							
출벌이	58.9	49.2	48.9	50.3	45.3	43.8	39.0
맞벌이	41.1	50.8	51.1	49.7	54.7	56.2	61.0
N	3119	3357	3354	2677	3338	5231	531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소득층							
출벌이	41.3	38.4	38.0	42.3	34.9	25.0	23.7
맞벌이	58.7	61.6	62.0	57.7	65.1	75.0	76.3
N	1229	1584	1638	1443	1605	2596	26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2. 인구 사회적 특성별 가구소득대비 여성임금 비중

전체 가구소득에서 여성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젠더 관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생계부양자 가구에서 전형적으로 젠더 관계의 불형평이 유지되고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 소득에서 여성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는 젠더관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취업한 기혼 여성의 임금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소득에서 취업한 기혼여성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3%이하인 경우는 2000년 조사 이후 점차 증가하였다. 33-66%에 해당하는 중간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2000년에 비해 2018년 조사시점까지 약 10%p 증가하였다. 취업한 기혼여성의 임금비중이 가구소득에서 높은 비중(66-100%)을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즉 가구소득 대비 여성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중간 수준의 집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4-7〉 취업한 전체 기혼여성(15-49세)의 임금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 분	00	03	06	09	12	15	18
0%	27.8	27.3	16.7	15.5	8.3	8.1	8.0
0-33%	13.1	15.6	18.4	17.8	19.0	22.6	21.5
33-66%	24.5	25.7	29.2	30.3	35.0	37.4	36.2
66-100%	34.6	31.4	35.6	36.4	37.7	31.9	34.2
N	2639	3441	3439	2764	3461	5617	606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1) 분석 자료에서 취업한 기혼여성의 임금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취업형태로 볼 수 있고, 이들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자영자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가구소득에서 여성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연령별로 세분해보면, 20대 연령층의 변화보다 30대와 40대 연령층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30대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여성임금 비중이 작은(0-33%) 집단은 2000년에 비해 2018년에 다소(6%p) 증가했지만, 비중이 중간 수준(33-66%)인 집단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10%p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40대 연령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2000년에 비해서 2018년에 그 차이는 15%p나 증가하였다.

요컨대 전체 가구소득에서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에서 연령별 차이는 고연령집단일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비중이 높은 집단의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2000년대 전체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4-8〉 기혼여성(15-49세) 연령별 가구소득에서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구 분	00	03	06	09	12	15	18
29세미만							
0%	16.3	12.3	4.5	7.5	3.3	2.4	9.0
0-33%	10.0	7.8	10.6	7.5	15.2	16.0	15.4
33-66%	26.3	30.7	32.2	31.7	28.4	38.1	30.3
66-100%	47.5	49.2	52.7	53.3	53.1	43.5	45.3
N	320	309	292	227	211	294	2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39세							
0%	24.2	22.2	14.1	10.1	5.8	6.0	6.3
0-33%	13.1	16.7	16.8	17.0	16.3	18.4	19.1
33-66%	26.3	26.2	30.1	32.5	34.9	38.4	35.9
66-100%	36.4	34.9	39.0	40.5	43.0	37.1	38.7
N	1104	1396	1396	983	1368	2320	240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49세							
0%	34.1	34.2	20.8	20.1	10.6	10.3	9.2
0-33%	13.9	16.1	21.0	19.9	21.4	26.5	23.7
33-66%	22.5	24.4	28.0	28.7	35.8	36.5	37.0
66-100%	29.5	25.4	30.1	31.3	32.1	26.7	30.2
N	1215	1736	1751	1554	1882	3003	338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출생코호트별로 여성임금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60년대 출생 코호트와 7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 여성임금이 가구소득에서 중간 수준을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연도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 코호트에 따른 차이는 연령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표의 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1960년대 출생 코호트와 1970년대 출생 코호트의 30대를 비교하면, 이후 출생코호트의 임금 비중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증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표 4-9〉 기혼여성(15-49세) 출생 코호트별 가구소득에서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구 분	00	03	06	09	12	15	18
51~59년							
0%	34.0	36.4	22.4	25.7	.	.	.
0-33%	14.2	15.7	23.1	28.4	.	.	.
33-66%	22.8	23.0	24.3	21.6	.	.	.
66-100%	29.0	24.9	30.2	24.3	.	.	.
N	1089	1063	567	74	.	.	.
전체	100.0	100.0	100.0	100.0	.	.	.
60~69년							
0%	25.0	26.4	18.8	19.7	11.9	11.3	12.7
0-33%	12.9	17.3	19.7	19.2	21.6	28.2	24.3
33-66%	25.9	26.8	29.7	29.0	34.9	34.3	39.7
66-100%	36.2	29.5	31.8	32.1	31.6	26.1	23.2
N	1142	1689	1794	1560	1264	1218	448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79년							
0%	15.7	15.7	10.6	9.2	7.2	8.8	8.3
0-33%	10.0	11.1	14.2	16.9	18.9	23.9	23.4
33-66%	26.5	27.1	30.8	32.4	36.0	38.2	36.5
66-100%	47.9	46.1	44.4	41.4	37.9	29.1	31.8
N	351	675	1008	944	1690	3026	339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89년							
0%	.	.	5.7	7.5	3.2	3.7	6.7
0-33%	.	.	8.6	7.0	12.8	14.9	18.0
33-66%	.	.	35.7	33.3	31.8	38.4	35.2
66-100%	.	.	50.0	52.2	52.3	43.0	40.2
N	.	.	70	186	507	1373	2224
전체	.	.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취업한 기혼여성의 가구소득계층별로 여성 임금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저소득계층에서 여성임금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경우 여성임금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중간 소득계층에서는 여성임금이 가구소득에서 중간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기혼여성(15-49세) 소득계층별 가구소득에서 여성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구 분	00	03	06	09	12	15	18
저소득층							
0%	49.2	41.9	23.4	24.5	12.6	16.5	20.5
0-33%	4.5	6.9	7.7	10.3	10.0	18.1	22.0
33-66%	5.5	15.7	18.5	17.9	31.2	29.2	23.6
66-100%	40.8	35.5	50.4	47.3	46.2	36.1	33.9
N	581	707	661	575	580	701	74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간소득층							
0%	23.7	26.4	16.4	14.8	7.7	7.7	6.7
0-33%	14.1	16.2	17.9	18.0	19.0	21.1	20.2
33-66%	31.6	30.5	38.2	39.5	39.9	42.3	40.0
66-100%	30.7	26.8	27.4	27.8	33.4	28.9	33.1
N	1330	1755	1758	1351	1838	2969	327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고소득층							
0%	18.1	18.5	12.8	10.4	6.9	5.6	5.5
0-33%	18.3	20.6	26.3	22.8	24.1	26.7	23.3
33-66%	26.8	24.2	20.7	24.0	28.4	32.8	34.9
66-100%	36.8	36.7	40.2	42.8	40.7	34.9	36.3
N	728	979	1020	838	1043	1947	204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제3절 경제활동 영향 요인의 변화

앞서 살펴본 기술적 수준의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 가구 비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특히 소득수준과 맞벌이가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앞서 기술적 분석에 활용한 자료로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이다. 기술분석에서 활용자료는 1991년 조사부터 2018년 조사까지였으나, 소득항목은 2000년 조사부터 조사하였기에 여기서는 2000년 조사 이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 집단 간 차이는 명확히 나타난다. 각 조사연도의 분석 결과를 보면 25-29세 연령집단에 비해서 고연령집단일수록 맞벌이가구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경향성은 2000년 자료 분석결과부터 2018년 자료 분석결과까지 동일하다. 이는 출산을 마치고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일반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수에 따른 영향관계는 최근 연도로 올수록 세 자녀 이상의 경우 그 차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자료 분석결과에서 2명의 자녀를 둔 경우에 비해서 자녀가 없는 경우,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가구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1명의 자녀를 둔 경우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자녀 가구와 3자녀 가구의 맞벌이 가능성의 차이는 최근 연도로 올수록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영향관계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자녀수가 많으면 맞벌이가구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2010년대에는 반대의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의 효과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졸여성에 비

해서 중졸이하 여성의 맞벌이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여성의 맞벌이 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경향성은 2000년 자료부터 2018년 자료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득계층에 따른 맞벌이 가능성도 그 특성이 명확히 드러났다. 중간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맞벌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2000년 자료부터 2018년 자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요컨대 맞벌이 가구일 확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11〉 조사연도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영향요인 로짓분석

구 분	2000 Exp(B)	2003 Exp(B)	2006 Exp(B)	2009 Exp(B)	2012 Exp(B)	2015 Exp(B)	2018 Exp(B)
15~24세	0.74	0.50**	0.48**	0.85	0.75	0.47**	0.83
25~29세							
30~34세	1.43***	1.16	1.02	0.92	1.18	1.10	1.08
35~39세	2.06***	1.40***	1.51***	1.16	1.60***	1.31*	1.03
40~49세	2.00***	1.70***	1.73***	1.76***	1.78***	1.66***	1.35**
자녀0	2.42***	2.18***	2.16***	2.51***	2.21***	1.89***	1.63***
자녀1	0.95	1.12	1.04	1.07	1.06	0.92	0.99
자녀2							
자녀3	1.23**	1.28***	1.02	0.99	0.82*	0.92	0.93
중졸이하 고졸	2.52***	2.29***	1.93***	1.62***	1.14	2.31***	1.49†
대졸이상	0.87	0.72***	0.79***	0.72***	0.88†	0.84***	0.80***
가구소득 하	0.47***	0.43***	0.38***	0.35***	0.31***	0.22***	0.20***
가구소득 중							
가구소득 상	2.32***	1.80***	1.62***	1.45***	1.55***	2.34***	2.11***
상수항	0.32***	0.62***	0.72**	0.76†	0.80	1.01	1.4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부부의 경제활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주요 쟁점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 맞벌이 가구 변화에 따른 젠더관계의 변화, 마지막으로 노동생애 경로에서 근대적인 전형적 생애 경로에서 이탈하는 추세가 발견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장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고려하면서 가족 구성원 중 두 배우자의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런 추세가 소득계층별, 성별, 세대별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미하게 하락추세인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추세에 있다. 약 지난 30년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고, 그 이외에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대 47%수준을 유지하다가 1996년에 49.8%까지 증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다음 해에 남성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에서 학력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여성의 학력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학력 집단별 추이에서 큰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전문대 졸업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았고, 1997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이지만, 2013년 이후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의 격차가 거의 좁혀지며 점차 상승추세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에서 남성은 년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근연도로

올수록 감소하며, 50대 후반과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전형적인 M자 곡선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하락하는 경제활동참가율 최저점이 상승하고 있고, 최저점에 해당하는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즉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낮아진 이후 이전 최고점까지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이탈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이전에 비해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이탈하는 비율이 이전에 비해서 감소하였지만, 이탈 후 재 진입하는 비율도 이전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출생 코호트 각세별로 1991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의 최저점이 높아진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노동시장 이탈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66년생 코호트와 1971년생 코호트의 최저점 회복기간이 매우 길게 나타나는 반면, 1976년생 코호트의 회복기간은 짧아졌다. 또한 저점에 도달하는 연령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혼인 연령의 지연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도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코호트의 경우 노동시장의 이탈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전 코호트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료 분석결과, 전체 기혼여성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1991년에 32.1%로 나타나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에 55.7%로 나타난다. 기혼 여성 연령 집단별로 맞벌이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기혼여성의 맞벌이 비율은 1991년 24.2%, 2018년 42.6%로 전체적으로 최근 조사로 올수록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 기혼여성의

맞벌이 비율도 1991년 32.5%에서 2018년에 50.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40대 기혼여성의 맞벌이 비율도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전 연령 계층에서 2010년대 들어 경제활동이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특히 40대 기혼여성의 맞벌이 비율이 1991년 조사에서 38.6%, 2018년 조사에서 61.6%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소득계층에 따른 맞벌이 가구 비율은 소득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2000년조사 이후자료에서 확인가능하다. 분석 결과 그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낮은 소득집단의 맞벌이 비율은 대체로 20%수준을 나타내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중간소득집단에서는 최근 연도로 올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간소득계층의 맞벌이 비율은 2000년에 41.1%, 2018년 61.0%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은 상위소득계층 집단에서 나타난다. 세 소득집단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상위소득계층의 2000년 맞벌이 비율은 58.7%였지만, 2018년에 76.3%까지 증가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으로써 맞벌이 가구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집단, 학력집단, 소득계층간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특히 소득계층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간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맞벌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2000년 조사 시점 이후 매 조사에서 유지되고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가족 부양 기능의 변화

제1절 부모 돌봄과 부양의 변화

제2절 아동 양육의 변화

제3절 소결



제 5 장 가족 부양 기능의 변화

제1절 부모 돌봄과 부양의 변화

본 절에서는 가족 내 부모 돌봄과 부양의 변화를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 부모 돌봄과 부양은 당위적 문제였으나, 사회구조 및 인구 및 경제 등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족들은 부모 돌봄과 부양에 다양하게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가족 내 부모 돌봄과 부양이 변화하는 전반적인 양상을 기존 논의를 통해 짚어보고,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 세대 집단의 돌봄과 부양 실태의 변화를 분석한다. 2004부터 2017년 사이의 노인돌봄 기제와 가족 내 주돌봄자와 돌봄 내용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활용하여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자녀 세대의 한국사회의 부모 돌봄 및 지원의 양상이 어떠한지, 동거·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다양한 지원의 실태와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실증 자료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 연령집단, 성별, 소득 등의 주요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부모 돌봄과 부양의 차이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가족의 변화에서 가족 내 부모 돌봄과 부양의 변화를 전망한다.

1. 부모 돌봄과 부양 논의

가. 가족관계의 변화와 부모 돌봄의 탈가족화

사회 및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 문제에 대응하는 가치 및 경향이 달라졌다. 특히 부모 돌봄과 부양의 문제를 둘러싸고 가족 가치 및 가족 관계의 양상은 변화가 나타난다. 가족관계의 변화와 부모 돌봄의 탈가족화의 경향을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부모 돌봄은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신체적으로 돌보는 것이 도리라고 믿는 효규범이 가족 생활을 규정해왔으며(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b), 가족, 특히 장남과 맏며느리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다(김혜경·남궁명희, 2008). 혈연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효 이념은 가부장제에서 장남과 맏며느리의 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도덕적 근거로 설정되었고 이러한 근거 위에서 관습과 제도가 조직되었다. 노인 돌봄 규범과 방식은 전통사회의 집단적·공동체적 생활양식 속에서 노인 돌봄의 ‘부담’을 가족과 친족이 담당하게 했다(신경아, 2011). 한국의 복지체제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근간으로 하면서 아동이나 노인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는 강한 ‘가족주의’에 기반해 있다고 분석된다(김지미, 2018). 노인돌봄에 있어서 가족책임론이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가족이 일차 책임자로서의 노인 돌봄을 공급해왔던 것이다(남궁명희, 2009).

하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 나타난 변화는 더 이상 효 이념이 현실적 영향력을 갖기 어렵게 만들고, 친족과 공동체적 관계의 약화, 핵가족의 확대로 인해 노인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 환경이 해체되었다. 한국 가족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효 이념은 순수한 도덕 가

치로 설정되었지만 가족관계를 구속하는 실질적 영향력을 잃어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다(박경숙, 2007). 나아가 오늘날 고령화, 저출산,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만혼현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돌봄의 의식과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가족사회 환경의 변화로 가족 내 부양이 필요한 수요자는 급증하는 데 비해 부양관 약화와 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 부부 및 가족 다양화 등으로 가족 내 부양을 담당할 주체가 감소하는 단적인 현상이 야기되었다(김유경, 2017).

핵가족화가 가정 내 노인 돌봄에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를 이윤경(2014)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인가구 형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성인자녀가 결혼 또는 독립 등으로 노인의 가구형태가 노인부부, 자녀동거가구 형태를 취하거나 배우자 사망 시 자녀동거가구로 변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점차 성인자녀의 결혼 또는 독립 이후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 형태를 취하다가 배우자 사망 시에도 노인독거가구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진(2017)도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 돌봄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소규모화, 독거노인가구 혹은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자녀동거가구가 감소하게 되어 가족이 노인을 전적으로 돌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공적 돌봄정책이 빈약한 복지체제 하에서 여성을 비롯한 가족들이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돌봄을 위해 공적제도 등의 자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사회보험원리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식적 측면에서의 탈가족화는 높은 수준으로 과거의 강한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돌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돌봄의 공적 돌봄 시스템

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이선영, 2016).

산업구조의 변화는 남성 가정의 고용 불안과 여성의 노동력화를 불가피하게 했으며, 이는 가족의 부양과 돌봄 기능의 저하 또는 공백을 야기했다. 따라서 가족이 제공해 온 기능을 국가나 시장 및 지역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공적 돌봄 시스템의 재편을 촉구하였다(김지미, 2018).

한국에서는 점차로 가족 복지의 '탈가족화'가 추구되었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동반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가족주의적 복지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마경희, 이재경, 2007; 김영미, 2009). 20세기 후반 이후의 가족주의 복지체제를 둘러싼 환경변화 속에서 더 이상 가족을 '무상'의 돌봄 주체로 상정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종래 가족 등이 제공해 온 돌봄 기능이 국가와 시장 및 지역사회 등에 의해 대체 혹은 보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김지미, 2018).

나. 노인돌봄서비스 발전과 공공성

가족의 부모 돌봄의 양상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노인돌봄서비스와 이를 위한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전 서구의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현금 형태의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주를 이루었고 돌봄은 가정 내에서 가족 혹은 지인을 통해 충족되거나 선의에 기댄 민간 자선단체에 의해 제공되었다. 1990년대 전후 서구사회를 시작으로 사회변화로 인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지자 돌봄서비스는 공적 영역으로 배치되면서 제도화된 대인서비스로 정의되었다(주현정, 김용득, 2018).

한국의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도입과 논의를 보면, 의존에 기반한 보호주의 접근, 이용자 선택과 자립을 강조하는 표준적 접근,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접근이라는 단계적 변화를 보이는 서구와 차이를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이용자 선택 방식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은 보호주의 접근에서 표준적 접근 방식으로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마을 만들기 등의 움직임은 공동체주의의 강화로 설명된다는 것이다(주현정, 김용득,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 돌봄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돌봄(care)을 받던 노인들이 이제는 요양시설에 가거나,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게 된 것으로 사회적 돌봄(social caring)의 공식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김희연, 2009).

한편, 최근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가족의 부양의무를 전제로 한 제도로서,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서류상으로는 가족일 뿐 교류가 없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때도 수급자 선정을 막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족부양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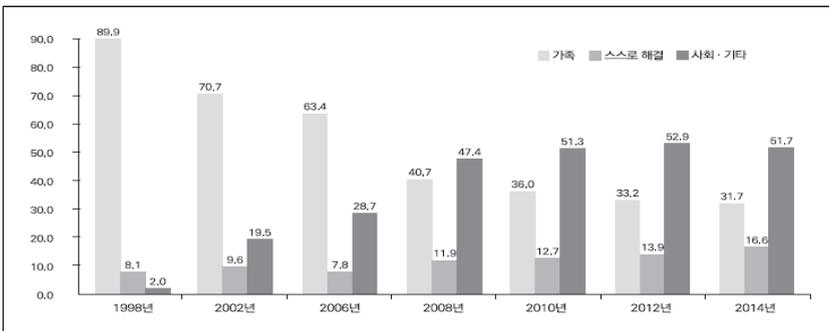
노부모와 자녀의 생활공간이 달라지면서,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내는 경제적 부양 이외에 실제로 일상의 도움을 주는 도구적 돌봄이 어려워졌다. 가사나 수발 등 돌봄의 주체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것도 가족에 의한 노인 돌봄을 어렵게 하는 변화 요인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가족 외의 선택지가 넓어진 것도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신경아, 2011).

다. 노인 돌봄 의식의 변화

노인돌봄에 대한 의식 변화를 국가 통계 조사를 통해 개괄해볼 수 있다. 부모 돌봄이 가족 돌봄 영역 내에서 인식되었던 것으로부터 사회적 돌봄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부모 부양 인식을 정리해보면,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8년 89.9%에서 2002년 70.7%, 2006년 63.4%로 서서히 감소하다 2014년에는 31.7%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스스로 해결’, ‘사회·기타’는 각각 1998년 8.1%와 2.0%로 미미하였는데 최근 들어 18.7%, 50.8%로 크게 늘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존재했지만, 이제 노부모 돌봄은 선택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정운태, 서용석, 2015).

[그림 5-1] 부모 부양 책임자의 변화

(단위: %)



주: 1) 분석 대상은 1998-2010년에는 15세 이상 인구, 2012-2014년은 13세 이상 인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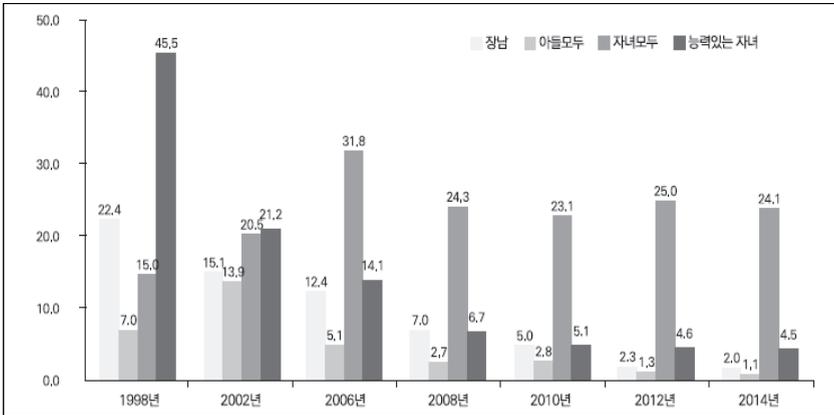
2) 부모부양 가치관에서는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 포함

자료: 통계청. (1998-2014). 사회조사

가족 중에서는 1998년에는 장남과 아들 모두가 29.4%로 1/3 정도이고, 딸을 포함한 모든 자녀는 15.0%, 능력있는 자녀라는 응답은 45.5%로 과반수에 해당한다. 2008년에는 가족 중에서는 장남과 아들 모두가 9.7%로 감소한데 비해 아들·딸 모두는 24.3%로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가족 중 모든 자녀에게 부모 부양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24.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미미하여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인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에서 점차 노부모의 자기부양을 비롯하여 국가 및 사회 등 공적부양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2] 가족 중 부모 부양 책임자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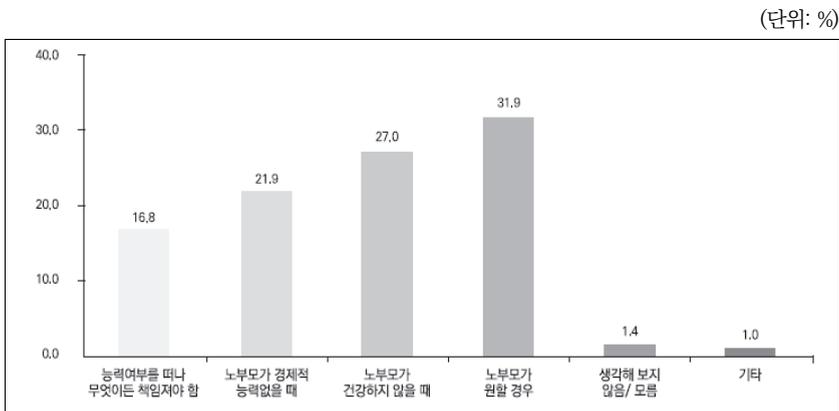
주: 분석 대상은 1998-2010년에는 15세 이상 인구, 2012-2014년은 13세 이상 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4). 사회조사

최근 2019 고령자 통계도 사회조사의 변천사와 동일한 통계를 보여준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부모의 노후를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생각하는 사람’이 37.1%, 그다음으로 가족(29.7%), 부모 스스로 해결(24.9%) 순으

로 나타났으며, 가족 중에는 모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가 59.3%로 가장 많았고, 자식 중 능력 있는 자(20.9%)순으로 많았다(통계청, 2019).

2014년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 범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가 부양을 원할 때(31.9%)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가 건강하지 않을 때(27.0%),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21.9%), 부모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무엇이든 책임져야 한다(16.8%) 순으로 나타났다(김유경, 이진숙, 이재립, 김가희, 2014).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자녀의 부모 부양이 전통적 효사상, 경로 효친에 의한 당위적이고 자발적인 책임 행위로부터 필요에 의한 조건적인 선택 행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3] 노부모부양 책임 범위(2014)



주: 일반국민 1,0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자료: 김유경 등(20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돌봄은 성숙한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한 이후에야 비로소 국가책임의 영역에 포함되었을 만큼 오랫동안 가족 책임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에도 많은 국가에서 노인 돌봄은 국가책임

이 가족책임을 보충/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석재은, 유은주, 2007). 노인 돌봄 의식은 노인 돌봄 서비스의 확충보다 더 빠르게 '탈가족화'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족주의 약화와 핵가족화, 법 및 제도적인 발달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족부양은 감소하고 국가, 사회가 주체가 되는 돌봄의 공적 서비스에 의탁하고자 하는 의식의 확산을 시사한다(정운태, 서재욱, 2016).

2. 돌봄을 받는 노인 세대의 실태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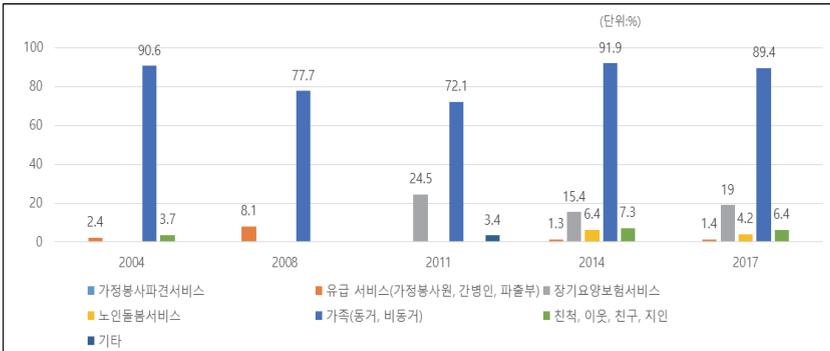
가. 노인 돌봄 기제의 변화

본 분석은 1990년 대 후반부터 노인의 생활 현황과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전국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노인 세대의 응답을 통해 돌봄을 받는 구체적인 상황과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노인 집단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결과를 가족 내 노인 돌봄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나, 조사에 따라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적 구분, 노인 돌봄자 기제의 구분이 일관되지 않아서 제한적으로 활용했다. 가족 내 노인돌봄의 구체적 상황을 노인 특성별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은 2011, 2014, 2017년의 3개년 조사를 주로 활용하였다. 노인 돌봄의 구성의 전반적 상황과 변화, 가족 내 돌봄을 받는 노인 집단의 특성 및 주돌본자와 돌봄 내용, 자녀 세대와의 돌봄 지원의 교환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돌봄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구성 또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여전히 가족 돌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돌봄을 받는 노인 중 배우자 및 직계자식의 돌봄율이 90.6%에 달했으며, 가정봉사원, 간병인, 파출부와 같은 비혈연 유급 봉사원의 돌봄율은 2.4%, 본인 및 배우자의 친인척 2.3%, 비혈연동거인·이웃 1.4%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은 노인의 주돌봄자가 가족인 경우 77.7%이고 유급돌봄자(가정봉사원, 간병인)가 8.1%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노인 돌봄 기제의 변화: 2004-2017 노인실태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한편, 2011년 노인실태조사부터 공적 돌봄 서비스의 비중이 두드러지는데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원이 72.1%, 외부(공적)서비스 11.4%, 가족과 외부서비스 함께 이용하는 경우 13.1%이다. 이것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014년 조사에서는 돌봄자 비율(중복응답)을 보면 가족 91.9%, 장기요양보험서비스 15.4%, 친척이나 이웃·지인 등 7.3%, 노인돌봄서비스 6.4%, 개인간병이나 가사도우미 1.3%를 차지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조사에서는 가족(동거·비동거) 89.4%, 친척·이웃·친구·지인 6.4%, 개인간병·가사도우미 1.4%였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19.0%, 노인돌봄서비스 4.2%로 나타났다.

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노인 돌봄의 주요한 기제는 가족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5-1〉 노인특성별 돌봄 기제 변화

구분		2011			2014			2017		
		가족	공적 서비스	기타	가족	공적 서비스	기타	가족	공적 서비스	기타
성별	남자	77.9	4.6	17.6	96.0	16.5	5.3	113.4	20.5	6.2
	여자	68.6	15.4	16	90.2	23.9	9.8	101.6	24.5	8.6
연령	65~69세	68.7	8.9	22.3	88.4	19.9	7.6	102.6	13.4	6.5
	70~74세	81.7	8.5	9.8	92.8	11.7	8.6	111.9	15.6	7.2
	75~79세	72.9	11	16.1	95.7	22.3	6.4	106.8	19.8	6.8
	80~84세	66.7	16	17.3	89.8	23.6	10.2	102.6	26.0	10.1
	85세 이상	69.9	11.6	18.5	91.5	27.9	9.5	103.8	32.2	7.3
지역	동부	70.8	11.5	17.6	92.1	21.9	8.4	103.4	25.0	6.8
	읍면부	74.9	11.4	13.7	91.3	21.7	9.5	108.6	19.7	9.9
소득	제1오분위	55.8	23.6	20.7	77.9	30.4	13.8	81.6	29.5	0.0
	제2오분위	72.8	11.9	15.5	91.2	24.6	8.2	109.6	25.0	1.0
	제3오분위	75.2	8.4	16.3	98.0	17.0	6.3	114.9	19.3	1.8
	제4오분위	80.2	8.2	11.6	99.2	15.2	6.2	114.8	19.4	2.2
	제5오분위	78.7	2.9	18.4	98.6	17.7	6.7	108.3	21.4	10.4

주: 1) 2011-2017년: 가족 '동거+비동거' 포함, 기타 '외부, 가족, 친구, 이웃, 개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2) 2011년: 공적서비스 '장기요양보험'

3) 2014년, 2017년: 복수응답, 공적서비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한편 노인특성별로 돌봄기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과 2017년은 복수응답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기타 공적 서비스와 혼합하여 돌봄 기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여성 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고연령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연령이 될수록 가족 이외의 전문 기관과 같은 돌봄 기제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과 연관된다. 소득 특성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돌봄보다 외부 공적 서비스의 돌봄 기제가 두드러진다.

나. 가족 내 노인 돌봄자의 변화

노인 돌봄의 주요 돌봄 기제가 여전히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가족원 중 주요한 돌봄자는 누구인지 변화추세는 어떤 양상인지 살펴본다. 1998년 조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외상노인의 주부양자와의 관계 문항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51.6%, 본인 38.0%, 가구주 부모 7.8%, 친척 1.2%다. 그런데 이는 질문 문항이 직접적으로 돌봄이 아니라 부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돌봄자로 동일하게 보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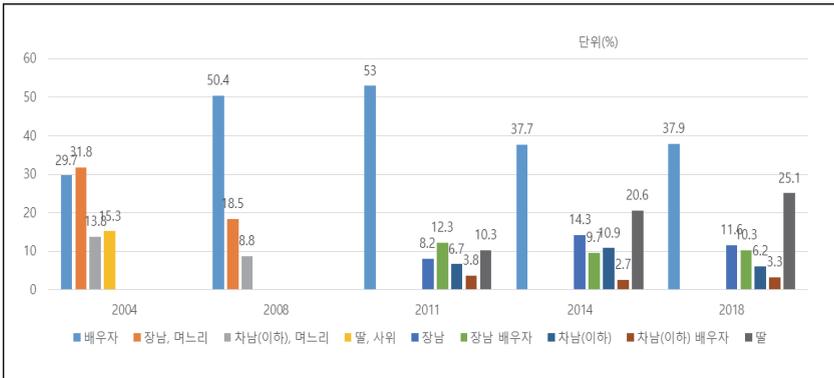
2004년 조사부터는 노인의 주돌봄자를 조사했는데, 장남·며느리 31.8%, 배우자 29.7%, 딸·사위 15.3%, 차남이하·며느리 13.8%로 배우자 및 직계자식이 9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은 60세 이상 노인의 주돌봄자가 배우자 50.4%, 장남·며느리 18.5%, 그 외 아들·며느리 8.8%, 유급돌봄자(가정봉사원, 간병인) 8.1%순으로 차지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주돌봄자 구분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전은 아들(장남, 차남 이하)+며느리, 딸+사위로 기혼자식 부부를 하나의 돌봄자로 보았다. 그러나 2011년부터 아들과 배우자를 구분하여 아들, 아들의 배우자(며느리)로 나누어 집계했다. 2011년 주돌봄자는 배우자 53.0%, 장남 8.2%, 장남의 배우자 12.3%, 차남 이하 6.7%, 차남 이하의 배우자 3.8%, 딸 10.3%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장남의 배우자(큰 며느리)와 딸의 돌봄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주돌봄자의 변화 양상은 2014년부터 두드러진다. 2014년 조사에 나타난 주돌봄자가족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37.7%, 딸 20.6%, 장남 14.3%, 차남 이하가 10.9%, 장남의 배우자(며느리) 9.7%, 기타 4.1%, 차남이하의 배우자(며느리)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딸이나 며느리 등의 여성 돌봄자가 33.0%, 남

성 돌봄자가 25.2%로 남성 돌봄자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2017년은 가족 내 주요 돌봄자가 배우자 37.9%, 딸 25.1%, 장남 11.6%, 장남 배우자 10.3%, 차남 이하 6.2%, 차남 이하 배우자 3.3%로 친자녀가 돌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5] 가족 내 주 부모 돌봄자: 2004-2017 노인실태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2004년부터 2017년의 돌봄자 변화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첫째, 가족 내 주돌봄자는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며느리의 돌봄 비율이 감소하면서 친자녀 중심의 돌봄이 증가한다. 셋째, 돌봄자 집계의 단위가 부부(아들+며느리/딸+사위)에서 개인으로 측정되면서 아들의 돌봄율이 구분되어 확인된다. 며느리의 돌봄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대신에 아들의 돌봄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넷째, 돌봄자의 비율이 '배우자' 다음으로 '딸'이 차지하는데, 이는 며느리의 돌봄이 감소했지만 또 다른 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이 이동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가족 내 주돌봄자를 노인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족 중 배우자에게 돌봄을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는데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남성노인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돌봄을 받는 비율이 매우 높고 여성 노인은 그에 비해 1/3정도에 그친다. 여성 노인은 자녀들이 주돌봄자인 경우가 나뉘어져 나타나며 특히 딸이 주돌봄자 역할을 하는 비율이 꽤 높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더 커지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 고연령집단은 주돌봄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 상층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주돌봄자인 비율이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연령층의 돌봄은 가족내에서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표 5-2〉 노인특성별 가족 내 주돌봄자 변화(2011)

구분	2011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성별	남자	81.8	2.8	7.1	1.7	1.7	1.7
	여자	33.0	11.9	16	10.1	5.2	16.3
연령	65~69세	86.2	2.5	0.6	1.3	1.3	6.9
	70~74세	73.0	5	8.5	5	0.5	5
	75~79세	61.2	6.3	7.8	7.1	3.5	9.8
	80~84세	31.0	13.4	17.6	9.1	5.3	13.9
	85세 이상	22.5	12.7	24.2	9.3	7.6	14.8
지역	동부	53.7	6.5	12.1	5.8	3.8	11.3
	읍면부	51.7	11.9	12.8	8.6	3.7	8.3
소득	1분위	49.7	8.6	6.1	11.7	3	13.2
	2분위	71.5	5.8	2.4	7.2	0.5	8.7
	3분위	62.1	7.4	6.9	6.9	2	10.3
	4분위	50.5	10.6	20.2	3.4	3.4	8.7
	5분위	32.3	9	25.1	4.5	9.4	10.8

(표 5-2) 노인특성별 가족 내 주돌봄자 변화(계속, 2014)

구분		2014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성별	남자	76.5	5.3	3.4	3.9	0.7	8.5
	여자	21.9	18	12.2	13.7	3.4	25.6
연령	65~69세	65.6	8.6	1.6	0.8	0.8	16.4
	70~74세	54.4	13	5.6	9.3	1.5	13.7
	75~79세	47.6	11.7	7.1	9.4	1	20.7
	80~84세	28.7	14.9	12.5	14	4.8	20.3
	85세 이상	16.8	18.6	14.7	13.9	3.6	27.3
지역	동부	36.4	14	9.4	10.6	2.8	22.5
	읍면부	41.8	15.4	10.4	11.5	2.2	15.4
소득	1분위	29.7	20	1.7	13.3	1	30
	2분위	54.6	10.9	4.6	6.3	1.7	16.6
	3분위	48.5	11.9	3.4	10.9	0.3	20.1
	4분위	32.8	18.4	12.9	17.2	2	14.5
	5분위	21.6	10.8	27.9	7.2	8.6	20.9

(표 5-2) 노인특성별 가족 내 주돌봄자 변화(계속, 2017)

구분		2017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성별	남자	71.4	4.1	8.1	1.7	1.3	11.1
	여자	23.3	12.8	14.6	7.8	5.8	29.5
연령	65~69세	67.8	6.6	5.9	0	0.7	9.9
	70~74세	67.7	5.3	3.2	2.6	2.6	13.8
	75~79세	48.2	8.6	7.6	5.3	2.7	23.3
	80~84세	33.3	12.4	14.4	7.2	5.2	23.5
	85세 이상	13.8	12.2	22.1	8.6	6.6	32.9
지역	동부	39.4	9.3	12.3	4.8	3.3	25.4
	읍면부	41.6	10.7	12.2	7.5	6	18
소득	1분위	30.3	11.4	7.1	6.3	4.3	31.1
	2분위	57.1	8.6	6.7	3.8	0.6	19
	3분위	51.7	13.9	7.1	6.3	3.4	14.7
	4분위	36.3	9	14.8	8.6	2.3	23
	5분위	21.1	6.1	27.2	3.7	11.4	28.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다. 노인 돌봄의 내용

가족에 의한 노인 돌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2017년 조사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 돌봄의 내용을 돌봄자 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빈도를 측정했다. 청소·빨래·시장보기 76.5%, 외출동행 57.4%, 식사준비 62.0%, 목욕 등 신체기능유지 30.0%가 가족에 의한 도움을 받았다. 돌봄자별로 도움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돌봄 내용에 있어서 배우자에 의한 도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체 기능 유지와 같은 매우 친밀도를 필요로 하는 도움에 있어서 배우자와 딸의 도움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청소, 빨래, 시장보기 등 가사와 식사준비 등의 도움에 있어서도 아들 등 남성 돌봄자에 비해서 딸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반면 외출 동행과 같은 돌봄 도움은 배우자, 장남, 딸의 도움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돌봄의 도움 내용이 성역할에 따라 나뉘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과거 장남을 중심으로 한 며느리의 모든 도움내용은 딸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5-3〉 가족 돌봄자의 노인 돌봄 내용

(단위: %)

구분	전체	배우자	장남	장남의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친인척	이웃 친구
청소, 빨래, 시장보기	76.5	40.1	29.5	12.3	5.6	4.2	23.1	3.6	1.2
외출동행	57.4	27.9	23.1	5.1	13.5	1.4	23.0	3.3	2.5
식사준비	62.0	43.7	5.6	13.8	3.8	4.0	23.9	3.7	1.0
신체기능 유지지원	30.0	40.2	8.3	21.3	2.1	3.7	30.6	4.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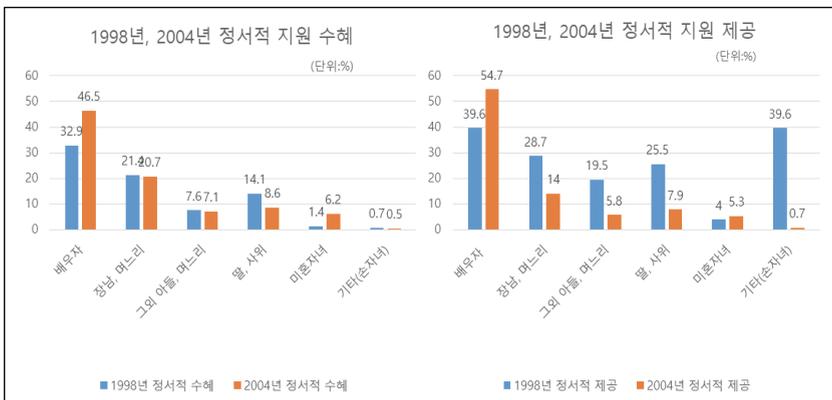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7). 노인실태조사.

라. 가족 내 돌봄 지원의 교환과 변화

1) 정서적 지원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가족 내 구성원들과 노인 세대 간의 돌봄과 지원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1998년과 2004년 조사자료이다. 정서적 지원 교환 관계는 다른 가족원 중 배우자가 가장 많으며 2004년에는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에게 배우자의 존재는 정서적인 안정에 꾸준한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주요한 정서적 지원 관계에 있는 장남/며느리의 경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은 6년 간 큰 변화가 없으나 정서적 지원의 제공에 있어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딸/사위의 경우에는 정서적 지원의 교환 양상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미혼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 교환은 비중이 적지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6] 정서적 지원 교환 (1998년, 2004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998, 2004). 노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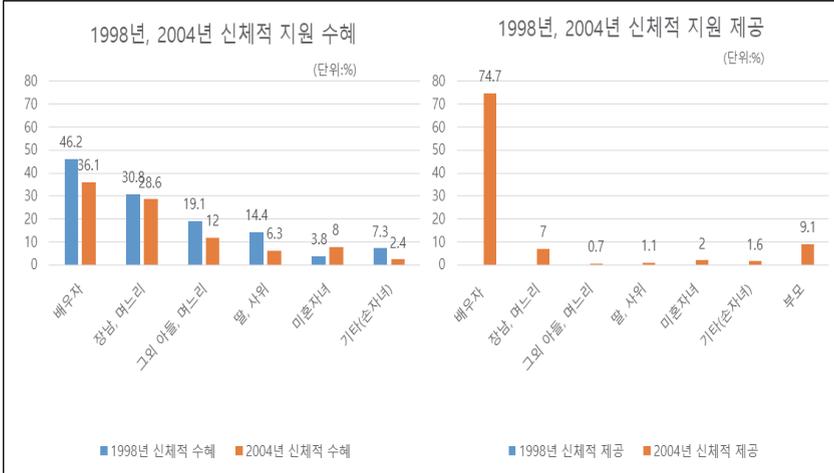
2) 신체적 지원

1998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신체적 지원’, 200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돌봄적 지원’으로 표기되었으나 신체와 관련하여 보살핀다는 공통적인 맥락에서 두 시기의 조사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1998년 노인실태조사의 경우 신체적 제공에 대한 응답은 없으므로 지원 수혜는 2004년만 표기했다.

노인들이 가족 돌봄자로부터 신체적 지원을 받은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98년에는 배우자 46.2%, 장남·며느리 30.8%, 그 외 아들·며느리 19.1%, 딸·사위 14.4%의 순으로 신체적 지원을 수혜받았고, 2004년에는 배우자 36.1%, 장남·며느리 28.6%, 그 외 아들·며느리 12.0%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 정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지원의 수혜도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는데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 가족원으로부터 받는 신체적 지원은 6년 사이에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미혼자녀로부터 받는 신체적 지원만 소폭이지만 유일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노인의 성별에 따라 신체적 지원을 하는 가족원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1998년도에는 남성 노인의 신체적 지원의 주제공자는 배우자 89.7%인 반면, 여성 노인은 장남·며느리 41.0%, 그 외의 아들·며느리 26.2%, 딸·사위 20.9%, 배우자 19.0%의 순으로 나타났고, 2004년도에 남성 노인의 신체적 지원의 주제공자는 배우자 73.8%이고, 여성 노인은 장남·며느리가 36.1%, 배우자 16.6%, 장남 외 아들·며느리 15.4%, 장녀 외의 딸·사위 11.1%로 다양하다. 남성 노인의 배우자에 대한 돌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7] 신체적 지원 교환 (1998년,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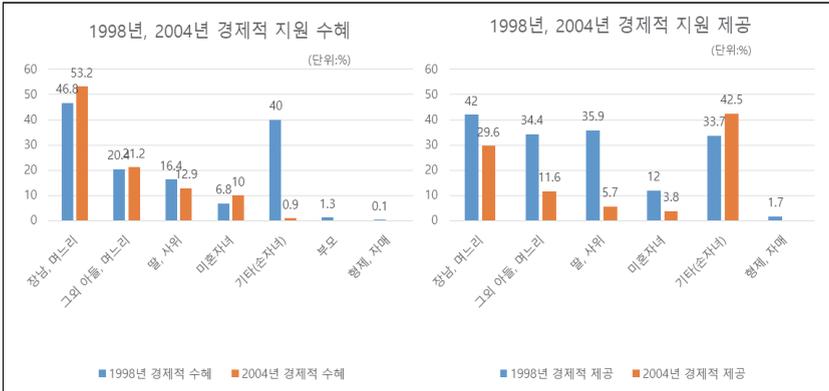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998, 2004). 노인실태조사.

3) 경제적 지원

1998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경제적 지원의 수혜는 장남·며느리 46.8%, 그 외아들·며느리 20.4%, 딸·사위 16.4%, 미혼자녀 6.8%, 기타²⁾ 9.7%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은 장남 부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간의 증가 경향이 나타난다. 정서적 지원이나 신체적 지원과 다르게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장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부장제의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2) 손자녀·배우자 1.3%, 부모0.1%, 형제·자매0.1%, 국가보조6.4%, 기타친척·친구·이웃0.9%, 동거인0.3%,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 0.1%, 기타 0.5%를 합한 것이다.

[그림 5-8] 경제적 지원 교환 (1998년, 2004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1998, 2004). 노인실태조사.

한편, 노인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원은 장남/며느리에게 집중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원에게 나뉘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6년 사이에 노인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율의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장남 이외의 아들이나 특히 딸/사위에게서의 경제적 지원의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 반면 기타 손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만은 지원 제공이 증가 경향을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노인특성별로 돌봄 및 부양의 지원 교환의 변호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남성과 여성 노인은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이 1998년에 비해 2004년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신체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수혜율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지원 제공율은 큰 변화가 없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75세 이상 고연령집단은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1998년보다 2004년에 더 높게 나타나고, 신체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수혜율은 거의 2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65세 이상 비교적 젊은 노인집단은 정서적 지원과 신체적 지원의 수혜는 줄어들고, 경제적

지원의 수혜만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자료는 지원의 대상을 구별한 것은 아니므로 자녀와의 돌봄 및 부양의 지원 양상은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5-4〉 노인특성별 지원 교환과 변화

구분	정서적 지원 수혜율		정서적 지원 제공률		신체적 지원 수혜율		신체적 지원 제공률		경제적 지원 수혜율		경제적 지원 제공률	
	1998	2004	1998	2004	1998	2004	2004	1998	2004	1998	2004	
성별	남자	82.7	76.8	63.1	62.9	36.8	78.7	11.9	45.7	71.4	31.1	26.6
	여자	74.5	67.4	51.2	44.8	46.5	82.8	10.7	46.9	82.2	23.7	18.7
연령	65~69세	81.8	77.9	65.7	67.2	43.1	22.3	12.3	50.2	73.4	32.5	28.3
	70~74세	77.4	74.9	54.9	54.3	34.4	26.8	11.8	44	78.7	25.2	20
	75세 이상	72.1	81.4	42.7	69.3	30.4	73.4	9.4	45	82.8	19.7	15.9
지역	동부	78.1	76.9	55.3	60.8	38.6	24.5	10.7	48.2	76.9	21	20.8
	읍면부	76.6	74.4	56.0	55.9	35.0	26.3	12.1	43.7	80.6	35.9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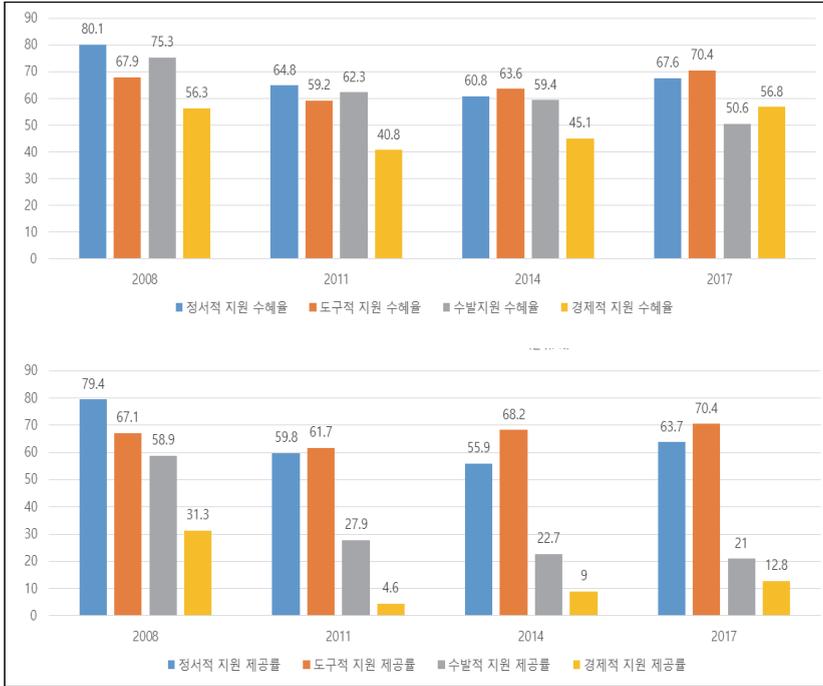
마. 부모 자녀의 돌봄 지원 교환의 변화

1) 동거자녀

2000년대 이후 노인세대와 자녀 간의 돌봄 지원의 변화를 동거/ 비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도구적, 수발적, 경제적 지원의 교환 변화를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체적으로 정서적 지원의 교환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구적 지원의 경우에도 노인과 동거자녀 모두 교환관계가 균형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9] 2008-2017 동거자녀 지원 교환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8-2017). 노인실태조사.

한편 노인이 동거자녀로부터 수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는데, 노인이 동거 자녀로부터 수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2017년 최근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에 비해서는 교환 비율이 낮는데 특히 동거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며 최근으로 갈수록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노인이 동거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 중에서 도구적 지원이 높고 경제적 지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자녀에게 노인이 경제적 수혜를 받는 대신에 손자녀 양육 등과 같은 도구적 지원 제공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인특성별로 동거자녀와의 돌봄 및 부양의 지원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동거자녀와의 정서적 지원의 관계가 두드러진 변화가 없지만, 수발적 지원의 수혜는 2017년도에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경제적 지원의 수혜는 늘어났다.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동거자녀로부터의 모든 측면의 수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거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의 수혜가 2017년에 늘어났고, 도구적 지원의 수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수발적 지원의 수혜는 약간 줄었으며, 경제적 지원은 61%로 늘어났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의 수혜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도구적 지원과 수발적 지원의 수혜에 있어서는 초고령 노인집단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반면 경제지원의 수혜는 초고령 노인집단의 비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1분위의 하층 집단에서 자녀로부터의 지원 수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 2017년 동거자녀로부터의 수발적 지원이 다른 소득 분위보다 두드러지게 낮은 점과 경제적 지원의 수혜가 오히려 경제적 소득 분위가 높은 다른 집단보다 특히 낮은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표 5-5〉 노인특성별 동거 자녀 지원 수혜율 변화

구분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수발적 지원			경제적 지원		
		'11	'14	'17	'11	'14	'17	'11	'14	'17	'11	'14	'17
성별	남자	57.7	52.9	58.1	51.6	53.6	54.6	53.1	45.7	37.3	36.0	38.1	49.7
	여자	69.3	65.4	73.3	63.9	69.4	67.7	68.2	67.4	58.5	43.8	49.3	61.0
연령	65~69세	63.7	11.9	64.5	46.4	49.6	51.8	48.4	44.6	35.4	42.7	39.9	50.8
	70~74세	64.7	37.5	66.3	53.3	58.3	57.3	62.1	55.1	40.5	44.1	49.6	60.1
	75~79세	64.4	35.2	70.7	66.1	68.1	65.6	65.8	63.8	59.2	39.7	47.8	64.2
	80~84세	61.8	31.3	69.1	75.2	83.7	79.8	76.6	79.8	71.7	33.2	46.8	55.7
	85세 이상	72.1	30.6	72.5	86.7	90.8	85.4	86.1	86.3	81.2	35.7	44.1	57.1
지역	동부	64.1	61.4	68.3	57.2	62.4	61.6	60.4	57.3	49.3	43.7	48.8	58.5
	읍면부	67.7	58.2	32.6	66.9	69.2	67.0	70.0	69.2	55.1	29.3	28.3	51.0
소득	1분위	52.8	29.7	50.0	61.6	53.1	54.4	57.3	61.1	37.2	23.1	28.6	20.7
	2분위	53.6	49.8	48.4	40.7	55.8	58.3	49.4	51.8	51.6	28.2	35.8	33.3
	3분위	61.6	39.0	68.3	56.3	56.7	64.0	60.8	60.9	52.1	31.2	37.7	53.7
	4분위	65.1	33.0	68.2	53.7	60.4	59.9	65.5	58.1	52.2	42.6	47.5	63.3
	5분위	67.6	33.7	69.8	64.9	68.7	64.9	62.8	60.7	49.9	44.6	48.3	5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1, 2014, 2017). 노인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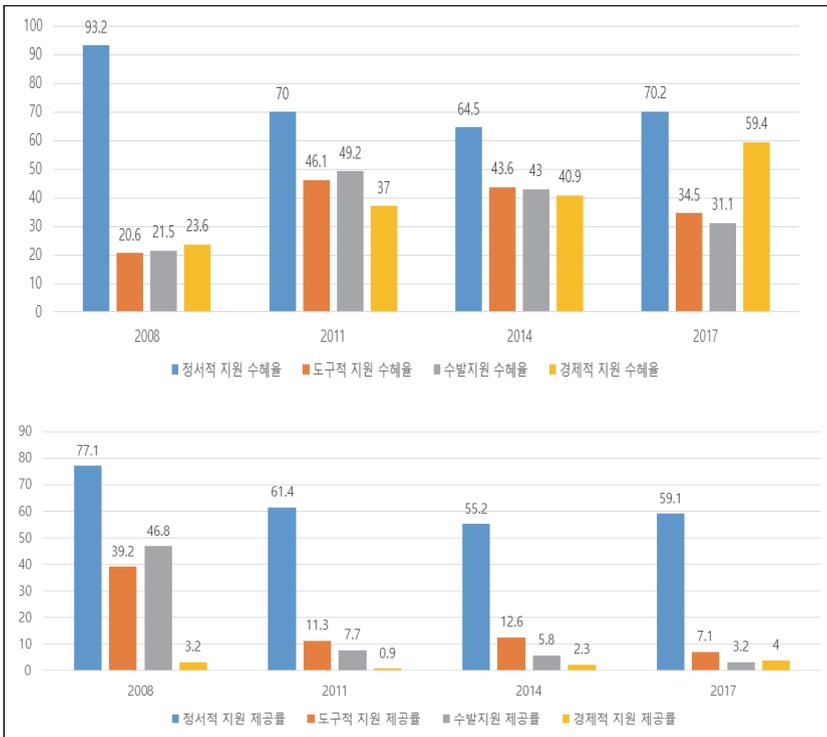
2) 비동거자녀

노인과 따로 사는 자녀와의 정서적, 도구적, 신체적, 경제적 지원의 교환 변화를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의 수혜 측면을 보면, 정서적 지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동거자녀와 비교해서 오히려 떨어져 사는 자녀로부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17년까지 대체적으로 큰 변동없이 70%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구적 지원과 수발적 지원은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에 의해서 동거자녀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은 최근들어 동거자녀로부터의 지

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동거 자녀가 상대적으로 도구적, 수발적 지원을 부모에게 못하는 대신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10] 2008-2017 비동거자녀 지원 교환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8-2017). 노인실태조사.

노인이 비동거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측면을 보면, 정서적 지원은 동거자녀와 큰 차이 없이 상당한 제공 비율을 볼 수 있다. 다만 2011년 이후 비동거 자녀에게의 도구적, 수발적 제공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노인이 비동거 자녀에게 찾아와서 도구적, 수발적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비동거 자녀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은 다른 지원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다.

노인특성별로 비동거자녀와의 돌봄 및 부양의 지원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은 비동거자녀와의 정서적 지원의 관계가 다른 지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도구적 지원과 수발적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비동거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수혜는 상당히 늘어났다.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비동거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남성 노인과 유사하게 도구적 지원과 수발적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비동거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수혜는 상당히 늘어났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비동거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과 수발적 지원의 수혜가 약간 높지만 비동거라는 제한으로 인해 동거자의 높은 비율에 비교하면 반 정도로 낮은 편이다. 한편 경제적 지원의 수혜는 동거 자녀와 다르게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수혜는 최근 들어 늘어났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동거자녀의 경우와 다르게 비동거자녀로부터의 수혜가 1분위의 하층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비동거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원과 수발적 지원이 최근 들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며, 경제적 지원의 수혜가 최근 2017년도에 경제적 소득분위가 높은 다른 집단보다 늘어났다.

〈표 5-6〉 노인특성별 비동거 자녀 지원 수혜율 변화

구분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수발적 지원			경제적 지원		
		'11	'14	'17	'11	'14	'17	'11	'14	'17	'11	'14	'17
성별	남자	66.2	59.1	64.2	45.7	41.1	32.2	45.4	36.2	25.2	32.9	34.6	55.1
	여자	73.1	68.5	74.6	46.4	45.4	36.1	52.1	47.9	35.4	40.1	45.4	62.6
연령	65~69세	73.6	64.2	70.0	42.0	36.4	27.5	40.8	33.0	22.6	28.7	32.0	52.2
	70~74세	70.5	64.5	69.9	45.6	43.2	30.6	48.7	41.8	28.5	37.9	40.1	27.0
	75~79세	68.3	64.2	69.8	47.7	48.4	37.3	54.0	48.3	35.0	42.6	47.5	66.8
	80~84세	66.9	66.5	70.9	51.8	49.2	44.7	58.8	54.1	41.3	44.0	48.6	66.9
	85세 이상	63.7	63.6	71.8	52.7	52.1	50.8	58.4	55.8	46.4	39.0	49.3	63.8
지역	동부	68.6	64.3	70.2	41.8	42.6	31.9	46.2	41.7	29.7	38.7	41.6	58.1
	읍면부	73.5	65.2	70.1	55.0	46.4	39.9	55.6	46.9	34.1	33.5	38.7	62.2
소득	1분위	68.7	57.7	65.7	48.4	44.9	37.7	53.4	45.7	35.0	38.7	49.7	61.8
	2분위	70.8	69.2	70.2	51.0	52.1	38.1	55.5	53.7	36.3	37.2	55.6	69.1
	3분위	72.1	65.8	73.2	50.1	44.1	37.2	51.0	44.7	32.3	37.3	42.6	63.0
	4분위	72.6	65.5	69.0	45.5	41.8	31.6	48.0	38.3	26.7	38.0	31.4	54.1
	5분위	66.4	64.4	72.8	34.9	34.8	27.5	37.8	32.2	24.8	28.9	24.7	4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11, 2014, 2017). 노인실태조사.

3. 돌봄을 하는 자녀 세대의 실태와 변화

본 분석은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 상황을 파악하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조사로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활용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2003년 이후 매년 주요 내용이 반복되어 조사되고 한국 인구 집단의 대표성에 초점을 둔 신뢰도 높은 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06년과 2016년의 자료에는 20대부터 6-70대까지 연령대를 포괄한 자녀세대가 부모 돌봄을 수행하는 양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의 변화, 특히 자녀 세대의 부모 돌봄에 집중한 조사는 2000년대에 주로 포함되어 이전의 1990년대의 상황을 포괄하는데 제한

적이었다. 한국사회의 부모 돌봄 및 지원의 양상이 어떠한지, 동거·세대 간 지리적 근접성 및 다양한 지원의 실태와 변화를 자녀 세대의 특성별로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돌봄을 설명하는 규범들은 주로 효 규범(filial piety)과 가부장제(patriarchism), 가족주의가 제시되었는데, 교환론·이타론 등 기존의 부모 돌봄의 서구 이론들과 차별점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규범 뿐 만 아니라 경제 및 인구 구조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으로 부모 돌봄의 양상의 시대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한 경험적 탐색을 통해 부모 돌봄의 변화를 통해 한국 사회 가족 변화의 특징을 탐구한다.

가. 부모 부양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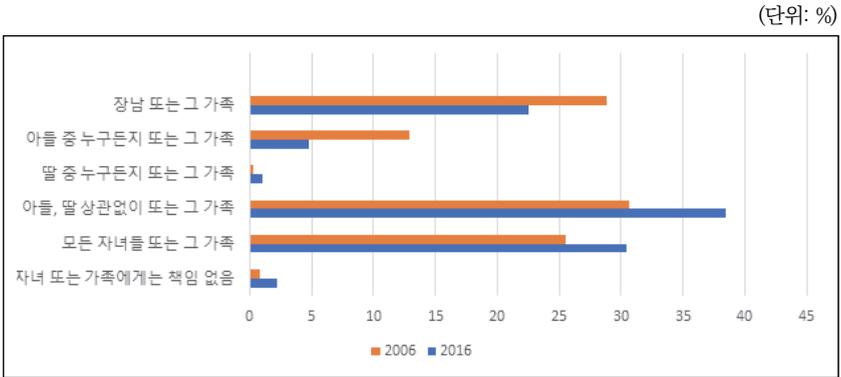
본 분석의 시기에 포함되지 못한 90년대 자녀 세대의 노부모 부양관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부모 부양관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8년 89.9%에서 2002년 70.7%, 2006년 63.4%로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내 자녀의 부모 돌봄 책임은 1998년에는 장남과 아들 모두가 29.4%, 딸을 포함한 모든 자녀는 15.0%, 능력있는 자녀라는 응답은 45.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2008년에는 자녀 중 장남과 아들의 책임 인식이 9.7%로 감소하고, 아들·딸 모두의 책임은 24.3%으로 나타난다.

부모 부양 책임에 전반적인 태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로 이어져 나타난다. 2006년에는 장남 또는 아들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한다는 비율이 전체 중 41.7%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부양 인식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2016년에는 장남 또는 아들 중

십의 부모 부양 책임 인식으로부터 아들, 딸 상관없이 자녀들의 책임으로의 변화가 분명해졌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 부양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 가진다는 인식이 그 다음으로 많아졌다.

한편 눈여겨 볼 부분은 자녀들에게 부모 부양 책임이 없다는 응답인데 응답한 비율은 작지만 2006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림 5-11] 2006-2016 부모 부양 책임



자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부모부양 책임 인식을 응답자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남 또는 아들의 부모 부양 책임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으로 올수록 그 경향은 줄어들고 있다.

144 한국 가족의 변동 특징과 정책적 함의

〈표 5-7〉 응답자 특성별 부모 부양 책임

노부모 부양책임		2006							2016						
		장남 또는 그 가족	아들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딸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아들, 딸 상관없이 또는 그 가족	모든 자녀들 또는 가족에게는 책임 없음	자녀 또는 가족에게는 책임 없음	기타	장남 또는 그 가족	아들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딸 중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	아들, 딸 상관없이 또는 그 가족	모든 자녀들 또는 가족에게는 책임 없음	자녀 또는 가족에게는 책임 없음	기타
Total (N)		461	206	5	490	409	13	16	237	50	11	405	320	23	6
성별	남자	32.9	17.1	0.1	24.9	23.2	0.7	1.1	27.0	5.9	0.4	34.1	30.5	1.9	0.2
	여자	25.6	9.5	0.5	35.3	27.5	0.9	0.9	18.9	3.8	1.6	42.1	30.3	2.4	0.9
연령대	2,30대	21.9	12.0	0.3	33.0	32.5	0.1	0.1	13.9	3.0	0.3	43.8	37.8	0.8	0.5
	4,50대	29.5	14.8	0.3	30.3	22.6	1.1	1.3	19.0	4.6	0.9	40.1	34.3	0.9	0.3
	6,70대	44.1	10.9	0.4	25.5	14.6	1.6	2.8	34.4	6.9	2.2	33.3	17.0	5.1	1.1
	80대 이상	60.9	8.7	0.0	21.7	4.4	4.4	0.0	41.0	6.6	1.6	21.3	24.6	4.9	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38.1	11.3	0.6	29.1	15.0	2.8	3.1	36.1	7.1	1.1	29.3	19.6	5.6	1.1
	고졸	26.9	15.3	0.6	32.1	24.5	0.2	0.4	21.3	5.9	1.8	40.4	29.0	1.1	0.4
	대재 이상	25.7	12.0	0.0	30.4	31.3	0.3	0.4	16.2	2.9	0.6	42.2	36.8	1.0	0.4
거주지역	교외	43.8	8.7	0.5	25.4	19.5	1.1	1.1	32.5	5.9	0.5	32.5	23.4	4.8	0.5
	소도시	30.4	11.1	0.4	30.0	25.0	1.3	1.9	21.3	4.8	1.4	38.8	30.6	2.4	0.7
	대도시 주변	23.8	15.1	0.2	31.8	27.6	0.7	0.7	21.5	5.6	0.7	39.9	30.6	1.7	0.0
	대도시	26.1	14.0	0.2	32.2	26.7	0.4	0.4	18.4	3.2	1.4	41.1	34.0	0.7	1.1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35.3	15.7	2.0	29.4	17.7	0.0	0.0	16.3	9.3	0.0	39.5	25.6	9.3	0.0
	중층	27.4	13.1	0.3	30.8	26.7	0.8	0.9	21.3	4.5	0.9	38.7	32.7	1.5	0.5
	하층	31.5	12.0	0.0	30.8	23.1	1.0	1.6	27.7	4.6	1.8	38.7	23.0	3.2	0.9
혼인상태	기혼/동거	30.9	14.0	0.3	29.1	23.5	1.0	1.1	23.6	4.2	1.1	39.2	29.5	2.1	0.3
	사별	42.2	10.7	0.0	29.8	14.1	0.8	2.5	35.0	8.9	1.6	30.1	17.9	5.7	0.8
	이혼/별거	25.0	14.6	0.0	31.3	27.1	0.0	2.1	22.9	4.2	2.1	35.4	33.3	2.1	0.0
	미혼	19.2	10.1	0.5	35.1	34.8	0.3	0.0	14.1	4.2	0.4	41.4	38.0	0.8	1.1
취업	취업	27.0	14.7	0.3	30.4	25.7	0.8	1.1	21.0	4.8	0.5	39.2	32.6	1.4	0.5
	미취업	31.3	10.3	0.3	30.9	25.3	0.9	0.9	24.3	4.7	1.7	37.7	27.8	3.1	0.6

자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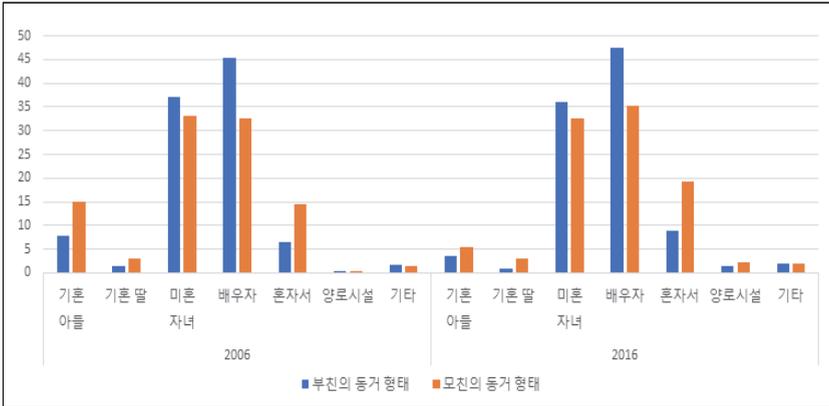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장남/아들 중심의 부모 부양 책임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 취업의 경우에 약간 더 남성 중심의 부모 부양 책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미있는 것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인 집단에서 2016년도 부모 부양 책임이 자녀에게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9.3%로 비율 자체는 작지만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서는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인 점이다.

나. 세대 간 근접성의 변화

1) 부모와의 근접성

먼저 조사자 본인의 부모와의 동거 형태를 살펴보면 2006과 2016년 사이 한국 사회의 가족 내 부모 돌봄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 자녀와의 동거는 10년 사이에 감소 추세가 분명하다. 특히 기혼 아들과 부모가 동거하는 비율은 10년 사이에 매우 줄어들었다. 다만 기혼 딸과 동거하는 비율은 크지는 않지만 10년 사이의 변화가 없다.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줄어든 대신 혼자서 또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시설 거주도 늘었다.

[그림 5-12] 부모의 자녀와의 동거 형태 변화



자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 전반적 접촉 정도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와의 만남과 연락 빈도를 통해서 돌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부모와 자녀 간의 돌봄은 상호적이므로 이러한 만남과 연락이 부모 돌봄을 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접촉이 있어야 돌봄 상황도 발생하므로 배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모와의 접촉에 있어서 직접 만남보다는 연락을 하는 정도가 더 많다. 흥미로운 점은 접촉 정도에 있어서 본인의 부모보다 배우자의 부모와의 접촉 정도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배우자 부모의 돌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자녀 양육에서 모계쪽 지원을 받는다는 보고를 바탕으로(통계청, 2017)으로 손자녀 돌봄 등 오히려 도구적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더 잦은 접촉이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만남의 정도는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연락 정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 더 잦은 것으로 보인다.

〈표 5-8〉 부모와의 접촉 정도

구분		만남 빈도				연락 빈도			
		부	모	배우 자부	배우 자 모	부	모	배우 자부	배우 자 모
2006	거의 매일	2.2	3.6	4.7	4.4	13.3	16	15	12.4
	일주일에 몇번	6.1	5.8	5	4.6	25.1	25.3	25.2	26.4
	일주일에 한번	12.8	12.9	16.7	13.4	21.1	20.9	28.9	27
	한달에 한번	27.5	26.4	33.9	33.1	10.8	9.8	18.5	18.6
	일년에 몇번	22.4	22.9	31.4	34.4	2.1	2.2	6.2	6.6
	일년에 한번	2.8	3.2	3	3.3	0.5	0.6	1.0	1.0
	일년에 한번 미만	1.4	1.2	1.8	1.0	2.2	1.1	1.8	2.3
2016	거의 매일	3.0	4.2	1.0	2.6	15.2	16.3	8.2	11.4
	일주일에 몇번	6.5	8.3	6.6	9.1	22.7	24.1	25	23.8
	일주일에 한번	10.2	9.6	14.8	11.7	16.2	17.3	29.1	27.7
	한달에 한번	25.5	26.1	38.3	32.1	9.3	9.9	19.4	17.9
	일년에 몇번	20.4	21	31.1	33.8	3.9	2.6	9.2	9.1
	일년에 한번	2.4	2.1	2.6	3.6	0.7	0.2	1.5	1.3
	일년에 한번 미만	2.6	1.5	3.1	2.3	2.6	2.3	5.1	3.9

자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다. 부모 돌봄 지원 양상의 변화

본 분석에 포함된 시기 이전인 1990년대 자녀 세대의 부모 돌봄 지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나 보고는 거의 없다. 다만 기존 논문을 통해 자녀 세대의 부모 돌봄과 부양의 실태 및 영향 요인을 살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년 자녀세대의 노부모 돌봄 지원에 있어서 전통적 노후부양관의 영향보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상황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두섭, 박경숙, 이세용, 2000), 자녀세대인 기혼 여성의 부모 부양에 있어서 부모 세대와의 부양관 차이가 나타나며 자녀 세대의 연령 및 학력,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부모 돌봄과 지원 양상이 달라진다는 연구(김상욱, 1999; 2000)가 있다.

자녀 세대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그리고 정서적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응답 집단별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2006

년과 2016년의 10년 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지원의 정도는 '매우 자주 했다'와 '전혀 하지않았다' 5점 척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분석한다. 도구적 지원은 부모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내용에 해당하는데,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보는 정도를 '매우 자주 했다'와 '전혀 하지않았다' 5점 척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분석한다. 정서적 지원은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도를 '매우 자주 했다'와 '전혀 하지 않았었다' 5점 척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아쉽지만 2006년 자료에만 조사가 되어 변화를 비교할 수 없다.

1) 경제적 지원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경제적 지원은 노년기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진 부모를 부양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자녀와의 동거가 많아서 자녀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지원이 공식화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노부모와 자녀의 동거율이 급격히 하락한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 세대가 부모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다. KGSS 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의 정도는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보면 2006년 2.78에서 2016년 2.82로 약간 늘어난 양상을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보면 4-50대 연령집단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애단계상 4-50대 연령집단의 경우 본인의 노부모가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부양이 필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계층에서 부모

에게의 경제적 지원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기혼이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5-9〉 부모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

구분	2006						2016						
	전혀 안함	거의 안함	가끔 함	자주 함	매우 자주 함	평균	전혀 안함	거의 안함	가끔 함	자주 함	매우 자주 함	평균	
전체 비율 (%)	14.7	22.4	40.1	16.1	6.7	2.78	16.8	20.4	35.2	19.8	7.9	2.82	
전체 사례수 (1142/643)	168	256	458	184	76		108	131	226	127	51		
성별	남자	13.2	22.3	37.8	18.0	8.7	2.87	16.2	18.5	33.1	23.2	8.9	2.90
	여자	15.9	22.5	42.0	14.6	5.0	2.70	17.3	22.0	37.0	16.7	7.0	2.74
연령대	2,30대	17.1	25.2	37.0	15.1	5.7	2.67	21.5	25.8	31.4	16.2	5.1	2.58
	4,50대	9.8	18.2	45.7	18.7	7.7	2.96	9.8	14.8	39.1	24.6	11.7	3.14
	6,70대	33.3	14.3	33.3	0.0	19.1	2.57	20.6	5.9	44.1	20.6	8.8	2.91
교육 수준	중졸이하	19.4	23.7	39.8	12.9	4.3	2.59	25.8	16.1	29.0	19.4	9.7	2.71
	고졸	12.8	21.9	43.9	14.6	6.8	2.81	14.7	13.5	46.5	16.5	8.8	2.91
	대재이상	15.2	22.5	38.0	17.4	6.9	2.78	17.0	23.3	31.2	21.0	7.5	2.79
거주 지역	교외	22.5	21.3	40.0	12.5	3.8	2.54	23.0	18.0	32.8	18.0	8.2	2.70
	소도시	13.5	25.2	36.1	17.9	7.3	2.80	15.5	19.3	37.6	18.8	8.8	2.86
	대도시주변	15.0	22.3	41.3	14.1	7.3	2.76	14.4	20.5	40.0	20.0	5.1	2.81
주관적 계층의 식	대도시	14.0	20.3	42.6	17.0	6.1	2.81	18.6	21.6	28.9	21.1	9.8	2.82
	상층	22.0	7.3	26.8	24.4	19.5	3.12	23.1	11.5	26.9	19.2	19.2	3.00
	중층	13.3	22.0	42.4	16.2	6.1	2.80	16.8	18.3	35.8	21.0	8.2	2.86
혼인 상태	하층	21.7	27.3	30.4	13.7	6.8	2.57	15.2	34.8	33.7	13.0	3.3	2.54
	기혼/동거	7.4	19.7	46.6	18.8	7.5	2.99	10.1	15.1	42.5	21.8	10.6	3.08
	사별	18.8	25.0	43.8	6.3	6.3	2.56	12.5	31.3	25.0	25.0	6.3	2.81
취업 여부	이혼/별거	40.6	15.6	21.9	15.6	6.3	2.31	10.3	24.1	24.1	34.5	6.9	3.03
	미혼	26.9	28.3	28.6	11.3	5.0	2.39	27.9	27.1	26.3	14.6	4.2	2.40
취업 여부	취업	8.0	20.3	42.8	20.3	8.5	3.01	9.0	16.8	37.8	25.3	11.3	3.13
	미취업	25.5	25.7	35.8	9.3	3.6	2.40	29.6	26.3	30.9	10.7	2.5	2.30

주: 평균 (1점 전혀 안함 ~ 5점 매우 자주 함)

자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 도구적 지원

부모들에게 일상의 여러 가지 일을 직접 도와주는 도구적 돌봄을 하는 양상을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보면, 2006년 2.78에서 2016년 2.92로 늘어난 양상을 보인다. 자녀의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나눠서 살펴봐도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2006년도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한다고 조사되었는데 2016년에는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적 지원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녀의 연령집단별로 보면 젊은 2-3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아직 경제적 상태가 안정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2-30대의 경우에 부모에게 청소, 식사준비, 장보기, 심부름 등의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보기 등 직접적인 도움을 통한 돌봄과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미혼인 경우에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하고, 대학 재학 이상의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비교 집단 보다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취업의 경우보다 미취업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직접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물리적 여유가 있어서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0〉 부모에게 주는 도구적 지원

구분	2006						2016						
	전혀 안함	거의 안함	가끔 함	자주 함	매우 자주 함	평균	전혀 안함	거의 안함	가끔 함	자주 함	매우 자주 함	평균	
전체 비율 (%)	12.0	26.6	38.0	17.9	5.5		10.7	24.0	36.4	20.2	8.7		
전체 사례수 (1142/643)	137	304	434	204	63	2.78	69	154	234	130	56	2.92	
성별	남자	12.7	23.9	38.9	18.4	6.1	2.81	8.9	26.8	39.1	17.9	7.3	2.88
	여자	11.5	28.8	37.3	17.5	5.0	2.76	12.3	21.4	34.0	22.3	10.0	2.96
연령대	2,30대	9.8	24.0	40.1	19.6	6.4	2.89	9.9	20.1	37.9	21.5	10.7	3.03
	4,50대	13.9	30.9	35.9	15.8	3.6	2.64	10.6	30.5	33.6	19.1	6.3	2.80
	6,70대	47.6	28.6	9.5	0.0	14.3	2.05	21.2	15.2	42.4	15.2	6.1	2.70
교육 수준	중졸이하	22.6	29.0	28.0	17.2	3.2	2.49	25.0	25.0	34.4	6.3	9.4	2.50
	고졸	14.9	29.8	33.4	15.1	6.8	2.69	15.3	26.5	38.8	12.9	6.5	2.69
	대재이상	8.9	24.5	42.0	19.5	5.1	2.88	7.9	22.9	35.6	24.0	9.5	3.04
거주 지역	교외	16.3	25.0	30.0	21.3	7.5	2.79	14.8	29.5	24.6	19.7	11.5	2.84
	소도시	10.6	27.0	37.2	19.1	6.2	2.83	10.4	21.4	39.6	20.3	8.2	2.95
	대도시 주변 대도시	14.1	26.6	39.5	14.4	5.5	2.71	9.7	21.0	39.0	21.0	9.2	2.99
주관적 계층 의식	상층	17.1	19.5	31.7	17.1	14.6	2.93	11.5	30.8	42.3	0.0	15.4	2.77
	중층	11.4	26.9	38.5	17.8	5.3	2.79	9.7	23.4	35.8	22.5	8.6	2.97
	하층	14.3	25.5	37.3	18.6	4.4	2.73	16.3	25.0	38.0	13.0	7.6	2.71
혼인상 태	기혼/동거	12.9	30.3	36.4	16.4	4.0	2.68	11.8	29.4	38.1	15.7	5.0	2.73
	사별	25.0	37.5	25.0	6.3	6.3	2.31	31.3	6.3	31.3	25.0	6.3	2.69
	이혼/별거 미혼	34.4	31.3	18.8	15.6	0.0	2.16	17.9	25.0	17.9	21.4	17.9	2.96
취업 여부	취업	12.7	28.5	36.4	17.6	4.8	2.74	11.1	28.0	36.3	18.4	6.3	2.81
	미취업	10.9	23.7	40.6	18.2	6.6	2.86	10.2	17.5	36.6	23.2	12.6	3.11

주: 평균 (1점 전혀 안함 ~ 5점 매우 자주 함)

자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 정서적 지원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06년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점 척도 평균값이 3.21로 다른 형식의 부모 지원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서적 지원의 특성상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젊은 세대가 부모와 정서적 지원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의 자녀일 경우와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기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하고, 미취업인 경우 부모와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1〉 부모에게 주는 정서적 지원

구분	2006					평균*	
	전혀 안함	거의 안함	가끔 함	자주 함	매우 자주 함		
전체 비율 (%)	5.3	16.2	40.7	27.7	10.2	3.21	
전체 사례수 (1141)	60	185	464	316	116		
성별	남자	7.3	20.8	43.4	20.8	7.7	3.01
	여자	3.6	12.6	38.5	33.2	12.1	3.38
연령대	2,30대	5.4	15.0	40.9	27.8	11.0	3.24
	4,50대	4.3	18.2	41.4	27.3	8.9	3.18
	6,70대	19.1	19.1	19.1	33.3	9.5	2.95
교육수준	중졸이하	11.8	18.3	36.6	28.0	5.4	2.97
	고졸	5.7	15.9	39.7	25.6	13.1	3.24
	대재이상	4.1	16.1	41.8	28.9	9.2	3.23
거주지역	교외	8.8	13.8	37.5	27.5	12.5	3.21
	소도시	4.4	16.1	42.8	25.2	11.4	3.23
	대도시 주변	4.9	13.2	42.3	27.9	11.7	3.28
	대도시	5.6	19.3	38.1	29.7	7.4	3.14
주관적 계층의식	상층	7.3	2.4	39.0	36.6	14.6	3.49
	중층	4.7	17.0	41.4	27.5	9.5	3.20
	하층	8.1	15.0	36.3	27.5	13.1	3.23
혼인상태	기혼/동거	4.1	15.6	39.6	29.6	11.0	3.28
	사별	12.5	6.3	50.0	25.0	6.3	3.06
	이혼/별거	12.5	18.8	34.4	18.8	15.6	3.06
	미혼	6.6	17.6	42.9	24.7	8.2	3.10
취업여부	취업	6.1	15.5	42.6	26.6	9.1	3.17
	미취업	3.9	17.3	37.6	29.4	11.9	3.28

자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4) 배우자 부모 지원과 돌봄

배우자 부모에 대한 지원과 돌봄의 양상을 보면, 도구적 지원보다는 경제적 지원의 5점 척도의 평균값이 조금 높다. 그리고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경제적, 도구적 지원의 정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보면 남자는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도구적 지원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지만 여자는 최근으로 올수록 지원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4-50대, 6-70대 연령집단에서는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의 정도가 늘어나는 경향인 반면, 2-30대 젊은 세대는 배우자 부모에 대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돌봄과 지원 정도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지원의 5점 척도 평균값은 배우자 부모에게 지원하는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부모에게의 경제적 지원 평균값: 2006 (2.78), 2016(2.82)임).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정도는 배우자 부모 보다 본인 부모에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부모에게의 도구적 지원 평균값: 2006 (2.78), 2016(2.92), 부모에게의 정서적 지원 평균값: 2006 (3.21)임). KGSS 조사 자료가 지원의 정도를 빈도의 5점 척도로 조사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의 경우 지원 총량으로 비교한다면 이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조심해야겠지만, 최근 모계중심의 부모자녀 관계가 나타난다는 보고를 참고하면, 지원과 수혜가 교류하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상호성의 차원에서는 모계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다른 차원에서 부모 돌봄과 부양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계 중심의 부모 지원과 돌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2〉 배우자 부모에게 주는 지원

전체 사례수(733/340)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2006	2016	2006	2016	2006
전체 평균값		2.96	2.89	2.62	2.56	2.91
성별	남자	2.6	2.72	2.25	2.29	2.64
	여자	3.23	3.02	2.91	2.79	3.12
연령대	2,30대	2.97	2.69	2.77	2.7	3.02
	4,50대	2.98	3.05	2.53	2.52	2.82
	6,70대	2.44	2.57	2.19	2.33	3
교육 수준	중졸이하	2.71	2.96	2.6	2.83	2.88
	고졸	2.95	2.76	2.73	2.55	2.98
	대재이상	3.01	2.94	2.55	2.54	2.87
거주 지역	교외	2.77	2.9	2.89	2.41	3.11
	소도시	3.08	2.93	2.72	2.5	2.96
	대도시 주변	2.89	2.71	2.64	2.54	2.92
	대도시	2.94	3	2.45	2.71	2.81
주관적 계층 의식	상층	3.43	3.14	2.64	2.43	3.07
	중층	2.99	2.97	2.65	2.59	2.9
	하층	2.68	2.24	2.48	2.4	2.97
혼인 상태	기혼/동거	2.96	2.89	2.62	2.56	2.91
취업여부	취업	2.87	2.94	2.48	2.55	2.78
	미취업	3.14	2.76	2.93	2.59	3.19

자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라. 부모 지원의 영향 요인 분석

자녀세대가 노부모 세대의 돌봄, 부양을 위해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하는데 자녀의 인구사회적 특성 중 어떤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자녀의 특성은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 기본 특성과 주관적 계층 의식, 취업 여부 등을 통한 경제적 특성과 혼인 상태를 통한 가족 특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은 20, 30대 청년, 40.50대 중년, 60, 70대의

노년까지 자녀로서 부모 돌봄을 수행하는 전연령대를 포함하였다. 교육 수준은 중졸, 고졸, 대학 재학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지역은 대도시, 대도시 주변, 소도시 및 교외(시골마을, 외딴 곳)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상태에 대한 변수는 가구소득보다는 본인이 평가하는 경제적 상황이 보다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1-10까지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상(8-10), 중(4-7), 하(1-3)로 구분하였으며, 취업 여부도 포함하였다.

1) 경제적 지원 영향 요인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자녀의 어떤 요인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니, 2006년 자료에 의하면, 주관적 계층 인식과 결혼 상태와 취업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기혼에 비해서 미혼이거나 사별/이혼의 경우에, 취업에 비해서 미취업의 경우에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에도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변수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여전히 결혼 상태와 취업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3〉 부모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의 영향 요인

재정적 지원	2006		2016	
	Coef.	Std. Err.	Coef.	Std. Err.
성별 (여성=1)	-0.060	0.066	-0.131	0.089
연령대	base outcome = 2,30대			
4,50대	0.000	0.076	0.185	0.112
6,70대	-0.009	0.250	0.298	0.225
80대이상				
교육수준	base outcome = 중졸 이하			
고졸	0.163	0.126	0.233	0.224
대재이상	0.250	0.129	0.259	0.227
거주지역	base outcome = 교외			
소도시	0.258 *	0.129	0.196	0.161
대도시 주변	0.231	0.130	0.182	0.160
대도시	0.244	0.129	0.242	0.164
주관적 사회계층	base outcome = 상층			
중층	-0.184	0.163	-0.126	0.217
하층	-0.373 *	0.180	-0.412	0.243
결혼상태	base outcome = 기혼/동거			
사별	-0.253	0.271	-0.218	0.281
이혼/별거	-0.620 **	0.186	-0.025	0.210
미혼	-0.584 ***	0.079	-0.437 ***	0.115
취업상태 (취업=1)	0.527 ***	0.067	0.655 ***	0.095
상수	2.530 ***	0.266	2.295 ***	0.335
N	1,138		641	
Adj R-squared	0.1360		0.1591	
Prob > F	0.000		0	

* p<.05, ** p<.01, *** p<.001

2) 도구적 지원 영향 요인

도구적 지원을 통한 부모 돌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2006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녀의 연령과 결혼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30대 집단이 연령이 많은 집단, 특히 6-70대 집단보다는 부모를 직접 돌보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로 나타나고, 기혼에 비해서 이혼/별거를 한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을 덜하지만 미혼의 경우에 기혼에 비해서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자녀의 결혼 상태의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미혼인 집단이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에 새롭게 나타난 영향 요인은 교육수준으로 대졸의 경우에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14) 부모에게 주는 도구적 지원의 영향 요인

신체적 지원	2006		2016	
	Coef.	Std. Err.	Coef.	Std. Err.
성별 (여성=1)	-0.017	0.067	0.122	0.089
연령대	base outcome = 2,30대			
4,50대	-0.048	0.077	0.159	0.112
6,70대	-0.562 *	0.253	0.148	0.227
80대이상				
교육수준	base outcome = 중졸 이하			
고졸	0.103	0.127	0.161	0.220
대재이상	0.178	0.130	0.490 *	0.222
거주지역	base outcome = 교외			
소도시	-0.022	0.130	0.007	0.160
대도시 주변	-0.179	0.132	-0.009	0.160
대도시	-0.106	0.131	-0.247	0.163
주관적 사회계층	base outcome = 상층			
중층	-0.181	0.165	0.130	0.217
하층	-0.117	0.182	-0.029	0.243
결혼상태	base outcome = 기혼/동거			
사별	-0.200	0.274	0.002	0.281
이혼/별거	-0.507 **	0.188	0.320	0.213
미혼	0.304 ***	0.080	0.486 ***	0.115
취업상태 (취업=1)	-0.083	0.068	-0.180	0.095
상수	2.930 ***	0.269	2.300 ***	0.332
N	1,138		641	
Adj R-squared	0.0418		0.0626	
Prob > F	0.000		0	

* p<.05, ** p<.01, *** p<.001

3) 정서적 지원 영향 요인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 교육수준, 결혼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재학 이상의 경우, 기혼/동거의 경우에 비해서 미혼의 경우에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경향이 나타난다.

〈표 5-15〉 부모에게 주는 정서적 지원의 영향 요인

정서적 지원	2006	
	Coef.	Std. Err.
성별 (여성=1)	0.354 ***	0.064
연령대	base outcome = 2,30대	
4,50대	-0.070	0.074
6,70대	-0.141	0.242
80대이상		
교육수준	base outcome = 중졸 이하	
고졸	0.263 *	0.122
대재이상	0.348 **	0.125
거주지역	base outcome = 교외	
소도시	-0.033	0.125
대도시 주변	0.004	0.126
대도시	-0.103	0.125
주관적 사회계층	base outcome = 상층	
중층	-0.290	0.158
하층	-0.229	0.175
결혼상태	base outcome = 기혼/동거	
사별	-0.163	0.263
이혼/별거	-0.200	0.181
미혼	-0.194 *	0.077
취업상태 (취업=1)	-0.018	0.065
상수	2.796 ***	0.258
N	1,137	
Adj R-squared	0.041	
Prob > F	0	

* p<.05, ** p<.01, *** p<.001

마. 배우자 부모 지원의 영향 요인 분석

1) 경제적 지원 영향 요인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나타나는 배우자 부모에 대한 지원의 양상을 회귀분석을 통해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먼저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자녀의 어떤 요인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성별 특성이 분명하게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에게 며느리로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남성보다 더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2006년과 2016년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주관적 계층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서 상층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에는 연령집단 특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데 2-30대에 비해서 4-50대가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6〉 배우자 부모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의 영향 요인

경제적 지원	2006		2016	
	Coef.	Std. Err.	Coef.	Std. Err.
성별 (여성=1)	0.692	*	0.402	**
연령대	base outcome = 2,30대			
4,50대	0.150	0.085	0.336	**
6,70대	-0.049	0.235	-0.105	0.234
교육수준	base outcome = 중졸 이하			
고졸	0.173	0.152	-0.356	0.245
대재이상	0.297	0.154	-0.221	0.247
거주지역	base outcome = 교외			
소도시	0.239	0.163	0.034	0.189
대도시 주변	0.042	0.166	-0.210	0.192
대도시	0.144	0.164	0.000	0.198

경제적 지원	2006		2016			
	Coef.	Std. Err.	Coef.	Std. Err.		
주관적 사회계층	base outcome = 상층					
중층	-0.399	0.207	-0.135	0.275		
하층	-0.641	*	0.226	-0.845	**	0.316
결혼상태	0.0000 (omitted)		0.0000 (omitted)			
취업상태 (취업=1)	0.055	0.100	0.257	0.133		
상수	1.833	**	0.366	2.815	***	0.417
N	730.000		338.000			
Adj R-squared	0.099		0.105			
Prob > F	0.000		0.000			

* p<.05, ** p<.01, *** p<.001

2) 도구적 지원 영향 요인

배우자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통한 돌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2006년과 2016년 모두 여성이 배우자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여전히 부모 돌봄에 있어서 여성이 주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2006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연령과 거주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30대 연령 집단에 비해서 6-70대는 배우자 부모에게 도구적 돌봄을 하는 경향은 줄어든다. 아무래도 6-70대의 고연령이 배우자 부모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지역 특성을 교외 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을 더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16년 자료에서는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에 있어서 성별 특성 이외에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대재 이상의 고학력의 경우에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도구적 돌봄이 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7〉 배우자 부모에게 주는 도구적 지원의 영향 요인

신체적 지원	2006		2016	
	Coef.	Std. Err.	Coef.	Std. Err.
성별 (여성=1)	0.515 ***	0.088	0.554 ***	0.124
연령대	base outcome = 2,30대			
4,50대	-0.142	0.079	-0.187	0.122
6,70대	-0.485 *	0.219	-0.351	0.237
교육수준	base outcome = 중졸 이하			
고졸	-0.042	0.141	-0.456	0.248
대재이상	-0.126	0.144	-0.548 *	0.250
거주지역	base outcome = 교외			
소도시	-0.252	0.152	0.064	0.192
대도시 주변	-0.336 *	0.154	0.111	0.195
대도시	-0.426 **	0.152	0.296	0.200
주관적 사회계층	base outcome = 상층			
중층	0.012	0.192	0.074	0.278
하층	-0.209	0.211	-0.148	0.320
결혼상태	0.0000 (omitted)		0.0000 (omitted)	
취업상태 (취업=1)	-0.164	0.093	0.212	0.135
상수	2.443 ***	0.341	2.549 ***	0.423
N	730.000		338.000	
Adj R-squared	0.111		0.063	
Prob > F	0.000		0.001	

* p<.05, ** p<.01, *** p<.001

3) 정서적 지원 영향 요인

자녀가 배우자 부모에게 하는 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과 취업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앞의 경제적, 도구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배우자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취업을 한 경우에 배우자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8〉 배우자 부모에게 주는 정서적 지원의 영향 요인

정서적 지원	2006	
	Coef.	Std. Err.
성별 (여성=1)	0.365 ***	0.089
연령대	base outcome = 2,30대	
4,50대	-0.093	0.080
6,70대	0.122	0.221
교육수준	base outcome = 중졸 이하	
고졸	0.093	0.143
대재이상	0.091	0.145
거주지역	base outcome = 교외	
소도시	-0.184	0.154
대도시 주변	-0.248	0.156
대도시	-0.265	0.154
주관적 사회계층	base outcome = 상층	
중층	-0.179	0.195
하층	-0.126	0.213
결혼상태	0.0000 (omitted)	
취업상태 (취업=1)	-0.198 *	0.094
상수	2.819 ***	0.344
N	730.000	
Adj R-squared	0.054	
Prob > F	0.000	

* p<.05, ** p<.01, *** p<.001

제2절 아동 양육의 변화

가족의 부양 기능 중 노인 부양에 이어 이 절에서는 아동 양육에 대해 살펴본다. 아동 양육에 있어서 대표적인 변화는 가족이 중심이 되어 담당해 오던 아동 돌봄이 얼마나 가족 밖에서 해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 중심이던 돌봄을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 돌봄 방식의 변화, 즉 주된 돌봄 주체가 변화하였는 지와 양육에 투입하는 여성과 남성의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본다.

과거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서는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양육자와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봄을 책임지는 여성 양육자로 그 구성과 역할 수행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학력 상승 및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가정 내에서 아동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던 여성이 가정 내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가능한 가족에서는 조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은 가족 밖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영유아 무상보육(만0~2세, 5세: 전체층, 만3~4세: 소득하위 70%)이 시작되면서 2013년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영유아 돌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함께 일어난 돌봄 기능과 방식의 변화는 가족의 영유아 양육 행태 변화 관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돌봄 방식 변화를 우선 살펴본다.

아동 돌봄 방식 및 특성 변화를 이끈 요인 중 중요한 요인인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내 남성의 가사 및 양육노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기혼 남성의 가사 및 양육노

동에 대한 참여는 미미해(김수정, 김은지, 2007; 김진옥, 2008) 여성의 이중부담은 여전하며, 그로 인해 저출산 현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저출산 현상 해결에서 성평등 실현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특히 양육에서 평등한 환경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 내 아동 양육 특성 변화의 한 축으로 여성과 남성의 시간 사용에 대해 알아본다.

아동 돌봄 방식과 양육 시간 변화를 직접 알아보기 전에 사회변화를 간략히 짚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가족 변동 주기로 고려한 90년대 중후반부터 현재까지에서 아동 돌봄 방식의 변화를 일으킨 주요한 요인은 보편 보육 등 아돌 돌봄 제도에서 변화인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에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증가가 놓여있다(백경훈, 2015). 이로 인해 가족 내 성평등 이슈도 주목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아동 양육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사회변화 중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일어난 정부의 보육정책 변화도 아동 양육 형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살펴본다.

아동은 연령 기준이 다양하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한 다양하지만, 지속적인 돌봄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미취학 아동기이다.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은 그 돌봄 방식이나 돌봄의 필요 수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아동 가족을 한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아동 돌봄 방식과 주체의 변화 및 가족 내 역할변화를 살펴보는데 있어, 돌봄 필요가 가장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본다 한다.

1. 이론적 검토와 연구문제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남성과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이 분명했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2인 생계부양자 모델로 옮겨가면서 가족 내 양육과 관련된 남녀 역할 구분 정도가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이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변화를 살펴보면 1985년 41.9%였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차 상승해 IMF 전인 1997년에는 거의 절반에 거의 이르게 되지만, 이듬해 IMF 영향으로 47.1%로 하락한다. 1998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증가의 경향을 유지해 2019년 만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5%로 과반에 이른다(KOSIS, 각연도).

여성 중에서도 아동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은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 추이 또한, 여성 전체 경제활동 참가비율과 같이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1997년에 과반에 이르지만, 1998년에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에는 55.1%의 유배우 여성이 경제활동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보다 유배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KOSIS, 각연도).

한국 사회의 많은 가족은 1997년 경험한 외환위기 시기에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의 직장과 수입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그동안 가족 내에서 하나의 소득원에만 의지해오던 패턴이 사라지고 2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더욱 보편적이게 되는 사회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배은경 등, 2009). 그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족의 아동 양육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그동안 주로 가족 내 전업주부가 담당하던 아동 돌봄을 보육시설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가족이 증가했는데, 보육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 자체가 부족하거나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전에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양육에 대한 경험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개인적인 의지로 전업주부가 된 경우보다 상황상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의한 결과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즉, 현실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는 점과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맡길 경우는 비용의 부담, 그리고 어린 아이를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여성 자신의 삶이나 사회활동보다 가정 내에서 엄마의 역할을 선택하게 되는 등 타의에 의한 전업주부화인 것이다(김은주, 서영희, 2012). 이러한 상황은 일하는 여성의 가족은 아동 양육에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가능하다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그러나 모든 가족이 아동 돌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아동에 대한 돌봄을 가족 자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일을 하는 여성이 돌봄 시설에 아동을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조치였다(김은주, 서영희, 2012).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은 2012년에 모든 0-2세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면서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어, 실제로 예측된 수요보다 보육기관에 초과수요가 발생했다. 이 상황은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가정에서 아동을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보다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의 금액이 크다는 점으로 인해 가정돌봄을 하던 가족도 돌봄 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노지현, 2012. 3. 14.). 이후 맞

별이든 외벌이든 일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선택들이 이어지다 보니 이제는 영아기 보육시설 이용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계기와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변화하고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역할변화에 따라 아동 보육정책 또한 변화해 왔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보육정책이 마련되었지만, 정책 목표대로 아동 돌봄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변화 시기 중 1980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특징은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에 대한 이중부담이 증가하는 것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성 노동이 더욱 보편화되어 본격적으로 일과 가족 생활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진다(강이수, 2007). 저소득층과 같은 일부 계층에서는 여성이 일을 하더라도 남성은 가사나 양육을 분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인해 여성의 이중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국미애 등, 2005; 강이수, 2007에서 재인용).

경제활동과 양육 사이 여성의 이중부담 현실은 여성들의 생각을 알아본 조사 결과에 잘 드러나 있기도 하다.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를 시계열로 확인해 보면, 여러 이유 중 양육부담의 이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1998년 응답에서는 사회적 편견이나 관행으로 여성 취업이 어렵다는 응답과 가사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현재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통계청, 각연도). 이 두 가지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감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비율이 줄어드는 방향성을 보인다. 반대로 양육부담이라는 응답 역시 증감을 반복하지만, 과거보다 지금은 그 응답이 높아진 경향을 보여 2019년 현재는 과반 이상의 응답이 양육부담의 이유에 집중되어 있다.

〈표 5-19〉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 취업 장애 요인

(단위 : %)

	사회적 편견·관행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³⁾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 대한 여성의 능력 부족 ³⁾	구인정보 부족	양육부담	가족돌봄 (양육제외) ¹⁾	가사부담	기타 ²⁾	계
1998	27.6	8.1	13.0	4.0	-	31.4	-	10.8	5.0	100.0
2002	21.7	4.5	13.2	2.0	2.1	41.1	-	9.2	5.9	100.0
2006	17.4	2.9	12.6	1.7	3.2	47.9	-	7.4	6.9	100.0
2009	19.9	3.2	12.7	1.5	3.1	52.6	-	5.2	1.8	100.0
2011	20.2	2.9	11.6	1.7	2.3	48.8	-	6.9	5.7	100.0
2013	19.6	3.0	10.9	1.3	2.2	49.6	-	6.7	6.7	100.0
2015	20.4	2.9	11.6	1.7	1.5	50.5	-	6.6	4.8	100.0
2017	22.9	2.5	11.3	1.3	1.5	47.9	2.4	5.3	4.9	100.0
2019	17.3	-	14.3	-	2.3	52.3	2.7	5.7	5.4	

자료 : 1998년, 2002년, 2006년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그 이후는 통계청, 「사회조사」.

주 : 1) 2017년 추가된 항목

2) '모르겠음' 포함

3) 2019년 삭제된 항목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성역할 구분으로 인해, 여성이 일을 하고 수입 창출과 시간 부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남성이 나누어 분담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의 여성은 일도 하고 전통적인 주양육자로서의 역할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독박 양육이나 양육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즉, 남녀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부라 해도 가사나 양육과 같이 무급 노동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격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정 내 불평등 현상이 지속되면서 양육 스트레스 문제나 이를 피하기 위해 출산 자체를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등 최근에도 남성과 여성의 양육 참여에 있어서 평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른 아동 돌봄에서의 변화를 종합해 보면,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로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2인 생계부양자 모델로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의 아동 양육과 관련된 이슈는 아동 돌봄을 담당하는 주체가 가족뿐 아니라 가족 밖에서도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가족 안에서 여성과 남성의 돌봄 분담에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아동 양육의 여러 측면 중에서 아동 돌봄 방식의 변화와 양육 관련 가족 내 분담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즉,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유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 돌봄의 주된 주체는 가족 안에서 가족 밖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위주로 알아본다. 그리고 아동 양육에 대한 가족 내 분담은 평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 내 양육 관련 시간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 살펴본다.

2. 활용 데이터

영유아 아동 양육의 변화를 보기 위해 2차 데이터를 활용한다. 우선 아동 양육 중 이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돌봄 방식은 가장 대표성 있는 조사 중 하나인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이 조사에서는 돌봄 방식에 대해 2010년부터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현재 2015년까지 4개 년도에 대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 미취학 아동 연령에 해당하는 0-5세 아동에 대한 돌봄 방식을 분석해 15년간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본다.

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아동 연령에 따른 구분 정도만 가능하고 좀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른 2차 데이터를 활용한다. 영유아 돌봄 방식에 대한 변화를 1990년대부터 볼 수 있는 자료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활용한다. 이 조사는 1991년부터 시작되

어 때 3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돌봄 항목 조사는 1997년 조사부터 포함되기 시작해 이 조사 데이터로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6년, 2009년과 2012년 조사에서는 돌봄 항목이 양육비에만 집중해있지만 2015년에 다시 돌봄 방식 등 관련 항목이 다시 추가되었다. 돌봄 방식의 변화를 동일한 기준으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1997년, 2003년과 최근인 2015년과 2018년도 양 끝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의 경향과 가장 최근의 돌봄 방식의 경향을 살펴보아 20년 사이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로 생각된다. 하지만,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돌봄 정보 부재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다. 이 공백 기간의 아동 돌봄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보육실태조사」의 2009년과 2012년 결과를 활용한다. 따라서, 아동 돌봄 방식의 2000년 이후의 매 5년 단위 변화와 큰 흐름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1990년대 후반과 가장 최근의 경향 파악을 통한 아동 돌봄의 변화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와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활용해 살펴본다.

아동 양육 시간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1999년부터 5년마다 조사가 실시되어, 현재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조사 결과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1990년대 후반부터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99년 조사가 처음 시작된 이후 한 영역의 시간을 구성하는 항목이 조금씩 변화하기도 했으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시간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 구분이 가능하다.

시간 조사 항목 중 연도별 아동 보살피기 항목을 보면 1999년 아동 돌봄과 관련된 행동 항목은 신체적돌보기,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기타 미

취학 아이보살피기가 있다. 그러나, 2004년도는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는 신체적 돌보기,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미취학 아이 간호,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로 간호하기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

〈표 5-20〉 생활시간조사 연도별 아동 양육 항목 구분

연도	「생활시간조사」 아동 양육 항목
1999년	미취학 아이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씻기기, 먹이기 등) -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2004년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 -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 미취학 아이 간호 -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2009년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 신체적 돌보기(씻기기, 먹이기, 재우기 등) - 책 읽어주기·놀아주기(공부봐주기 책읽어주기, 놀아주기) -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미취학 아이 간호,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2014년	함께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 신체적 돌보기 - 아이 가르치기 -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 간호하기 - 기타 돌보기
2019년	함께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 신체적 돌보기 -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 책 읽어주기·대화하기 - 아이와 놀아주기, 스포츠활동 하기 -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 간호하기 - 기타 돌보기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설계서 및 코드집, 각년도.

2009년도는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가 신체적 돌보기,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로 구성되어 있고, 2004년 구분되었던 미취학 아이 간호는 기타 보살피기에 포함되어 있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 중 가장 최근 조사인 2014년도에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영역으로 되어있는데,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간호하기, 기타 돌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도 역시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체적 돌보기, 간호하기,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책 읽어주기·대화하기, 아이와 놀아주기·스포츠활동 하기,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기타 돌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책 읽어주기와 놀아주기가 분리되어 유사한 활동과 다시 묶여 구분되었고, 훈육 및 공부 봐주기 항목이 따로 생기고 선생님과 상담 활동 등이 추가되었다.

미취학 아이보살피기 시간으로 구분된 다른 연도와 달리 2014년과 2019년은 만10세 미만 아이 돌보기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이 아닌 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분석한다. 가구 추출 과정을 통해 모든 시간은 미취학 아동 돌보기에 대한 시간이 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가족 내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간 사용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 맞도록 남편과 아내가 모두 있는 가족을 기본으로 하며, 조부모는 아동의 양육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있는 가족은 제외한다.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미취학 아동을 위해 사용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연도별 데이터를 활용한다.

〈표 5-21〉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시간 분석을 위한 가구 추출

연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에서 가구 추출
1999년 2004년 2009년	-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커플이 모두 응답한 가구를 선택하고 미혼인 가구와 조부모가 있는 가구 제외
2014년 2049년	-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커플이 모두 응답한 가구를 선택하고 미혼인 가구와 조부모가 있는 가구 제외 - 미취학 아닌 만 10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 제외

3. 아동 양육 분석

가. 아동 양육 가족과 돌봄 특성

1) 아동 돌봄 방식 변화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가족의 책임이 변화한 것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 방식 및 돌봄 주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통해 살펴본다. 우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아동 보육형태 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변화를 보고자 한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이 조사의 데이터에서 아동 보육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은 2000년도부터이다. 조사 내용 중 아동 보육에 대한 내용은 조사 시점에서 ‘이 아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낮(오전 9시~오후 6시)에 누가(어느 곳에서) 돌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며, 주간의 돌봄 방식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곳 두 곳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응답은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할 수도 있다. 분석은 중복응답을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반적으로 단일응답 비율이 높지만, 대부분 3-5세에 두 곳을 응답한 비율이 0-2 보다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다중응답으로 인해 주된 돌봄 방식 하나에 대한 응답 위주의 결과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174 한국 가족의 변동 특징과 정책적 함의

〈표 5-22〉 만 0~5세 아동의 돌봄 형태

(단위: %, 명)

구분	부모	조부모 (친가, 외가)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가사 도우미, 이웃 사람	유치원	놀이방, 어린이집	기타 보육시설	학원 (예제능 포함)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기타	(명)	단일 응답률 ³⁾	복수 응답률 ⁴⁾	
2000	0세	86.9	9.1	1.3	1.5	0.1	0.5	0.4	0.1	0.1	0.2	602,611	97.8	2.2
	1세	80.8	11.2	1.2	1.5	0.2	1.9	2.4	0.2	0.4	0.1	617,441	96.4	3.6
	2세	72.6	9.7	1.2	0.8	1.5	7.1	5.2	1.2	0.5	0.2	691,547	91.5	8.5
	3세	59.3	7.3	0.9	0.5	8.1	13.2	5.0	4.6	0.9	0.2	778,457	79.5	20.5
	4세	46.1	5.9	0.7	0.4	20.1	13.0	3.2	9.3	1.2	0.1	878,953	66.0	34.0
	5세	41.3	5.0	0.6	0.4	28.8	8.9	1.6	11.6	2.0	-	962,820	58.2	41.8
2005	0세	84.3	10.1	1.5	1.6	0.2	1.8	0.1	0.3	-	0.3	423,457	96.0	4.0
	1세	76.2	13.1	1.6	1.7	0.4	6.2	0.2	0.4	-	0.2	484,500	93.1	6.9
	2세	68.6	10.2	1.2	1.1	1.4	15.8	0.3	1.0	0.3	0.2	540,152	86.4	13.6
	3세	56.1	8.4	1.0	0.6	5.9	24.7	0.4	2.3	0.5	0.2	625,716	73.4	26.6
	4세	47.6	6.6	0.8	0.4	15.6	23.7	0.4	4.2	0.7	0.1	762,490	60.8	39.2
	5세	43.7	6.1	0.7	0.4	24.1	17.0	0.2	6.5	1.1	0.1	892,961	55.0	45.0
2010	0세	75.9	14.4	1.5	2.4	-	5.0	0.2	-	-	0.5	470,678	94.1	5.9
	1세	61.1	14.8	1.3	2.3	-	20.2	0.1	-	-	-	466,197	90.2	9.8
	2세	45.5	11.9	1.1	1.2	-	39.9	0.3	-	-	0.1	537,525	83.0	17.0
	3세	34.5	8.8	0.9	0.8	6.8	46.8	0.7	0.6	0.1	0.1	579,949	74.4	25.6
	4세	31.1	7.3	0.7	0.6	23.1	34.8	0.7	1.2	0.4	-	568,756	67.7	32.3
	5세	29.9	7.2	0.8	0.7	32.3	24.4	0.8	3.2	0.8	-	571,959	65.4	34.6
2015	0세	80.8	12.0	0.7	2.3	-	3.8	0.4	-	-	0.2	465,775	90.5	9.5
	1세	60.7	13.3	0.7	1.5	-	23.4	0.4	-	-	-	496,524	83.3	16.7
	2세	40.5	9.4	0.8	1.1	-	47.0	1.1	0.2	-	-	579,213	67.8	32.2
	3세	33.3	7.9	0.5	0.8	5.5	50.5	1.2	0.2	-	-	652,385	61.9	38.1
	4세	30.7	7.7	0.5	0.7	24.7	33.1	1.2	1.5	-	-	655,012	60.3	39.7
	5세	30.3	7.3	0.6	0.5	32.5	22.2	1.1	5.0	0.3	0.1	638,237	58.1	41.9

주: 1) 만 나이 기준으로 작성함.

2)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3) (무응답자 제외) 전체 응답자 중 주된 보육형태를 묻는 문항에 1개 응답한 자의 비율

4) (무응답자 제외) 전체 응답자 중 주된 보육형태를 묻는 문항에 2개 응답한 자의 비율

자료: 통계청, (2020).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 원자료 분석

2000년부터 현재 가용한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15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15년간의 변화를 보면, 0세 아동의 경우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령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도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1세 이상 아동을 중심으로 보면, 부모의 돌봄은 줄어든 모습이고 조부모의 돌봄은 약간 증가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놀이방, 어린이집 형태의 돌봄이 증가한 것이다. 대신 학원 이용은 감소하였다.

매우 다양한 돌봄 방식이 존재하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연도의 변화에 따라 돌봄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돌봄 방식인 부모 돌봄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돌봄의 변화를 카테고리 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0세는 기관이나 시설 이용보다는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특성으로 인해 2000년과 2015년 사이 부모 돌봄 비율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은 연령이다. 하지만, 1세부터는 그 차이를 볼 수 있는데 2000년에는 1세 아동의 80.8%의 주요 돌봄 방법이 부모 돌봄이었다면, 2005년에는 76.2%, 2010년에는 61.1%,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60.7%까지 줄어든 경향을 볼 수 있다.

아동의 연령이 2세인 경우 연도별 변화폭이 가장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세 아동의 주된 돌봄 방식이 부모 돌봄이었던 비율이 2000년도에는 72.6%, 2005년에는 68.6%에서 2010년에는 과반이 되지 않는 45.5%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40.5%로 나타나 2000년과 2015년 사이 32.1% 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아동 연령이 3세인 경우도 부모 돌봄이 주된 돌봄 방식인 비율이 2000년에는 과반인 59.3%에서 2015년에는 33.3%로 26.0% 포인트 감소해 3세 아동의 3분의 1 정도가 부모 돌봄을 주된 돌봄 방식으로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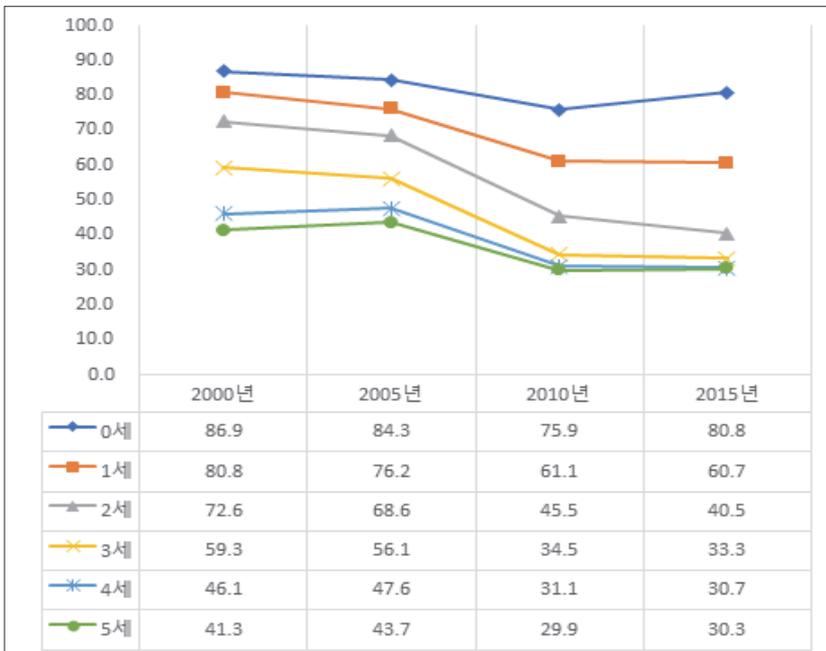
4-5세 아동의 경우에는 2000년에도 부모 돌봄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4세와 5세 각각 46.1%와 41.3%였다. 15년 이후인 2015년에는 각각 30.7%와 30.3%로 다른 연령에 비해 부모 돌봄 비율의 감소 폭이 작고, 2015년 현재 부모 돌봄이 주된 돌봄 방식인 3-4세 아동은 30% 수준으로 4-5세 아동의 돌봄 방식에 대한 변화에서 유사성이 나타난다.

아동 돌봄 방식 중 부모가 돌보는 방식에 있어서 2000년과 2015년 사이 변화는 다른 연령 아동과 비교해 2-3세 아동의 부모 돌봄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림 5-13] 0-5세 아동의 부모 돌봄 비율 추이

(단위: %)



주: 1) 만 나이 기준으로 작성함.

2)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2020).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 원자료 분석

다음은 주된 돌봄 방식이 시설인 경우 중 어린이집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만, 2005년 이전에는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혼재해 있었고 200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놀이방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이용 통계에 있어 2000년과 2005년 초반은 놀이방을 이용한 비율이 포함된 수치이며, 이 글에서는 놀이방과 어린이집을 현재 명칭인 어린이집으로 명명한다.

이전 부모 돌봄 방식 변화에서 보았듯이, 0세 아동은 부모의 돌봄 방식을 주로 택하는 시기로 0세 아동의 부모 돌봄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가장 작은 동시에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돌봄 방식인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에서도 0세 아동은 변화가 가장 미미하고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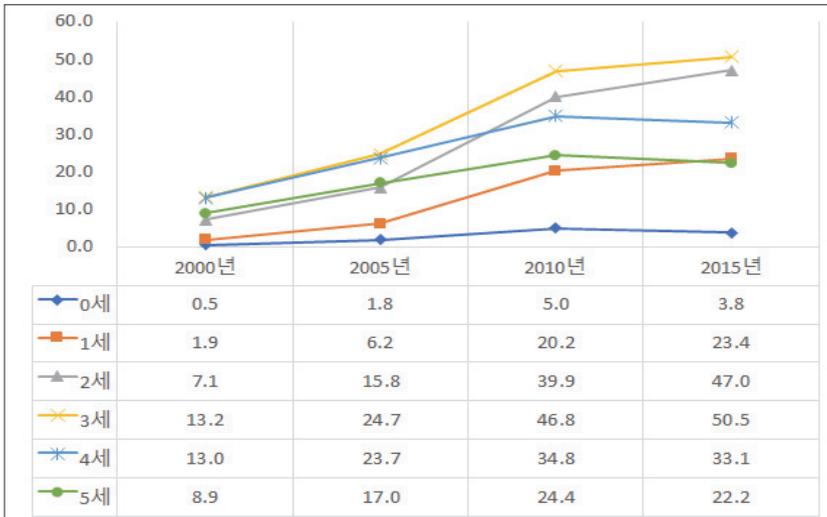
1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00년도 1.9%에서 2005년도 6.2%로 소폭 상승 이후 2010년도에 20.2%, 그리고 2015년도에는 23.4%로 15년 사이 21.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세와 3세의 경우는 앞서 부모 돌봄 비율에서 변화 폭이 가장 큰 연령대였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 돌봄의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대였다. 그 변화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의 증가와 연동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3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2000년 2세 7.1%와 3세 13.2%에서 점차 증가해 2015년에는 2세 47.0%, 3세 50.5%로 2세는 39.9% 포인트, 3세는 37.3% 포인트 증가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4-5세 아동의 경우 역시 2000년과 비교하면 2015년에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더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 증가 폭이 2-3세 아동보다는 작다. 이러한 경향은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구분이 뚜렷해

지면서 취학 직전 연령인 4-5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 증가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4세 아동은 30% 수준에서, 5세 아동은 20% 수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4] 0-5세 아동의 어린이집(놀이방 포함) 이용률 추이

(단위: %)



주: 1) 만 나이 기준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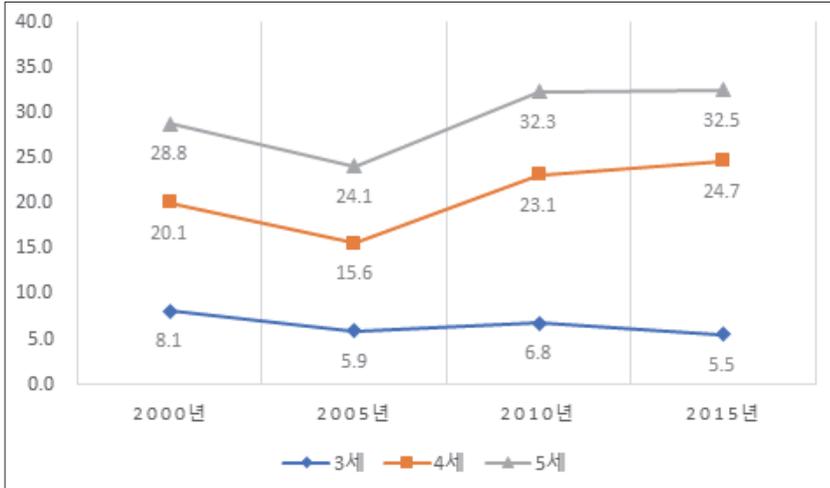
2)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2020). 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 원자료 분석

아동의 유치원 이용 비율 추이를 보면, 3세의 이용 비율은 낮은 편인데 2000년도 8.1%에서 2015년도에는 5.5%로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5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듯이 4세와 5세 아동의 경우는 유치원 이용 비율이 증가해 4세는 2000년 20.1%에서 2015년 24.7%로 증가하였고, 5세는 2000년 28.8%에서 2015년 32.5%로 증가해 5세 아동의 약 3분의 1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15] 3-5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률 추이

(단위: %)



주: 1) 만 나이 기준으로 작성함.

2) 퍼센트 및 합계는 응답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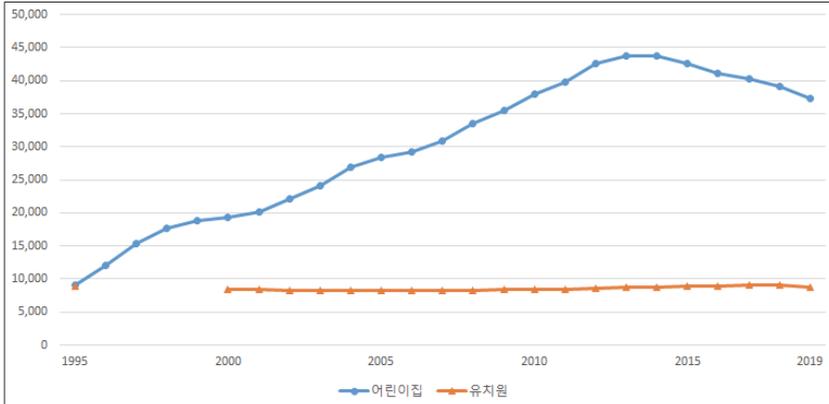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0).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 원자료 분석

시간이 지나면서 0세를 제외한 미취학 연령 아동의 시설 돌봄 방식이 증가하였다. 그중에서도 3-5세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과 2010년 사이 어린이집 이용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아동 돌봄에 있어 아동 양육 가족의 기관 이용, 즉 수요 증가는 공급 증가 현상과 같이 일어났다. 유치원은 8천여 개소에서 2017-2018년에는 9천 개소 정도를 유지하다 2019년 8천 837개소가 등록되어 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만큼 유치원 수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5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3년에 4만 2천 770 개소까지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는 약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6]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소 수 추이

(단위: 개소)



주: 1) 어린이집 : 매년 12월 31일 기준 정상운영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 수

2) 유치원 : 매년 4월 1일 기준 유치원 수

자료: e-나라지표, 보육시설, 유치원 개소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3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5

아동 돌봄에 있어 시설 이용 증가 경향은 여성의 경제활동, 서비스 및 시설의 증가, 무상보육 실시 등 사회 변화와 인프라의 확대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일어났다. 또한, 아동의 돌봄 기관 이용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 0세를 제외한 아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돌봄 기관 이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다시 말하면 1세 아동부터 기관 돌봄을 택한 가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0년에 1.9%이던 1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5년에 무려 23.4%로 증가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0세 아동의 돌봄에 대해서는 직접 돌봄 비율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이 너무 어린 시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영아에 대한 직접 돌봄 의지와 인식이 0세 아동에게는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작용하고 있어 0세 아동의 돌봄 방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가족 특성과 아동 돌봄 방식

지금까지 영유아 돌봄 방식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았다면, 가족의 특성별 분석을 위해 2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아동 돌봄에 대한 조사는 다양하게 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자료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중반대에 아동 돌봄 관련해 양육비만 조사가 이루어져 특정 시기 분석이 제외되는 단점이 있지만, 1990년대 후반과 가장 최근 시기를 살펴봄으로써 가족 특성에 따른 돌봄 방식을 살펴볼 수 있어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조사결과 나타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1997년부터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1997년 약 80% 가량에서 2018년 현재 약 90% 가량으로 증가하였다. 이 조사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중 여성 한부모가족만 비율을 구할 수 있었다. 1997년에는 1%가 채 되지 않았던 여성 한부모가족은 2003년 1.3%로 증가한 후 2015년과 2018년에는 각각 2.4%와 2.3%로 증가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족 중 2세대 가족은 10여 년 동안 더욱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조부모와 함께 사는 3세대 가족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1997년과 2003년에는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10% 정도였으나, 2015년과 2018년에는 각각 4.8%와 4.2%로 감소된 비율에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부모와 한부모, 그리고 자

녀로 구성된 가족은 1% 미만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최근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족 중 3세대 가족 형태는 약 5%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23〉 미취학 아동 양육 가족 형태

(단위: %, 명)

구분	1997년		2003년		2015년		2018년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100.0	(2,418)	100.0	(2,660)	100.0	(3,729)	100.0	(4,156)
2세대	81.0	(1,959)	81.9	(2,178)	90.7	(3,381)	91.6	(3,807)
부부+자녀								
여성한부모+자녀	0.8	(18)	1.3	(35)	2.4	(90)	2.3	(94)
3세대	10.3	(250)	10.4	(276)	4.8	(181)	4.2	(176)
(한)조부모+부모+자녀								
(한)조부모+한부모+자녀	0.5	(11)	0.5	(14)	0.7	(26)	0.8	(32)
기타	7.4	(179)	5.9	(157)	1.3	(50)	1.1	(47)

주: 1)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남성한부모+자녀' 가구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족의 아동 수를 알아보면, 1997년과 2003년에는 2명인 가족이 과반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과 2018년에는 5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대신 1명, 또는 3명인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미취학 아동을 1명이라도 양육 중인 가족의 총 아동 수를 평균으로 보면 1997년에는 1.79명에서 2018년은 1.78명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편으로 보인다. 다만, 표준편차가 커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 수 비율에서 2명인 경우가 감소하고 3명 이상인 경우가 증가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24〉 미취학 아동 양육 가족의 전체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1997년		2003년		2015년		2018년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100.0	(2,418)	100.0	(2,660)	100.0	(3,727)	100.0	(4,156)
1명	32.8	(792)	31.5	(839)	37.2	(1,386)	38.6	(1,603)
2명	57.3	(1,384)	54.6	(1,451)	48.8	(1,818)	47.1	(1,957)
3명	8.7	(211)	12.2	(325)	12.7	(475)	12.8	(532)
4명 이상	1.3	(30)	1.7	(45)	1.3	(48)	1.5	(64)
평균(S.D.)	1.79	(0.66)	1.84	(0.70)	1.78	(0.73)	1.78	(0.74)

주: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을 돌보는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양육 중인 영유아를 돌보아 주는 주체를 알아보았는데, 조사 데이터에서 1997년과 2003년의 돌봄 주체 항목이 유사하고, 2015년과 2018년도의 항목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세한 돌봄 주체 항목을 1997년과 2003년, 2015년과 2018년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1997년에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가족 중 68.7%가 양육자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을 하였다. 과거에 이루어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돌본다’라는 선택지로 되어 있었다. 그다음 많은 응답은 가족 외 돌봄 중 유치원이다. 유치원 반일반과 종일반을 묶어보면, 12.5%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놀이방과 어린이집을 더해 보면, 7.1%로 그다음 많이 이용하는 기관이다. 유치원, 놀이방, 어린이집을 더해 보면, 19.6%를 차지한다. 아동의 조부모나 양육자의 형제자매 등 가족이 돌봐주는 경우는 5.9%이며, 그 외 과외 및 학원이 4.6%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 미만을 차지한다.

이러한 여러 돌봄 주체들을 크게 본인 및 가족과 가족 외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 돌봄이 가족 내에서 가족 외로 이동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돌봄 주체를 크게 가족 내와 가족 외로 구분해 살펴본다. 이렇게 보면, 1997년 주된 돌봄 주체가 본인 및 가족 내인 경우는 74.6%에 이른다.

2003년의 영유아 돌봄 방식을 보면, 본인이 본다는 비율이 54.7%로 1997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반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치원은 15.5%,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14.9%로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놀이방을 이용하는 비율을 더해 보면, 30.4%로 1997년보다 증가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시댁이나 친정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7.0%이며, 그 외에는 과외 및 학원이 4.4%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내와 가족 외로 구분해 보면, 2003년 아동에 대한 돌봄 주체가 본인이거나 가족 내에서 돌봄을 주로 담당했던 경우는 61.7%이다. 아동 돌봄의 주체가 가족인 비율이 74.6%였던 1997년도와 비교해 보면, 2003년에는 가족 외 돌봄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25〉 미취학 아동 양육 가족의 막내 아동 주된 돌봄 방식 1997년, 2003년

(단위: %, 명)

구분	1997년		2003년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100.0	(2,418)	100.0	(2,660)	
본인 및 가족	본인(여성) 돌봄	68.7	(1,660)	54.7	(1,455)
	시댁/친정부모 및 형제자매 등 가족	5.9	(142)	7.0	(185)
그 외	파출부, 가정부	0.3	(6)	0.5	(14)
	이웃/위탁모	0.9	(22)	1.2	(31)
	아동지도원	0.1	(1)	-	-
	유치원 반일반	10.0	(242)	10.6	(282)
	유치원 종일반	2.5	(60)	4.9	(129)
	놀이방	3.1	(74)	2.0	(54)
	어린이집	4.0	(97)	12.9	(344)
	방과후 아동교실/복지관 등 공부방	-	-	0.0	(1)
	과외, 학원	4.6	(110)	4.4	(118)
	선교원(교회의 보육)	-	-	0.9	(25)
	봐주는 사람 없음	0.0	(1)	0.2	(5)
	사설학원 종일반	0.1	(2)	-	-
기타	-	-	0.6	(16)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2015년의 영유아 돌봄 주체를 보면, 1997년이나 2003년의 돌봄 방식 선택지 구성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1997년과 2003년에는 본인(여성) 돌봄만 있었다면, 2015년부터는 본인 또는 남편으로 선택지가 변화하였고, 과거에 있던 파출부 대신 베이비시터 선택지가 생기거나 어린이집 구분이 상세해지는 등 변화가 있었다. 1997년과 2003년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양육자 직접 돌봄 방법이 2015년에는 17.1%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린이집과 놀이방, 직장보육시설을 더해 보면, 49.0%로 절반가량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7년이나 2003년과 비교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1997년과 2003년에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인 유치원 2015년에도 여전히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인 돌봄 방식이며 29.1%로 나타났다. 아동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동을 돌봐주는 경우는 2.4%로 낮았다.

2015년도에는 과거 조사보다 아동 돌봄 주체 선택지에서 가족의 범위가 넓어져 친인척까지 포함하고 있다. 본인이나 남편 또는 가족이 아동을 돌봐주는 경우는 19.4%로 아동 돌봄의 주된 주체 중 가족 외인 경우가 80% 이상인 것이다.

2018년은 2015년과 비교해 영유아 돌봄 방식에서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어린이집 이용이 49.2%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며, 유치원은 20.8%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양육자인 본인이나 남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에 25.5%로 2015년보다 높게 나타나 2018년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응답이 되었다. 아동 조부모나 친인척은 2.4%로 201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표 5-26〉 미취학 아동 양육 가족의 막내 아동 주된 돌봄 방식 2015년, 2018년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8년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100.0	(3,727)	100.0	(4,156)
본인 및 가족	본인 또는 남편	17.0 (634)	25.5 (1,058)	
	친정부모님	1.5 (58)	1.7 (70)	
	시부모님	0.6 (22)	0.6 (23)	
	친가 또는 외가 친인척	0.3 (9)	0.1 (4)	
그 외	국공립 어린이집	7.3 (272)	8.8 (365)	
	민간 어린이집	40.4 (1,508)	36.0 (1,496)	
	기타 어린이집	-	3.0 (125)	
	놀이방	0.5 (20)	-	
	직장보육시설	0.8 (29)	1.4 (58)	
	유치원	29.1 (1,084)	국공립 5.1 (214) 사립 15.7 (652)	
	학원(반일제 이상)	1.1 (41)	1.3 (53)	
	기타 사설학원	-	0.2 (6)	
	기타 시설	1.0 (36)	-	
	아이돌보미	-	0.2 (6)	
	출퇴근 베이비시터	0.3 (10)	0.4 (15)	
	입주 베이비시터	0.1 (3)	-	
	방문교육 교사	-	0.2 (90)	
	기타	0.0 (2)	-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1997년부터 2018년 사이 아동 돌봄의 주체가 변화함에 따라 조사에서의 구분 항목 또한 변화해서 유사한 구분 항목을 가진 연도별로 알아보았는데,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을 주로 담당 한 비율과 그 외의 방식을 택한 비율로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본인 및 가족 돌봄은 2015년 19.4%에서 2018년 27.9%로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돌봄 주체의 상세 항목에서 보았듯이 아동의 부모가 돌봄의 주체인 비율이 2015년도 17.0%에서 2018년도 25.5%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의 경우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직접 돌봄에 대한 응답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5-27〉 미취학 아동 양육 가족의 막내 아동 주된 돌봄 방식 변화

(단위: %, 명)

구분	1997년		2003년		2015년		2018년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100.0	(2,418)	100.0	(2,660)	100.0	(3,727)	100.0	(4,156)
본인 및 가족	74.6	(1,802)	61.7	(1,640)	19.4	(723)	27.9	(1,155)
그 외	25.6	(615)	38.2	(1,019)	80.6	(3,005)	72.3	(2,990)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연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전·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본인 및 가족이나 그 외의 돌봄 방식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 아동 돌봄 방식이 가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1997년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따른 아동 돌봄에서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족 내 돌봄을 택하는 비율이 82.5%로 매우 높았고, 가족이 아닌 그 외 돌봄 방식을 택한 경우는 17.5%였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가족 내 돌봄이 과반이기는 했지만, 시설이나 기관, 서비스 등 가족 외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이 47.2%로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를 보였다.

아동 연령에 따라서도 돌봄 방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0-1세 아동의 경우 대부분 가족 안에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96.4%), 시설 및 기관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연령인 2-3세에는 가족이 아닌 그 외 돌봄 방식이 27.1%로 증가하였다. 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과반(55.6%)이 가족 외 돌봄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는 3세 아동까지 가족 내 돌봄 방식이 더 지배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표 5-28〉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1997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명)	χ^2
전체	74.5	25.6	(2,418)	
여성경제 활동	안함	17.5	(1,386)	185.95***
	함	47.2	(574)	
아동연령	0-1세	3.6	(992)	574.64***
	2-3세	27.1	(748)	
	4세 이상	55.6	(678)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여성경제활동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1,960명에 대한 분석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여성경제활동과 아동 연령 조건을 함께 살펴보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모두 아동 연령에 따른 돌봄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0-1세 아동을 거의 대부분 가족 내에서 돌보며(98.9%), 2-3세까지도 82.5%가 가족 내 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이 4세 이상 되면, 50.2%만이 가족 내 돌봄을 하고 절반 정도는 가족 외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0-1세인 경우는 82.3%가 가족 내에서 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이 2-3세가 되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가족 내 돌봄을 하는 비율이 54.8%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4세 이상이 되면 35.2%만이 가족 내 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9)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1997년: 여성경제활동-아동연령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명)	χ^2
경제활동 안함	0-1세	98.9	1.1	(655)	362.55***
	2-3세	82.5	17.5	(401)	
	4세 이상	50.2	49.8	(329)	
경제활동 함	0-1세	82.3	17.7	(130)	75.21***
	2-3세	54.8	45.2	(208)	
	4세 이상	35.2	64.8	(236)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여성경제활동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1,960명에 대한 분석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2003년부터는 데이터에 가구의 소득 정보가 있어, 분석 표본에서 상위 20%, 하위 20%를 각각 상, 하로 구분하고 중간 구간을 중으로 나누어 소득 수준 변수를 더하였다. 2003년의 아동 돌봄 방식은 여성이 경제활동 여부, 소득 수준, 아동 연령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1997년보다 미취학 아동 돌봄을 위해 시설이나 기관, 서비스 등 가족 외 돌봄 유형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은 1997년에 가족 외 돌봄 유형이 절반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6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5년 전보다 가족 외 돌봄 시설이나 기관, 서비스 등을 많이 이용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가족 내 돌봄이 73.3%로 1997년보다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그룹이 가족 외 돌봄 시설이나 기관 및 서비스 등을 더욱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는 가족 외 돌봄 유형을 택한 경우가 3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 돌봄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돌봄 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족 내 돌봄 유형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경향은 1997년과 같지만 아동 연령 상승에 따른 감소 폭이 1997년보다 2003년에 더욱 크게 나타나 4세 이상 아동은 약 30% 만이 가족 내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0〉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03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명)	χ^2	
전체	61.7	38.3	(2,659)		
여성 경제 활동	안함	73.3	26.7	(1,468)	293.50***
	함	35.1	64.9	(710)	
소득 수준	상	48.6	51.4	(535)	59.12***
	중	63.0	37.0	(1,591)	
	하	70.9	29.1	(533)	
아동 연령	0-1세	93.1	6.9	(928)	730.89***
	2-3세	57.9	42.1	(900)	
	4세 이상	30.7	69.3	(831)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소득 수준은 표본의 소득에서 상위 20%는 상, 하위 20%를 하로 설정하고 중간 구간을 중으로 설정하였음.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4) 여성경제활동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2,178명에 대한 분석임.

5) 소득수준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2,658명에 대한 분석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여성의 경제활동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족이 택한 아동 돌봄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두 조건을 함께 알아본 결과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그룹에서는 0-1세 아동에 대해 97.9%가 가족 내 돌봄을 선택하고 있었고, 2-3세는 69.8%, 4세 이상은 39.6%로 나타나 아동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직접 돌보지 않는 비율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에서도 0-1세 아동이 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아 70.6%로 나타났고, 2-3세는 34.1%, 4세 이상은 17.2%로 낮아졌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2세 이상부터 가족 외 돌봄을 받는 아동이 가족 내 돌봄을 받는 아동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4세 이상은 80% 이상이 가족이 아닌 그 외 돌봄 유형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31〉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03년: 여성경제활동-아동연령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명)	χ^2
경제활동 안함	0-1세	97.9	2.3	(610)	417.40***
	2-3세	69.8	30.2	(461)	
	4세 이상	39.6	60.4	(386)	
경제활동 함	0-1세	70.6	29.4	(153)	124.73***
	2-3세	34.1	65.9	(273)	
	4세 이상	17.2	82.8	(285)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여성경제활동과 소득수준을 같이 고려해 보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 내 돌봄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과반은 가족 내 돌봄 방식을 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에서는 가구 소득에 따른 돌봄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은 가족 외 돌봄이 모든 그룹에서 60% 이상으로 나타나 소득수준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소득수준 조건보다 여성경제활동 여부 자체가 아동 돌봄 방식 선

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32〉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03년: 여성경제활동-소득수준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가족 외	(명)	χ^2
경제활동 안함	상	58.3	41.7	(180)	31.51***
	중	73.2	26.8	(921)	
	하	80.9	19.1	(367)	
경제활동 함	상	33.0	67.0	(233)	1.95
	중	37.1	62.9	(407)	
	하	30.0	70.0	(70)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 돌봄에 대한 1990년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는 2003년 이후의 조사에서는 돌봄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동일한 조사를 활용한 분석은 2015년의 아동 돌봄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료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12년 동안의 공백 대해서는 구성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사이 이루어진 다른 연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

2009년도에 이루어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아동 돌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동 주된 돌봄 주체와 가장 비슷한 결과는 미취학 아동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약 3천 3백 명 중 84.4%가 낮에 본인 또는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안에서 여성 양육자가 일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96.2%) 본인이나 가족이 낮 동안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하는 경우는 63.3%가 본인 및 가족이 돌봄다고 응답하였다. 가구 소득은 금액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400~499만 원 이

하와 600만 원 이상의 그룹만 본인 및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80% 이하로 나타났으나 90% 이상인 그룹은 없어서 10% 포인트 내외의 차이만을 보였다. 그리고 0-2세 아동이 3세 이상 아동보다 본인 및 가족이 낮에 돌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3〉 가족 특성별 낮 시간의 아동 돌봄 유형: 2009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명)
전체		84.4	15.6	(3,304)
여성경제 활동	안함	96.2	3.8	(2,114)
	함	63.3	36.7	(1,112)
가구소득	99만 원 이하	86.8	13.2	(159)
	100~149만 원 이하	85.5	14.5	(304)
	150~199만 원 이하	89.7	10.3	(561)
	200~249만 원 이하	85.1	14.9	(496)
	250~299만 원 이하	86.4	13.6	(411)
	300~349만 원 이하	87.5	12.5	(424)
	350~399만 원 이하	82.7	17.3	(208)
	400~499만 원 이하	75.6	24.2	(309)
	500~599만 원 이하	82.2	17.8	(202)
	600만 원 이상	71.0	29.0	(228)
아동연령	0-2세(영아)	88.9	11.1	(1,741)
	3-5세(유아)	79.0	20.8	(1,560)

주: 1) 돌봄 주체 구분은 아래 자료의 표에서 비혈연, 기관을 '그 외'로 구분하였고, 나머지는 '본인 및 가족'으로 구분함.

2) 아래 자료의 표에는 여성경제활동이 '취업', '미취업', '모 부재'로 구성되었으나, 다른 연도와 가능한 유사하게 구성하기 위해 '모 부재'(75명)는 제외하고 제시함.

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p.119 〈표 IV-2-2〉 수정 및 재인용.

「전국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 2009년에 이어 2012년의 조사 결과를 활용해 낮 시간 동안 아동 돌봄 유형을 특성별로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는 43.3%가 본인 및 가족이 아동을 낮에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의 84.4%와 비교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본인 및 가족이 아닌 그 외의 돌봄 방식을 택한 비율이 56.6%로 과반으로 나타나 아동 돌봄 방식에 있어 2009년과 다른 변화를 알 수 있다. 2012년은 아동 무상보육(만3-4세: 소득하위 70%, 그 외 만 5세 미만: 전계층)이 실시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한 돌봄이 2009년과 비교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2년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는 52.1%로 70% 이상이던 과거와 비교해 많이 감소한 현상을 보인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약 4분의 1만이 본인 및 가족이 아동을 낮 시간 동안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 소득에 따라서는 149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 및 가족이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50.9%였으나 그 외에는 모두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그리고 400만 원 대와 600만 원 대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는 아동을 본인 및 가족이 돌보는 비율이 30%대로 나타났지만, 소득이 높은 그룹들을 중심으로 본인 및 가족이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아동 연령별 돌봄 유형을 보면, 2012년에 전반적으로 가족 이외의 돌봄 방식 비율이 높아졌지만 영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 및 가족의 돌봄 방식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0-1세 아동의 경우는 각각 88.9%와 52.2%가 본인 및 가족 돌봄 방식을 통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상보육에도 1세 미만의 아동은 돌봄 방식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34〉 가족 특성별 낮 시간의 아동 돌봄 유형: 2012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명)
전체		43.3	56.6	(3,343)
여성 경제 활동	안함	52.1	47.9	(2,115)
	함	24.1	75.9	(1,056)
가구 소득	149만 원 이하	50.9	49.0	(98)
	150~100만 원	43.3	56.7	(245)
	200~249만 원	47.0	53.0	(416)
	250~299만 원	47.6	52.5	(537)
	300~349만 원	46.1	53.9	(511)
	350~399만 원	42.8	57.2	(280)
	400~499만 원	37.4	62.7	(525)
	500~599만 원	43.2	56.8	(350)
	600~699만 원	30.7	69.3	(153)
700만 원 이상	40.3	59.8	(225)	
아동 연령 그룹	0-2세(영아)	62.2	37.7	(1,802)
	3-5세(유아)	24.2	75.8	(1,541)
아동 연령 상세	0세	88.9	11.1	(802)
	1세	52.2	47.8	(538)
	2세	31.0	69.0	(462)
	3세	28.2	71.9	(503)
	4세	23.4	76.6	(556)
	5세	21.7	78.4	(482)

주: 1) 돌봄 주체 구분은 아래 자료의 표에서 비혈연, 육아전문인력, 기관을 '그 외'로 구분하였고, 나머지는 '본인 및 가족'으로 구분함.

2) 아래 자료의 표에는 여성경제활동이 '취업', '휴직중', '미취업', '모 부재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다른 연도와 가능한 유사하게 구성하기 위해 '휴직중'(152명), '모 부재 등'(20명)은 제외하고 제시함.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가족부.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p.84 〈표 IV-1-1〉 수정 및 재인용.

다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아동 돌봄 방식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여성 양육자의 경제활동 여부, 아동 연령,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아동 돌봄에 있어 시설이나 기관 및 서비스 등 가족이 아닌 그 외 돌봄방식을 택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80.2%를 넘어섰다.

여성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안하는 경우는 가족 내 돌봄 방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시설이나 기관 등 가족 외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이 88.6%로 과거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족 내 돌봄은 24.9%에 지나지 않았다.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높거나 중간인 경우보다 낮은 그룹이 가족 내 돌봄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구 소득이 높거나 중간인 그룹은 가족 이외의 돌봄 비율이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가족은 약 76%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에 따른 돌봄 방식 차이를 보면, 아동이 0-1세인 경우 55.8%가 시설이나 기관 및 서비스 등 가족 이외의 돌봄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비율은 2세가 되면서 매우 높아져 90% 이상으로 높아지고, 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대부분(99.0%)이 가족 이외의 돌봄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제활동이나 소득수준보다도 아동연령에 따른 돌봄 방식 차이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5-35〉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5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명)	χ^2
전체		19.4	80.6	(3,728)	
여성 경제 활동	안함	24.9	75.1	(2,007)	94.16***
	함	11.4	88.6	(1,374)	
소득 수준	상	16.2	83.8	(747)	16.79***
	중	18.8	81.2	(2,236)	
	하	24.3	75.7	(745)	
아동 연령	0-1세	44.2	55.8	(1,390)	887.70***
	2-3세	8.3	91.7	(1,196)	
	4세 이상	1.0	99.0	(1,14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여성경제활동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3,381명에 대한 분석임.

4) 소득 수준은 표본의 소득에서 상위 20%는 상, 하위 20%를 하로 설정하고 중간 구간을 중으로 설정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2015년의 아동 돌봄 방식을 여성경제활동과 아동 연령 조건을 함께 고려해 보면, 경제활동 하는 여성과 하지 않는 여성 그룹 모두에서 아동 연령에 따른 돌봄 유형 차이를 볼 수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47.0%가 가족 내 돌봄을 하고 있으며, 2-3세 아동에 대해서는 12.3%, 4세 이상은 1.8%가 가족 내 돌봄을 택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0-1세 아동을 돌보는 경우라도 가족 외 돌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에서는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36.4%, 2-3세 아동에 대해서는 2.3%가 가족이 돌봄을 하고 있다. 그러나, 4세 이상 아동은 가족이 아닌 그 외의 유형으로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6〉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5년: 여성경제활동-아동연령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명)	χ^2
경제활동 안함	0-1세	47.0	53.0	(879)	428.42***
	2-3세	12.3	87.7	(616)	
	4세 이상	1.8	98.2	(511)	
경제활동 함	0-1세	36.4	63.6	(404)	349.72***
	2-3세	2.3	97.9	(471)	
	4세 이상	0.0	100.0	(500)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2015년의 아동 돌봄 방식을 여성경제활동과 가족 소득 수준으로 보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외 돌봄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는 소득 수준이중간이거나 낮은 가구보다 가족 이외의 돌봄 방식을 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에서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가족 이외의 돌봄 방식 비율이 상승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에서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는 가족 외 돌봄 비율이 98.8%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5-37〉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5년: 여성경제활동-소득수준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명)	χ^2
경제활동 안함	상	15.0	85.0	(173)	12.86**
	중	24.6	75.4	(1258)	
	하	28.4	71.6	(574)	
경제활동 함	상	15.4	84.6	(486)	17.79***
	중	10.0	90.0	(806)	
	하	1.2	98.8	(83)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가장 최근 특징을 볼 수 있는 2018년 결과에서도 아동 돌봄 방식이 가족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경향은 유사했다. 전체적으로 가족 내 돌봄 유형은 27.8%, 가족이 아닌 그 외 돌봄 유형은 72.2%로 가족이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안하는 경우는 가족 내 돌봄 유형이 36.8%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의 17.8%보다 높아 차이를 보였다. 소득 수준은 높아질수록 가족이 돌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중간이나 높은 그룹보다 가족이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높게(36.4%) 나타났다.

아동 연령에 따라서도 아동 돌봄 방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0-1세 아동을 여전히 가족 및 개인이 돌보는 비율이 74.5%로 높게 나타났으며, 4세 이상은 소수만 본인이나 가족이 돌보는 것(0.7%)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 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8〉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8년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χ^2
전체		27.8	72.2	(4,155)
여성 경제 활동	안함	36.8	63.2	(2,056)
	함	17.8	82.2	(1,751)
소득 수준	상	24.6	75.4	(833)
	중	27.2	72.8	(2,809)
	하	36.4	63.6	(514)
아동 연령	0-1세	74.5	25.5	(1,359)
	2-3세	10.0	90.0	(1,334)
	4세 이상	0.7	99.3	(1,462)

주: 1) *** $p < .001$, ** $p < .01$, * $p < .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여성경제활동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3,807명에 대한 분석임.

4) 소득 수준은 표본의 소득에서 상위 20%는 상, 하위 20%를 하로 설정하고 중간 구간을 중으로 설정하였음.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 돌봄 방식을 여성경제활동과 아동 연령 조건으로 보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그룹과 하는 그룹 모두에서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이외의 돌봄 유형을 택한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1세 아동을 가족이 돌보는 비율이 81.3%로 높았다. 하지만 2-3세 아동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15.1%로 급격히 줄어든다. 그리고 4세 이상 그룹에서는 그 비율이 0.7%로 나타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이 2세 이상이면 가족 이외의 돌봄 방식이 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5-39〉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8년: 여성경제활동-아동연령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명)	χ^2
경제활동 안함	0-1세	81.3	18.7	(806)	1154.47***
	2-3세	15.1	84.9	(650)	
	4세 이상	0.7	99.3	(601)	
경제활동 함	0-1세	62.0	38.0	(458)	833.45***
	2-3세	3.9	96.1	(584)	
	4세 이상	0.6	99.4	(708)	

주: 1) *** p<.001, ** p<.01, * p<.05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여성인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에서는 0-1세 아동에 대해 가족이 돌보는 경우가 62.0%로 과반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세 이상이 되면 3.9%만이 가족 내 돌봄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4세 이상은 99.4%가 가족 이외의 돌봄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이상 아동의 돌봄 방식은 여성이 경제활동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2018년 아동 돌봄 방식을 여성경제활동과 소득수준 조건으로 알아보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 모두에서 소득 수준

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이 아닌 그 외 돌봄 방식이 증가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는 가족 내 돌봄 방식을 택한 비율이 23.8%이지만, 소득이 낮은 가족에서는 42.9%가 가족 돌봄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에서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이외의 돌봄 유형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에서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와 비슷하게 가족 내 돌봄 유형 비율이 24.1%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룹에서는 가구 소득이 낮은 가족은 가족이 돌보는 비율이 10.1%로 줄어들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룹에서 가구 소득이 낮은 경우 가족 돌봄 방식을 택한 비율이 42.9%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동의 돌봄 방식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여성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그 경향성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40〉 가족 특성별 주된 아동 돌봄 유형 2018년: 여성경제활동-소득수준

(단위: %, 명)

구분		본인 및 가족	그 외	(명)	χ^2
경제활동 안함	상	23.8	76.3	(160)	17.78***
	중	36.7	63.3	(1,515)	
	하	42.9	57.1	(380)	
경제활동 함	상	24.1	75.9	(564)	23.97***
	중	15.0	85.0	(1,117)	
	하	10.1	89.9	(69)	

주: 1)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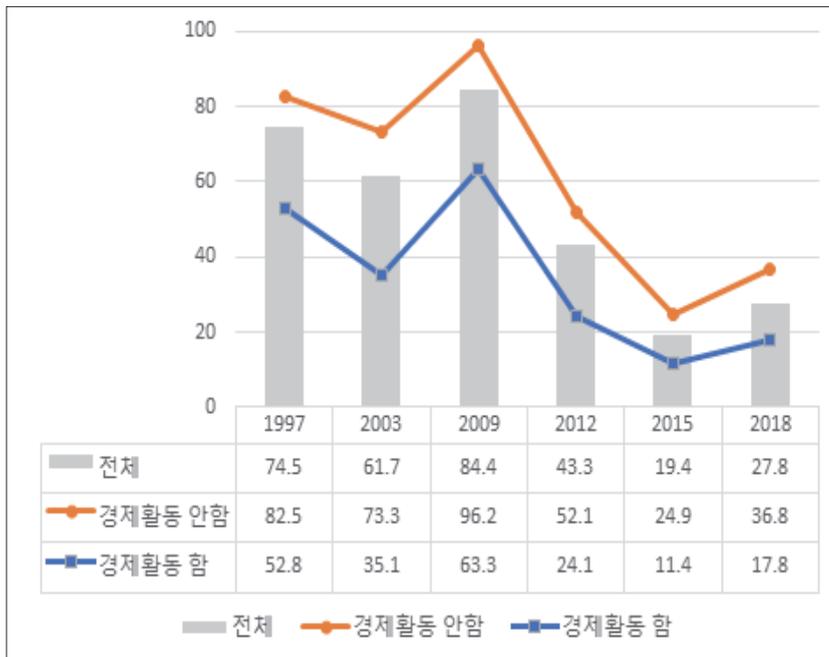
2)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아동 돌봄 유형에 대해 각 연도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변화의 양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본인 및 가족 돌봄의 비율 변화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아동 돌봄에 있어 중요한 변화인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특성에 따른 비율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림 5-17] 아동 돌봄 유형(본인 및 가족 돌봄) 변화: 1997년~2018년

(단위: %)



주: '본인 및 가족' 돌봄 비율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2015,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원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p.119 <표 IV-2-2> 수정 및 재인용.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가족부.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p.84 <표 IV-1-1> 수정 및 재인용.

본인 및 가족 돌봄 비율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1997년과 2018년 사이에 아동을 본인이나 가족이 돌보는 비율이 75% 수준에서 30% 미만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는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두 경우는 그래프 사이 간격을 유지한 채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가 보이는 시기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의 변화이다. 본인 및 가족이 돌보는 전체 비율도 가장 크게 감소하였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44.1% 포인트가 감소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의 감소 폭(39.2% 포인트) 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2년에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돌봄 방식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2012년 이후 아동 돌봄의 주체는 가족에서 가족 이외의 기관이나 서비스 등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양육 시간

가족 내 양육 시간의 변화는 아동을 돌보는 행위에 투자하는 시간의 변화와 함께 성별에 따른 차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변화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생활시간조사」에서 아동 양육의 시간으로 구분된 항목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가족 내 양육의 평등한 시간 분배가 주요 관심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 2인 가족을 추출하였다. 양육자 2인 이외에 가족 내 조부모는 아동 양육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여 조부모가 있는 가족을 제외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시간 활용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에 알맞게 가족 내 부부가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알아보아 남성과 여성의 사례 수가 동일하다. 「생활시간조사」는 한 명이 이일간의 생활에 대해 시간을 기록하는

것으로 한 사람 당 두 개의 시간 일지 데이터를 갖게 되어있다. 이 연구에서는 하루의 데이터를 한 사례로 간주해 명 수 대신 사례 수로 표기한다.

전반적인 시간을 보면 미취학 아동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999년도 135.5분에서 2004년은 153.7분, 2009년은 170.9분, 2014년은 201.8분, 그리고 2019년에는 196.5분이 평균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취학 아동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은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23.8분, 2004년에는 30.5분, 2009년에는 41.8분, 2014년에는 53.2분,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63.9분으로 증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양육 시간이 함께 증가하기는 했지만, 남성과 여성의 양육 시간 평균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평균 차이 또한 과거보다 현재 증가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1999년에는 평균 차이가 111.6분이었으나, 2014년에는 148.6분으로 남성과 여성이 미취학 아동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양육 시간이 같이 증가했지만 남녀 사이 평균 차이가 더 커진 것은 여성의 양육 투자 시간이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2014년보다는 평균 차이가 줄어들어 132.7분으로 나타나 남녀차이가 약간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아동 양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최근 양육에서의 성평등이 강조되고 양육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실생활에 반영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5-41〉 1일 평균 양육 시간(1999~2019년)

(단위: 분, 사례)

연도	성별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차이
1999년	여성	135.5	125.9	(6,474)	111.7
	남성	23.8	50.1	(6,474)	
2004년	여성	153.7	127.0	(3,908)	123.2
	남성	30.5	50.8	(3,908)	
2009년	여성	170.9	126.5	(2,192)	129.1
	남성	41.8	60.6	(2,192)	
2014년	여성	201.8	141.7	(2,294)	148.6
	남성	53.2	69.5	(2,294)	
2019년	여성	196.5	137.4	(1,754)	132.7
	남성	63.9	84.5	(1,75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미취학 아동 돌봄을 활동 내용 별로 사용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활동 내용 항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999년도에는 신체적 돌보기,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기타 돌보기 3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2004년에는 이에 더해 아이 간호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4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1999년에는 기타 돌보기 시간에 포함되어 측정되었을 항목으로 생각된다. 2009년에는 2004년의 항목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다만 그동안 한 항목으로 있었던 책 읽어주기·놀아주기가 둘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항목은 구분되었지만, 동일한 시간에 대한 세분화이다. 2014년 조사에서는 다시 책 읽어주기·놀아주기가 한 항목으로 더해지고, 가르치기 항목이 추가되었다. 2019년 조사에서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항목이 신체적 돌보기, 간호하기,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책 읽어주기·대화하기, 아이와 놀아주기·스포츠활동 하기,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기타 돌보기로 분류되었다. 2014년부터 가르치기가 추가된 것과 2019년에 선생님과 상담 등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 돌봄

활동은 크게 신체적 돌보기,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아이 간호, 기타 돌보기가 주요 활동이다.

미취학 아동 양육의 여러 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은 신체적 돌보기이다. 여기에는 씻기기, 먹이기, 재우기 등이 포함된다. 1999년에는 신체적 돌보기에 여성이 73.8분, 남성이 약 5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이 활동에 할애한 시간은 약간씩 증가해 여성은 85.4분, 남성은 7.8분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여성이 97.4분, 남성이 13.7분, 그리고 2014년에는 여성이 116.8분, 남성이 20.4분을 미취학 아동 신체적 돌보기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시간에서도 신체적 돌보기 시간이 여성 118.4분, 남성 31.9분으로 가장 긴 활동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5년마다 약 10분씩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9년에서 2014년 5년 사이에는 약 20분 증가해 신체적 돌보기에 할애하는 시간 증가 폭이 커졌다. 하지만, 2019년에는 118.4분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4년보다 약 2분 증가하여 과거 증가 폭보다 작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단위의 증가가 약 3분, 5분, 7분, 11분으로 증가 폭이 커지긴 했지만, 여성과 비교해 그 폭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책 읽어주기·놀아주기는 신체적 돌보기 다음으로 미취학 아동 양육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19년 데이터에는 책 읽어주기와 놀아주기가 구분되어 있으나 다른 연도에는 하나의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2019년은 ‘책 읽어주기·대화하기’와 ‘놀아주기·스포츠활동 하기’로 구분되어 있어 다른 연도의 활동 구분과 약간 상이하게 분류되어 있다. 각 연도의 양육자 성별에 따른 미취학 아동과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활동을 살펴보면, 1999년 여성은 1일 평균

52.6분을 할애한 데 반해, 남성은 17.9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여성이 55.8분, 남성은 21.3분을 사용해 남성과 여성 할애한 시간이 모두 증가해 성별 사이 평균 차이는 1999년과 마찬가지로 약 35분을 유지했다. 2009년도에는 두 활동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활동이다 보니 책 읽어보기보다 놀아주기 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은 책 읽어주기 시간만 구분해 보면 3.2분으로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활동을 다른 연도와 비교를 위해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활동으로 묶어보면, 여성은 58.4분, 남성은 24.6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 간 평균 차이는 33.8분으로 1999년이나 2004년과 비교해 평균 차이가 미미하지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2014년도에는 여성이 57.6분, 남성이 28.6분 할애한 것으로 드러나 평균 차이가 30분 미만으로 처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책 읽어주기·대화하기'는 여성이 13.1분, 남성이 3.8분이며, '놀아주기·스포츠활동하기'는 여성이 37.8분, 남성이 21.8분으로 나타났다. 이 두 활동을 묶어보면, 여성이 50.9분, 남성이 25.6분으로 2014년보다 약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적 돌보기와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활동 이외에 아이 간호나 기타 돌보기 활동을 보면, 아이 간호는 2004년부터 구분된 항목이었는데 여성은 3~5분 내외, 남성은 1분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기타 돌보기 항목은 여성이 투자하는 시간이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에 약간 감소하였고, 남성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도 4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르치기'라는 활동은 2014년에 만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활동으로 조사가 바뀌면서 초등학생이 포함될 수 있어 이 항목 생성되었는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활동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 할애하는 시간

분포는 크지 않았다. 2019년에는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로 구분되었는데 2014년과 2019년 모두 여성은 약 6분, 남성은 1분 내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양육 활동 시간 변화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 돌보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신체적 돌보기 시간의 변화이다. 이 시간에 대한 할애는 남녀 모두 증가했지만, 2014년까지 여성이 할애하는 시간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앞서 확인한 남녀의 전체 양육시간 평균 차이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 평균 차이가 1999년부터 2014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9년에는 신체적 돌보기에 대한 남성의 평균 시간이 여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남녀의 시간 사용 차이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활동에 대해 남성은 1999년 5분에서 2019년 31.9분으로 10년 사이 평균 약 27분 증가한 것인데,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짧은 시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주요 양육 활동에서 이러한 남성의 시간 사용 증가는 가족 내 양육 활동 분배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로 생각된다.

〈표 5-42〉 양육 활동 별 1일 평균 양육 시간(1999~2019년)

(단위: 분, 사례)

연도	활동 내용	여성		남성		평균 차이
		평균 시간	표준 편차	평균 시간	표준 편차	
1999년 (N=남녀 각 6,474)	신체적 돌보기	73.8	81.6	5.0	20.4	68.8
	책 읽어주기·놀이주기	52.6	70.7	17.9	41.1	34.7
	기타 돌보기	9.0	23.5	1.0	10.2	8.0
2004년 (N=남녀 각 3,908)	신체적 돌보기	85.4	84.7	7.8	22.4	77.6
	책 읽어주기·놀이주기	55.8	66.7	21.3	39.8	34.5
	아이 간호	3.2	14.9	0.5	6.0	2.7
	기타 돌보기	9.4	20.6	0.9	6.7	8.5

연도	활동 내용	여성		남성		평균 차이
		평균 시간	표준 편차	평균 시간	표준 편차	
2009년 (N=남녀 각 2,192)	신체적 돌보기	97.4	88.2	13.7	29.8	83.7
	책 읽어주기	20.8	30.7	3.2	11.8	17.6
	놀아주기	37.6	51.7	21.4	37.6	16.2
	아이 간호	4.0	23.5	1.0	8.4	3.0
	기타 돌보기	11.2	23.3	2.5	12.7	8.7
2014년 (N=남녀 각 2,294)	신체적 돌보기	116.8	106.4	20.4	38.5	96.4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57.6	63.6	28.6	45.7	29.0
	가르치기	6.2	16.6	0.7	5.8	5.5
	아이 간호	4.0	20.9	1.1	13.3	2.0
	기타 돌보기	17.2	31.2	2.4	11.7	14.8
2019년 (N=남녀 각 1,754)	신체적 돌보기	118.4	98.0	31.9	55.9	86.5
	책 읽어주기·대화하기	13.1	24.1	3.8	13.1	9.3
	놀아주기·스포츠활동 하기	37.8	55.6	21.8	40.4	16.0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	6.5	17.7	1.1	8.1	5.3
	아이 간호	5.2	32.9	1.3	8.9	3.9
	선생님과 상담 등	1.5	10.0	0.3	6.0	1.2
	기타 돌보기	14.2	26.7	3.7	13.7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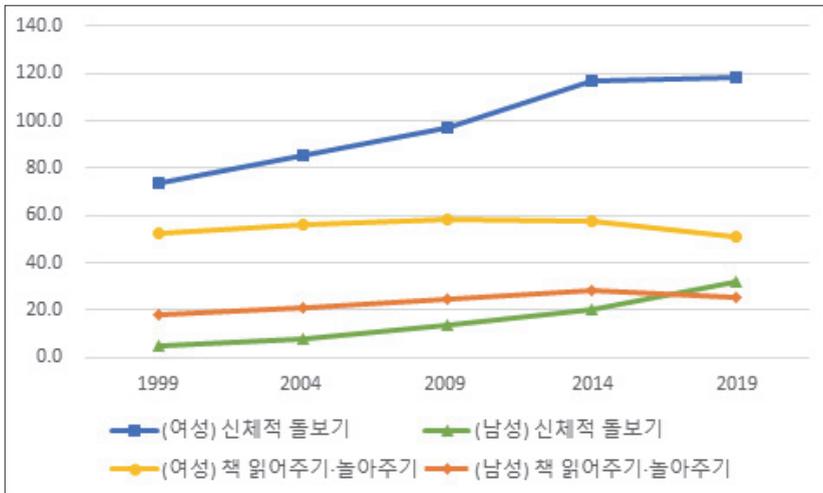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미취학 아동 양육에 여러 활동 시간이 포함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인 신체적 돌보기와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활동에 대한 변화를 아래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책 읽어주기·놀아주기 활동에 사용하는 여성과 남성의 시간 차이(1999년 34.7분→2004년 34.5분→2009년 33.8분→2014년 29.1분→2019년 25.3분)는 감소했다. 신체적 돌보기 활동에 대한 시간은 남녀 모두 증가하면서 차이 폭도 커져 1999년에 68.8분 차이가 2014년에는 96.4분으로 더욱 벌어졌으나, 2014년에서 2019년 사이 남성의 신체적 돌보기 시간이 약 11분 증가하여 그동안의 증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여성은 약 2분 증가

해 남녀 평균 차이가 감소했다. 아래 그래프에서도 2019년 여성과 남성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체적 돌보기 시간 폭이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적 돌보기에 대해 남성이 할애하는 시간의 증가가 여성이 할애하는 시간 증가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5-18] 여성과 남성의 주요 활동 별 미취학 아동 양육 시간

(단위: 분)



주: 2019년 '책 읽어주기·놀아주기'는 '책 읽어주기·대화하기', '놀아주기·스포츠활동 하기'를 더한 시간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지금까지 전체적인 양육 시간과 활동 별 시간 배분을 확인했다면, 조건에 따라 조금 더 상세하게 가족 내 여성과 남성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999년도 여성은 전체적으로 135.5분을 미취학 아동 양육에 할애했다. 유료 보육이용 미취학 아동은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는지 여부로 이해할 수 있는데, 1999년도 당시는 무상보육이 도입되기 이전으로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유료 보육이용 아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1.61분, 이용하지 않을 경우 153.6분으로 양육 시간에 있어 50여 분 차이를 보인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족 사이에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맞벌이 가족의 여성의 경우는 78.1분인데 반해, 외벌이 가족의 여성의 경우는 168.0분으로 외벌이 가족의 여성이 양육에 투자하는 시간은 맞벌이 가족의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보면, 여성은 전체와 비교해 평일 양육 시간이 더 길었고 남성은 전체와 비교해 주말 양육 시간이 더 긴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평일에 비해 주말에 19분 정도 양육 시간이 줄어들고, 남성은 평일보다 주말에 양육 시간이 11.8분 증가한다. 주말에 감소한 여성 양육 시간을 남성이 대체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제활동을 위주로 살펴 보면, 맞벌이 가족의 여성은 평일 80.3분에서 주말 74.8분으로 5.5분 감소한 반면, 외벌이 가족의 여성은 27.5분 감소하였다. 맞벌이 가족의 남성은 평일 17.2분에서 주말 22.3분으로 5.1분 증가한 반면, 외벌이 가족의 남성은 평일 18.3분에서 주말 35.2분으로 16.9분 증가해 주말에는 여성의 줄어든 양육 시간을 남성이 보완하는 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맞벌이 가족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 사이 이전된 시간 배분 약 5분 내외로 매우 비슷하지만, 외벌이 가족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의 줄어든 시간을 보완하는 경향은 비슷하나 주말에 늘어난 남성의 양육 시간은 줄어든 여성의 양육 시간 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43〉 1999년 평균 양육 시간

(단위: 분, 사례)

구분		여성			남성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전체	전체		135.5	126.0	(6,474)	23.8	50.1	(6,474)
	유료 보육 이용 미취학 아동	있음	101.6	96.0	(2,356)	18.2	41.3	(2,356)
		없음	153.6	135.9	(4,118)	26.9	54.0	(4,118)
	경제활동	맞벌이	78.1	87.8	(2,396)	19.2	44.3	(2,396)
		외벌이	168.0	132.2	(3,782)	24.9	51.3	(3,782)
평일	전체		142.8	127.3	(3,925)	19.2	41.0	(3,925)
	유료 보육 이용 미취학 아동	있음	104.5	95.6	(1,452)	14.7	31.4	(1,452)
		없음	164.0	137.3	(2,473)	21.8	45.3	(2,473)
	경제활동	맞벌이	80.3	86.4	(1,448)	17.2	37.7	(1,448)
		외벌이	178.8	133.1	(2,297)	18.3	39.3	(2,297)
주말	전체		124.1	123.0	(2,549)	31.0	60.9	(2,549)
	유료 보육 이용 미취학 아동	있음	96.7	96.6	(904)	23.9	53.1	(904)
		없음	137.9	132.3	(1,645)	34.6	64.1	(1,645)
	경제활동	맞벌이	74.8	89.9	(948)	22.3	52.8	(948)
		외벌이	151.3	129.0	(1,485)	35.2	64.4	(1,485)

주: 1) 경제활동에서 외벌이는 남성이나 여성 중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이며, 남녀 모두 일하지 않는 경우는 경제활동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소득정보가 없음.

자료: 통계청. (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04년의 전체 양육 시간 평균은 여성이 153.7분, 남성이 30.5분으로 나타나 123.2분의 차이를 보여 약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 유료 보육 이용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여성의 양육 시간은 120.6분이고 없는 경우는 192.6분으로 72분 차이가 난다. 1999년에서 약 50분 차이가 났던 것보다 2004년에는 20여 분가량 그 차이 폭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데이터에서는 소득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 가구 소득으로 전환에 제한이 있었다. 개인 소득의 카테고리는 50만 원 미만부터 시작했는데, 이 50만 원 미만에는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의 사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의 카테고리를 구분해 생성하였다. 즉, 현재 구분되어 있는 50만 원 미만은 일을 하는 여성의 소득 구분으로 이해하면 된다. 남성의 경우는 일하지 않는 경우가 5% 미만으로 낮아 일하지 않는 남성과 50만 원 미만으로 구분하면 사례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남성 구분없이 50만 원 미만 카테고리를 유지하였다.

개인 소득에 따라서 보면, 일하지 않는 여성은 191.4분으로 소득이 있는 일하는 여성보다 더 긴 양육 시간을 보인다.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여성의 경우는 95.1분, 100~150만 원 사이 소득이 있는 여성은 104.2분이었다. 그 외에는 모두 80여 분의 양육 시간을 보였고, 그 중 가장 소득이 높은 2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여성의 양육시간이 80.1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은 수입이 증가할수록 양육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100~150만 원 수입이 있는 남성은 그 경향에서 약간 벗어나 가장 짧은 양육 시간(27.8분)을 보였다. 여성도 100~150만 원(104.2분) 수입이 있는 경우가 수입이 50~100만 원(83.0분)인 여성보다 양육 시간이 더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0만 원 이하의 소득 가진 그룹은 파트타임 등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어 양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은 가진 그룹은 풀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으로 인해 양육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00~150만 원의 소득 그룹의 양육 시간이 소득

이 낮은 그룹이나 소득 높은 그룹보다도 긴 것은 풀타임으로 일하지는 않을 가능성과 동시에 소득이 아주 낮지는 않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맞벌이 가족의 여성은 92.6분, 외벌이 가족의 여성은 189.5분으로 96.9분의 양육 시간 차이를 보이며, 이 차이 폭은 1999년(89.9분)보다 더 커진 것이다. 반면, 맞벌이 가족의 남성은 28.4분, 외벌이 가족의 남성은 31.2분으로 2.8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평일과 주말로 세분화해 보면, 여성은 평일 161.0분, 주말 142.9분으로 평일 양육 시간이 주말보다 18.1분 더 긴 것을 볼 수 있고 남성은 평일 22.8분과 주말 41.8분으로 평일보다 주말이 19.0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평일과 주말 사이 차이 폭이 비슷한 것은 주말에 줄어든 여성의 양육 시간을 남성이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일 외벌이 가족의 여성은 양육 시간이 203.5분으로 맞벌이 가족의 여성이 89.0분인 것에 비해 매우 긴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맞벌이 가족인 경우 21.3분과 외벌이 가족인 경우 22.9분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말에는 맞벌이 가족의 여성은 평일보다 양육 시간이 약간 증가(9분)하고 외벌이 가족의 여성은 평일보다 다소 감소(35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맞벌이 가족과 외벌이 가족 모두에서 양육 시간이 증가(맞벌이 17.7분, 외벌이 20.6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9년과 마찬가지로 2004년에도 외벌이 가족의 남성과 여성은 맞벌이 가족의 남성과 여성보다 긴 양육 시간을 갖는 특징을 보인다.

〈표 5-44〉 2004년 평균 양육 시간

(단위: 분, 사례)

구분		여성			남성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전체	전체		153.7	127.0	(3,908)	30.5	50.8	(3,908)
	유료 보육 이용 마중탕이동	있음	120.6	104.7	(2,160)	24.8	42.3	(2,160)
		없음	192.6	139.3	(1,748)	37.1	58.5	(1,748)
	본인 월 평균소득	여성 일하지 않음	191.4	130.8	(2,410)			
		50만 원 미만	95.1	82.9	(514)	43.2	54.4	(184)
		50~100만 원 미만	83.0	77.7	(362)	40.2	65.1	(178)
		100~150만 원 미만	104.2	120.9	(262)	27.8	45.9	(802)
		150~250만 원 미만	86.2	87.9	(260)	30.7	51.1	(1,714)
		250만 원 이상	80.1	79.1	(100)	28.4	49.8	(1,030)
	경제활동	맞벌이	92.6	91.6	(1,434)	28.4	49.5	(1,434)
		외벌이	189.5	131.2	(2,394)	31.2	51.0	(2,394)
	평일	전체		161.0	131.1	(2,340)	22.8	39.5
유료 보육 이용 마중탕이동		있음	125.5	107.6	(1,298)	18.2	31.4	(1,295)
		없음	204.3	143.6	(1,042)	28.4	47.0	(1,042)
본인 월 평균소득		여성 일하지 않음	205.5	131.1	(1,440)			
		50만 원 미만	99.0	86.1	(307)	43.6	50.1	(98)
		50~100만 원 미만	76.9	71.6	(211)	36.8	67.4	(112)
		100~150만 원 미만	104.4	134.5	(163)	20.3	32.5	(469)
		150~250만 원 미만	69.3	69.6	(156)	23.4	39.2	(1,018)
		250만 원 이상	66.4	61.3	(63)	18.7	35.1	(640)
경제활동		맞벌이	89.0	93.0	(862)	21.3	37.9	(862)
		외벌이	203.5	131.4	(1,441)	22.9	39.5	(1,441)

구분		여성			남성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주말	전체		142.9	120.1	(1,568)	41.8	62.2	(1,571)
	유료 보육 이용 여부	있음	113.0	99.8	(862)	34.9	53.4	(865)
		없음	176.1	131.4	(706)	49.3	69.9	(706)
	본인 월 평균소득	여성 일하지 않음	170.4	127.7	(970)			
		50만 원 미만	89.6	78.0	(207)	42.7	59.2	(86)
		50~100만 원 미만	91.3	85.0	(151)	45.9	61.2	(66)
		100~150만 원 미만	103.8	93.3	(99)	37.9	57.7	(333)
		150~250만 원 미만	112.9	105.7	(104)	41.3	63.3	(696)
		250만 원 이상	99.2	96.4	(37)	44.5	64.3	(390)
	경제활동	맞벌이	98.0	89.4	(572)	39.0	61.6	(572)
외벌이		168.5	128.0	(950)	43.5	62.5	(953)	

주: 1) 경제활동에서 외벌이는 남성이나 여성 중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이며, 남녀 모두 일하지 않는 경우는 경제활동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소득 카테고리가 50만 원 미만부터 구분되어 있음. 일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여성의 소득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를 '여성 일하지 않음'으로 두었음. 남성의 경우 일하지 않는 경우가 5% 미만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와 소득 50만 원 미만으로 나누면 사례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나누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 (200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09년의 평균 양육 시간은 여성이 179.9분, 남성이 41.8분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자료에는 미취학 아동 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미취학 아동 수에 따른 양육 시간을 알아보았다. 또한, 2009년 자료에 여전히 본인의 월 소득이 카테고리 정보로 공유되어 있어 가계 소득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소득 카테고리가 0원부터 시작해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카테고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남성의 경우는 소득이 0원인 경우가 드물어 0원과 그 다음 카테고리인 50만 원으로 구분할 경우 사례수가 작아져 50만 원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미취학 아동 수에 따라서는 1명인 경우(150.3분)보다 2명 이상인 경우

(215.3분)의 여성 양육 시간이 크게 증가(65.0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인 소득이 0원인 여성의 경우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양육시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다. 100-1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여성의 경우 양육시간이 85.3분으로 다른 소득 구간이 모두 100분 이상인 것과 비교해 차이를 보인다. 경제활동에 따라서 보면, 맞벌이 가족의 여성은 111.2분, 외벌이 가족의 여성은 207.4분으로 96.2분 차이를 보여 미취학 아동 수에서 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다른 조건 보다 미취학 아동 수에 따라 양육 시간 증가 폭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미취학 아동 수가 1명인 경우 남성은 37.1분을 양육에 할애한 반면 미취학 아동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52.2분으로 15.1분 증가해 맞벌이-외벌이 가족의 남성 양육 시간 차이인 1.8분보다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주말과 평일의 양육 시간 사용을 보면, 여성은 평일 180.8분에서 주말은 157.1분으로 23.7분 감소하고 남성은 평일 28.2분에서 주말 60.2분으로 31.4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주말에 줄어든 여성의 양육 시간을 남성이 커버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평일과 주말,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맞벌이 가족보다 외벌이 가족의 양육 시간이 더 긴 특징은 유지되었다. 맞벌이 가족의 여성은 평일 103.8분에서 주말에는 123.3분으로 주말에 19.5분 양육 시간이 증가했고, 반면 외벌이 가족의 여성은 평일 208.0분에서 주말 177.0분으로 주말에 31.0분 양육 시간이 감소하였다. 맞벌이 가족의 남성은 평일보다 주말에 25.3분, 외벌이 가족의 남성은 평일보다 주말에 21.6분 양육 시간이 증가해 외벌이 가족의 여성만 평일보다 주말에 양육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2004년에 이어 2009년에도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5-45〉 2009년 평균 양육 시간

(단위: 분, 사례)

구분		여성			남성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전체	전체		170.9	126.5	(2,192)	41.8	60.6	(2,192)
	미취학 아동 수	1명	150.3	116.0	(1,504)	37.1	56.3	(1,504)
		2명 이상	215.3	136.6	(688)	52.2	67.9	(688)
	본인 월 평균소득	0원	203.5	129.5	(1,406)	50.7	44.2	(30)
		50만 원 미만	151.0	110.9	(122)			
		50~100만 원 미만	107.3	84.3	(168)			
		100~150만 원 미만	85.3	69.2	(152)			
		150~250만 원 미만	110.1	105.2	(214)			
		250만 원 이상	112.2	94.6	(130)			
	경제활동	맞벌이	111.2	95.3	(802)	40.2	61.3	(802)
		외벌이	207.4	129.7	(1,346)	42.0	59.9	(1,346)
	평일	전체		180.8	130.3	(1,286)	28.8	42.8
미취학 아동 수		1명	160.9	119.8	(896)	26.4	41.9	(896)
		2명 이상	225.6	141.7	(390)	34.3	44.2	(390)
본인 월 평균소득		0원	226.9	130.1	(813)	57.8	38.9	(20)
		50만 원 미만	139.7	70.8	(74)			
		50~100만 원 미만	111.7	87.5	(116)			
		100~150만 원 미만	76.8	53.8	(88)			
		150~250만 원 미만	98.1	107.5	(126)			
		250만 원 이상	80.5	64.3	(69)			
경제활동		맞벌이	103.8	84.2	(485)	30.6	43.5	(485)
		외벌이	208.0	129.9	(1,331)	41.6	59.5	(1,331)

구분		여성			남성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주말	전체		157.1	119.8	(906)	60.2	75.5	(906)
	미취학 아동 수	1명	135.0	108.6	(608)	52.6	69.5	(608)
		2명 이상	202.0	128.8	(298)	75.5	84.5	(298)
	본인 월 평균소득	0원	172.2	122.0	(593)	41.4	50.8	(10)
		50만 원 미만	169.8	155.4	(48)			
		50~100만 원 미만	97.5	76.6	(52)	56.5	60.4	(42)
		100~150만 원 미만	98.2	86.5	(64)	51.6	66.5	(88)
		150~250만 원 미만	126.3	100.4	(88)	53.2	74.7	(377)
		250만 원 이상	149.2	110.2	(61)	69.2	79.0	(389)
	경제활동	맞벌이	123.3	110.0	(317)	55.9	79.9	(317)
외벌이		177.0	121.3	(572)	63.2	73.7	(572)	

주: 1) 경제활동에서 외벌이는 남성이나 여성 중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이며, 남녀 모두 일하지 않는 경우는 경제활동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소득은 0원부터 카테고리로 조사되어 있음. 남성의 경우 사례수가 작아 50만 원 미만으로만 구분함.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평일 양육시간을 여성경제활동 여부와 가족 내 미취학 아동 수로 살펴 보면, 미취학 아동 수가 2명 이상인 가족이 모든 그룹에서 더 많은 양육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미취학 1명 일 때와 2명 이상일 때의 차이가 (미취학 아동 1명: 206.9분, 미취학 아동 2명 이상: 279.8분)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크고, 남성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의 아동 수에 따른 양육 시간 차이 (미취학 아동 1명: 26.2분, 미취학 아동 2명 이상: 43.4분)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의 아동 수에 따른 양육 시간 차이보다 컸다.

〈표 5-46〉 2009년 평일 평균 양육 시간: 여성경제활동-미취학 아동 수

(단위: 분, 사례)

구분	여성				남성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t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t	
경제 활동 안함	1명	206.9	122.5	(529)	-9.14***	26.5	40.7	(529)	3.73***
	2명 이상	279.8	131.4	(255)		29.0	45.4	(255)	
경제 활동 함	1명	92.1	74.1	(367)	-6.23***	26.2	43.7	(367)	-2.99**
	2명 이상	132.5	106.1	(135)		43.4	40.7	(135)	

자료: 통계청, (200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4년 자료에는 가구소득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 개인별 소득 대신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 시간을 살펴보았다. 소득 정보는 금액 정보가 아닌 카테고리 정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로 상-중-하 그룹은 구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 카테고리에 비율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은 소득 상위 약 15%를 포함하는 카테고리까지로 구분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은 하위 약 30%를 포함하는 카테고리까지로 나누었다. 그 외는 중간 그룹으로 구분하여 가구소득을 상, 중, 하로 나누었다. 그 결과, '상' 그룹은 600만 원 이상, '중' 그룹은 300~600만 원 미만, '하' 그룹은 300만 원 미만으로 구분되었다.

2014년에는 여성의 전체 양육 시간 평균이 201.8분, 남성은 53.2분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이 1명인 경우는 여성이 179.0분인데 2명 이상이 되면 238.1분으로 1시간 가까이 양육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미취학 아동이 1명인 경우 48.1분이고 2명 이상이 되면 61.4분으로 증가했다. 여성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평균 양육 시간이 증가하였다. 남성도 같은 경향이기는 했지만, 가구소득 중간과 낮은 그룹은 54분과 54.6분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 높은 그룹만 48.6분으로 약간 낮았

다. 남성은 맞벌이-외벌이 가족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여성은 맞벌이 가족의 경우 136.8분인데 반해 외벌이 가족의 여성은 246.1분으로 109.3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평일 209.5분, 주말 180.5분으로 주말의 양육 시간이 줄어들었다. 한편, 남성은 평일 39.1분, 주말 85.2분으로 주말의 양육 시간이 증가해 여성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즉, 여성은 주말에 29.0분 덜 양육하고 남성은 주말에 46.1분 더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 수가 1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는 평일이나 주말 모두 2명 이상인 가족의 여성과 남성이 양육 시간이 더 길다. 특히, 미취학 아동 수가 2명 이상인 가족의 남성 주말 양육 시간은 111.2분으로 다른 그룹과 비교해 가장 긴 특징을 보인다. 평일과 주말 모두 가구소득이 낮은 그룹의 여성 그룹은 양육 시간이 긴 특징을 보였다. 특히 여성은 평일에는 가구소득이 중간이나 낮은 그룹이 200분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그룹의 175.2분보다 긴 양육시간을 보이며, 주말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그룹이 200분 이상의 양육시간을 보인다. 그러나 평일 남성은 양육 시간이 39-39분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고, 주말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성의 양육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일 맞벌이 가족의 여성은 133.6분 육아에 시간을 할애하는데 반해, 외벌이 가족의 여성은 247.1분으로 113.5분 차이를 보인다. 평일 맞벌이 가족 남성의 양육 시간은 41.0분이며, 외벌이 가족의 남성은 52.7분으로 외벌이 가족의 남성이 11.7분 양육 시간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맞벌이 가족의 여성이 145.7분, 외벌이 가족의 여성이 204.3분으로 58.6분 차이가 난다. 남성은 맞벌이 가족인 경우 72.1분, 외벌이 가족인 경우 94.0분으로 21.9분 차이를 보인다.

〈표 5-47〉 2014년 평균 양육 시간

(단위: 분, 사례)

구분		여성			남성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전체	전체		201.8	141.7	(2,294)	53.2	69.5	(2,294)
	미취학 아동 수	1명	179.0	135.4	(1,370)	48.1	59.6	(1,370)
		2명 이상	238.1	144.1	(924)	61.4	82.4	(924)
	가구소득	상	170.2	142.8	(340)	48.6	61.8	(340)
		중	193.6	141.1	(1,254)	54.0	71.7	(1,254)
		하	236.9	135.2	(700)	54.6	69.9	(700)
	경제활동	맞벌이	136.8	121.3	(872)	50.7	66.4	(872)
외벌이		246.1	137.6	(1,354)	53.2	70.5	(1,354)	
평일	전체		209.5	144.2	(1,413)	39.1	52.0	(1,413)
	미취학 아동 수	1명	182.5	137.0	(837)	37.5	46.1	(837)
		2명 이상	251.3	145.2	(576)	41.5	59.9	(576)
	가구소득	상	175.2	150.0	(224)	38.3	52.5	(224)
		중	201.0	143.2	(766)	39.8	54.6	(766)
		하	247.6	134.1	(423)	38.4	46.5	(423)
	경제활동	맞벌이	133.6	119.3	(537)	41.0	57.9	(537)
외벌이		247.1	137.0	(1,343)	52.7	69.7	(1,343)	
주말	전체		180.5	132.4	(881)	85.2	90.6	(881)
	미취학 아동 수	1명	169.8	130.8	(533)	70.6	76.6	(533)
		2명 이상	199.1	133.4	(348)	111.2	106.6	(348)
	가구소득	상	154.3	116.3	(116)	75.0	75.0	(116)
		중	174.3	133.7	(488)	84.9	91.9	(488)
		하	207.5	134.3	(277)	91.6	95.7	(277)
	경제활동	맞벌이	145.7	126.4	(335)	72.1	77.8	(335)
외벌이		204.3	130.0	(518)	94.0	98.1	(518)	

주: 1) 경제활동에서 외벌이는 남성이나 여성 중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이며, 남녀 모두 알하지 않는 경우는 경제활동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가구소득 정보가 카테고리라 되어 있어 본 연구의 표본에서 가구소득 상위 약 15%를 포함하는 카테고리 까지를 가구소득 '상(600만 원 이상)', 하위 약 30%를 가구소득 '하(300만 원 미만)', 나머지를 '중(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으로 구분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양육시간은 여성이 경제활동 여부와 미취학 아동 수, 가구소득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평일 양육 시간이 아동 수, 가구소득으로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로 나누고 그 안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 시간을 보면, 먼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은 그룹이 268.8분으로 가장 긴 평일 양육 시간을 보이고 있지만, 가구소득이 높은 그룹에서도 264.0분으로 비슷한 시간을 보였다. 그리고 가구소득 중간 그룹의 양육 시간은 254.5분으로 나타나 세 그룹 중에서는 가장 짧기는 하지만 여성이 경제활동을 안하는 경우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 시간은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남성의 평일 양육 시간을 보면, 가구소득이 중간이 그룹이 39.6분으로 가장 길다. 그다음은 가구소득이 낮은 그룹으로 37.0분, 양육시간이 가장 짧은 그룹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구소득이 높은 그룹으로 평균 25.2분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가구소득이 중간인 그룹이 여성이 다른 그룹보다 가장 짧은 양육 시간을 보이며, 남성은 다른 그룹보다 긴 양육 시간을 보인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가구소득이 중간인 그룹이 역시 가장 짧은 양육 시간으로 122.5분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그룹이 그다음 양육 시간으로 139.3분이며,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긴 양육 시간으로 143.9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일을 하는 가족에서 남성의 양육 시간은 가구소득이 중간인 그룹이 41.3분으로 가장 짧고, 그다음은 가구소득이 높은 그룹이 42.1분, 가장 긴 양육 시간을 보이는 그룹은 가구소득이 낮은 남성으로 49.7분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40분 이상의 양육 시간을 갖지만,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가구소득 관계없이 모두 40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과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남성 그룹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평일 양육 시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8〉 2014년 평일 평균 양육 시간: 여성경제활동-가구소득

(단위: 분, 사례)

구분		여성				남성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F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F
경제 활동 안함	상	264.0	140.4	(58)		25.2	47.7	(58)	
	중	254.5	140.2	(456)	1.64**	39.6	50.1	(456)	0.99
	하	268.8	128.6	(349)		37.0	43.4	(349)	
경제 활동 함	상	143.9	140.9	(166)		42.1	53.3	(166)	
	중	122.5	107.0	(310)	1.31	41.3	62.3	(310)	1.49*
	하	139.3	107.4	(74)		49.7	60.1	(74)	

주: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가구소득 정보가 카테고리화 되어 있어 본 연구의 표본에서 가구소득 상위 약 15%를 포함하는 카테고리 까지를 가구소득 '상(600만 원 이상)', 하위 약 30%를 가구소득 '하(300만 원 미만)', 나머지를 '중(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으로 구분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여성경제활동 여부와 가족 내 미취학 아동 수를 함께 살펴보면,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미취학 아동이 1명 일 때와 2명 이상일 때의 차이가 (미취학 아동 1명: 206.9분, 미취학 아동 2명 이상: 279.8분)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크다. 반면, 남성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아동 수에 따라 양육 시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아동 수에 따른 양육 시간 차이(미취학 아동 1명: 26.2분, 미취학 아동 2명 이상: 43.4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5-49〉 2014년 평일 평균 양육 시간: 여성경제활동-미취학 아동 수

(단위: 분, 사례)

구분	여성				남성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t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t	
경제 활동 안함	1명	230.1	131.5	(489)	-7.17**	37.5	45.3	(489)	-3.12**
	2명 이상	302.6	130.4	(374)		36.5	49.5	(374)	
경제 활동 함	1명	118.8	116.9	(348)	-4.81***	37.6	47.2	(348)	-5.21***
	2명 이상	155.9	121.3	(202)		50.8	74.6	(202)	

자료: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019년 평균 양육 시간은 여성이 전체 196.5분, 남성이 전체 63.9분인데, 미취학 아동이 1명인 경우 여성은 179.0분, 남성은 55.35분이며 2명 이상이 되면 여성은 227.8분, 남성은 79.1분으로 나타나 아동이 2명 이상일 때 양육 시간이 증가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여성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남성은 높은 가구소득보다는 중간이나 낮은 가구소득 그룹에서 양육 시간이 증가했지만, 여성과 달리 중간과 낮은 그룹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중간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약 1분 양육 시간이 길었다. 또한, 여성은 맞벌이 경우보다 외벌이인 경우 양육 시간이 길었지만, 남성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맞벌이인 경우에 양육 시간이 외벌이보다 1.5분 정도 더 길었다.

평일 양육 시간을 보면, 여성은 전체 202.4분, 남성은 47.0분으로 나타났다. 가족 특성에 따른 평일 양육 시간도 앞서 살펴 본 전체 양육 시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주말의 양육 시간도 평일의 양육 시간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양육 시간을 보면 여성이 180.8분, 남성이 102.4분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평일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여성은 평일보다 주말의 양육 시간이 약 20분 감소하였고, 남성은 평일보다 주말의 양육 시간이 약 55분 증가해 남성과 여성의 양육 시간 차이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주말 경제활동에 따른 남성의 양육 시간에서는 평일과 달리 맞벌이보다 외벌이 가족의 경우 남성의 육아 시간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평일 남성 양육 시간에서는 맞벌이보다 외벌이의 경우에 아동 양육 시간이 더 긴 특징을 보였으나, 주말에는 맞벌이보다 외벌이 가족의 남성의 양육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0〉 2019년 평균 양육 시간

(단위: 분, 사례)

구분			여성			남성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전체	전체		196.5	137.4	(1,754)	63.9	84.5	(1,754)
	미취학 아동 수	1명	179.0	133.1	(1,086)	55.3	76.9	(1,086)
		2명 이상	227.8	139.3	(668)	79.1	94.8	(668)
	가구소득	상	168.3	125.1	(384)	59.8	75.6	(384)
		중	197.0	136.4	(1,054)	65.7	88.9	(1,054)
		하	240.3	149.5	(306)	64.5	81.9	(306)
	경제활동	맞벌이	132.7	98.8	(718)	64.0	84.2	(718)
		외벌이	246.2	143.2	(992)	62.5	84.0	(992)
평일	전체		202.4	134.2	(1,081)	47.0	67.2	(1,081)
	미취학 아동 수	1명	183.8	131.4	(665)	41.9	66.1	(665)
		2명 이상	234.6	133.2	(416)	55.8	68.3	(416)
	가구소득	상	173.6	128.8	(233)	45.7	57.7	(233)
		중	200.7	128.9	(652)	48.4	73.4	(652)
		하	256.5	149.2	(188)	45.0	56.9	(188)
	경제활동	맞벌이	131.4	97.7	(460)	52.7	75.1	(460)
		외벌이	258.9	133.7	(596)	40.2	56.4	(596)

구분		여성			남성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 편차	(사례 수)	
주말	전체	180.8	144.3	(673)	102.4	104.9	(673)	
	미취학 아동 수	1명	166.6	136.9	(421)	85.3	89.9	(421)
		2명 이상	208.1	154.1	(252)	133.6	121.9	(252)
	가구소득	상	153.4	113.3	(151)	92.5	98.8	(151)
		중	186.9	154.5	(402)	105.5	107.0	(402)
		하	200.4	143.2	(118)	105.0	107.6	(118)
	경제활동	맞벌이	136.6	101.8	(258)	93.3	98.2	(258)
		외벌이	214.5	160.6	(396)	109.5	109.6	(396)

주: 1) 경제활동에서 외벌이는 남성이나 여성 중 한쪽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이며, 남녀 모두 일하지 않는 경우는 경제활동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가구소득 정보가 카테고리화 되어 있어 본 연구의 표본에서 가구소득 상위 약 15%를 포함하는 카테고리 까지를 가구소득 '상(600만 원 이상)', 하위 약 30%를 가구소득 '하(300만 원 미만)', 나머지를 '중(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으로 구분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 시간을 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의 여성의 경우에만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 시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중 가족의 소득이 중간인 경우 양육 시간이 250.8분으로 소득이 높은 그룹의 276.7분과 낮은 그룹의 296.2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는 반대로 가구소득이 중간인 그룹이 131.7분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그룹의 129.2분과 낮은 그룹의 118.9분과 비교해 가장 긴 양육 시간을 보였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평균 양육 시간이 유의미하게 차이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가족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양육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여성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 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51〉 2019년 평일 평균 양육 시간: 여성경제활동-가구소득

(단위: 분, 사례)

구분		여성				남성			
		평균시간	표준편차	(사례 수)	F	평균시간	표준편차	(사례 수)	F
경제 활동 안함	상	276.7	121.4	(70)	1.37*	30.8	58.1	(70)	1.43
	중	250.8	127.3	(374)		38.8	57.0	(374)	
	하	296.2	138.6	(149)		47.7	57.3	(149)	
경제 활동 함	상	129.2	104.4	(163)	0.76	52.0	56.4	(163)	1.1
	중	131.7	94.7	(278)		61.5	89.9	(278)	
	하	118.9	92.8	(39)		35.8	55.2	(39)	

주: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가구소득 정보가 카테고리화 되어 있어 본 연구의 표본에서 가구소득 상위 약 15%를 포함하는 카테고리 까지를 가구소득 '상*(600만 원 이상)', 하위 약 30%를 가구소득 '하(300만 원 미만)', 나머지를 '중(3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으로 구분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여성경제활동과 미취학 아동 수에 따른 평일 양육 시간을 알아보면, 모든 그룹에서 미취학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양육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그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 그룹으로 아동이 1명인 경우는 241.9분, 2명 이상인 경우는 303.5분으로 나타났다. 가장 작은 차이를 보인 그룹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의 남성으로 아동이 1명인 경우 평균 양육 시간은 54.1분이며, 2명 이상인 경우는 58.8분으로 나타나 약 5분의 차이를 보였다. 가장 짧은 양육 시간을 보인 경우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 중 미취학 아동이 1명인 가족의 남성으로 평일 평균 32.0분을 양육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2〉 2019년 평일 평균 양육 시간: 여성경제활동-미취학 아동 수

(단위: 분, 사례)

구분		여성				남성			
		평균시간	표준편차	(사례 수)	t	평균시간	표준편차	(사례 수)	t
경제 활동 안함	1명	241.9	129.8	(373)	-6.68***	32.0	47.9	(373)	-3.97***
	2명 이상	303.5	120.7	(226)		53.1	69.1	(226)	
경제 활동 함	1명	111.9	92.0	(292)	-6.00***	54.1	81.8	(292)	-3.22**
	2명 이상	158.6	101.3	(190)		58.8	67.5	(190)	

자료: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제3절 소결

한국의 부모 돌봄은 혈연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효 이념을 바탕으로 가부장제에서 장남과 맏며느리 중심의 가족 부양 책임이 이루어져왔다. 전통사회의 집단적·공동체적 생활양식 속에서 노인 돌봄의 '부담'을 가족과 친족이 담당하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사회의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 나타난 빠른 변화로 도덕적 윤리 이념이 현실적 영향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고, 친족과 공동체적 관계의 약화, 핵가족의 확대에 의해 노인 돌봄의 사회적 환경이 변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공적 돌봄정책이 빈약한 복지체제 하에서 여성을 비롯한 가족들이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돌봄을 위해 공적제도 등의 자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남성 가정의 고용 불안과 여성의 노동력화를 불가피하게 했으며, 이는 가족의 부양과 돌봄 기능의 저하 또는 공백을 야기했다. 가족이 제공해 온 기능을 국가나 시장 및 지역 공동체가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공적 돌봄 시스템의 재편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가족 복지의 '탈가족화'가 추구되었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가족주의적 복지체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 빠르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의 부모 부양 인식을 정리해보면,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1998년 89.9%에서 2002년 70.7%, 2006년 63.4%로 서서히 감소하다 2014년에는 31.7%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제 노부모 돌봄은 선택적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전통적인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에서 점차 노부모의 자기부양을 비롯하여 국가 및

사회 등 공적부양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의 부모 부양이 전통적 효사상, 경로 효친에 의한 당위적이고 자발적인 책임 행위로부터 필요에 의한 조건적인 선택 행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구성 또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여전히 주돌봄을 가족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여전히 가족 돌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부터 공적 돌봄 서비스의 비중이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한 결과라 볼 수 있다. 2004년부터 2017년의 돌봄자 변화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가족 내 노인돌봄의 주담당자는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며느리의 돌봄 비율이 감소하면서 친자녀 중심의 돌봄이 증가하고 아들의 돌봄율이 구분되어 확인된다. 돌봄자의 비율이 '배우자' 다음으로 '딸'이 차지하는데, 이는 며느리의 돌봄이 감소했지만 또 다른 여성에게로 돌봄의 책임이 이동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한편 노인특성별로 가족뿐만 아니라 기타 공적 서비스와 혼합하여 돌봄 기제가 확대되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남성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고연령이 되면서 가족 이외의 전문 기관과 같은 돌봄 기제를 더욱 필요로 한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의 돌봄보다 외부 공적 서비스의 돌봄 기제가 두드러진다. 또한 가족 돌봄에서 남성노인은 주로 배우자에게 돌봄을 의존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은 자녀가 주돌봄자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딸이 주돌봄자 역할을 하는 비율이 꽤 높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 커지고 있다.

가족 내 돌봄의 지원 교환 양상을 1998년과 2004년을 비교하여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정서적, 신체적 지원에 있어서 배우자와의 교환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자녀들과의 지원 교환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

인다. 다만 정서적 지원이나 신체적 지원과 다르게 경제적 지원에서는 여전히 장남 중심으로부터 받는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서 가부장제의 특성이 분명하다. 동거자녀/비동거 자녀의 부모 돌봄 양상을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 분석에서는 동거 자녀의 경우 정서적 돌봄과 지원의 교환은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 노인이 동거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 중에서 도구적 지원이 높고 경제적 지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자녀에게 노인이 경제적 수혜를 받는 대신에 손자녀 양육 등과 같은 도구적 지원 제공을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동거자녀와의 경우에는 정서적 지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동거자녀와 비교해서 오히려 떨어져 사는 자녀로부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동거 자녀가 상대적으로 도구적, 수발적 지원을 부모에게 못하는 대신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자녀들의 노인 돌봄 실태와 영향요인을 한국사회종합조사(KGSS)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부모 부양 책임에 전반적인 태도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난다. 2006년에는 장남 또는 아들들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전체 중 41.7%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 부양 인식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2016년에는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부모 부양 책임 인식으로부터 아들, 딸 상관없이 자녀들의 책임으로의 변화가 분명해졌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 부양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 가진다는 인식이 그 다음으로 많아졌다. 부모부양 책임 인식을 응답자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장남 또는 아들의 부모 부양 책임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 돌봄 인식에서는 여전히 성별, 연령집단 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줄어들고 있다.

자녀와의 동거는 10년 사이에 감소 추세가 분명하다. 2020년 고령자 통계의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집단의 가구 유형에 있어서 1인 가구가 34.2%, 부부 가구는 33.1%로 노부모와 자녀 세대의 거주 분리가 보편화 되고 있다. 부모와의 접촉에 있어서 직접 만남보다는 연락을 하는 정도가 더 많다. 흥미로운 점은 접촉 정도에 있어서 본인의 부모보다 배우자의 부모와의 접촉 정도가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배우자 부모의 돌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자녀 양육에서 모계쪽 지원을 받는다는 보고를 바탕으로(통계청, 2017)으로 손자녀 돌봄 등 오히려 도구적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더 잦은 접촉이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상황을 보면, 자녀들의 특성에서는 성, 연령 집단의 차이가 나타난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 연령집단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애 단계상 40~50대 연령집단의 경우 본인의 노부모가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부양이 필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에게 일상의 여러 가지 일을 직접 도와주는 도구적 돌봄을 하는 양상을 보면, 최근에 약간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젊은 20~30대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적 돌봄과 차이를 보인다. 정서적 지원은 특성상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젊은 세대가 부모와 정서적 지원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돌봄과 지원 정도를 비교해보면, 지원과 수혜가 교류하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상호성의 차원에서는 모계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다른 차원에서 부모 돌봄과 부양에서는 여전히 부계 중심의 부모 지원과 돌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 변수는 결혼 상태와 취업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에게 도구적 지원을 통한 돌봄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2006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연령과 결혼 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0~30대 젊은 연령집단이나 미혼의 경우에 부모를 직접 돌보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에게 하는 정서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들의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개인주의 등으로 인한 노부모 부양과 돌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본 장에서 분석한 결과, 노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고령집단의 부양 및 돌봄이 가족 중심으로 나타나지만 점차 공적 돌봄 기제의 활용이 계속 늘고 있으며, 가족 내 주돌봄자는 자녀 중심에서 배우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자녀와의 지원 교환에 있어서 보면, 직접적으로 자녀로부터 수발적 지원을 받는 경향이 줄어들고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향은 늘어나고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나타난 자녀 세대의 부모 돌봄과 부양의 실태의 변화를 보면 자녀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자녀 공동 책임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앞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부모 세대가 응답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다만 KGSS의 분석 결과에서는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실태조사에서의 간병, 수발적 지원과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석에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 아동 돌봄 방식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함께 가족 내 인적자원 활용이 주를 이루던 것에서 가족 밖의 자원 활용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였다. 돌봄 방식에서 양육자가 직접 돌보는 부모 돌봄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기관 돌봄으로 나누어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 돌봄은 감소하고 기관 돌봄은 증가한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0년과 2015년 사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는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아동 돌봄 방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고, 변화 폭은 0세나 4~5세보다 1세, 2세, 3세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중 어린이집 이용에서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0세 아동에 대한 돌봄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부모 돌봄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1세 이상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상승한 것은 무상보육 도입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아동 돌봄의 기관 이용은 2000년부터 이미 증가하고 있었는데, 무상보육 도입으로 1세 이상 아동을 중심으로 기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후 2015년도까지 1세 이상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 돌봄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고, 4세와 5세는 유치원 이용 비율이 증가해 0세를 제외한 미취학 아동의 기관 이용 돌봄 비율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가족 외 돌봄 유형은 1997년 55.6%, 2003년 38.3%, 2009년 15.6%로 감소했다가 2012년에 56.6%로 증가하고, 2015년 80.6%, 2018년 72.2%로 2012년 이후 증가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무상보육 제도 도입이후 전반적으로 가족 이외 돌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돌봄 유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 돌봄 유형이 어떻게 다른 지 분석하였다. 여기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함께 시행된 무상보육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997년에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가족 이외의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약 47% 정도였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조사에서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가족 이외 돌봄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무

상보육이 도입되기 전과 후의 자료인 2009년과 2012년 결과를 활용해보면, 2009년 여성이 일하지 않는 경우 가족 이외의 돌봄을 활용하는 비율이 3.8%였는데, 2012년에는 그 비율이 47.9%로 상승한다. 여성이 일하는 경우의 변화(2009년 36.7→2012년 75.9%)보다 더 큰 변화를 보였다. 이런 변화는 꾸준히 이어져 2018년에는 여성이 일하는 경우 82.2%, 하지 않는 경우 63.2%가 가족 이외의 돌봄을 주된 유형으로 채택하였다. 이렇게 미취학 아동 돌봄이 가족 밖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였다.

아동 돌봄이 가족 이외의 기관이나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하면서, 아동 연령은 돌봄 방식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유아 돌봄에 비해 영아 돌봄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가족 외 돌봄 방식 비율이 0~1세의 경우 1997년은 3.6%, 2018년은 25.5%로 21.9% 포인트 증가하였고, 2~3세의 경우 1997년이 27.1%, 2018년은 90.0%로 62.9%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리고 4세 이상은 1997년 55.6%, 2018년 99.3%로 43.7% 포인트 증가해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외 돌봄으로의 변화가 20년 사이에 크게 달라진 것이다. 다만, 2018년에는 2015년보다 전체적으로 본인 및 가족 돌봄 비율이 증가하였고, 그 안에서 0~1세 아동의 가족 내 돌봄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0세 이상 아동에 대한 가족 내 돌봄은 44.2%로 가족 외 돌봄이 과반으로 나타났었지만, 2018년에는 가족 외 돌봄이 25.5%로 감소했다. 이는 0세 아동에 대한 부모 돌봄이 2010년보다 2015년에 증가한 인구총조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이다.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출산 직후 여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이 0세일 때 가족 내 돌봄이 많았을 수 있다. 일을 하더라도 제도 활용으로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가족 돌봄이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아동이 어릴 때는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양육 태도 및 가치관으

로 인해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 및 가족 돌봄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으로 올수록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 이외 돌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이 경향이 유지되지만,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가족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내 돌봄 비율이 높아졌다. 비취업 여성은 자녀를 직접 돌보면서 양육수당을 받지만 다른 소득이 없어서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소득 가구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취업 여성은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가족 외 돌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취업 여성의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는 안정적 일자리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돌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아동 돌봄 유형은 가족 안에서 가족 밖으로 변화된 것이 뚜렷하며, 이는 아동 연령이 2세 이상일 때 그 변화가 더욱 분명하다.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환경 등으로 인해 가족 내 돌봄이 일정 비율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책의 보장이나 지원이 발전할수록 취업 여성이 0~1세 아동을 가족 내에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가족 내 양육 시간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간 사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1999년과 2019년 사이 양육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여성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평균 양육 시간은 135.5분에서 2019년 196.5분으로 61.0분 증가하였고, 남성은 1999년 23.8분에서 2019년 63.9분으로 40.1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여성과 남성 사이 평균 사용하는 시간 차이 폭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남녀 사이 양육 시간 차이가 여

성이 111.7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132.6분 더 길게 양육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시간 변화를 경제활동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의 차이 폭이 맞벌이 가족과 외벌이 가족 모두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맞벌이인 경우 1999년 58.9분에서 2019년 68.7분으로 9.8분 증가했고, 외벌이 가족은 1999년 양육 시간 차이가 143.1분에서 2019년 183.7분으로 40.6분 증가했다.

〈표 5-53〉 맞벌이-외벌이 가족의 남성과 여성 양육 시간 차이

(단위: 분)

연도	1999년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여성	남성	차이												
맞벌이	78.1	19.2	58.9	92.6	28.4	64.2	111.2	40.2	71.0	136.8	50.7	86.1	132.7	64.0	68.7
외벌이	168.0	24.9	143.1	189.5	31.2	158.3	207.4	42.0	165.4	246.1	53.2	192.9	246.2	62.5	183.7

자료: 통계청. (각연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또한 맞벌이-외벌이 가족 간 여성의 양육 시간 차이가 1999년에 89.9분에서 2019년에 113.5분으로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남성의 차이는 5.7분에서 1.5분 차이로 오히려 줄었다. 2014년까지의 흐름과 비교해 2019년은 남성 양육 시간 증가로 인해 양육 시간의 성별 차이 폭이 감소하였으며 맞벌이 가족의 남성이 외벌이 가족의 남성보다 양육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여성의 양육 시간은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남성의 양육 시간 또한 증가하지만, 그 폭은 여성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수준에 머무른다. 특히 외벌이 가족에서 여성의 양육 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남성은 맞벌이 경우와 외벌이 가족에 따른 차이가 줄어드는 반면, 여성은 그 차이가 20년 사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 돌봄에서 기관 이용 비율이 증가한 점까지 고려하면 외별이 가족의 여성이 양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여성과 남성의 양육 할애 시간이 모두 증가했지만, 여성의 증가 폭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큰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에 대해 관리하거나 챙겨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어릴 때부터도 기본적인 활동 이외에 교육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야 하는 경쟁적인 양육 문화로 인해 여성의 영유아 돌봄 시간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아동을 먹이고 재우거나 씻기는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돌봄에서 나아가 놀이, 책읽기, 가르치기 등의 활동이 가족 내에서도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 아동을 돌보는 시간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아동 양육에 투자하며 주 양육자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양육 시간은 지속 증가하거나 가장 최대 시간으로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남성의 양육 시간 또한 증가는 하지만 여성 양육 시간의 증가 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별이 가족 남성보다 작았던 맞벌이 가족의 남성 양육 시간이 2019년에 처음으로 맞벌이 가족 남성의 양육 시간보다 더 길어진 경향과 최근 강조되는 평등한 양육 문화를 바탕으로 여성이 일하는 가족의 남성 양육 시간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제6장

가족 관계의 변화

제1절 부부관계의 변화

제2절 부모와 미성년자녀의 관계 변화

제3절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 변화

제4절 소결



제 6 장 가족 관계의 변화

가족관계는 가족 내 구성원 상호 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며, 권력이나 역할 같은 사회적 관계와 심리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넓은 의미에서 가족행동의 총체이며 가족 상호작용의 역동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양옥경, 2001). 이는 가족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행위 즉 의식주를 포함한 가족 간의 상호적 관계로 가족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협력하고 통합하게 된다. 또한 가족 간의 애정을 기초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동반하게 된다(오영희·송진숙·송영란·양승지, 2009).

가족관계는 가족 간의 인간관계속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 역할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 개인 간의 심리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인 개인적 심리관계를 포괄한다고 본다(박관동, 2020). 또한 양옥경(2001)은 한국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평가도구를 개발하면서 가족 구성원들 간 내부적 관계 속 상호작용 특성에 초점을 두고 가족원 간의 정서친밀관계, 인정 책임관계, 수용존중관계를 중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적이고 좋은 가족관계, 만족한 가족관계란 기능적으로 지지적이며 건강한 가족으로 규명하고 있다. 어은주, 유영주(1995)는 강점을 가진 건강한 가족을 가족원들 간 유대가 강하고 가족 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위기와 문제를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가족으로 간주하였다. 즉 가족 구성원이 존중하며 상호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기능적인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관계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과 관련이 높으며 정서적 기능은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최근으로 오면서 가족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된다(노영애, 2020).

한편, 가족변화 즉 가족변동과 가족관계는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다. 가족변화는 사회적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로부터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 저출산·고령화 및 이혼율 증가, 그리고 의료 및 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가족규모를 포함하여 가족구조, 세대 간의 구성 변화로 나타나며, 가족구성원의 의식변화에도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노영애, 2020). 또한 가족변화의 뚜렷한 특징인 소가족화·핵가족화, 맞벌이가족 증가, 가족 분거 및 이혼·사별의 증가로 인해 가족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변화 현상은 가족관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된다(김유경 등, 2014).

특히 가족관계는 가치관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높다. 우리나라 가족관계는 가부장적인 구조가 지배적으로 이러한 가부장적 가치관은 가족관에 위계적 관계를 유발하여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갈등적 요인을 제공한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취업 및 가사분담 등에 대해서는 다소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이 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부부간에 위계적이고 양성불평등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와 실제 부부간의 위계적·양성불평등적 역할 간에 괴리는 부부 역할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부갈등의 원인은 과거에는 경제문제에 치중하다가 최근에는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가족 결속력이 약화됨에 따라 배우자 및 부모 등 가족관계가 갈등 원인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유경 등, 2014).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는 부양 가치관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으로 오면서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 주체가 점차 가족에서 사회에 대한 비중

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부양 책임에 대한 사회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동거 형태 및 결속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부양관의 약화에 비해 소자녀화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부모부양의 부담 증가는 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갈등으로 발전하여 가족 간에 결속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김유경, 이여봉, 최세은, 김가희, 임성은, 2015).

본 장에서는 선행적인 이론과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양옥경, 2001)으로 가족관계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관계는 젠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세대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부부관계는 부부관계의 질과 변화의 추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중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는 자녀관, 자녀양육책임 및 방식, 자녀관계 및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부모와의 동거 형태 및 거주 근접성, 접촉빈도, 성인자녀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질문은 첫째, 부부관은 가부장적 태도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로 수렴하고 있는가? 또한, 부부관계는 남편중심에서 부부평등으로 수렴하고 있는가? 둘째, 자녀양육의 책임은 확대 또는 축소되고 있는가?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와의 결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으로 구성코자 한다.

제1절 부부관계의 변화

부부관계는 가족관계의 근간을 이루고, 부부간의 역할관계나 권력구조 등은 부부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부간의 역할분담이나 가족 내 의사결정행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부부행위를 평가함으로써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부부역할에 대한 가치관, 부부역할 이데올로기,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 등은 과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관적 인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김승권 등, 2000).

부부관계 변화는 가족 내 부부 역할, 부부간 의사결정권, 가사분담 태도 및 실태변화, 대화정도 및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 부부관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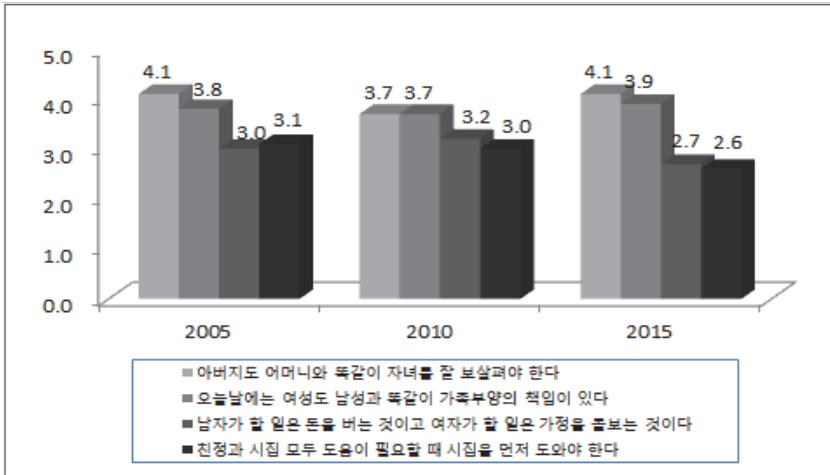
부부관은 총 4가지 지표로 측정하였다. ①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②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③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④ 친절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연도별로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2005년 4.1점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다 2010년에는 3.7점으로 다소 중립적으로 돌아섰고, 2015년에는 4.1점으로 2005년과 동일한 견해를 보였다.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라는 태도는 2005년과 2010년 각각 3.8점과

3.7점으로 중립적인 견해를 보였고, 2015년에는 3.9점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1] 연도별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변화(2005~2015)

(단위: 점)



주: 1) 점수척도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2) 분석대상수는 2005년 5,969명, 2010년 4,754명, 2015년 45,193명임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그리고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에 대한 태도는 2005년 3.0점으로 중립적인 견해를 보이다 2010년과 2015년 각각 3.2점과 2.7점으로 최근으로 오면서 부정적인 점수가 높아져서 양성평등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라는 태도는 2005년과 2010년 각각 3.1점과 3.0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다 2015년에 오면서 2.6점으로 부정적인 점수가 높아져 양성평등적 인식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부부의 가족 내 성역할 중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최근으로 오면서 증가하는데 비해, 전통적 가부장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감소추세를 보여 우리나라 부부역할이 전통적 가부장적 태도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2005년 남성은 4.0점, 여성은 4.1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다 2010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3.7점으로 중립적인 변화를 보였고, 2015년으로 오면서 남성과 여성 각각 4.0점과 4.2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폭이 다소 높았다.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라는 태도는 2005년 남성과 여성은 각각 3.7점과 3.8점으로 중립적이었고, 2010년에도 각각 3.6점과 3.7점으로 남녀 모두 중립적인 견해를 유지하다 2015년에는 남성과 여성 각각 3.8점과 4.0점으로 남성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비해 여성은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를 보였다.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에 대한 태도는 2005년 남성은 3.1점, 여성은 2.9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2010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3.2점으로 중립적이었으며, 2015년으로 오면서 남성과 여성 각각 2.7점과 2.6점으로 부정적인 태도로 변화를 보였다.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라는 태도는 2005년 남성과 여성은 각각 3.2점과 3.0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2010년에는 각각 3.1점과 2.9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2015년으로 오면서 남성과 여성 각각 2.7점과 2.5점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부정적인 태도의 변화 폭이 높았다.

부부의 가족 내 성역할 중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남성과 여성 모두 최근으로 오면서 증가하는데 비해, 전통적 가부장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추세를 보여서 우리나라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전통적 가부장적 태도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변화 폭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음을 보여준다.

〈표 6-1〉 연도 및 성별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2005~2015)

(단위: 점, 명)

구분	2005		2010		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4.0	4.1	3.7	3.7	4.0	4.2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3.7	3.8	3.6	3.7	3.8	4.0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3.1	2.9	3.2	3.2	2.7	2.6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3.2	3.0	3.1	2.9	2.7	2.5
(분석대상수)	(2,738)	(3,231)	(2,368)	(2,386)	(22,532)	(22,661)

주: 점수척도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연령별로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2005년에는 50대 이하 연령층은 모두 4.1점으로 동일하였고, 60대 이상은 4.0점으로 동일하여 긍정적인 견해는 50대 이하가 60대 이상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0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3.6~3.8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변화를 보였고 대체로 20대 이하가 30대 이상보다 다소

높았다. 2015년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3.9~4.2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라는 태도는 2005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3.7~3.9점으로 중립적인 견해를 보였고 대체로 10대 연령층이 가장 높는데 비해 30대와 40대 연령층이 낮은 분포를 보였다. 2010년에는 30대 이하 연령층은 모두 3.7점으로 동일하였고, 40대 이상 연령층은 3.6점으로 동일하여 중립적인 견해는 30대 이하가 40대 이상보다 높았다. 2015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3.8~4.1점으로 다소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태도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에 대한 태도는 2005년 모든 연령층에서 2.5~3.5점으로 40대 이하 연령층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데 비해 50대 이상 연령층은 중립적인 견해가 높아서 연령집단별로 견해는 차이를 보였다. 2010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3.0~3.4점으로 중립적인 견해를 보였고 대체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40대 이하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점수는 2.3~3.3점으로 50대 이하 연령층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60대 이상 연령층은 중립적인 견해가 높아서 연령별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라는 태도는 2005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2.5~3.8점으로 40대 이하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50대 이상은 중립적인 견해를 보였다. 2010년에는 다소 변화를 보여 10~30대 연령층은 2.7~2.9점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데 비해 40대 이상 연령은 3.0~3.2점으로 연령이 높은 경우 중립적인 태도가 높은 편이었다. 2015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2.3~3.2점으로 60대 이하 연령층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70대 이상은 다소 중립적인 견해를 보였다.

〈표 6-2〉 연도 및 연령별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2005~2015)

(단위: 점, 명)

구분	①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②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③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④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분석대상수)	
	①	②	③	④		
2005	10대	4.1	3.9	2.6	2.6	(297)
	20대	4.1	3.8	2.5	2.5	(687)
	30대	4.1	3.7	2.7	2.7	(1,402)
	40대	4.1	3.7	2.9	2.9	(1,039)
	50대	4.1	3.8	3.1	3.3	(797)
	60대	4.0	3.8	3.3	3.6	(955)
	70대 이상	4.0	3.8	3.5	3.8	(792)
2010	10대	3.8	3.7	3.1	2.7	(382)
	20대	3.8	3.7	3.0	2.9	(787)
	30대	3.7	3.7	3.1	2.8	(949)
	40대	3.6	3.6	3.2	3.0	(996)
	50대	3.7	3.6	3.4	3.1	(774)
	60대	3.6	3.6	3.3	3.1	(469)
	70대 이상	3.7	3.6	3.4	3.2	(398)
2015	10대	4.2	4.1	2.3	2.4	(5,394)
	20대	4.2	4.0	2.3	2.3	(6,093)
	30대	4.2	3.9	2.5	2.3	(7,977)
	40대	4.1	3.9	2.7	2.5	(8,411)
	50대	4.1	3.9	2.8	2.7	(8,086)
	60대	4.0	3.8	3.0	2.9	(4,792)
	70대 이상	3.9	3.8	3.3	3.2	(4,439)

주: 점수척도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부부의 가족 내 성역할 중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최근으로 오면서 대체로 젊은 연령층은 증가하는데 비해, 중장년층은 변화가 없거나 다소 증가하였고, 노년층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여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전통적 가부장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추세를 보여 우리나라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모든 연령층에서 전통적 가부장적 태도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변화 폭은 연령집단별로 다른 추세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2005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4.0~4.2점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200~300만원 미만은 다른 소득층에 비해 점수가 다소 낮았다. 2015년에도 2005년과 유사하여 모든 소득층에서 4.0~4.1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100만원 이상 소득층이 100만원 미만보다 점수가 약간 높았다.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라는 태도는 2005년 모든 소득층에서 3.6~3.8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분포를 보였고, 2015년에는 모든 소득층에서 동일하게 3.9점으로 긍정적인 견해에 근접하는 변화를 보였다.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에 대한 태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2.9~3.1점으로 200만원 미만 소득층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나머지 소득층은 중립적인 경향을 보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다소 변화를 보여 100만원 미만 소득층은 3.1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데 비해, 100만원 이상 소득층은 2.6~2.8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가 높았다.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라는 태도는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미만 소득층은 각각 3.4점과 3.0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데 비해 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모두 2.9점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2015년에는 100만원 미만 소득층은 3.1점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고, 100만원 이상 소득층은 2.5~2.8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가 높았다.

부부의 가족 내 성역할 중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최근으로 오면서 저소득층은 증감의 양상을 보인데 비해, 중간소득층 이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적 가부장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저소득층의 경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였고, 중간소득층 이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우리나라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모든 소득층에서 전통적 가부장적 태도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변화 폭은 소득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3〉 연도 및 소득수준별 가족 내 성역할 및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2005, 2015)

(단위: 점, 명)

구분		①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②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③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④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분석대상수)
		①	②	③	④	
2005	100만원 미만	4.2	3.8	3.1	3.4	(1,076)
	200만원 미만	4.0	3.7	2.9	2.9	(1,146)
	300만원 미만	4.0	3.6	3.0	3.0	(624)
	300만원 이상	4.1	3.6	3.1	2.9	(302)
2015	100만원 미만	4.0	3.9	3.1	3.1	(3,124)
	200만원 미만	4.1	3.9	2.8	2.8	(3,716)
	300만원 미만	4.1	3.9	2.7	2.6	(4,034)
	300만원 이상	4.1	3.9	2.6	2.5	(9,169)

주: 점수척도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2. 부부권력관계의 변화 추이

부부권력관계는 가정 내 역할 수행에서 부부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 가정 내 역할 수행에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비 지출은 2005년에는 부인결정이 절반을 상회하였고, 부부공동 결정이 3분의 1 이상의 분포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부인결정이 다소 감소하고, 부부공동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부인결정과 남성결정이 높아지는 대신 부부공동 결정이 낮아져서 양극단적인 특성을 보였다. 주택구입 문제는 2005년에는 부부공동 결정

이 3분의 2를 상회하였고,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다소 높았다. 2010년으로 오면서 부부공동 결정과 부인결정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편 결정은 다소 낮아졌다. 2015년에는 부부공동결정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남편결정과 부인결정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투자 및 재산관리는 주택구입문제와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였다. 자녀교육은 2005년에는 부부공동 결정과 부인결정이 비교적 높았고, 남편 결정은 상당히 미미하였다. 2010년으로 오면서 부부공동 결정은 절반을 상회하였고, 부인결정이 5분의 2 분포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부인결정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부부공동 결정은 3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은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변화추이를 보이지 않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생활비 지출과 자녀교육은 부인 결정이 높아졌고, 주택구입과 투자 및 재산관리는 부부공동 결정이 다소 약화되는 반면, 남편과 부인 결정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4〉 연도별 부부간 의사결정권의 변화 추이(2005~2015)

(단위: %)

구분	생활비 지출			주택구입 문제			투자 및 재산관리			자녀교육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2005	8.1	35.8	55.4	13.6	69.2	10.1	19.4	60.6	16.6	4.3	43.0	31.8
2010	4.5	43.9	50.9	8.4	77.2	14.0	1.2	70.8	17.5	2.1	56.7	40.6
2015	11.9	29.1	59.0	25.8	57.5	16.7	28.7	43.6	27.8	7.4	36.8	49.6

주: 1) 2005년 백분율은 기타, 해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포함하여 산출한 비율임.

2) 2010년 백분율은 부부각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비율임.

3) 2015년 백분율은 해당 없음을 포함하여 산출한 비율임.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성별로 가정 내 역할 수행에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을 살펴보면, 생활비 지출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와 유사하였고, 특히 부인결정은 모든 연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이에 비해 부부공동 결정은

2005년에는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10년으로 오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고, 2015년에는 남녀 간에 차이가 미미하였다. 또한 남편결정은 모든 연도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주택구입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 모든 연도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미미하였다.

〈표 6-5〉 연도 및 성별 부부간 의사결정권의 변화 추이(2005~2015)

(단위: %)

구분	일상 생활비 지출			주택구입 문제			투자 및 재산관리			자녀교육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2005	7.6	36.5	55.9	15.6	73.6	10.8	21.4	62.1	16.5	5.3	53.8	40.9
여성	8.5	35.5	56.0	14.7	74.4	10.9	19.5	62.7	17.9	5.9	53.9	40.2
2010	5.1	45.0	49.9	7.8	80.0	12.2	12.0	72.3	15.7	2.9	55.5	41.6
여성	4.4	43.7	51.9	7.5	78.7	13.9	11.3	71.0	17.7	2.2	57.2	40.7
2015	12.8	29.7	57.5	26.1	57.8	16.1	29.6	43.7	26.7	8.0	39.8	52.1
여성	11.1	28.5	60.4	25.6	57.2	17.2	27.6	43.6	28.8	7.9	38.5	53.6

주: 2005년 분석대상은 4,062명, 2010년 분석대상은 4,677명, 2015년 분석대상은 45,193명임.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투자 및 재산관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주택구입문제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고, 모든 연도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자녀교육은 전체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다. 2005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공동 결정이 절반을 상회하였고, 부인결정은 5분의 2 분포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부부공동 결정과 부인결정이 소폭 증가하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부인결정이 절반을 상회하는 반면 부부공동 결정은 3분의 1 이상으로 감소하였다. 모든 연도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미미하였다.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의 변화는 모든 영역에서 전체와 유사하였고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미미한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 가정 내 역할 수행에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을 살펴보면, 생활비 지출은 2005년에는 20대와 70대 연령층은 부부공동 결정이 부인

결정보다 다소 높는데 비해, 30대~60대 연령층은 부인결정이 부부공동 결정보다 높았다. 2010년에도 2005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2015년으로 오면서 2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부인결정이 부부공동 결정보다 높아서 최근으로 오면서 부인결정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택구입 문제는 2005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3분의 2 이상의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30대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았다. 2010년에도 모든 연령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5분의 4 내외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20대와 70대 연령층은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은 데 비해, 30대~60대 연령층은 부인결정이 남편결정보다 높아서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비해, 10대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고,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20대와 70대 연령층이 높아서 양극적인 특성을 보였다.

투자 및 재산관리는 2005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3분의 2 이하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20대~40대 연령층은 부인결정이 남편결정보다 높는데 비해, 50대~70대 연령층은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아서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0년에도 2005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2015년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 비해, 10대와 30대~50대 연령층은 부인결정이 남편결정보다 높았고, 20대와 60대~70대 연령층은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아서 연령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6〉 연도 및 연령별 부부간 의사결정권의 변화 추이(2005~2015)

(단위: %)

구분	일상 생활비 지출			주택구입 문제			투자 및 재산관리			자녀교육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2005	20대	4.1	48.4	47.5	8.9	83.6	7.5	14.0	66.0	20.0	2.4	60.9	36.7
	30대	3.7	31.3	65.0	11.1	75.1	13.8	15.6	62.2	22.2	1.7	45.0	53.4
	40대	4.3	32.9	62.8	12.9	75.0	12.0	17.4	62.3	20.2	4.9	53.4	41.7
	50대	7.9	38.9	53.2	17.0	73.4	9.6	20.5	66.6	12.9	6.9	62.8	30.4
	60대	14.6	36.7	48.6	20.3	71.0	8.8	28.4	58.7	12.9	12.0	61.5	26.5
	70대	19.0	44.0	37.0	26.5	68.1	5.4	31.1	60.4	8.5	18.4	61.6	20.0
2010	20대	4.0	56.6	39.4	13.8	79.8	6.4	12.1	72.7	15.2	7.8	52.9	39.2
	30대	2.0	44.9	53.2	5.2	80.6	14.2	6.1	75.0	18.9	1.0	53.2	45.8
	40대	2.6	41.4	56.0	5.6	79.1	15.3	9.1	74.7	16.3	1.5	51.6	46.9
	50대	4.5	42.2	53.3	8.1	78.4	13.5	12.6	68.3	19.2	3.3	61.0	35.6
	60대	8.2	46.2	45.6	9.5	78.5	11.9	15.9	69.9	14.1	3.6	64.7	31.7
	70대	11.5	48.2	40.3	15.9	79.1	5.0	24.1	63.5	12.4	10.1	74.4	15.5
2015	10대	-	35.3	64.7	-	64.7	35.3	-	64.7	35.3	-	31.3	68.8
	20대	17.3	45.4	37.3	37.3	52.3	10.4	24.5	53.7	21.8	10.6	40.5	48.9
	30대	10.5	32.4	57.1	25.9	59.0	15.1	27.0	43.5	29.5	3.1	29.8	67.1
	40대	10.7	27.5	61.8	22.9	60.7	16.4	26.3	44.0	29.7	6.0	35.2	58.7
	50대	10.2	27.7	62.2	21.2	58.3	20.5	25.5	43.5	30.9	8.3	45.2	46.5
	60대	12.1	29.4	58.4	28.8	55.5	15.7	33.3	43.3	23.4	10.4	45.7	43.8
	70대	22.3	25.2	52.5	39.6	47.3	13.1	41.4	40.9	17.8	17.3	40.7	41.9

주: 1) 연령별 부부간 의사결정권 변화는 부인이 응답한 비율임.

2) 2005년 분석대상은 4,062명, 2010년 분석대상은 4,677명, 2015년 분석대상은 45,193명임.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자녀교육은 2005년에는 3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5분의 3 내외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부인결정이 높은 분포를 보인데 비해, 30대 연령층은 부인결정이 부부공동 결정보다 다소 높았다. 2010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53~74%로 가장 높았고, 특히 40대 이하보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부인결정이 높았으며 대체로 40대 이하가 50대 이상 연령층보다 높은 분포를 보여서 연령집단별로 부부간 의사결정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부인결정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부인결정은 6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부부공동 결정보다 높았으며, 특히 10대와 30~40대 연령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의 변화는 전체와 유사하여서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교육은 대체로 부인결정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부인결정은 일상생활비 지출의 경우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높았고, 자녀교육은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에 비해 주택구입 문제와 투자 및 재산관리는 부부공동 결정이 다소 약화되면서, 주택구입 문제는 2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았다. 투자 및 재산관리는 30대~50대 연령층은 부인결정이 남편결정보다 높았고, 2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아서 연령집단별로 부부간의 의사결정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 가정 내 역할 수행에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을 살펴보면, 생활비 지출은 2005년에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부부공동 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았고, 2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부인결정이 부부공동 결정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10년에는 2005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2015년으로 오면서 모든 소득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부인결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구입 문제는 2005년에는 모든 소득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5분의 4에 근접하였고,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은 데 비해, 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미만 소득층은 부인결정이 남편결정보다 높았다. 2010년에도 모든 소득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5분의 4 내외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은 남편결정과 부인결정이 동일하였고, 200만원 미만은 남편결정이 높는데 비해, 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은 부인결정이 높은 편이어서 소득집

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모든 소득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은 큰 폭으로 감소한데 비해, 남편결정은 증가하여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았고, 남편이 결정하는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투자 및 재산관리는 2005년에는 모든 소득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은 3분의 2 이하 분포를 보였고, 다음은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 소득층은 남편결정이 높는데 비해, 200만원 미만은 부인결정이 높았다. 2010년에는 10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으로 오면서 부부공동 결정은 감소하는 반면, 남편결정과 부인결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집단별로는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미만 소득층은 남편결정이 높는데 비해, 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부인결정이 높은 분포를 보여서 소득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자녀교육은 2005년에는 300만원 이상 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은 절반 이상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부인결정이 높은 분포를 보인데 비해,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부인결정이 부부공동 결정보다 약간 높았다. 2010년에는 모든 소득층에서 부인결정이 소폭으로 감소한 반면, 부부공동 결정이 증가하여 3분의 2 내외 분포를 보였고, 소득이 낮을수록 부부공동 결정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모든 소득층에서 부부공동 결정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부인결정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부인결정은 모든 소득층에서 절반 내외로 20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하고 부부공동 결정보다 높았으며, 특히 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6-7〉 연도 및 소득수준별 부부간 의사결정권의 변화 추이(2005~2015)

(단위: %)

구분	생활비 지출			주택구입 문제			투자 및 재산관리			자녀교육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남편 결정	부부 공동	부인 결정	
2005	100만원 미만	14.5	46.2	39.4	19.0	74.0	7.0	24.8	65.5	9.7	10.8	60.7	28.5
	200만원 미만	5.7	37.4	56.9	13.5	72.8	13.7	17.3	60.5	22.1	3.8	53.0	43.2
	300만원 미만	3.6	31.8	64.7	10.8	77.8	11.4	18.5	63.9	17.6	2.7	53.1	44.3
	300만원 이상	2.6	25.5	72.0	14.1	72.1	13.8	23.8	56.9	19.3	3.0	46.4	50.6
2010	100만원 미만	9.7	39.9	50.4	13.5	73.0	13.5	22.2	57.3	20.5	7.0	71.0	22.0
	200만원 미만	8.6	49.3	42.2	10.1	80.7	9.2	15.4	70.8	13.8	4.7	66.4	28.9
	300만원 미만	3.5	47.3	49.2	6.6	79.1	14.3	9.6	73.6	16.8	2.1	55.3	42.7
	300만원 이상	3.1	41.8	55.1	6.7	79.8	13.6	9.8	73.1	17.2	2.0	53.6	44.5
2015	100만원 미만	21.9	23.9	54.3	44.0	39.9	16.1	39.9	37.7	22.4	17.5	35.5	47.0
	200만원 미만	16.2	29.0	54.8	33.3	50.6	16.1	31.0	42.7	26.2	10.6	44.8	44.6
	300만원 미만	9.4	26.1	64.5	24.4	56.7	18.9	26.0	40.1	33.9	7.9	38.3	53.9
	300만원 이상	10.9	29.0	60.1	23.2	59.5	17.2	27.9	43.8	28.2	5.9	39.3	54.8

주: 2005년 분석대상은 4,062명, 2010년 분석대상은 4,677명, 2015년 분석대상은 45,193명임.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소득수준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의 변화는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교육은 최근으로 오면서 대체로 부인결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인결정은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교육 모두 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높은 양상을 보였다. 주택구입 문제와 투자 및 재산관리는 부부공동 결정이 다소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주택구입 문제는 모든 소득층에서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았다. 투자 및 재산관리는 100만원 미만과 200만원 미만 소득층은 부인결정이 남편결정보다 높았고, 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남편결정이 부인결정보다 높아서 소득집단별로 부부간의 의사결정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3.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및 실태 변화 추이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①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②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③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 ④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등 5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과 ‘부인이 주로 하나 남편 분담’을 합친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1998년 90.6%에서 2002년 65.9%로 25%p 감소하는 반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동 기간 7.3%에서 30.7%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부부 간에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이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8년까지 지속되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59.1%로 절반을 상회한데 비해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38.4%로 5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6-8〉 연도별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1998	33.5	57.1	7.3	1.5	0.6
2002	7.2	58.7	30.7	2.8	0.5
2006	5.9	59.4	32.4	1.9	0.3
2010	6.4	54.9	36.8	1.6	0.3
2014	5.3	44.9	47.5	1.9	0.4
2018	3.8	34.6	59.1	1.9	0.6

주: 1) 1998년, 2002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10~2018년은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전반적으로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최근으로 오면서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점차 감소하는데 비해,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는데, 이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과 ‘부인이 주로 하나 남편 분담’을 합친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1998년 남성과 여성은 각각 90.7%와 90.6%로 대다수의 분포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각각 70.9%와 61.3%로 20~29%p 감소를 보였다. 반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동 기간 남성과 여성은 각각 7.1%와 7.5%에서 25.2%와 35.9%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부부 간에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이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8년까지 지속되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남성과 여성은 각각 54.6%와 63.4%로 절반을 상회한데 비해,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남성은 42.7%로 5분의 2까지 감소하였고, 여성은 34.2%로 3분의 1까지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부 간에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감소하고,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가 높아져서 전체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고,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표 6-9〉 연도 및 성별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1998	남성	34.9	55.8	7.1	1.5	0.8
	여성	32.3	58.3	7.5	1.4	0.5
2002	남성	9.5	61.4	25.2	3.3	0.7
	여성	5.1	56.2	35.9	2.4	0.4
2006	남성	8.0	63.3	26.1	2.2	0.4
	여성	3.9	55.8	38.4	1.6	0.3
2010	남성	8.8	57.8	31.2	1.8	0.4
	여성	4.1	52.1	42.2	1.3	0.3
2014	남성	7.0	47.6	42.7	2.1	0.5
	여성	3.7	42.2	52.2	1.6	0.3
2018	남성	5.2	37.5	54.6	2.1	0.6
	여성	2.5	31.7	63.4	1.8	0.6

주: 1) 1998~2006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10~2018년은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연령별로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과 ‘부인이 주로 하나 남편 분담’을 합친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1998년 모든 연령층에서 약 85~93% 분포를 보이다가, 2002년으로 오면서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약 34~75% 분포를 보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동 기간 약 5~14%에서 약 20~65%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되어 2018년에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약 43~86% 분포를 보인데 비해,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약 11~54% 분포를 보였다.

〈표 6-10〉 연도 및 연령별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1998	15~19세	21.5	63.1	13.5	1.4	0.5
	20~24세	22.3	65.9	10.1	1.1	0.6
	25~29세	24.7	66.3	7.2	1.1	0.6
	30~34세	28.7	64.6	5.0	0.9	0.7
	35~39세	33.9	58.5	5.4	1.4	0.7
	40~44세	36.9	54.7	5.8	1.8	0.8
	45~49세	38.9	52.6	5.4	2.1	1.0
	50~54세	38.8	51.9	6.6	1.9	0.7
	55~59세	42.5	48.0	6.8	2.0	0.7
	60~64세	44.7	46.0	7.6	1.4	0.4
65세 이상	50.5	41.3	6.6	1.2	0.4	
2002	20대 미만	1.2	32.7	64.6	1.3	0.2
	20대	2.0	48.5	47.8	1.6	0.2
	30대	5.8	68.3	23.2	2.0	0.6
	40대	7.6	67.3	20.2	4.0	0.8
	50대	9.2	64.0	21.5	4.6	0.8
	60대 이상	17.5	56.6	22.0	3.4	0.5
2006	20대 미만	1.2	33.0	64.5	1.0	0.3
	20대	1.5	44.4	52.5	1.5	0.2
	30대	4.5	67.0	27.1	1.1	0.2
	40대	6.8	69.4	21.0	2.3	0.5
	50대	7.0	67.6	21.9	3.0	0.5
	60대 이상	12.6	58.7	25.8	2.5	0.4
2010	20대 미만	-	-	-	-	-
	20대	2.0	38.4	57.8	1.4	0.3
	30대	3.7	60.6	34.6	1.0	0.1
	40대	6.1	64.1	27.8	1.7	0.3
	50대	8.0	62.0	27.1	2.5	0.4
	60대 이상	14.3	57.2	26.5	1.6	0.4
2014	20대 미만	1.6	23.5	71.8	2.7	0.5
	20대	1.3	28.2	68.2	2.1	0.2
	30대	3.3	45.2	50.4	0.9	0.2
	40대	5.3	53.2	39.5	1.5	0.5
	50대	6.2	54.4	36.4	2.4	0.6
	60대 이상	11.0	50.7	35.8	2.1	0.4
2018	20대 미만	0.9	10.3	86.0	2.3	0.5
	20대	0.6	14.6	81.5	2.5	0.8
	30대	1.7	28.3	68.0	1.6	0.4
	40대	3.4	41.1	53.6	1.4	0.5
	50대	4.5	45.1	47.5	2.2	0.8
	60대 이상	8.1	46.2	43.3	1.9	0.5

주: 1) 1998~2006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10~2018년은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전반적으로 부부 간에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약화되고,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가 강화되어서 전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데 비해, 고연령층에서 낮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1998년과 2002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06~2018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과 '부인이 주로 하나 남편 분담'을 합친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2006년 모든 소득층에서 약 62~68%로 3분의 2 내외 분포를 보였고,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약 30~35%로 3분의 1 내외 분포를 보였다. 2010년에도 2006년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다가 2014년으로 오면서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약 49~53% 분포를 보여 소폭 감소한 반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약 45~49%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되어 2018년에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약 55~61%로 절반 이상 분포를 보인데 비해,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약 37~43%로 5분의 2 내외 수준을 보였다.

부부 간에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서 전체와 유사하였다. 부부 간에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대체로 200만원 미만 소득층에 비해 200만원 이상 소득층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표 6-11〉 연도 및 소득수준별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06	100만원 미만	8.1	53.6	35.3	2.4	0.6
	200만원 미만	6.0	59.8	31.4	2.3	0.4
	300만원 미만	5.7	61.9	30.4	1.8	0.3
	400만원 미만	4.7	60.2	33.4	1.4	0.2
	600만원 미만	4.8	60.7	33.2	1.2	0.1
	600만원 이상	4.5	60.8	33.1	1.3	0.3
2010	100만원 미만	11.2	52.2	34.8	1.6	0.2
	200만원 미만	6.3	53.2	38.4	1.7	0.4
	300만원 미만	5.4	56.1	36.3	1.8	0.4
	400만원 미만	5.0	57.4	36.0	1.3	0.2
	500만원 미만	4.7	55.1	39.0	1.0	0.2
	600만원 미만	4.7	55.6	38.3	1.3	0.1
600만원 이상	6.3	56.7	35.2	1.5	0.2	
2014	100만원 미만	9.0	43.7	44.6	2.2	0.5
	200만원 미만	6.2	42.4	48.5	2.4	0.6
	300만원 미만	4.6	46.0	47.1	1.9	0.3
	400만원 미만	4.4	46.6	46.8	1.7	0.5
	500만원 미만	3.7	45.4	49.3	1.4	0.2
	600만원 미만	3.7	45.2	49.0	1.9	0.2
600만원 이상	4.1	45.2	49.0	1.4	0.4	
2018	100만원 미만	7.3	35.3	55.4	1.7	0.4
	200만원 미만	5.0	34.5	57.9	1.9	0.6
	300만원 미만	3.3	34.2	59.8	2.2	0.5
	400만원 미만	3.0	34.9	59.6	2.0	0.5
	500만원 미만	3.2	33.3	60.7	2.0	0.8
	600만원 미만	2.6	37.2	57.9	1.7	0.5
600만원 이상	2.9	33.9	60.7	1.8	0.7	

주: 1) 2006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10~2018년은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지금까지 부부 간에 가사분담 태도의 변화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실제 부부 간에 가사분담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

해 부부 간에 가사분담 태도와 실제 분담 간에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 부부 간에 가사분담 형태의 변화를 보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과 ‘부인이 주로 하나 남편 분담’을 합친 부인이 가사를 부담하는 비율은 1998년 90.8%에서 2006년 일시적인 증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77.7%로 20년간 13.1%p 감소하여 감소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1998년 5.7%에서 2006년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9.5%로 동 기간 13.8%p 증가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부담하는 비율은 1998년 2.2%에서 2018년 2.8%로 20년간 3% 이하를 유지하였다.

부부 간에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에 비해 실제 가사분담은 대다수가 부인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5분의 4 미만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는 높아지고는 있으나 부인 부담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서 부부 간에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가사분담의 실태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6-12〉 연도별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1998	44.3	46.5	5.7	2.0	0.2
2002	37.9	51.0	8.1	2.5	0.5
2006	36.5	53.2	7.9	1.9	0.4
2010	34.7	53.0	10.3	1.7	0.4
2014	29.6	51.9	16.0	2.0	0.5
2018	26.9	50.8	19.5	2.4	0.4

주: 1) 1998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로 백분율은 해당 없음을 포함하여 산출한 비율임.

2) 2010~2018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성별로 실제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의 변화는 1998년과 2002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06~2018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과 ‘부인이 주로 하나 남편 분담’을 합친 부인이 가사를 부담하는 비율은 2006년 남성과 여성은 각각 89.5%와 89.7%로 대다수에 해당되었고,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5%와 7.9%로 10% 미만이었다. 2010년으로 오면서 부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87.4%와 87.7%로 소폭으로 감소한 반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0.0%와 10.3%로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8년까지 지속되어 부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6.2%와 77.7%로 5분의 4 미만 수준을 보인데 비해, 부부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0.2%와 19.5%로 5분의 1을 차지하였다.

〈표 6-13〉 연도 및 성별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 변화 추이(2006~2018)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06 남성	31.9	57.6	7.5	2.4	0.6
2006 여성	36.5	53.2	7.9	1.9	0.4
2010 남성	31.2	56.2	10.0	2.0	0.6
2010 여성	34.7	53.0	10.3	1.7	0.4
2014 남성	25.0	55.5	16.4	2.3	0.8
2014 여성	29.6	51.9	16.0	2.0	0.5
2018 남성	21.9	54.3	20.2	2.9	0.8
2018 여성	26.9	50.8	19.5	2.4	0.4

주: 1) 2006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10~2018년 조사대상은 19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에 비해 실제 가사분담은 성별 차이 없이 대다수가 부인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최근으로 오면

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5분의 4 미만 분포를 보이는 데 비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부인부담에 비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실제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의 변화를 보면,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과 ‘부인이 주로 하나 남편 분담’을 합친 부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1998년 모든 연령층에서 약 78~93%로 5분의 4 내외 분포를 보인 반면, 부부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비율은 약 4~18%로 거의 5분의 1 미만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포는 2010년까지 지속되다가 2014년으로 오면서 부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약 74~84%로 소폭의 감소를 보인 반면, 부부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비율은 약 14~23%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되어 2018년 부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약 58~81%로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나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20대 이하 연령층은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약 17~36%로 다소 증가하여 3분의 1 내외 분포를 보였다.

모든 연령층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에 비해 실제 가사분담은 대다수가 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포를 보이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대체로 5분의 4 내외 분포를 보였다. 이에 비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30대 이상 연령층에서 부인부담에 비해 3분의 1 미만에 불과하여 부부 간에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가사분담 실태 간에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6-14〉 연도 및 연령별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1998	15~19세	13.6	64.1	18.2	-	-
	20~24세	33.5	56.0	7.7	2.0	-
	25~29세	36.4	56.1	5.4	0.9	0.2
	30~34세	41.4	51.9	4.3	1.3	0.1
	35~39세	44.0	47.5	5.1	2.2	0.2
	40~44세	44.0	46.1	6.7	2.2	0.2
	45~49세	44.9	45.4	6.4	2.3	0.1
	50~54세	47.5	42.1	6.3	2.7	0.3
	55~59세	52.0	37.7	5.9	2.0	0.6
	60~64세	51.4	36.6	6.4	2.9	0.4
65세 이상	55.0	32.3	4.8	2.2	0.9	
2002	20대 이하	29.1	58.0	11.2	1.3	0.5
	30대	40.7	50.9	6.7	1.4	0.4
	40대	37.3	51.9	7.4	3.1	0.4
	50대	36.8	49.9	9.0	3.6	0.7
	60대 이상	40.9	44.7	9.4	4.1	0.8
2006	20대 이하	24.7	61.0	12.4	1.7	0.2
	30대	36.9	54.6	7.6	0.9	0.1
	40대	38.4	53.2	6.6	1.6	0.2
	50대	35.6	53.4	7.6	2.8	0.6
	60대 이상	38.8	46.3	9.7	3.8	1.4
2010	20대 이하	-	-	-	-	-
	30대	31.8	57.3	9.7	1.1	0.1
	40대	35.2	53.6	9.3	1.6	0.3
	50대	37.6	49.4	10.6	2.2	0.2
	60대 이상	38.8	48.3	9.3	2.3	1.2
2014	20대 이하	19.4	54.8	22.9	2.2	0.7
	30대	23.1	56.4	18.6	1.4	0.4
	40대	33.1	51.2	14.2	1.3	0.2
	50대	31.2	51.8	13.9	2.5	0.6
	60대 이상	32.4	47.3	16.6	2.9	0.8
2018	20대 이하	15.1	43.2	35.9	5.3	0.4
	30대	18.9	52.9	26.1	1.9	0.1
	40대	27.3	53.3	17.5	1.7	0.1
	50대	30.4	49.6	16.8	2.6	0.5
	60대 이상	30.9	48.9	16.7	2.7	0.8

주: 1) 1998~2006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이며, 1998년 백분율은 해당 없음을 포함하여 산출한 비율임.

2) 2010~2018년 조사대상은 19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소득수준별로 실제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의 변화는 1998년과 2002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06~2018년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과 ‘부인이 주로 하나 남편 분담’을 합친 부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2006년 모든 소득층에서 약 85~92%로 대다수의 분포를 보였고,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약 7~10%로 미미하였다. 2010년에도 2006년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다가 2014년으로 오면서 부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약 78~84%로 소폭으로 감소한 반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약 14~18%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되어 2018년에는 부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약 76~81%로 5분의 4 내외 분포를 보인데 비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약 17~21%로 5분의 1 내외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소득층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에 비해 실제 가사분담은 대다수가 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포를 보이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체로 5분의 4 내외 분포를 보였다. 한편,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모든 소득층에서 부인부담에 비해 4분의 1 내외에 불과하여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가사분담 실태 간에는 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270 한국 가족의 변동 특징과 정책적 함의

〈표 6-15〉 연도 및 소득수준별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 변화 추이(2006~2018)

(단위: %)

구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2006	100만원 미만	38.2	47.0	9.9	3.7	1.3
	200만원 미만	36.2	52.8	8.2	2.3	0.5
	300만원 미만	36.9	54.3	7.0	1.6	0.2
	400만원 미만	36.2	54.5	7.9	1.3	0.1
	600만원 미만	35.7	56.0	7.5	0.9	-
	600만원 이상	34.4	56.7	7.7	1.1	-
2010	100만원 미만	39.9	46.3	9.9	2.5	1.3
	200만원 미만	34.2	52.2	11.1	2.0	0.6
	300만원 미만	34.9	53.4	9.9	1.6	0.2
	400만원 미만	32.7	56.3	10.0	1.0	0.1
	500만원 미만	34.0	52.3	11.9	1.6	0.1
	600만원 미만	33.1	57.2	7.8	1.6	0.3
2014	600만원 이상	34.1	54.5	10.1	1.3	-
	100만원 미만	33.9	44.1	17.0	3.6	1.4
	200만원 미만	30.7	48.2	18.3	2.4	0.4
	300만원 미만	28.1	54.1	15.5	1.9	0.5
	400만원 미만	29.5	53.0	15.1	1.9	0.4
	500만원 미만	28.1	55.1	15.1	1.4	0.3
2018	600만원 미만	26.4	54.6	17.0	1.5	0.5
	600만원 이상	31.3	53.0	13.8	1.6	0.3
	100만원 미만	36.0	42.3	17.4	3.0	1.3
	200만원 미만	30.9	46.3	18.9	3.2	0.7
	300만원 미만	25.8	52.3	19.2	2.1	0.5
	400만원 미만	24.6	53.7	18.7	2.6	0.3
2018	500만원 미만	26.1	51.1	20.8	1.8	0.3
	600만원 미만	26.0	54.7	17.1	1.9	0.2
	600만원 이상	25.2	50.6	22.1	2.1	0.1

주: 1) 1998~2006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이며, 1998년 백분율은 해당 없음을 포함하여 산출한 비율임.

2) 2010~2018년 조사대상은 19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4. 부부대화의 정도 및 만족도 변화 추이

부부 간에 친밀도를 측정하는 척도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본 절에서는 부부 간에 대화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별로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에 1시간 미만은 약 54%로 절반을 상회한데 비해, 1시간 이상은 약 45%로 절반에 못 미쳤다. 2010년에는 1시간 미만은 약 56%로 다소 증가한데 비해, 1시간 이상은 약 43%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1시간미만은 64%로 3분의 2에 근접하였으며, 1시간 이상은 35%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배우자와 대화가 전혀 없는 비율은 2005년에 1.5%에서 2010년 1.2%, 2015년에 1.7%로 미미한 증감폭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은 2005년에서 2015년으로 오면서 1시간 미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1시간 이상은 감소하여 최근으로 오면서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표 6-16〉 연도 및 성별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 변화 추이(2005~2015)

(단위: %, 명)

구분	대화가 전혀 없음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수)
2005 전체	1.5	20.7	32.9	21.4	23.5	100.0(4,098)
남편	1.1	20.6	32.7	21.9	23.6	100.0(2,035)
부인	1.9	20.8	33.1	20.8	23.4	100.0(2,063)
2010 전체	1.2	17.2	38.5	27.6	15.4	100.0(3,226)
남편	0.8	16.7	38.2	28.6	15.6	100.0(1,554)
부인	1.6	17.7	38.8	26.6	15.3	100.0(1,672)
2015 전체	1.7	29.2	34.5	20.9	13.7	100.0(25,639)
남편	1.1	28.0	36.2	20.9	13.6	100.0(13,133)
부인	2.3	30.5	32.6	20.9	13.7	100.0(12,506)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성별로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의 변화를 보면, 2005년에 남편은 1시간 미만은 약 53%, 1시간 이상은 약 46%인데 비해 부인은 각각 약 54%와 약 44%로 부인이 남편보다 배우자와 1시간 미만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010년에는 남편은 1시간 미만은 약 55%로 증가한 데 비해, 1시간 이상은 약 44% 감소하였고, 부인도 남편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5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와 대화가 전혀 없는 비율은 2005년에서 2015년으로 오면서 남편과 부인 모두에서 감소와 증가를 보였고 부인이 남편보다 다소 높았으나 상당히 미미하였다. 최근으로 오면서 부부 간에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1시간 이상은 감소하여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변화가 남편과 부인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의 변화를 보면, 2005년에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1시간 미만은 약 43~64% 분포를 보여 1시간 이상인 약 35~57%에 비해 다소 높았다. 2010년에는 2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1시간 미만은 2005년에 비해 증가한데 비해, 1시간 이상은 감소하였고, 이와 같은 분포는 2015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와 대화가 전혀 없는 비율은 2005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약 1~3% 분포를 보이다, 2010년에는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소폭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3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은 감소한데 비해, 40대와 50대 연령층은 증가하여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최근으로 오면서 20대 연령층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늘어나는 데 비해, 30대 이상 연령층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배우자와 대화가 전혀 없는 비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다소 증가하여 주목된다.

〈표 6-17〉 연도 및 연령별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 변화 추이(2005~2015)

(단위: %, 명)

구분	대화가 전혀 없음	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수)
2005 20대 이하	-	14.5	28.5	28.5	28.5	100.0(221)
30대 이하	1.1	22.0	37.6	23.9	15.4	100.0(1,158)
40대 이하	1.3	24.9	38.9	19.5	15.3	100.0(907)
50대 이하	2.9	21.4	29.7	20.2	25.8	100.0(659)
60대 이상	1.6	17.0	26.1	19.5	35.8	100.0(1,153)
2010 20대 이하	-	10.1	29.3	30.3	30.3	100.0(99)
30대 이하	0.6	12.3	42.2	27.1	17.8	100.0(771)
40대 이하	0.8	18.3	41.4	27.8	11.8	100.0(885)
50대 이하	0.7	23.3	37.1	25.7	13.2	100.0(614)
60대 이상	2.8	16.9	34.4	28.8	17.0	100.0(857)
2015 20대 이하	0.7	8.5	26.7	36.5	27.6	100.0(682)
30대 이하	0.3	24.5	38.3	24.7	12.3	100.0(5,269)
40대 이하	2.3	34.4	37.3	17.3	8.8	100.0(6,872)
50대 이하	2.1	34.1	33.3	18.3	12.3	100.0(6,627)
60대 이상	2.0	24.7	30.2	22.8	20.3	100.0(6,186)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소득수준별로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의 변화를 보면, 2005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1시간 미만은 약 49~61% 분포를 보여서 1시간 이상인 약 36~48%에 비해 다소 높았다. 2010년에는 10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층에서 1시간 미만은 2005년보다 감소한데 비해, 1시간 이상은 증가하였고, 2015년에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한편, 부부 간에 대화가 전혀 없는 비율은 2005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0.4~2.2% 분포를 보이다, 2010년에는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미만 소득층은 증가한데 비해, 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감소하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10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층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으로 오면서 100만원 미만 소득층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늘어나는 데 비해, 100만원 이상 소득층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배우자와 대화가 전혀 없는 비율도 1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다소 증가하여 주목된다.

〈표 6-18〉 연도 및 소득수준별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 변화 추이(2005~2015)

(단위: %, 명)

구분	대화가 전혀 없음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수)	
2005	100만원 미만	2.2	20.3	29.1	20.1	28.2	100.0(804)
	200만원 미만	1.1	21.8	33.2	23.0	20.9	100.0(790)
	300만원 미만	0.4	22.7	38.0	24.0	14.9	100.0(529)
	300만원 이상	2.2	23.2	38.2	23.5	12.9	100.0(272)
2010	100만원 미만	6.5	23.0	32.0	24.5	14.0	100.0(278)
	200만원 미만	0.7	16.4	35.0	31.1	16.8	100.0(566)
	300만원 미만	1.4	16.1	41.8	25.6	15.1	100.0(801)
	300만원 이상	0.4	17.0	39.4	28.0	15.2	100.0(1,569)
2015	100만원 미만	2.6	27.9	23.7	22.4	23.4	100.0(700)
	200만원 미만	2.3	28.5	29.0	19.5	20.6	100.0(1,789)
	300만원 미만	2.1	29.5	34.8	21.1	12.5	100.0(2,629)
	300만원 이상	1.6	30.9	35.9	20.2	11.5	100.0(8,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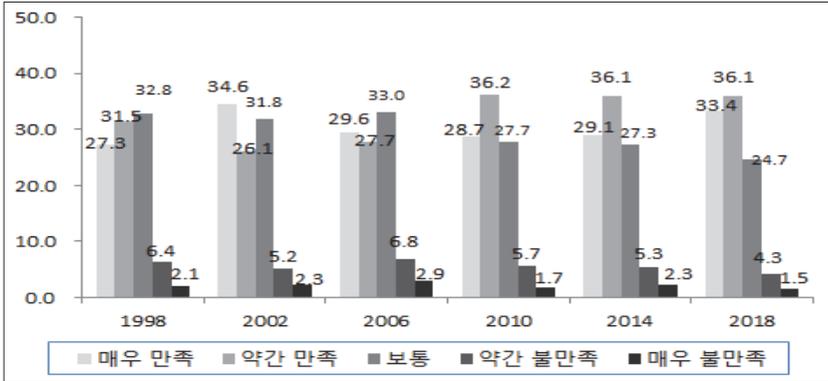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가족관계는 만족도 같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요인이므로(김연수, 2012) 부부관계 만족도 또한 부부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통해 부부관계의 수준을 진단코자 한다.

부부관계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관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이 1998년 약 59%에서 2002년 약 61%로 증가하다 2006년 약 57%로 소폭 감소하였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약 70%로 20년간 11%p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1998년 약 9%에서 2002년 약 8%로 감소하였고, 2006년 이후에도 증감을 계속하여 2018년 약 6%로 동 기간 3%p 감소하였다. 이는 부부관계가 최근으로 오면서 기존 가부장적 가치에 근거한 양성불평등적 관계에서 양성평등적인 관계로 개선되면서 오는 영향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2] 연도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주: 1) 1998~2006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08~2018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성별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1998년에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은 남성이 약 62%, 여성이 약 56%로 남성이 여성보다 6%p 높았고,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와 11%로 여성이 남성보다 5%p 높았다. 2002년에는 1998년에 비해 남성은 만족도가 증가한데 비해 여성은 감소하였고, 남녀 간에 차이는 11%p로 더 벌어졌다. 이에 비해 불만족도는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였고, 남녀 간에 차이 또한 벌어지는 특성을 보였다. 2006년에는 2002년에 비해 남녀 모두에서 만족도는 소폭으로 감소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증가하여 차이를 보였다. 2010년으로 오면서 남녀 모두에서 만족도는 다소 증가하였고, 남녀 간에 차이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불만족도는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되어 2018년에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는 각각 약 76%와 약 63%로 다소 증가하였고 남녀 간에 차이는 13%p까지 벌어진 반면, 불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각각 약 3%와 약 9%까지 감소하였고, 남녀 간에 차이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는 200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201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부부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그 차이 또한 계속 벌어지는 것은 부부 간의 권력구조와 가사부담 등에 반영된 양성불평등적 구조를 비롯하여 부부 간의 의사소통 부족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6-19〉 연도 및 성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1998	남성	30.5	31.3	32.1	4.7	1.4	100.0
	여성	24.0	31.7	33.4	8.1	2.8	100.0
2002	남성	40.7	25.3	29.4	3.2	1.4	100.0
	여성	28.5	27.0	34.2	7.1	3.2	100.0
2006	남성	35.9	27.3	30.6	4.7	1.5	100.0
	여성	23.2	28.1	35.4	9.0	4.3	100.0
2010	남성	33.8	36.1	25.6	3.6	0.9	100.0
	여성	23.4	36.3	30.0	7.8	2.6	100.0
2014	남성	34.6	35.9	24.9	3.4	1.2	100.0
	여성	23.6	36.2	29.6	7.2	3.4	100.0
2018	남성	40.0	35.9	21.0	2.6	0.6	100.0
	여성	26.7	36.3	28.5	6.1	2.4	100.0

주: 1) 1998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08~2018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연령별로 부부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1998년에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약 49~80%인데 비해,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약 7~10% 분포를 보였다. 만족도는 대체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불만족도는 40~54세 연령층에서 높은 편이었다. 2002년에는 1998년에 비해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다소 증가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감소하였다. 특히 만족도는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고, 불만족도는 4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높은 편이었다. 2006년에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증가하여 2002년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2010년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만족도는 증가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감소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되었다. 2018년에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약 62~84%로 5분의 4 내외 분포를 보였고, 불만족도는 약 1~7%로 미미하였다. 또한 만족도는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고, 불만족도는 고연령층에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는 2006년을 제외하고 20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데 비해, 불만족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으로 오면서 젊은 연령층에서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았고, 고연령층에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한 부부 간에 양성불평등적 관계가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6-20〉 연도 및 연령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1998	15~19세	34.7	45.1	15.9	4.2	-	100.0
	20~24세	41.5	31.8	20.0	4.8	1.9	100.0
	25~29세	40.1	31.9	21.1	5.5	1.4	100.0
	30~34세	36.4	31.6	24.0	6.2	1.9	100.0
	35~39세	31.5	32.0	27.7	6.6	2.2	100.0
	40~44세	25.6	31.3	33.6	6.6	2.9	100.0
	45~49세	23.3	29.6	37.0	7.7	2.4	100.0
	50~54세	20.3	30.3	39.7	7.6	2.2	100.0
	55~59세	18.5	32.5	41.1	5.6	2.2	100.0
	60~64세	17.8	31.9	43.3	5.7	1.3	100.0
65세 이상	16.3	32.4	44.6	5.6	1.2	100.0	
2002	20대 미만	61.0	28.2	8.6	-	2.3	100.0
	20대	50.6	23.9	20.0	3.9	1.6	100.0
	30대	40.5	27.3	25.1	5.0	2.2	100.0
	40대	32.5	25.3	33.9	5.6	2.7	100.0
	50대	29.4	24.6	38.4	5.5	2.2	100.0
	60대 이상	25.2	28.3	39.2	5.1	2.2	100.0
2006	20대 이하	44.7	28.6	20.3	4.7	1.8	100.0
	30대	36.5	29.5	25.2	6.4	2.4	100.0
	40대	28.8	27.5	32.9	7.4	3.4	100.0
	50대	24.6	25.2	40.2	6.8	3.2	100.0
	60대 이상	21.7	27.9	40.7	7.1	2.6	100.0
2010	20대 이하	-	-	-	-	-	-
	30대	34.0	38.3	20.8	5.3	1.6	100.0
	40대	28.1	37.1	26.5	6.1	2.2	100.0
	50대	24.8	34.0	33.5	6.1	1.6	100.0
	60대 이상	23.6	35.3	34.2	5.6	1.3	100.0
2014	20대 이하	51.8	29.5	15.4	2.5	0.8	100.0
	30대	35.6	40.0	19.1	3.6	1.7	100.0
	40대	29.3	37.5	25.6	4.7	2.8	100.0
	50대	25.2	34.4	30.8	6.9	2.7	100.0
	60대 이상	24.3	33.6	34.2	6.0	2.0	100.0
2018	20대 이하	55.0	28.6	15.0	1.0	0.3	100.0
	30대	44.3	34.7	16.6	3.2	1.3	100.0
	40대	35.2	38.2	20.5	4.4	1.7	100.0
	50대	30.3	35.9	27.7	4.5	1.7	100.0
	60대 이상	25.6	36.0	31.9	5.2	1.3	100.0

주: 1) 1998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08~2018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소득수준별로 부부관계 만족도의 변화는 1998년과 2002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06년~2018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별로 부부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2006년에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약 45~74%인데 비해,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약 5~14% 분포를 보였다. 만족도는 고소득층에서 높았으며, 불만족도는 저소득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10년에 만족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증가하는데 비해, 불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에는 100~200만원 미만과 500~60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층에서 만족도가 감소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소득층에서 증가하여서 2010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18년으로 오면서 만족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약 57~79%로 2014년보다 증가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약 4~9%로 감소하여 2010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만족도는 고소득층에서 높았고, 불만족도는 저소득층에서 높아서 2006년 이후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부부관계 만족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 12년간 모든 소득층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인데 비해, 불만족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동 기간 고소득층에서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았고, 저소득층에서 불만족도가 높은 것은 연령 등의 인구적인 요인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6-21〉 연도 및 소득수준별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2006~2018)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2006	100만원 미만	19.1	25.7	41.2	9.2	4.9	100.0
	200만원 미만	26.5	25.6	36.9	7.5	3.5	100.0
	300만원 미만	30.4	28.2	32.8	6.3	2.3	100.0
	400만원 미만	32.5	29.9	29.3	6.2	2.0	100.0
	600만원 미만	40.1	29.8	22.8	5.2	2.0	100.0
	600만원 이상	42.5	31.0	21.2	4.1	1.3	100.0
	2010	100만원 미만	22.7	31.8	36.4	7.1	2.0
200만원 미만		24.8	34.8	31.8	6.5	2.2	100.0
300만원 미만		27.7	36.7	28.0	5.9	1.7	100.0
400만원 미만		30.5	37.7	25.1	5.6	1.1	100.0
500만원 미만		32.0	38.0	23.4	4.9	1.8	100.0
600만원 미만		36.8	36.5	22.2	3.6	1.0	100.0
600만원 이상		37.9	39.8	17.3	3.4	1.6	100.0
2014	100만원 미만	20.2	31.4	36.6	8.7	3.1	100.0
	200만원 미만	26.5	33.2	31.4	6.0	2.8	100.0
	300만원 미만	25.2	37.8	29.6	5.3	2.1	100.0
	400만원 미만	30.8	36.7	26.2	4.6	1.8	100.0
	500만원 미만	32.6	37.2	23.3	4.3	2.6	100.0
	600만원 미만	34.5	39.1	20.9	3.6	1.8	100.0
	600만원 이상	39.5	37.2	17.3	4.2	1.8	100.0
2018	100만원 미만	24.6	32.5	34.3	6.8	1.8	100.0
	200만원 미만	26.7	34.1	31.0	6.2	1.9	100.0
	300만원 미만	31.6	34.6	27.5	4.4	1.9	100.0
	400만원 미만	34.2	35.3	24.7	4.4	1.5	100.0
	500만원 미만	34.7	37.4	23.1	3.5	1.3	100.0
	600만원 미만	35.8	39.8	19.6	3.8	1.0	100.0
	600만원 이상	41.1	38.3	16.9	2.7	1.0	100.0

주: 1) 1998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08~2018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제2절 부모와 미성년자녀의 관계 변화

부모와 미성년자녀의 관계 변화는 부모와 자녀라는 상호관계에 대한 정도와 관계의 질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부모와 자녀 간에 상호관계는 부모의 자녀가치 및 자녀양육태도 등 자녀 양육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또한 관계의 질적 측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친밀도, 그리고 만족도 등으로 측정가능하다. 따라서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 변화는 자녀의 의미, 자녀양육태도 및 양육범위, 자녀와의 관계정도 및 관계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녀가치관 및 양육관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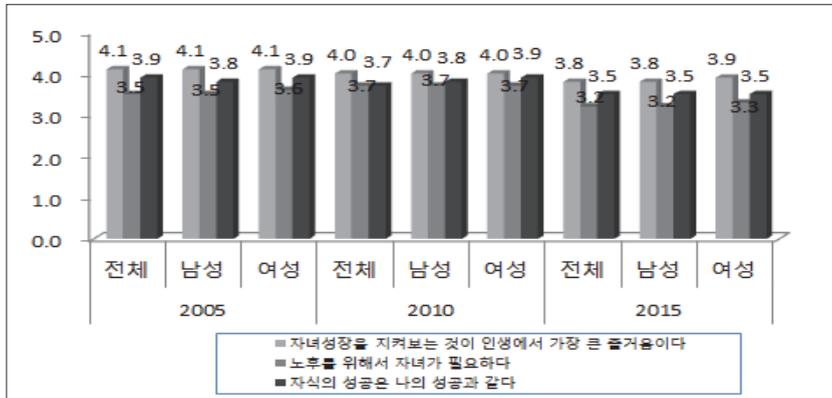
부모에게 자녀의 의미는 부모와 자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 가치관은 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즐거움이다 ②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 ③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등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녀가치관의 변화를 보면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즐거움이다’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005년과 2010년에 각각 4.1점과 4.0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3.8점으로 감소하여 자녀성장이 부모의 인생에 주는 영향이 다소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의 평균 점수는 동 기간 각각 3.5점과 3.7점으로 중간 이상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3.2점으로 감소하여 노후를 위한 자녀 필요도가 다소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의 평균 점수는 같은 기간 각각 3.9점과 3.7점으로 중간 이상을 유지하다 3.5점으로 감소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성공일치 정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즐거움이다’의 평균 점수는 2005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4.1점에서 2010년에는 남녀 모두 4.0점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남성은 3.8점, 여성은 3.9점으로 지속인 감소를 보여 자녀성장이 부모의 인생에 주는 영향은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폭은 미미하나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그림 6-3] 연도 및 성별 자녀양육관의 변화 추이(2005~2015)

(단위: 점)



- 주: 1) 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임.
 2) 2005년 분석대상수는 전체 5,968명, 남성 2,735명, 여성 3,233명임
 3) 2010년 분석대상수는 전체 4,754명, 남성 2,368명, 여성 2,386명임
 4) 2005년 분석대상수는 전체 45,193명, 남성 22,532명, 여성 22,661명임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의 평균 점수는 2005년 남성과 여성이 각각 3.5점과 3.6점에서 2010년에는 남녀 모두 3.7점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남성은 3.2점, 여성은 3.3점으로 감소하였다. 최근으로 오면서 노후를 위한 자녀 필요도는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감소폭이 더 높았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의 평균 점수는 2005년과 2010년에 남성은 모두 3.8점이었고, 여성은 모두 3.9점

으로 동일한 점수를 유지하다가 2015년으로 오면서 남녀 모두 3.5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성공일치 정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즐거움이다’의 평균 점수는 2005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3.7~4.4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0년에는 10대와 20대, 그리고 40대 연령층은 2005년과 평균 점수가 동일하였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2005년보다 평균 점수가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50대와 60대, 그리고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2010년과 평균 점수가 동일하거나 증가하였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2010년보다 평균 점수가 감소하여 일부 연령층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자녀성장이 부모의 인생에 주는 영향은 고연령층에서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감소폭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의 평균 점수는 2005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3.1~4.3점으로 대체로 40대 이하 연령층보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0년에는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2005년보다 평균 점수가 증가한데 비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2010년보다 평균 점수가 감소하여 60대 이상 연령층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노후를 위한 자녀 필요도는 고연령층에서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여서 주목된다.

〈표 6-22〉 연도 및 연령별 자녀양육관의 변화 추이(2005~2015)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분석대상수)	
2005	10대	3.7	3.3	3.5	(297)
	20대	3.8	3.2	3.4	(687)
	30대	4.1	3.1	3.5	(1,401)
	40대	4.1	3.3	3.8	(1,039)
	50대	4.2	3.7	4.1	(797)
	60대	4.3	4.0	4.3	(956)
	70대 이상	4.4	4.3	4.4	(791)
2010	10대	3.7	3.5	3.6	(271)
	20대	3.8	3.5	3.6	(493)
	30대	4.0	3.7	3.9	(975)
	40대	4.1	3.7	3.9	(1,004)
	50대	4.0	3.8	4.1	(743)
	60대	4.0	3.9	4.0	(602)
	70대 이상	4.0	3.9	4.0	(666)
2015	10대	3.5	3.2	3.4	(5,394)
	20대	3.5	3.1	3.2	(6,093)
	30대	3.8	3.0	3.2	(7,977)
	40대	3.9	3.0	3.4	(8,411)
	50대	4.0	3.3	3.7	(8,086)
	60대	4.0	3.5	3.9	(4,792)
	70대 이상	4.2	3.8	4.1	(4,439)

주: 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의 평균 점수는 2005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3.4~4.4점으로 1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0년에는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2010년보다 평균 점수가 증가한데 비해,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평균 점수가 동일하거나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6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2010년보다 평균 점수가 감소하였고,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증가하여서 모든 연령

층 중에서 60대 연령층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성공일치 정도는 고연령층에서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70대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데 비해, 70대 연령층에서는 증가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즐거움이다’의 평균 점수는 2005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4.0~4.3점으로 대체로 100만원 미만 소득층이 100만원 이상 소득층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0년에는 모든 소득층에서 2005년보다 평균 점수가 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200만원 미만 소득층은 2010년보다 평균 점수가 증가한데 비해, 200만원 이상 소득층은 동일하거나 감소하였다.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성장이 부모의 인생에 주는 영향은 2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2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되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노후를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의 평균 점수는 2005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3.2~3.9점으로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은 특성을 보였다. 2010년에는 100만원 미만 소득층은 2005년보다 평균 점수가 감소한데 비해, 100만원 이상 모든 소득층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으로 오면서 모든 소득층에서 2010년보다 평균 점수가 감소하였고, 그중에서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노후를 위한 자녀 필요도는 저소득층에서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모든 소득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지속적인 감소양상을 보여서 주목된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의 평균 점수는 2005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3.7~4.2점으로 대체로 100만원 미만 소득층이 100만원 이상 소득층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0년에는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는

2005년보다 평균 점수가 감소한데 비해, 100만원 이상 모든 소득층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에는 100만원 미만 소득층은 2010년과 평균 점수가 동일하였고, 100만원 이상 모든 소득층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성공일치 정도는 저소득층에서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10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층에서 감소하였으며,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는 다소 감소하다 최근에는 유지하는 추세를 보여서 다른 소득층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6-23〉 연도 및 소득수준별 자녀양육관의 변화 추이(2005~2015)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분석대상수)	
2005	100만원 미만	4.3	3.9	4.2	(1,076)
	200만원 미만	4.0	3.3	3.7	(1,145)
	300만원 미만	4.1	3.3	3.7	(624)
	300만원 이상	4.2	3.2	3.7	(302)
2010	100만원 미만	3.8	3.7	3.9	(606)
	200만원 미만	3.8	3.7	3.8	(867)
	300만원 미만	3.9	3.6	3.8	(1,106)
	300만원 이상	4.0	3.7	3.9	(2,151)
2015	100만원 미만	4.0	3.6	3.9	(3,124)
	200만원 미만	3.9	3.3	3.6	(3,716)
	300만원 미만	3.9	3.2	3.5	(4,034)
	300만원 이상	3.9	3.2	3.5	(9,169)

주: 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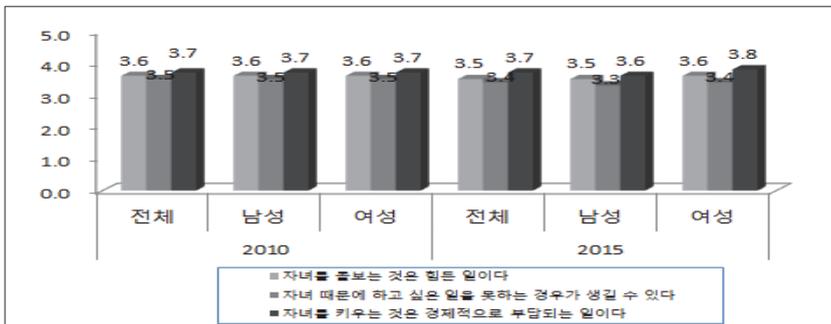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자녀양육 태도는 ①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②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③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다 등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양육 태도는 2005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10년과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양육 태도의 변화를 보면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010년에 3.6점에서 2015년에 3.5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태도는 미미하나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의 평균 점수는 동 기간 3.5점에서 3.4점으로 약간 감소하여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가능성에 대한 태도가 다소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다’의 평균 점수는 같은 기간 모두 3.7점으로 중간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 연도 및 성별 자녀양육태도의 변화 추이(2010~2015)

(단위: 점)



주: 1) 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임.

2) 2010년 분석대상수는 전체 4,754명, 남성 2,368명, 여성 2,386명임

3) 2005년 분석대상수는 전체 45,193명, 남성 22,532명, 여성 22,661명임

자료: 여성가족부. (2010, 2015). 제2-3차 가족실태조사.

성별로는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의 평균 점수는 2010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3.6점에서 2015년에는 남성은 3.5점으로 감소하였고, 여성은 3.6점으로 동일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태도는 남성은 다소 약해진데 비해, 여성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의 평균 점수는 2010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3.5점에서 2015년에는 남성은 3.3점, 여성은 3.4점으로 감소하였다.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다’의 평균 점수는 2010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3.7점에서 2015년에는 남성은 3.6점으로 감소한데 비해, 여성은 3.8점으로 증가하여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태도는 남성은 다소 약해진데 비해, 여성은 다소 높아져서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의 평균 점수는 2010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3.5~3.8점으로 2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젊은 연령층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5년에는 10대 및 30~50대 연령층에서는 2010년보다 평균 점수가 감소하였고, 2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증가하거나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태도는 젊은 연령층에서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10대와 중장년층에서 감소하는데 비해, 2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여서 상반된 특성을 보였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의 평균 점수는 2010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3.3~3.6점으로 2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고연령층보다 저연령층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5년에는 10대 및 40~60대 연령층은 2010년보다 평균 점수가 감소하였고, 20대와

30대 연령층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10대와 장년층에서 감소하는데 비해, 20~30대 및 고연령층에서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여서 주목된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다’의 평균 점수는 2010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3.5~3.9점으로 20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고연령층보다 저연령층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5년에는 10대와 40대 연령층은 2010년보다 평균 점수가 감소하였고, 20~30대 연령층은 동일한 점수를 보인데 비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증가하였다.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아져서 만혼화로 인한 출산 지체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표 6-24〉 연도 및 연령별 자녀양육 태도의 변화 추이(2010~2015)

(단위: 점, 명)

구분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다	(분석대상수)	
2010	10대	3.8	3.6	3.9	(382)
	20대	3.5	3.5	3.7	(787)
	30대	3.7	3.6	3.8	(949)
	40대	3.7	3.5	3.8	(996)
	50대	3.6	3.4	3.6	(774)
	60대	3.5	3.4	3.5	(469)
	70대 이상	3.5	3.3	3.5	(398)
2015	10대	3.5	3.4	3.5	(5,394)
	20대	3.6	3.5	3.7	(6,093)
	30대	3.6	3.6	3.8	(7,977)
	40대	3.4	3.3	3.7	(8,411)
	50대	3.4	3.3	3.7	(8,086)
	60대	3.5	3.3	3.8	(4,792)
	70대 이상	3.6	3.3	3.8	(4,439)

주: 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여성가족부. (2010, 2015). 제2-3차 가족실태조사.

소득수준별로는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의 평균 점수는 2010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3.4~3.6점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5년에는 300만원 미만의 모든 소득층에서 2010년보다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고, 3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감소하였다. 자녀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는 태도는 3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고소득층은 감소하고, 3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증가하여서 상반된 특성을 보였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의 평균 점수는 2010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3.3~3.5점으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5년에는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는 2010년과 평균 점수가 동일하였고, 100만원 이상 모든 소득층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2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100만원 이상 모든 소득층에서 감소하는 태도를 보여서 주목된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다’의 평균 점수는 2010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3.5~3.7점으로 300만원 이상 소득층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다. 2015년에는 300만원 미만 모든 소득층에서 2010년보다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고, 3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동일한 점수를 유지하였다.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태도는 3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3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인식이 높아지는 데 비해, 3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6-25〉 연도 및 소득수준별 자녀양육 태도의 변화 추이(2010~2015)

(단위: 점, 명)

구분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이다	(분석대상수)	
2010	100만원 미만	3.4	3.3	3.5	(606)
	200만원 미만	3.5	3.4	3.6	(867)
	300만원 미만	3.5	3.5	3.6	(1,106)
	300만원 이상	3.6	3.5	3.7	(2,151)
2015	100만원 미만	3.6	3.3	3.8	(3,124)
	200만원 미만	3.6	3.3	3.8	(3,716)
	300만원 미만	3.6	3.4	3.8	(4,034)
	300만원 이상	3.5	3.4	3.7	(9,169)

주: 5점 만점이ю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여성가족부. (2010, 2015). 제2-3차 가족실태조사.

2. 자녀양육책임의 변화 추이

부모의 자녀양육관은 부모와 미성년자녀 간에 상호관계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 책임범위를 살펴보는 것은 부모와 미성년자녀 간의 상호관련성을 진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책임 범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는 2003년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4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32.1%로 높았으며,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도 11.5%로 낮지 않았다. 2006년에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그리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다소 증가한데 비해,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다소 감소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2015년까지 지속되었다. 2018년으로 오면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다소 감소한 반면,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와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15년간 자녀양육책임에 대한 변화는 자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가 높은 비중을 보이다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점차 감소하고, 자녀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와 취업할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자녀양육책임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26〉 연도별 자녀양육책임의 범위 변화 추이(2003~2018)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대학졸업 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언제 까지	기타	생각해 보지않음/ 모르겠음	계(수)
2003	8.3	40.2	11.5	32.1	6.3	0.6	1.0	100.0(11,106)
2006	8.6	46.3	11.9	27.0	5.5	0.1	0.5	100.0(10,117)
2009	9.6	49.6	12.2	23.1	5.0	0.1	0.4	100.0(9,075)
2012	8.9	49.6	15.7	20.4	4.6	-	0.8	100.0(10,058)
2015	10.4	62.4	17.2	8.8	1.2	-	-	100.0(11,003)
2018	14.7	59.2	17.4	7.1	1.6	-	-	100.0(11,2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별로 부모의 자녀양육책임 범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과 2018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03~2012년 자료를 활용코자한다.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는 2003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각각 40.8%와 3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남성과 여성 각각 31.9%와 34.1%로 높았으며,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2006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소폭 증가하였고,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감소하였다. 2009년으로 오면서 남성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취업할 때까

지는 증가한 반면,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는 감소하였고,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는 증가하여서 남성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18년으로 오면서 남성과 여성의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는 2009년과 상반된 경향을 보여서 주목된다.

〈표 6-27〉 연도 및 성별 자녀양육책임의 범위 변화 추이(2003~2012)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대학졸업 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언제 까지	기타	생각해 보지않음/ 모르겠음	계(수)	
2003	남성	8.0	40.8	11.3	31.9	6.3	0.6	1.1	100.0(10,047)
	여성	11.1	34.6	12.7	34.1	6.0	0.6	0.8	100.0(1,060)
2006	남성	8.4	46.6	12.0	26.9	5.6	0.1	0.5	100.0(9,181)
	여성	10.3	44.2	11.2	28.2	5.1	0.1	0.9	100.0(935)
2009	남성	9.6	50.3	12.1	22.7	4.9	0.1	0.4	100.0(8,224)
	여성	10.1	42.7	14.0	26.7	6.2	-	0.2	100.0(850)
2012	남성	8.7	46.3	17.7	20.7	5.1	0.1	1.5	100.0(1,814)
	여성	8.9	50.3	15.3	20.3	4.5	0.0	0.6	100.0(8,24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9년간 성별에 따른 자녀양육책임의 범위에 대한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는 높은 비중을 보이다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점차 감소하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와 취업할 때까지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자녀양육책임 범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특성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부모의 자녀양육책임 범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면, 2003년에는 40대 이하 모든 연령층은 공통적으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5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은 공통적으로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가 높아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는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003년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2015년에도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가 대학졸업까지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세 미만 연령층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순으로 높았고, 30대 연령층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순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40대 연령층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가 높은 분포를 보여서 연령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2018년에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015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책임에 대한 태도는 15년간 대체로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30대 미만의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가 높는데 비해, 50대 이상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에 집중되었다. 최근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와 취업할 때까지에 집중되어 부모의 자녀양육책임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표 6-28〉 연도 및 연령별 자녀양육책임의 범위 변화 추이(2003~2018)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대학졸업 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언제 까지	기타	생각해 보지않음/ 모르겠음	계(수)	
2003	30대 미만	19.6	36.4	8.6	22.5	9.9	0.8	2.1	100.0(382)
	30대	11.8	45.9	11.2	21.4	7.5	0.8	1.4	100.0(3,206)
	40대	6.2	44.1	12.4	30.3	5.3	0.7	1.0	100.0(4,245)
	50대	6.2	31.8	11.7	44.1	5.6	0.1	0.5	100.0(2,566)
	60대 이상	6.2	24.5	7.9	52.9	7.6	0.1	0.7	100.0(707)
2009	30대 미만	21.0	45.0	11.3	19.3	3.0	0.3	-	100.0(300)
	30대	15.2	52.1	10.3	16.4	5.1	0.1	0.7	100.0(2,303)
	40대	8.2	56.0	11.2	19.6	4.6	0.1	0.3	100.0(3,504)
	50대	5.7	40.5	15.0	32.9	5.6	0.0	0.2	100.0(2,966)
2015	30대 미만	18.5	60.6	13.1	6.7	1.1	-	-	100.0(540)
	30대	13.7	62.8	14.5	7.9	1.2	-	-	100.0(4,173)
	40대	7.5	62.3	19.3	9.6	1.3	-	-	100.0(6,291)
2018	30대 미만	23.5	53.0	14.9	5.8	2.8	-	-	100.0(570)
	30대	17.5	58.8	14.7	7.5	1.5	-	-	100.0(4,183)
	40대	12.2	59.9	19.4	7.0	1.5	-	-	100.0(6,4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수준별로 부모의 자녀양육책임 범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면, 2003년에는 100만원 미만 소득층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가 대학졸업까지 순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100만원 이상 소득층은 공통적으로 자녀가 대학졸업까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높아서 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는 모든 소득층에서 자녀가 대학졸업까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가 높아서 2003년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2015년에도 모든 소득층에서 자녀가 대학졸업까지가 가장 높았다. 다음은 100만원 미만 소득층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와 혼인할 때까지가 높는데 비해, 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미만 소득층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와 취업할 때까지가 높았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가 높은 편이어서 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8년에도 모든 소득층에서 자녀가 대학졸업까지가 가장 높았다. 다음은 300만원 미만 소득층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순으로 높은 데 비해,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순으로 높아서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표 6-29〉 연도 및 소득수준별 자녀양육책임의 범위 변화 추이(2003~2018)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고등졸업 까지	자녀가 대학졸업 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언제 까지	기타	생각해 보지않음/ 모르겠음	계(수)	
2003	100만원 미만	13.0	31.2	10.7	35.7	7.4	0.6	1.4	100.0(1,091)
	200만원 미만	9.9	38.4	11.6	31.5	6.2	0.6	1.8	100.0(2,651)
	300만원 미만	7.9	43.8	10.6	30.2	6.2	0.5	0.8	100.0(3,164)
	300만원 이상	6.5	42.0	12.1	32.3	6.0	0.6	0.5	100.0(3,804)
2009	100만원 미만	12.6	37.2	14.7	28.1	6.8	0.2	0.4	100.0(516)
	200만원 미만	13.8	44.9	12.6	22.1	5.9	-	0.7	100.0(1,382)
	300만원 미만	11.2	48.8	11.8	22.9	5.1	0.1	0.2	100.0(2,034)
	300만원 이상	7.6	52.4	12.1	22.9	4.5	0.1	0.3	100.0(5,143)
2015	100만원 미만	11.1	56.8	16.0	14.8	1.2	-	-	100.0(81)
	200만원 미만	17.7	53.9	17.1	9.5	1.7	-	-	100.0(525)
	300만원 미만	14.8	61.6	13.9	8.8	1.0	-	-	100.0(1,435)
	300만원 이상	9.3	63.1	17.7	8.7	1.2	-	-	100.0(8,957)
2018	100만원 미만	19.4	55.2	11.9	6.0	7.5	-	-	100.0(67)
	200만원 미만	26.1	44.8	18.7	8.9	1.5	-	-	100.0(326)
	300만원 미만	21.5	56.2	15.3	6.1	0.9	-	-	100.0(958)
	300만원 이상	13.7	59.9	17.6	7.2	1.6	-	-	100.0(9,85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책임에 대한 태도는 15년간 대체로 모든 소득층에서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최근으로 오면서 모든 소득층에서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

하고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와 취업할 때까지에 집중되어 부모의 자녀양육책임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3.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 정도 및 만족도 변화 추이

부모와 미성년자녀 간에 관계 정도는 ①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②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③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④ 자녀와 자주 다툰다 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⑥ 내 자녀에 대해 잘 이해 할 수 없다 ⑦ 내 자녀를 믿는다 ⑧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등 8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정도는 2005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10년과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와 자녀와의 항목별로 관계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에 ‘자녀와의 친밀성’, ‘자녀에게 간섭’, ‘자녀친구에 대한 인지도’, ‘자녀에 대한 신뢰’ 등 4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3.9점으로 중간 이상 정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자녀와 자주 다툰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임’, ‘자녀를 잘 이해 못함’, ‘자녀와 충분히 대화함’ 등 4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2.6~2.8점으로 중간 미만 정도를 보였다. 2015년에는 ‘자녀와의 친밀성’ 항목의 평균 점수는 2010년과 동일하였고, ‘자녀에게 간섭’, ‘자녀친구에 대한 인지도’, ‘자녀와 자주 다툰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임’, ‘자녀를 잘 이해 못함’ 등 5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2010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신뢰’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함’ 등 2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항목들은 평균 점수가 감소하는 데 비해, 긍정적인 항목들은 평균 점수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인식이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 부모와 자녀와의 항목별로 관계정도의 변화를 보면, 2010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자녀와의 친밀성', '자녀에게 간섭', '자녀 친구에 대한 인지도', '자녀에 대한 신뢰' 등 4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중간 이상 정도를 보인데 비해, '자녀와 자주 다툼',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임', '자녀를 잘 이해 못함' 등 3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중간 미만 정도를 보였다. 2015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자녀와의 친밀성', '자녀에게 간섭', '자녀친구에 대한 인지도', '자녀와 자주 다툼',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임', '자녀에 대한 신뢰', '자녀와 충분히 대화함' 등 7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2010년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자녀를 잘 이해 못함' 항목의 평균 점수는 아버지는 2010년보다 증가한데 비해, 어머니는 2010년과 동일한 점수를 보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함께 증가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인식이 양극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거나 증가 폭은 긍정적인 항목이 다소 높아서 자녀와의 관계 인식이 비교적 좋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친구에 대한 인지도 항목의 평균 점수는 높은 데 비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에 대한 신뢰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함 등 2개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부정적인 항목의 평균 점수가 낮아 전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의 관계 인식이 좋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6-30〉 연도 및 성별 자녀와의 항목별 관계 정도 변화(2010~2015)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녀와 자주 다툼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내 자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	내 자녀를 믿는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분석 대상수)
2010 전체	3.7	3.2	3.2	2.6	2.7	2.7	3.9	2.8	(1,051)
2010 아버지	3.6	3.0	3.0	2.5	2.6	2.6	3.8	2.7	(510)
2010 어머니	3.8	3.4	3.5	2.7	2.7	2.7	3.9	3.0	(541)
2015 전체	3.7	3.0	2.9	2.2	2.4	2.5	4.1	3.4	(9,709)
2015 아버지	3.6	2.9	2.7	2.1	2.3	2.5	4.0	3.2	(4,785)
2015 어머니	3.8	3.1	3.2	2.3	2.5	2.5	4.1	3.5	(4,924)

주: 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여성가족부. (2010, 2015). 제2-3차 가족실태조사.

연령별로 부모와 자녀와의 항목별로 관계정도의 변화를 보면, 2010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와의 친밀성’, ‘자녀에게 간섭’, ‘자녀친구에 대한 인지도’, ‘자녀에 대한 신뢰’ 등 4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중간 이상 정도를 보였고, ‘자녀와 자주 다툼’, ‘자녀를 잘 이해 못함’ 등 2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중간 미만 정도를 보였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임’, ‘자녀와 충분히 대화함’ 등 2개 항목은 30대 연령층은 중간 이상 점수를 보였고, 40대 이상 연령층은 중간 미만의 점수를 보여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2015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에게 간섭’, ‘자녀친구에 대한 인지도’, ‘자녀와 자주 다툼’,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임’, ‘자녀를 잘 이해 못함’ 등 5개 항목 모두 평균 점수가 2010년보다 감소한데 비해, ‘자녀와 충분히 대화함’ 항목의 평균 점수는 2010년보다 증가하였다. ‘자녀와의 친밀성’ 항목의 평균 점수는 30대와 40대 연령층은 2010년보다 감소한데 비해, 50대 이상 연령층은 2010년보다 증가하였다. ‘자녀에 대한 신뢰’ 항목의 평균 점수는 30대 연령층은 2010년과 동일하였고, 4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은 2010년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항목의 평균 점수는 일부 또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항목의

평균 점수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인식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비교적 좋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자녀와의 친밀성과 자녀에 대한 신뢰도는 장년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6-31〉 연도 및 연령별 자녀와의 항목별 관계 정도 변화(2010~2015)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에게 간섭을 하는 편이다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녀와 자주 다룬다	자녀에게 화를 잘 내는 편이다	내 자녀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	내 자녀를 믿는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분석 대상수)
2010 30대	3.8	3.5	3.3	2.7	3.3	2.8	4.1	3.0	(104)
40대	3.8	3.2	3.3	2.7	2.6	2.6	3.9	2.8	(678)
50대 이상	3.5	3.1	3.0	2.4	2.5	2.7	3.8	2.8	(263)
2015 30대	3.7	3.3	3.2	2.4	2.7	2.6	4.1	3.5	(552)
40대	3.7	3.1	3.0	2.3	2.4	2.4	4.1	3.4	(5,418)
50대 이상	3.6	2.8	2.9	2.1	2.3	2.5	4.0	3.3	(3,738)

주: 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여성가족부. (2010, 2015). 제2-3차 가족실태조사.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은 1998년에 65.2%에서 2002년에 69.1%로 증가하다 2006년에는 65.6%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75.6%로 20년간 10.4%p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가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1998년에 5.5%에서 2002년에 4.3%로 감소하였고, 2006년 이후에도 증감을 계속하여 2018년에는 3.5%로 동 기간 2%p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으로 오면서 부모와 미성년자녀 간에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가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6-32〉 연도별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1998	31.7	33.5	29.3	4.9	0.6	100.0
2002	39.1	30.0	26.6	3.6	0.7	100.0
2006	33.7	31.9	29.2	4.3	0.9	100.0
2010	33.1	39.1	23.6	3.6	0.7	100.0
2014	34.0	39.0	23.0	3.2	0.7	100.0
2018	36.7	38.9	20.9	2.9	0.6	100.0

주: 1) 1998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08~2018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성별로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1998년에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은 남성이 65.5%, 여성이 64.9%로 남성이 여성보다 0.6%p 높았고,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남성과 여성 각각 5.5%와 5.7%로 차이가 미미하였다. 2002년에 만족도는 1998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하였고, 남녀 간에 차이는 2.5%p로 더 벌어졌다. 이에 비해 불만족도는 1998년보다 2002년에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였고, 남녀 간에 차이 또한 다소 벌어지는 특성을 보였다. 2006년에는 2002년에 비해 남녀 모두에서 만족도는 감소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증가하여 2002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10년에는 2006년보다 남녀 모두에서 만족도는 다소 증가하였고, 남녀 간에 차이는 다소 줄었는데 비해, 불만족도는 2006년보다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였다. 2014년에 만족도는 남성은 2010년보다 감소한데 비해 여성은 증가하였고, 불만족도는 남성은 2010년과 동일하였고, 여성은 감소하여서 남녀 간에 차이를 보였다. 2018년에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5.5%와 75.6%로 2014년보다 증가하였고, 불만족도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3.6%와 3.5%로 2014년보다 감소하였으며 남녀 간에 차이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6-33〉 연도 및 성별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1998	남성	33.2	32.3	29.0	4.8	0.7	100.0
	여성	30.4	34.5	29.4	5.1	0.6	100.0
2002	남성	42.0	28.5	25.7	3.3	0.6	100.0
	여성	36.7	31.3	27.4	3.9	0.7	100.0
2006	남성	36.8	29.6	28.8	3.9	0.8	100.0
	여성	31.1	33.9	29.5	4.5	0.9	100.0
2010	남성	34.7	38.1	23.4	3.2	0.6	100.0
	여성	31.8	39.8	23.7	4.0	0.7	100.0
2014	남성	35.6	36.7	23.8	3.1	0.7	100.0
	여성	32.7	40.9	22.3	3.3	0.7	100.0
2018	남성	38.4	37.1	20.9	2.9	0.7	100.0
	여성	35.2	40.4	20.9	2.9	0.6	100.0

주: 1) 1998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08~2018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성별에 따른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만족도는 남성은 20년간 증감을 계속 보이다 최근으로 오면서 증가한데 비해, 여성은 2006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였다. 2014년 이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도가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여성이 만족도가 높았으며, 그 차이도 최근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부자관계보다 모자관계에서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1998년에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48.0~88.3%인데 비해,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0~9.7% 분포를 보였다.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 만족도는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불만족도는 고연령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

였다. 2002년에는 1998년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만족도는 다소 증가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감소하였다. 2006년에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2002년보다 감소한 반면, 불만족도는 증가하여 2002년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2010년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만족도는 증가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감소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되었다. 2018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만족도는 69.0~88.0%로 5분의 4 내외 분포를 보였고, 불만족도는 0.8~5.0%로 미미하였다.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 만족도는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고, 불만족도는 고연령층에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만족도는 2006년을 제외하고 20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데 비해, 불만족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 지속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 만족도는 5분의 4 이상으로 높았고, 불만족도는 미미하나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미성년자녀의 성장에 따른 가정 및 학교, 친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304 한국 가족의 변동 특징과 정책적 함의

〈표 6-34〉 연도 및 연령별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1998	15~19세	51.7	36.6	11.7	-	-	100.0
	20~24세	60.8	24.8	14.3	0.1	-	100.0
	25~29세	59.6	24.8	14.6	0.9	0.1	100.0
	30~34세	52.3	30.1	15.7	1.8	0.1	100.0
	35~39세	41.5	34.3	20.9	3.0	0.3	100.0
	40~44세	29.8	37.4	27.2	5.0	0.6	100.0
	45~49세	25.6	34.9	33.3	5.6	0.6	100.0
	50~54세	22.0	34.6	35.9	6.7	0.7	100.0
	55~59세	19.5	34.5	38.2	6.7	1.1	100.0
	60~64세	18.2	34.1	39.5	7.2	0.9	100.0
65세 이상	15.4	32.6	42.4	8.2	1.5	100.0	
2002	15~19세	73.4	26.6	-	-	-	100.0
	20~29세	69.0	18.2	12.0	0.6	0.2	100.0
	30~39세	55.5	26.5	16.5	1.4	0.1	100.0
	40~49세	37.5	31.2	27.1	3.6	0.5	100.0
	50~59세	29.7	31.6	33.5	4.5	0.7	100.0
	60세 이상	23.1	33.8	35.5	6.1	1.5	100.0
2006	15~29세	59.7	20.5	18.4	1.1	0.2	100.0
	30~39세	49.6	30.4	17.9	1.8	0.3	100.0
	40~49세	33.5	33.8	28.2	3.9	0.6	100.0
	50~59세	27.0	31.2	35.8	5.0	1.0	100.0
	60세 이상	21.4	32.9	37.2	6.8	1.7	100.0
2010	13~29세	-	-	-	-	-	-
	30~39세	47.2	37.2	13.7	1.7	0.2	100.0
	40~49세	33.2	42.0	20.9	3.5	0.4	100.0
	50~59세	27.3	39.3	28.7	4.0	0.7	100.0
	60세 이상	24.8	38.5	30.4	5.1	1.1	100.0
2014	13~29세	56.7	25.9	16.1	1.0	0.3	100.0
	30~39세	50.2	35.6	12.9	0.8	0.5	100.0
	40~49세	37.0	40.5	19.3	2.8	0.4	100.0
	50~59세	28.2	40.1	27.2	3.9	0.7	100.0
	60세 이상	26.1	39.5	28.7	4.5	1.2	100.0
2018	13~29세	60.6	27.4	11.2	0.5	0.3	100.0
	30~39세	53.9	33.5	11.6	1.0	0.1	100.0
	40~49세	41.8	39.1	16.3	2.3	0.5	100.0
	50~59세	33.2	39.6	23.8	2.9	0.5	100.0
	60세 이상	28.2	40.8	25.9	4.0	1.0	100.0

주: 1) 1998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08~2018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소득수준별로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 만족도의 변화는 1998년과 2002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06년~2018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수준별로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2006년에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54~79%인데 비해,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3~9% 분포를 보였다.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 만족도는 고소득층에서 높았으며, 불만족도는 저소득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10년에 만족도는 500만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소득층에서 2006년보다 증가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4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2006년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에는 100~200만원 미만과 5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는 2010년보다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소득층에서는 감소하였다. 불만족도는 200만원 미만과 4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2010년보다 증가하였고, 나머지 소득층에서는 감소하였다. 2018년으로 오면서 만족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66~84%로 2014년보다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불만족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2~7%로 300만원 미만 소득층은 2014년보다 증가한데 비해,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와 자녀관계 만족도는 고소득층에서 높았고, 불만족도는 저소득층에서 높아서 2006년 이후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만족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 12년간 모든 소득층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인데 비해, 불만족도는 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동 기간 고소득층에서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와의 만족도가 높았고, 저소득층에서 불만족도가 높은 것은 연령 등의 인구적인 요인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와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06 한국 가족의 변동 특징과 정책적 함의

〈표 6-35〉 연도 및 소득수준별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2006~2018)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2006	100만원 미만	22.6	31.6	36.5	7.2	2.2	100.0
	200만원 미만	32.3	29.8	32.9	4.2	0.8	100.0
	300만원 미만	36.2	32.0	27.8	3.5	0.5	100.0
	400만원 미만	36.9	34.0	25.4	3.4	0.4	100.0
	600만원 미만	44.0	33.6	19.5	2.5	0.4	100.0
	600만원 이상	43.9	35.3	17.6	2.7	0.4	100.0
2010	100만원 미만	26.8	34.5	31.3	6.1	1.4	100.0
	200만원 미만	31.0	38.3	26.7	3.4	0.6	100.0
	300만원 미만	34.1	40.0	22.3	3.1	0.5	100.0
	400만원 미만	35.2	41.0	20.5	2.8	0.5	100.0
	500만원 미만	34.9	40.9	20.3	3.4	0.6	100.0
	600만원 미만	38.3	42.3	15.8	3.3	0.2	100.0
600만원 이상	41.4	40.3	15.2	2.7	0.4	100.0	
2014	100만원 미만	25.2	37.9	30.2	4.7	2.0	100.0
	200만원 미만	31.6	37.1	27.1	3.3	0.8	100.0
	300만원 미만	33.0	40.1	23.6	2.7	0.5	100.0
	400만원 미만	36.7	39.4	20.4	3.2	0.3	100.0
	500만원 미만	38.9	40.0	18.3	2.5	0.3	100.0
	600만원 미만	40.5	40.0	16.6	2.7	0.3	100.0
600만원 이상	40.8	39.9	16.0	3.0	0.3	100.0	
2018	100만원 미만	28.9	37.1	27.0	5.3	1.8	100.0
	200만원 미만	30.5	39.3	25.9	3.7	0.6	100.0
	300만원 미만	35.6	38.0	22.7	3.1	0.6	100.0
	400만원 미만	38.6	38.6	20.2	2.2	0.4	100.0
	500만원 미만	40.0	39.1	18.3	2.1	0.5	100.0
	600만원 미만	39.1	41.7	16.9	1.8	0.5	100.0
600만원 이상	44.4	39.8	13.9	1.7	0.1	100.0	

주: 1) 1998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08~2018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제3절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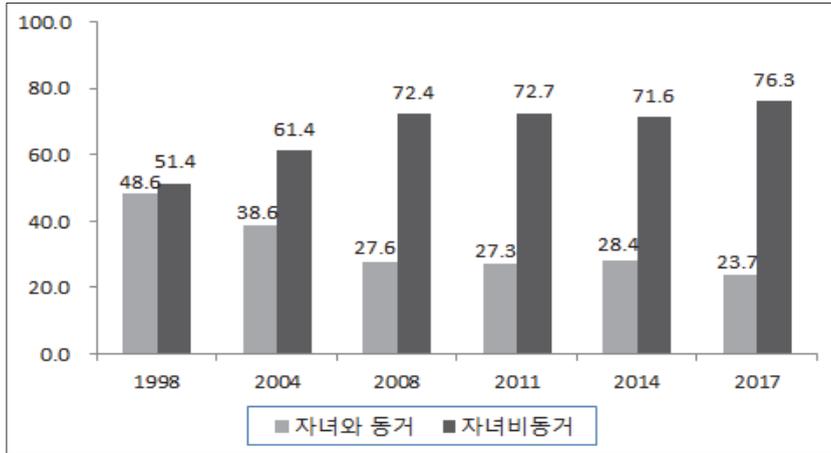
우리나라 가족은 형태상으로는 핵가족을 이루고 있으나 가치관 및 가족관계 측면에서는 위계적인 가부장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핵가족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들 부부는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다(김승권 등, 2000 재인용).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간의 동거 형태, 비동거 자녀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방문과 연락정도 등으로 측정한다. 또한 관계의 질적인 측면은 상호 간의 관계정도 및 만족도 등을 통해 진단코자 한다.

1.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 형태 변화 추이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에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48.6%, 비동거하는 비율은 51.4%로 비동거가 동거보다 다소 높았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동거 형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비동거 형태는 증가하였고, 2014년으로 오면서 동거 형태는 극히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비동거 형태가 동거 형태보다 3.2배 높았다. 이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가족결속력의 약화, 교육 및 취업생활로 인한 가족분거 등으로 소가족화·핵가족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6-5] 연도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 변화 추이(1998~2017)

(단위: %)



- 자료: 1) 정경희 등.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등.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4) 정경희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정경희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별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의 변화를 보면, 1998년에 동거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3%p 높았고, 비동거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3%p 높아서 상반된 특성을 보였다. 동거 비율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비해, 비동거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동거 비율이 일시적으로 남녀 모두에서 증가를 보이다 2017년에는 남녀 모두에서 다시 감소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6%p 높았고, 남녀 간에 차이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비동거 대비 동거 비율은 남성이 3.9배, 여성이 2.8배로 남성이 여성보다 차이가 다소 높았다.

〈표 6-36〉 연도 및 성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 변화 추이(1998~2017)

(단위: %, 명)

구분	자녀와 동거	자녀비동거	계(수)	
1998	남성	41.1	58.9	100.0(874)
	여성	54.0	46.0	100.0(1,498)
2004	남성	33.4	66.6	100.0(1,253)
	여성	41.8	58.2	100.0(2,023)
2008	남성	29.5	70.5	100.0(6,381)
	여성	33.5	66.5	100.0(8,487)
2011	남성	23.9	76.1	100.0(4,605)
	여성	29.9	70.1	100.0(6,069)
2014	남성	24.6	75.4	100.0(4,354)
	여성	31.2	68.8	100.0(6,097)
2017	남성	20.3	79.8	100.0(4,375)
	여성	26.3	73.8	100.0(5,924)

- 자료: 1) 정경희 등.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등.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4) 정경희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정경희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령별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의 변화를 보면, 1998년에 75세 이상 연령층은 동거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65~69세, 70~74세 연령층 순으로 높았다. 비동거 비율은 동거 비율보다 70~74세 연령층은 2.5배 높았고, 다음은 65~69세 연령층 2배, 75세 이상 연령층이 1.5배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2004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동거 비율이 증가한데 비해, 비동거 비율은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2011년까지 지속되었다. 2014년에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고, 2017년에 동거 비율은 65~69세와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한데 비해, 비동거 비율은 동일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비율은 19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증감을 계속하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65~74세 연령층은 감소한 반면, 75세 이상 연령층은 증가하여 상반된 경향을 보였고, 비동거 대비 동거 비율도 동일 연령층에서 증감을 보였다. 이는 노부모 연령기준으로 비교적 건강한 저연령층에서는 동거 형태가 축소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고연령층에서는 동거 형태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서 주목된다.

〈표 6-37〉 연도 및 연령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 변화 추이(1998~2017)

(단위: %, 명)

구분	자녀와 동거	자녀비동거	계(수)	
1998	65~69세	43.2	56.8	100.0(903)
	70~74세	46.9	53.1	100.0(693)
	75세 이상	58.4	41.6	100.0(776)
2004	65~69세	35.3	64.7	100.0(1,240)
	70~74세	35.3	64.7	100.0(933)
	75세 이상	45.0	55.0	100.0(1,104)
2008	65~69세	27.1	72.9	100.0(4,040)
	70~74세	25.3	74.7	100.0(3,026)
	75세 이상	37.0	63.0	100.0(3,539)
2011	65~69세	28.5	71.5	100.0(3,179)
	70~74세	24.7	75.3	100.0(3,240)
	75세 이상	28.5	71.5	100.0(4,255)
2014	65~69세	28.5	71.5	100.0(3,316)
	70~74세	27.2	72.8	100.0(2,830)
	75세 이상	29.2	70.8	100.0(4,305)
2017	65~69세	24.2	75.8	100.0(3,332)
	70~74세	20.7	79.4	100.0(2,560)
	75세 이상	25.1	74.9	100.0(4,407)

자료: 1) 정경희 등.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등.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4) 정경희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정경희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수준별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의 변화를 보면, 2008년에 성인자녀와의 동거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19~35%로 대체로 100만원 이상 소득층이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비동거 대비 동거비율은 3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고, 1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는 4.4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표 6-38〉 연도 및 소득수준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 변화 추이(2008~2017)

(단위: %, 명)

구분	자녀와 동거	자녀비동거	계(수)	
2008	100만원 미만	18.5	81.5	100.0(6,004)
	200만원 미만	24.3	75.7	100.0(2,342)
	300만원 미만	22.5	77.5	100.0(1,145)
	300만원 이상	34.8	65.2	100.0(1,307)
2011	60만원 미만	4.9	95.1	100.0(2,131)
	100만원 미만	8.2	91.8	100.0(2,141)
	200만원 미만	15.3	84.7	100.0(2,134)
	300만원 미만	38.9	61.1	100.0(2,133)
2014	300만원 이상	69.2	30.8	100.0(2,135)
	60만원 미만	3.8	96.2	100.0(2,033)
	100만원 미만	8.2	91.8	100.0(1,992)
	200만원 미만	18.0	82.0	100.0(2,027)
2017	300만원 미만	40.2	59.8	100.0(2,133)
	300만원 이상	66.1	33.9	100.0(2,277)
	60만원 미만	3.1	96.9	100.0(2,069)
	100만원 미만	6.5	93.5	100.0(2,052)
2017	200만원 미만	14.6	85.4	100.0(2,059)
	300만원 미만	34.3	65.7	100.0(2,060)
	300만원 이상	60.2	39.8	100.0(2,059)

자료: 1) 박명화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 정경희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정경희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에 동거 비율은 60만원 소득층을 제외하고 200만원 미만 소득층은 감소한 반면, 200만원 이상 소득층은 증가하였고, 비동거 비율은 동일 소득층에서 상반된 특성을 보였다. 2014년에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고, 2017년에 동거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3~60%로 소득이 높

을수록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비동거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40~97%로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비율은 9년간 200만원 소득층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증감을 보였고, 최근으로 오면서 300만원 이상 소득층은 오히려 동거가 비동거보다 높아서 타 소득층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비동거 대비 동거 비율은 200만원 미만 모든 소득층에서는 차이가 늘어난데 비해, 2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부모 소득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층에서는 자녀와의 동거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소득층에서는 동거 형태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서 주목된다.

2.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교류 변화 추이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비동거하는 경우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관계는 교류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다. 따라서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노부모와의 연락 및 만남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연락빈도 변화를 보면,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는 비율은 1998년에 72.5%로 3분의 2를 상회하였고, 2004년과 2014년에는 일시적인 감소 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81%로 19년간 8.5%p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한 달에 한두 번과 일 년에 몇 번 연락하는 비율은 1998년에 24.1%로 4분의 1에 근접하였고, 2004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여 2017년에는 17.6%로 동기간 6.5%p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 간에 연락빈도가 빈번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를 보면 19년간 만나는 빈도는 감소하는데 비해 연락빈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성인자녀의 교육·직장으로 인한 분거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표 6-39〉 연도별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 추이(1998~2017)

(단위: %, 명)

구 분	1998	2004	2008	2011	2014	2017
부모와의 전화통화						
자주 만나 별도의 연락 불필요	2.0	7.2	-	-	-	-
거의 매일	20.6	22.5	22.6	23.9	25.9	28.3
일주일 한두번	51.9	49.8	54.7	59.7	47.0	52.7
한달에 한두번	20.1	17.1	17.6	12.4	19.3	14.4
일년에 몇번	4.0	2.5	4.6	3.4	5.7	3.2
거의 하지 않음	1.4	1.0	0.6	0.7	2.0	1.4
부모와의 만남						
거의 매일	12.3	11.4	9.8	9.4	10.8	9.6
일주일 한두번	28.5	29.7	34.2	38.9	26.9	28.4
한달에 한두번	36.5	36.2	30.6	31.8	31.5	37.0
일년에 몇 번	21.5	21.7	24.3	18.9	29.0	23.0
거의 하지 않음	1.2	1.0	1.1	1.0	1.8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094)	(2,892)	(10,345)	(10,153)	(9,745)	(9,629)

자료: 1) 정경희 등.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등.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4) 정경희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정경희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별로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연락빈도 변화를 보면,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는 비율은 1998년에 남성노인은 86.5%, 여성노인은 82.2%로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고, 남녀 모두 5분의 4를 상회하였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동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증감이 반복적 나타났다. 2017년에 동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8.4%와 82.7%로 19

314 한국 가족의 변동 특징과 정책적 함의

년간 남성은 8.1%p 감소한데 비해, 여성은 0.5%p 증가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아서 2011년 이전과는 상반된 특성을 보였다.

〈표 6-40〉 연도 및 성별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 추이(1998~2017)

(단위: %, 명)

구분	1998		2004		2008		2011		2014		2017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부모와의 전화통화												
자주 만나므로 별도의 연락 필요 없음	2.5	1.6	6.7	7.5	-	-	-	-	-	-	-	-
거의 매일	23.9	18.5	23.3	22.0	26.2	24.7	23.4	24.4	24.4	27.0	25.3	30.5
일주일 한두번	62.6	63.7	62.2	60.1	54.3	53.3	59.7	59.7	46.5	47.7	53.1	52.2
한달에 한두번	7.6	9.6	4.9	6.6	15.1	17.1	13.0	11.9	20.5	18.5	15.7	13.4
일년에 몇번	2.8	5.0	2.1	2.8	3.8	4.4	3.3	3.4	6.1	5.4	3.6	2.9
거의 하지 않음	0.7	1.6	0.9	1.0	0.6	0.5	0.7	0.7	2.5	1.7	1.9	1.1
부모와의 만남												
거의 매일	12.9	11.9	11.7	11.2	10.5	11.2	9.7	9.1	10.7	11.0	9.8	9.4
일주일 한두번	47.3	42.4	48.3	44.0	37.0	33.4	39.3	38.6	26.9	26.9	27.6	28.9
한달에 한두번	19.6	21.4	20.5	20.2	30.3	29.8	31.7	31.8	32.8	30.6	37.0	37.0
일년에 몇번	19.6	23.3	18.6	23.7	21.2	24.6	18.1	19.5	27.6	30.0	23.0	22.9
거의 하지 않음	0.7	0.9	0.9	1.0	1.0	1.0	1.1	1.0	2.2	1.6	2.5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793)	(1,301)	(1,134)	(1,759)	(6,036)	(8,236)	(4,409)	(5,742)	(4,077)	(5,668)	(4,084)	(5,546)

- 자료: 1) 정경희 등.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등.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4) 정경희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정경희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정경희 등(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에 비해 한 달에 한두 번과 일 년에 몇 번 연락하는 비율은 1998년에 남성과 여성은 각각 10.4%와 14.6%로 낮은 분포를 보였고, 동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감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9.3%와 16.3%로 19년간 남성은 9%p 증가하였고, 여성은 2%p 증가하였으며, 동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아서 2011년 이전과는 상반

된 특성을 보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 간에 연락빈도가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만남빈도 변화를 보면,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비율은 1998년에 남성은 60.2%, 여성은 54.3%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고, 남녀 모두 절반을 상회하였다. 2004년에는 1998년보다 남성에서는 감소를, 여성에서는 증가를 보였으며,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다. 2017년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37.4%와 38.3%로 19년간 남성은 23%p 감소하였고, 여성은 16%p 감소하였으며, 동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아서 2014년 이전과는 상반된 특성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한 달에 한두 번과 일 년에 몇 번 만나는 비율은 1998년에 남성과 여성은 각각 39.2%와 44.7%로 여성은 남성보다 다소 높았고, 남녀 모두 5분의 2 내외 분포를 보였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감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0.0%와 59.9%로 19년간 남성은 21%p 감소하였고, 여성은 15%p 증가하였으며, 동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아서 2014년 이전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 간에 만나는 빈도가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를 보면 19년간 만나는 빈도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데 비해, 연락빈도는 남성은 소폭으로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자녀와의 교류가 다소 활발한 편으로 이해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 상 여성이 성인자녀와의 정서적인 결속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특성이 교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연락빈도 변화를 보면,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는 비율은 1998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50~55%로 절반 이상 분포하였고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2004년에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다가 2008년에는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2011년까지 지속되었다. 2014년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2017년에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2017년에 동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52~54%로 19년간 65~69세와 70~74세 연령층에서는 미미하게 감소한데 비해, 7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다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한 달에 한두 번과 일 년에 몇 번 연락하는 비율은 1998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20~30%로 4분의 1 내외 분포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특성을 보였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와 증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동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17~18%로 19년간 3~12%p 감소하였고, 감소폭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대체로 모든 연령층에서 연락빈도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연령층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만남빈도 변화를 보면,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비율은 1998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38~44%로 5분의 2 내외 분포를 보였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특성을 보였다. 2004년에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고,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4년에는 감소하였고, 2017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에 동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36~39%로 19년간 65~69세와 70~74세 연령층에서는 다소 감소한데 비해, 7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표 6-41〉 연도 및 연령별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 추이(1998~2017)

(단위: %, 명)

구분	1998			2004			2008			2011			2014			2017		
	65~69	70~74	75+	65~69	70~74	75+	65~69	70~74	75+	65~69	70~74	75+	65~69	70~74	75+	65~69	70~74	75+
부모와의 전화통화																		
연락 불필요	2.1	1.9	1.9	8.0	6.9	6.4	-	-	-	-	-	-	-	-	-	-	-	-
거의 매일	25.8	18.2	16.1	26.8	20.2	19.2	25.0	24.1	18.5	27.0	21.8	23.3	27.9	26.2	24.3	29.5	27.5	27.8
일주일 한두번	51.6	54.6	49.9	49.4	51.2	48.9	55.6	55.0	53.4	59.1	61.5	58.7	46.1	48.1	47.0	51.5	53.7	53.1
한달에 한두번	17.1	21.4	22.9	13.5	19.4	19.6	15.1	17.0	21.1	11.2	12.7	13.0	19.1	18.8	19.8	13.9	14.1	14.9
일년에 몇번	2.4	3.5	6.7	1.5	2.0	4.4	3.8	3.6	6.2	2.2	3.3	4.2	5.5	4.7	6.6	3.1	3.4	3.2
거의 하지 않음	1.1	0.5	2.6	0.9	0.4	1.7	0.6	0.3	0.7	0.6	0.6	0.8	1.4	2.2	2.3	1.9	1.4	1.1
부모와의 만남																		
거의 매일	13.8	12.2	10.4	12.9	11.2	9.6	10.9	10.2	8.2	10.3	9.1	8.8	12.1	12.4	8.8	10.7	9.9	8.5
일주일 한두번	30.2	27.1	27.4	31.8	28.7	27.9	36.8	34.0	31.2	37.7	38.8	39.9	26.3	25.9	27.9	28.3	26.5	29.6
한달에 한두번	36.4	37.6	35.7	35.7	36.1	37.1	29.4	32.1	30.8	31.0	32.3	31.9	33.1	30.5	31.0	36.0	37.2	37.5
일년에 몇번	19.0	22.3	24.1	18.4	23.0	24.9	21.8	22.7	28.5	20.0	18.5	18.4	26.7	28.9	30.7	22.2	24.0	22.9
거의 하지 않음	0.6	0.8	2.4	1.3	0.9	0.5	1.1	0.9	1.3	1.1	1.2	0.9	1.7	2.3	1.6	2.7	2.4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32)	(698)	(624)	(1,169)	(866)	(856)	(3,924)	(2,981)	(3,440)	(3,009)	(3,150)	(3,994)	(3,059)	(2,675)	(4,012)	(3,093)	(2,434)	(4,102)

자료: 1) 정경희 등.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등.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4) 정경희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정경희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에 비해 한 달에 한두 번과 일 년에 몇 번 만나는 비율은 1998년에 모든 연령층에서 55~60%로 절반 이상 분포하였고, 대체로 70~74세와 75세 이상 연령층이 65~69세 연령층보다 높은 특성을 보였다. 2004년에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다 2014년에는 증가하였으며, 2017년으로 오면서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에 동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58~61%로 19년간 1~3%p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미미하나 연령이 낮을수록 높

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대체로 모든 연령층에서 만남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70~74세 연령층에서 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연령에 따른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를 보면 19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만나는 빈도는 다소 감소하는데 비해 연락빈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연락을 통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교류는 70대 이상 연령층이 높은 데 비해, 만남을 통한 교류는 65~69세 연령층이 높아서 노부모의 연령이 성인자녀와의 교류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소득수준별로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연락빈도 변화를 보면,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 연락하는 비율은 2004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68~76%로 3분의 2를 상회하였고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모든 소득층에서 증가하다 2014년에는 감소하였고, 2017년으로 오면서 다시 모든 소득층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에 동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75~83%로 2004년보다 모든 소득층에서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대체로 100만원 이상 소득층이 100만원 미만 소득층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에 비해 한 달에 한두 번과 일 년에 몇 번 연락하는 비율은 2004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17~23%로 5분의 1 내외 분포하였고, 일정하지 않았다. 2008년에는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모든 소득층에서 감소와 증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 동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16~22%로 2004년보다 모든 소득층에서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일관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대체로 모든 소득층에서 연락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6-42〉 연도 및 소득수준별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 추이(2004~2017)

(단위: %, 명)

구분	2004						2008				
	50 만원 미만	100 만원 미만	150 만원 미만	200 만원 미만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	100 만원 미만	200 만원 미만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부모와의 전화통화											
자주 만나 불필요	7.6	5.1	7.3	7.0	5.8	11.9	-	-	-	-	-
거의 매일	19.2	21.7	25.9	29.8	26.4	20.1	19.0	24.7	29.5	29.0	26.6
일주일 한두번	48.4	54.1	48.4	45.5	47.8	49.8	51.7	55.8	54.2	52.1	53.6
한달에 한두번	19.6	15.9	15.1	17.5	17.5	14.9	21.4	15.5	12.8	15.5	15.7
일년에 몇번	3.5	2.6	2.1	0.2	2.2	2.6	6.6	3.4	3.4	2.8	3.9
거의 하지 않음	1.9	0.5	1.2	-	0.3	0.8	1.4	0.5	0.1	0.5	0.2
부모와의 만남											
거의 매일	11.4	8.7	13.6	10.9	10.2	16.3	9.1	10.4	12.6	12.5	10.2
일주일 한두번	26.6	29.5	30.8	38.9	29.7	30.4	30.8	32.7	38.5	37.2	37.4
한달에 한두번	35.8	40.3	34.3	31.2	37.8	32.8	29.1	30.9	29.3	30.4	30.9
일년에 몇 번	24.7	20.6	21.1	19.0	21.6	19.7	29.2	24.9	19.3	19.0	20.9
거의 하지 않음	1.6	1.1	0.2	-	0.7	0.9	1.8	1.2	0.4	0.8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37)	(763)	(365)	(247)	(317)	(363)	(3,381)	(3,619)	(3,644)	(1,724)	(1,942)

구분	2011					2014					2017				
	60 만원 미만	100 만원 미만	200 만원 미만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60 만원 미만	100 만원 미만	200 만원 미만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60 만원 미만	100 만원 미만	200 만원 미만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부모와의 전화통화															
거의 매일	18.5	20.3	25.0	26.7	29.0	21.6	24.6	28.3	25.2	30.3	25.4	27.1	27.2	30.5	31.2
일주일 한두번	57.3	63.3	61.1	60.2	56.1	43.5	49.3	47.7	50.3	44.3	49.8	54.6	55.8	51.7	51.7
한달에 한두번	17.0	12.7	10.9	10.2	11.3	20.8	19.8	18.2	17.7	19.8	15.5	14.3	13.0	14.9	14.3
일년에 몇번	5.6	2.8	2.5	2.4	3.3	8.7	5.0	4.4	5.7	4.8	6.1	2.9	2.9	1.8	2.5
거의 하지 않음	1.5	0.9	0.4	0.4	0.3	5.4	1.2	1.5	1.2	0.8	3.4	1.2	1.1	1.0	0.4
부모와의 만남															
거의 매일	6.1	7.3	11.3	10.4	11.7	7.4	10.3	12.4	11.5	12.7	8.0	9.4	9.1	10.0	11.5
일주일 한두번	32.8	38.5	41.2	42.6	39.2	23.3	27.7	25.6	29.0	28.9	26.6	28.2	29.4	29.3	28.6
한달에 한두번	34.2	33.4	29.9	30.4	31.0	29.1	30.3	33.8	31.2	33.3	35.2	38.2	37.3	39.1	35.1
일년에 몇번	25.3	19.6	16.4	16.0	17.7	35.6	30.4	26.9	27.3	24.5	25.1	22.6	22.9	20.5	24.0
거의 하지 않음	1.4	1.4	1.2	0.7	0.4	4.7	1.4	1.3	0.9	0.7	5.1	1.7	1.5	1.2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938)	(2,074)	(2,052)	(2,062)	(1,997)	(1,935)	(1,985)	(1,975)	(1,948)	(1,879)	(1,890)	(1,953)	(1,989)	(1,935)	(1,862)

주: 2008년도 소득분포별 교류분포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자료: 1) 정경희 등.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박명화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 정경희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경희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수준별로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만남빈도 변화를 보면,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비율은 2004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38~50%로 5분의 2 내외 분포를 보였고,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모든 소득층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 2014년에는 감소하였고, 2017년으로 오면서 소득층별로 증감을 보였다. 2017년에 동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35~40%로 2004년보다 30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층에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한 달에 한두 번과 일 년에 몇 번 만나는 비율은 2004년에 모든 소득층에서 50~61%로 절반 이상 분포하였고,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층에서 감소하다가 2014년에는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소득층별로 증감이 다르게 나타났다. 2017년에 동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59~61%로 2004년보다 100만원 미만 소득층은 감소한데 비해, 100만원 이상 소득층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대체로 모든 소득층에서 만남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노부모와 비동거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를 보면 13년간 모든 소득층에서 만나는 빈도는 다소 감소하는데 비해, 연락빈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연락과 만남 등을 통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교류는 대체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활발한 양상을 보여서 소득수준이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 정도 및 만족도 변화 추이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정도는 ①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② 나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③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④ 자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 한다 등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정도는 2005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10년과 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항목별로 관계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에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등 3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3.4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을 보였고, ‘자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 한다’ 항목은 2.6점으로 중간 미만 수준이었다. 2015년에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항목의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2010년보다 감소하였고,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 한다’ 등 3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2010년보다 동일하거나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친밀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의사소통과 이해도는 낮아지고 있어서 관계의 질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항목별 관계정도의 변화를 보면, 2010년에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 항목의 평균 점수는 남성은 2.9점으로 중간 미만이었고, 여성은 3.3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좋은 편이었다.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등 2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남성은 3.2~3.3점, 여성은 3.4~3.5점으로 여성이 남성보

다 성인자녀에 대한 생활 이해도와 친밀성이 높았다. ‘자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 한다’ 항목은 남성과 여성 모두 2.6점으로 중간 미만이었다. 2015년에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 항목의 평균 점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10년보다 감소하였다.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항목의 평균 점수는 남성은 2010년보다 감소한데 비해, 여성은 2010년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항목의 평균 점수는 남성은 2010년과 동일한데 비해, 여성은 2010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자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 한다’ 항목의 평균 점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2010년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성인자녀와의 의사소통은 감소한데 비해, 부모에 대한 저조한 이해도는 오히려 증가하여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은 성인자녀와의 친밀도가 감소한데 비해, 여성은 증가하여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인자녀와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3〉 연도 및 성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정도 변화(2010~2015)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나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분석대상수)
2010 전체	3.1	3.3	3.4	2.6	(1,670)
2010 남성	2.9	3.2	3.3	2.6	(674)
2010 여성	3.3	3.4	3.5	2.6	(996)
2015 전체	2.8	3.3	3.5	3.4	(3,596)
2015 남성	2.5	3.1	3.3	3.3	(1,535)
2015 여성	3.0	3.4	3.6	3.5	(2,061)

주: 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1)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연령별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항목별 관계정도의 변화를 보면, 2010년에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등 3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모든 연령층에서 중간 이상 수준을 보였다. ‘자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 한다’ 항목의 평균 점수는 40~49세 연령층만 중간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 연령층은 중간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한다’ 항목의 평균 점수는 모든 연령층에서 2010년보다 감소하였고,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 한다’ 등 2개 항목의 평균 점수는 2010년보다 증가하거나 동일하였다.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항목의 평균 점수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감소한데 비해, 자녀와의 친밀성과 부모에 대한 저조한 이해도는 증가하여서 친밀성을 제외하고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젊은 연령층에서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높게 나타나서 주목된다.

〈표 6-44〉 연도 및 연령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정도 변화(2010, 2015)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에게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 한다	나는 자녀의 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나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자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분석대상수)	
2010	40~49세	3.3	3.5	3.7	3.0	(49)
	50~59세	3.1	3.3	3.4	2.6	(486)
	60~69세	3.1	3.3	3.4	2.5	(551)
	70세 이상	3.1	3.3	3.3	2.5	(584)
2015	40~49세	3.1	3.6	3.8	3.6	(95)
	50~59세	2.8	3.3	3.5	3.4	(1,348)
	60~69세	2.7	3.3	3.4	3.4	(1,109)
	70세 이상	2.8	3.2	3.4	3.4	(1,044)

주: 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의미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1) 여성가족부. (2010, 2015). 제2차 가족실태조사.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은 1998년에 53.4%에서 2002년 61.1%로 증가하다 2006년에 56.9%로 소폭 감소하였고,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67.0%로 20년간 13.6%p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가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1998년에 6.5%에서 2002년 4.6%로 감소하였고, 2006년에 5.6%로 증가하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4.6%로 동 기간 1.9%p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가 감소하고, 비동거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갈등 등 부정적인 요인이 줄어드는 데서 오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6-45〉 연도 및 성별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2)

(단위: %)

구 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1998	전체	23.0	30.4	40.2	5.6	0.9	
	남성	23.0	29.5	40.5	6.0	1.1	100.0
	여성	22.9	31.2	39.8	5.3	0.7	
2002	전체	32.7	28.4	34.4	3.7	0.9	
	남성	33.7	27.4	34.0	3.9	1.0	100.0
	여성	31.6	29.4	34.7	3.5	0.7	
2006	전체	27.3	29.6	37.4	4.5	1.1	
	남성	28.4	28.4	37.4	4.5	1.2	100.0
	여성	26.2	30.8	37.4	4.5	1.0	
2010	전체	26.1	37.1	31.5	4.3	1.0	
	남성	26.3	36.7	31.9	4.3	0.9	100.0
	여성	25.9	37.6	31.2	4.3	1.0	
2014	전체	27.6	35.9	31.5	3.8	1.2	
	남성	28.0	35.1	32.1	3.7	1.1	100.0
	여성	27.1	36.8	30.9	4.0	1.2	
2018	전체	30.4	36.6	28.5	3.7	0.9	
	남성	31.8	35.4	28.4	3.4	1.0	100.0
	여성	28.9	37.7	28.6	3.9	0.9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성별로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1998년에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친 비율은 남성이 52.5%, 여성이 54.1%로 여성이 남성보다 1.6%p 높았고,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7.1%와 6.0%로 차이가 미미하였다. 2002년에 만족도는 1998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하였고 남녀 간에 차이는 0.1%p로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불만족도는 1998년보다 남녀 모두에서 감소하였고, 남녀 간에 차이 또한 다소 줄어드는 특성을 보였다. 2006년에는 남녀 모두에서 2002년보다 만족도는 감소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증가하여 2002년과는 상반된 특성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만족도는 남녀 모두에서 증가하였고, 불만족도는 감소하여 2006년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2018년에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67.2%와 66.6%로 2014년보다 증가하였고, 불만족도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4.4%와 4.8%로 감소하였으며 남녀 간에 차이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06년을 제외하고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였다. 2014년 이전에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높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나 차이가 미미하였다.

연령별로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1998년에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친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39~60%인데 비해,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4~8% 분포를 보였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만족도는 대체로 34세 이하 연령층이 35세 이상 연령층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불만족도는 일정하지 않았다. 2002년은 모든 연령층에서 1998년보다 만족도는 증가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감소하였고, 연령별로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326 한국 가족의 변동 특징과 정책적 함의

〈표 6-46〉 연도 및 연령별 본인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1998~2018)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1998	15~19세	24.2	35.9	32.4	6.5	0.9	100.0
	20~24세	26.3	33.4	34.4	5.1	0.8	100.0
	25~29세	28.7	31.5	34.7	4.2	0.8	100.0
	30~34세	26.4	30.6	37.1	5.1	0.9	100.0
	35~39세	22.1	27.8	42.9	6.3	0.9	100.0
	40~44세	17.7	27.1	48.5	5.7	0.9	100.0
	45~49세	15.4	26.8	50.1	6.9	0.8	100.0
	50~54세	15.4	26.4	50.5	6.6	1.1	100.0
	55~59세	14.6	24.6	53.6	6.2	1.0	100.0
	60~64세	13.8	26.4	53.2	5.2	1.4	100.0
65세 이상	17.4	27.6	51.2	3.7	0.1	100.0	
2002	15~19세	34.8	33.0	26.9	4.2	1.1	100.0
	20~29세	39.0	29.8	27.6	2.9	0.6	100.0
	30~39세	35.1	27.9	33.1	3.3	0.6	100.0
	40~49세	25.0	25.7	43.5	4.7	1.1	100.0
	50~59세	21.8	25.0	46.9	5.0	1.3	100.0
	60세 이상	19.9	27.6	47.7	4.0	0.8	100.0
2006	15~19세	28.7	32.2	32.0	5.5	1.7	100.0
	20~29세	30.5	31.2	33.1	4.2	0.9	100.0
	30~39세	30.5	30.3	34.5	3.9	0.9	100.0
	40~49세	23.8	27.9	42.6	4.5	1.1	100.0
	50~59세	18.6	24.7	49.9	5.4	1.4	100.0
	60세 이상	16.5	27.8	47.0	7.1	1.6	100.0
2010	13~19세	-	-	-	-	-	-
	20~29세	30.3	38.7	26.1	4.1	0.8	100.0
	30~39세	28.9	36.9	29.9	3.3	1.1	100.0
	40~49세	23.1	37.3	33.9	4.7	0.9	100.0
	50~59세	18.4	34.2	41.2	4.9	1.3	100.0
	60세 이상	20.2	31.6	43.1	4.4	0.8	100.0
2014	13~19세	36.6	36.8	22.8	2.9	1.0	100.0
	20~29세	31.2	35.1	28.8	3.9	1.0	100.0
	30~39세	29.4	36.2	29.5	3.7	1.3	100.0
	40~49세	23.4	37.1	34.6	3.8	1.1	100.0
	50~59세	18.4	35.0	40.7	4.7	1.3	100.0
	60세 이상	19.8	31.0	41.5	5.6	2.2	100.0
2018	13~19세	42.3	35.9	18.4	2.9	0.5	100.0
	20~29세	33.7	35.1	26.3	4.1	0.8	100.0
	30~39세	32.1	37.0	26.1	3.8	1.0	100.0
	40~49세	26.8	38.3	29.8	3.8	1.3	100.0
	50~59세	24.2	35.0	36.9	3.3	0.7	100.0
	60세 이상	16.3	38.5	40.8	3.2	1.2	100.0

주: 1) 1998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08~2018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2006년에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한 반면, 불만족도는 증가하여 2002년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만족도는 증가한 반면, 불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8년에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55~78%로 3분의 2 내외 분포를 보였고, 불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3.4~5.1%로 미미하였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 만족도는 대체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편이었으나, 불만족도는 일정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만족도는 2006년을 제외하고 20년간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데 비해, 불만족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년간 지속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 만족도는 3분의 2 내외 분포를 보였고, 불만족도는 미미하나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노부모에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낮은 반면, 정서적인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소득수준별로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 만족도의 변화는 1998년과 2002년 자료가 없는 관계로 2006년~2018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수준별로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면, 2006년에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47~68%인데 비해,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모든 소득층에서 4~9% 분포를 보였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만족도는 고소득층에서 높았으며, 불만족도는 대체로 저소득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2010년에 만족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2006년보다 증가하였고, 불만족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감소하여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2014년에는 100만원 미만과 60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하고 대체로 모든 소득층에서 만족도는 2010년보다 감소하였고, 불만족도는 일관되지 않았다.

〈표 6-47〉 연도 및 소득수준별 본인부모와의 관계만족도 변화 추이(2006~2018)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2006	100만원 미만	21.4	25.3	44.1	6.9	2.4	100.0
	200만원 미만	25.3	27.2	41.2	5.0	1.2	100.0
	300만원 미만	27.7	29.9	37.5	4.1	0.8	100.0
	400만원 미만	29.1	32.3	34.5	3.4	0.7	100.0
	600만원 미만	32.1	33.7	29.9	3.4	0.9	100.0
	600만원 이상	33.7	34.1	27.1	4.3	0.9	100.0
2010	100만원 미만	23.6	31.6	38.2	5.2	1.4	100.0
	200만원 미만	23.6	34.5	35.5	5.2	1.2	100.0
	300만원 미만	25.6	37.0	32.6	3.9	0.9	100.0
	400만원 미만	26.8	39.1	29.8	3.7	0.6	100.0
	500만원 미만	26.3	40.7	28.2	4.2	0.7	100.0
	600만원 미만	27.7	42.3	25.5	3.9	0.6	100.0
600만원 이상	34.0	37.8	22.9	3.9	1.4	100.0	
2014	100만원 미만	26.5	30.4	36.2	5.0	1.9	100.0
	200만원 미만	23.1	34.8	36.1	4.5	1.4	100.0
	300만원 미만	26.0	34.8	34.2	3.9	1.1	100.0
	400만원 미만	28.6	37.1	29.7	3.5	1.1	100.0
	500만원 미만	28.5	36.8	30.3	3.3	1.1	100.0
	600만원 미만	29.7	40.8	25.3	3.2	1.1	100.0
600만원 이상	33.7	36.7	25.0	3.7	0.9	100.0	
2018	100만원 미만	28.7	32.2	33.2	4.0	1.9	100.0
	200만원 미만	27.3	33.0	33.8	4.8	1.2	100.0
	300만원 미만	28.9	35.0	31.6	3.9	0.6	100.0
	400만원 미만	29.6	37.7	28.1	3.7	0.9	100.0
	500만원 미만	30.0	36.5	29.6	3.2	0.8	100.0
	600만원 미만	32.0	39.8	24.0	3.3	0.9	100.0
600만원 이상	34.9	38.6	22.4	3.2	1.0	100.0	

주: 1) 1998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인구임.

2) 2008~2018년 조사대상은 13세 이상인구임.

자료: 통계청, (1998~2018). 사회조사.

2018년으로 오면서 만족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61~74%로 2014년보다 증가한데 비해, 불만족도는 모든 소득층에서 4~6%로 200만원 미만과 400만원 미만 소득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층에서 감소하였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만족도는 대체로 고소득층에서 높은 편이었고, 불만족도는 저소득층에서 높은 편이어서 2006년 이후 동일한 특성을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만족도는 2014년을 제외하고 12년간 모든 소득층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는데 비해, 불만족도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동 기간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만족도는 고소득층에서 높았고, 불만족도는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은 연령 등의 인구적인 요인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4절 소결

가족관계는 가족 내 구성원 상호 간의 인간관계로서 권력구조, 역할구조 등의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여 개인 간의 심리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 등을 포괄한다(양옥경, 2001; 박관동, 2020). 기능적인 가족관계란 가족 상호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이런 맥락에서 가족관계는 가족의 정서적 기능과 관련이 높으며, 가족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노영애, 2020). 한편, 가족변화는 가족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데, 가족변화 현상인 소가족화·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 가족분거 및 이혼·사별 등의 증가로 인해 가족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김유경 등, 2014).

본 장에서는 가족관계를 부부관계와 부모-미성년자녀관계 및 노부모-

성인자녀관계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부부관계 변화는 가족 내 부부역할, 부부간 의사결정권, 가사분담 태도 및 실태변화, 대화정도 및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등으로 살펴보았다.

부부역할관의 변화는 10년간(2005~2015년) 부부의 가족 내 성역할 중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인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한다’, ‘오늘날에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 등의 평균 점수는 최근으로 오면서 증가하는데 비해, 전통적 가부장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인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 ‘친정과 시집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 시집을 먼저 도와야 한다’ 등의 평균 점수는 감소추세를 보여 우리나라 부부역할이 전통적 가부장적 태도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 젊은 연령층, 중간소득층 이상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부 간에 의사결정권의 변화는 10년간(2005~2015년) 생활비 지출과 자녀교육은 부인 결정이 높아졌고, 주택구입과 투자 및 재산관리는 부부공동 결정이 다소 약화되면서 남편결정과 부인결정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영역별로 부부 간에 역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으로 오면서 대체로 부인결정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부부의 가사분담 태도의 변화는 20년간(1998~2018년) 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는 점차 약화되고,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는데, 이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남편의 가사 참여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실제 부부의 가사분담 형태의 변화를 보면, 동 기간(1998~2018년) 실제 가사분담은 대다수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80% 미만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형태는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성 가사부담에 비해 25%에 불과하여서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와 실제 가사분담 실태 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부부 간에 대화정도의 변화를 보면, 10년간(2005~2015년) 배우자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1시간 이상은 감소하여 최근으로 오면서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다. 그중 20대 연령층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늘어나는 데 비해, 30대 이상 연령층은 배우자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다. 또한 배우자와 대화가 전혀 없는 비율은 중장년층에서 다소 증가하여 주목된다. 부부관계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년간(1998~2018년)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은 1998년에 59%에서 2018년에 70%로 동 기간 11%p 상승하고,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1998년 9%에서 2018년 6%로 동 기간 3%p 감소하여서 최근으로 오면서 부부관계가 기존 가부장적 가치에 근거한 양성불평등적 관계에서 양성평등적인 관계로 개선되면서 오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부관계의 만족도는 남성, 젊은 연령층, 고소득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의 변화는 자녀의 의미, 자녀양육태도 및 범위, 자녀와의 관계 정도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녀 가치관의 변화를 보면, 10년간(2005~2015년) ‘자녀성장이 부모의 인생에 주는 즐거움’, ‘노후를 위한 자녀 필요도’, ‘부모와 자녀 간에 성공일치 정도’ 등 3개 항목에서 그 의미가 감소하여서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상당히 약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자녀양육책임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면, 15년간(2003~2018년) ‘자녀의 대학졸업’과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점차 감소하고 ‘자녀의 대학졸업’과 ‘취업 및 고등학교 졸업’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부모의 자녀양육책임 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성, 연령 및 소득수준별로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 여성, 젊은 연령층과 중간 이하 소득층에서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부모와 미성년자녀 간에 관계의 변화를 보면, 5년간(2010~2015년) 부정적인 항목인 '자녀에게 간섭', '다툼', '화를 잘 냄', '이해 못함' 등은 평균 점수가 감소하는 데 비해, 긍정적인 항목인 '자녀에 대한 믿음'과 '충분히 대화함' 등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부모와 미성년자녀와의 관계 인식이 좋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년간(1998~2018년)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이 1998년에 65%에서 2018년에 76%로 동 기간 10%p 상승하고,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이 1998년에 6%에서 2018년에 4%로 동 기간 2%p 감소하여, 최근으로 오면서 부모와 미성년자녀 간에 만족도가 높아져 관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 미성년자녀 관계 만족도는 여성, 젊은 연령층, 고소득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는 동거 형태, 비동거 자녀의 경우 상호방문과 연락정도, 상호 간의 관계정도 및 만족도 등을 통해 진단하였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의 변화를 보면, 20년간(1998~2017) 동거하는 비율은 1998년에 48.6%에서 2017년에는 23.7%로 20년간 25%p 감소하였고, 비동거 비율이 동거 비율보다 3.2배 높았다.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동거 비율은 여성, 75세 이상 연령층, 고소득층에서 높은 양상을 보였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화를 보면, 19년간(1998~2017년) 만나는 빈도는 감소하는데 비해 연락빈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성별로는 성별, 연령 및 소득수준별 교류변화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그중에서 연락빈도는 여성노인과 70대 이상 연령층, 고소득층에서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 변화를 보면, 5년간(2010~2015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항목의 평균 점수는 감소한 반면, '자녀 생활에 대한 인지도'와 '친밀도' 항목,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해도' 항목 등은 증가하여 최근으로 오면서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인지도와 친밀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의사소통과 이해도는 낮아지고 있어서 관계의 질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성 및 연령별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 만족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년간(1998~2018년)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친 비율은 1998년에 53%에서 2018년에 67%로 동 기간 14%p 상승하고,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친 비율은 1998년에 7%에서 2018년에 5%로 동 기간 2%p 감소하여서 최근으로 오면서 동거 형태의 감소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줄어드는 대신에 정서적 교류로 인한 친밀도가 높아진데서 오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 만족도는 남성, 젊은 연령층, 고소득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부부의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태도는 약화되고, 양성평등적 태도가 강화되는 변화를 보였으며, 부부의 권력구조인 의사결정권에서도 부부의 공동 결정권과 부인결정권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여서 우리나라 부부관은 가부장적 태도에서 양성평등적 태도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의 가사분담태도와 실제 가사분담 형태를 비교하면, 부부 간에 공평한 가사분담 태도의 강화에 비해서, 실제 가사분담은 아직도 부인중심의 가사전담 형태로 이루어지며, 부부 간에 공평한 분담은 4분의 1에 불과하여서 부부관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부부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 내 부부관계는 가부장적 가족관에 근거한 위계적인 구조가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급속한 증가와 맞물려 부부간에 갈등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와 미성년자녀의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 및 자녀양육관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으로 오면서 기존 자녀에 대해 부여한 가치와 의미가 상당히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의 책임범위 또한 자녀의 학교 졸업과 취업을 기준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에서 탈피하려는 인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부모와 자녀관계는 의사통과 믿음 등 질적 측면에서 관계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관적인 만족도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는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가 기존의 수직적·비민주적 관계에서 수평적·민주적 관계로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에서 동거 형태와 교류는 정서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소가족화·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 형태는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나,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과 만남을 통한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인식하는 관계는 최근으로 오면서 친밀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의사소통과 이해도가 낮아져서 관계의 질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성인자녀의 학교 및 취업으로 인한 분거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며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비동거 구조와 결속력 약화는 노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여 부양환경에 부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제7장

가족문화의 변화: 일상적 가족개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제1절 가족 변동과 문화

제2절 개인의 복합적 가치관과 가족의식의 변화

제3절 가족의 의미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제4절 소결



제 7 장

가족문화의 변화: 일상적 가족개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제1절 가족 변동과 문화

지난 20-30년 동안 결혼, 부모됨, 주거형태 등과 관련된 개인의 가족 인구학적 행동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현재 20-30대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미혼상태에 있으며, 결혼한 커플의 10퍼센트 이상이 자녀를 낳지 않는다(통계청, 2020a; 2020b). 70대 이상 노인 중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하며 대다수가 1인 가구이다(정경희 외, 2017). 비단 노년기에만이 아니라 생애의 언제라도 혼자 살 가능성은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20세기 한국사회 특유의 가족중심성이 위기 또는 도전을 맞고 있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급격한 사회적 격변이 집중된 지난 세기 동안 한국인의 삶이 가족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정한 나이에 결혼하고 부모가 되어 자식을 기르고 노년이 된 부모를 신체적·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일은 일반적인 생애경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고 가치있는 일로 여겨졌다. 오랜 토착문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복지 제공처가 사실상 가족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가족중심성을 설명해주었다. 이러한 지난 세기의 경험과 비교하여 보면, 오늘날 결혼, 출산, 주거 등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한국인들의 가족중심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가치와 태도는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자주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1990년대 가족규모의 축소와 세대구성의 단순화(핵가족

화) 경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장현섭, 1993), 최근 비혼과 저출산 현상 등에 대해서도 문화적 전환과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계봉오, 김영미, 2016; 이병호, 2020). 이를 테면 1990년대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이혼 증가 경향이나 핵가족화 등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점차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권 등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주의의 확산과 ‘사회 발전’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을 2000년대 이후 비혼과 만혼,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의 현상에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탈물질주의, 개인주의, 탈근대주의 등이 이른바 변화를 초래한 이념적 원인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행동 및 가족형태의 변화가 가족문화의 변화, 즉 가족의 의미와 가치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간주하는 것은 선부르다. 가족으로부터의 자유를 표현하는 듯 보이는 ‘비혼’이나 ‘1인 가구’ 등의 ‘탈현대적’ 가족현상은 가족 없이 자족적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서가 아니라, 가족 형성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조건이 변화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젠더와 계층에 따라 구체적인 맥락은 다르지만 최근 개인들의 인구학적 행동이 극적으로 변화한 것은 개인과 가족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김혜영, 2016; 장경섭, 2019).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가족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의 변화를 새로운 가치와 이념의 도입과 확산에 따른 것으로 서술하는 것에는 난점이 있다.

가족인구학적 변화가 문화적 가치와 이념의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난 20-30년간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타당하지는 않다. 오히려 개인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와 가족가치는 반드시 그것이 체계적인 이념적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변화할 충분한 개연

성이 있다. 무엇보다 현대적인 사회제도 하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사회에 충원되어 왔으며, 민주화와 평등주의적 가치 등이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고용상황의 악화와 경쟁의 심화 등에 따라 시장주의적인 가치가 널리 확산되었다.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부터 단절된 채 유지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화가 극적으로 전개된 지난 20-30년 동안 개인들이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으리라 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추상화된 지배적 이념들을 중심으로 가족문화의 변화를 서술하기보다는, 행위자들의 일상적 가족 개념과 태도를 통해 가족 문화에 접근하고자 한다. 문화적 특성 그 자체가 가족의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앞 장에서 살펴본 가족실천의 여러 측면들에서 나타난 변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변화와 연속선상에서 가족에 대한 해석과 태도의 변화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사실 문화라는 개념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적어도 문화라고 할 때에는 단지 생활방식으로서의 문화뿐만 아니라, '의미와 가치'로서의 문화도 함께 지칭하게 된다. 특히 의미와 가치는 삶이 변화무쌍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형태나 양식을 갖도록 이끌고 주어진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거나 의미있게 만듦으로서 인간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Eagleton, 2021). 따라서 의미와 가치의 차원에서 지난 20-30년간 가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다룬다는 것은 현재 가족생활이 행위자들의 지향과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얼마나 지속적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에 개방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장에서 가족문화는 개인의 일상적 수준에서 발현되거나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개인들의 일상적 지식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여기에는 경험과 관계에 대한 해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상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들의 일상적 지식은 사회제도나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개인들이 가족에 부여하는 가치나 가족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제도나 규범, 가치체계를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동원된 이상과 가치는 개인들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른 ‘해석’이라는 틀을 통과하여 변형되고 조합되므로, 사회제도나 규범 수준에서 파악되는 이상과 가치와는 구분된다(Bourdieu & Wacquant, 2015).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지난 20여년 간의 가족의 변화를 문화적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20세기 동안 한국의 가족 문화를 지배했던 주요한 규범과 가치가 최근 20여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사회조사를 통한 결과 보고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기존의 집합적인 규범이 약화되고 있는가의 여부,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이념이 무엇인가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 연구는 이와 달리, 개인 수준에서 다양한 가치의 영역에 대해 어떤 태도들을 조합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과거의 집합적 이념이 새로운 집합적 이념으로 대체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포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과 2016년의 한국종합사회조사(김지범 등, 2017)에 포함된 가족가치관·성역할태도 문항을 분석하여, 가족가치관의 복합성과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개별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가족의 의미를 만드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가족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규범적인 내용이 중심을 차지해 왔다. 기존 규범의 안정성이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개인이

규범을 어느 정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구성원들이 실제로 가족생활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가족이란 의미를 만들어가는 행위자로부터 동떨어진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진 하나의 사고방식이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구성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된다는 시각을 받아들여(Gubrium & Holstein, 1997, p.113), 일상적 지식과 태도로서의 가족을 통해 가족문화의 변화에 접근하고자 한다.

제2절 개인의 복합적 가치관과 가족의식의 변화

1. 가족 이념의 복합성과 가족 개념의 다면성

20세기의 급격한 사회변동과정에서 한국 가족의 형태는 크게 변화하였다. 가족의 규모와 세대적 구성은 이미 소규모화되고 단순화되었다. 최근 20년 동안에는 가족의 축소를 넘어 가족 단위로 살지 않는 가구, 즉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의 형태적 구조는 크게 바뀌었지만, 가족의 가치와 의미도 것처럼 뚜렷하게 변화한 것은 아니다.

기존 연구들은 한국 가족의 문화적 성격을 부계혈연주의와 가족중심주의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규정해왔다. 지난 20세기 중반 이래 한국 가족문화의 변화에 관한 통상적인 서술로서 핵가족화, 탈전통화, 개인화 등은 모두 부계혈연주의와 가족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양상을 이론했던 것이다. 이미 20세기 중반 이후로 탈전통화는 자명한 경향으로 간주되었다. 일련의 가치관 연구들은 시계열 반복조사와 객관적인 가족가치관

척도 구성을 통해 부계혈통주의, 효 의식, 조상숭배의식 등과 같은 전통적 가족문화가 약화되는 경향을 파악했다(옥선화·성미애·신기영, 2000; 신수진, 1998; 유계숙, 유명주, 2002).

이에 따르면 전통주의 가족의식이 사회 집합적 수준에서 크게 변화한 시기는 1990년대였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이촌향도 인구이동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촌과 도시에 이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에 따라 가족의 외형은 핵가족의 형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부계혈연주의적 가족가치관은 큰 변화가 없었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탈전통화되기 시작하여(신수진, 1998) 200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유계숙·강민지·윤지은, 2018).

그러나 부계주의나 가계계승의식 등이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가족(결혼과 혈연관계)에 부여하는 의미와 중요성도 함께 약화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가족중심주의(또는 가족주의)와 상대적으로 저발달한 개인주의 등은 여전히 한국 가족문화를 설명하는 핵심어이다. 국제비교 연구 등에서 한국의 강한 가족주의 가치는 여전히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은기수·이윤석, 2005).

가족관계의 범위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축소된 가족관계 내에서는 높은 강도로 결속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전통적인 농촌촌락과 도시 이주 1세대에서 나타났던 3세대 동거는 1세대와 2세대의 동거로 단순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가 가족관계의 성격을 자동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 함인희(1995, pp.62-63)의 표현대로, 한국가족 문화의 변화, 즉 탈전통화의 성격은 단지 가족관계가 “공간적으로는 축소되고 시간적으로는 현재화”된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을 통한 가계계승의식과 같이 상징적이고 영속적 가계계승의식이 약화된

것은 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태도로의 전환 때문이지, 개인-가족 관계의 질적 변화나 가족을 구성하는 세대 및 젠더 관계의 변화 때문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이념을 중심으로 가치관의 성격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해왔다. 전통적 이념과 근대적 이념 사이에서 한국인들의 가족가치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는 중요한 연구관심사였다. 개인들의 의식과 태도는 무엇보다 사회집합적으로 공유되는 이념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전통적 이념과 근대적 이념 중 어떤 것도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장경섭(2001, p.165)은 다음과 같이 한국의 가족가치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인들의 가족 중심적 삶이 모든 가족성원에 의한 특정한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오히려 세계 어느 사회보다도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는 물론 한 가족 내에서도 가족 성원마다 상이한 가족가치관이 서로 조율되지 못해 많은 갈등이 생기며 사회적 및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에 의존하면 할수록 이러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미 해방 이후부터 한국인들의 가족의식이 유교적인 가치관 또는 부계혈통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가족가치관을 안고 사는 것은 전통문화 외에 식민지배, 전쟁,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상업화, 정보화에 이르는 일련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개인들이 노출된 결과”(장경섭, 2009, p.98-99)이다. 20세기

한국의 압축적 사회변동 과정은 전통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의 병존을 초래하였고, 그것은 가치와 이념의 측면에서 어느 하나도 우세하지 못한 양상이 항상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합적 이념의 배치상태에서는 상이한 이념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갈등이 단지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수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즉 개인 수준에서도 전통적 태도와 근대적 태도를 동시에 견지하고 어느 하나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세대 간 관계, 젠더관계, 가족제도 등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에서도 이러한 상이한 이념의 모순적인 공존상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성미애와 이재림은 성인자녀의 도구적 부모 의존 현상을 예로 들면서, 전통적 가족규범과 현대적 가족규범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유리하도록 규범을 편의주의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가족의 특징(성미애, 2006; Sung & Lee, 2013)이라고 주장한다. 부모세대는 성인자녀가 적어도 결혼한 이후에는 더 이상 부모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성인자녀가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줄 책임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성인자녀세대는 효 규범을 절대적인 것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부모의 노후부양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노년의 어머니에게 손자녀 돌봄을 맡길 때에는 그 젠더/세대적 전통관념의 모순을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개인적인 고마움의 문제로 사소화해버린다는 것이다(이재림, 2015).³⁾ 이러한 현상은 부모는 영원히 자녀의 생활

3) 함인희(2002)는 경제위기와 같은 조건이 규범적 표준으로부터 이탈하도록 만드는 힘과 더불어 가족에 의존하고 가족 단위의 연대를 강화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결혼/출산/주거 등에 있어 '탈전통적' 행동이 늘어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우선주의가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건 때문이다.

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관념의 지속이라기보다는, 자녀의 분거 및 독립 이후에도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생활 조건에 따른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급증하는 비혼 현상에서도 의미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이재경·김보화(2015)는 중산층 미혼여성들이 자신의 결혼을 전망할 때, 얼마나 가족에 대한 고려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보여준다. 박수민(2017)의 연구는 비혼여성들이 기존의 결혼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리고 그것과 대립되는 비혼여성 자신들이 추구하는 (결혼 외부의) 삶은 어떻게 묘사되는가를 분석했다. 이 연구는 비혼여성들이 두 유형의 서로 다른 삶의 형태를 묘사하는 데 있어 기성의 문화적 레퍼토리를 동원하고 인용한다고 보았다, 이미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의미체계들이 비혼이라는 급진적 행동을 기존의 방식으로 의미화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과 가족문화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초래하는 외부적 요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은 1970년대 이후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국면에서 성장하고 제도화되어 왔으며, 특히 1990년대 초중반과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중적인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페미니즘의 성장과 대중화는 사회운동과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규명되어야 하지만, 그 대중적 기반은 가족, 노동시장, 교육 등의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가족과 관련하여 페미니즘은 전근대적인 관습, 가부장주의, 남녀차별, 성역할 이데올로기 등에 도전할 수 있는 언어와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의 가족의식과 실천에도 영향을 미친다(김혜경, 2012).

탈전통화 경향 아래에서,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정당화하고 모양짓는 요소들로서 세대관계와 젠더관계는 단순히 전통적 부계주의와 완전한 평등주의라는 양극단으로 묘사될 수 없는 형국이다. 더욱이 한국사회

에서 가족중심성은 단지 개인의 태도나 도덕으로서가 아니라 생활질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20세기 후반 한국 가족의 핵심적인 문화적 특질로서 부계주의(남성편향성)과 가족중심성은 다양한 가족생활과 가족의식의 면면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조사자료와 심층면접을 통해, 최근의 변화를 확인하고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2. 분석자료와 방법

한국종합사회조사(이하, KGSS) 2006년과 2016년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KGSS는 성인 남녀의 가족가치관 문항을 2006년과 2016년에 반복 조사하여 이 두 시기 사이의 가족가치관 변화를 측정하기에 용이하다. KGSS의 가족가치관 문항은 특히 동아시아 가족가치관 조사를 위한 공통문항으로서 개인보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가족주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믿음, 세대관계와 젠더관계의 가족주의적 특징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표 7-1>과 같이 가족가치관 문항을 선별하였다. 이 문항은 2006년과 2016년에 반복 측정된 것으로서, 여타 국내 사회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가족주의 가치관을 질문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11개 문항은 의미에 따라 a영역, b영역, c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a영역은 젠더관계에 관한 문항이고, b영역은 제도적 가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이며, c영역은 개인-가족의 관계와 위계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세 영역을 가족가치관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로 파악한다. 각 문항에 동의한 비율은 표의 우측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a영역의 동의비율이 가장 낮고, c영역의 동의비율이 가장 높다.⁴⁾

(표 7-1) 한국종합사회조사(2006, 2016년)의 문항

	문항내용	동의비율
a1	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해도 괜찮다	15.5
a2	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38.0
a3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44.7
b1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은 장남이나 아들에게 있다	36.5
b2	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49.7
b3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반대=1)	71.9
b4	이혼을 하고 싶더라도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61.2
b5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반대=1)	54.9
c1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	75.2
c2	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70.0
c3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82.1

자료: 김지범 등. (201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복수의 가족주의가치관 관련 문항에 대한 개인의 응답패턴을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한다. 사회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잠재집단분석은 널리 활용되어 왔다. 특히 성역할태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된 잠재집단분석은 성역할 태도를 다면적인 태도유형들로 이해하고 태도유형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밝히는 데 활용되었다(Knight and Brinton, 2017). 이 장에서는 가족가치관의 다면성을 고려한 유형화와 이러한 태도유형 분포의 시간적 변화를 밝히는 데 이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 4) 이 문항들은 한 진술문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또는 7점 척도로 측정할 것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동의/반대의 이분척도로 변형하였다. 이는 '반대'와 '매우 반대'의 차이보다는 '반대와 '찬성'의 차이가 더 크다고 간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동의도 반대도 아니라는 응답의 처리방식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문항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태도의 역사적 성격에 주목했다. 이 문항들은 지난 1980, 1990년대 사회조사에서 매우 강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문항들이다. 개인들이 동의/반대의 확정을 꺼리는 상황은 전통적 가치를 의식해서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다. 따라서 중립적 응답은 모두 전통적 견해에 반대하는 응답으로 부호화했다.

잠재집단분석은 문항의 측정값 사이의 공변이 관계(covariant relationship)를 설명하기 위해, 관측된 값의 기저에 관측되지 않은(잠재적) 집단이 있다고 가정한다. 바로 그 관측되지 않은 잠재집단을 발견하는 통계적 방법이 잠재집단 분석이다(Collins and Lanza, 2010). 여기에서는 복수의 문항에 대한 개인별 응답패턴을 몇 개의 유의미한 집단(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데 이 방법을 활용한다. 가령 5개 문항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하면, 개인별 응답유형은 최소 1개에서 최대 $32(=2^5)$ 개에 이른다. 연구자는 이 방법을 통해 잠재집단의 수에 따른 통계치를 얻게 되는데, 그 통계치를 비교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이론적 지식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적합한 잠재집단의 수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되는 BIC의 값을 활용한다(김지현·강현철·한상태, 2015).

잠재집단분석의 강점은 개인별 응답패턴이 이렇게 분류된 잠재집단들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확률값으로 알려준다는 데 있다. 집단소속 확률값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나는 이러한 집단소속 확률값 그 자체를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가령 5개 문항에 대한 응답패턴이 3개 집단으로 분류된다면, 어떤 특성(독립변수)의 사람들이 1집단, 2집단, 3집단에 속하는가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처럼 동일문항을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조사한 자료를 통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행한 경우에는, 시점의 변화에 따라 이 세 개의 잠재집단 구성비가 변화하는가의 여부와 그 정도를 계산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집단소속 확률값을 이용하여 2006년과 2016년 사이 가족주의 가치관의 잠재유형과 잠재유형 분포의 변화를 분석한다.

3. 분석결과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서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쇠퇴하고 있다는 진단은 많았다. 그러나 탈가부장제 사회의 규범/이념적 풍경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규범/이념/선호의 배치를 측정하려는 개념적 도구가 일차원적이거나 이분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보다 풍부한 뉘앙스를 살려 변화의 방향을 실증하고자 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6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러한 가족주의 양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06년과 2016년에 모두 조사된 문항으로서, 세대관계, 젠더관계, 개인과 가족의 관계에 관한 문항 11개를 선별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실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잠재집단의 개수는 4개로 결정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잠재집단개수 선정의 기준으로 가장 선호되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값 최소 기준을 선택하였다. <표 7-2>에서 잠재집단 수 4의 BIC 값은 32678.77로서 잠재집단 수 5의 BIC 값인 32689.39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7-2> 잠재집단분석 1: 잠재집단 수의 통계적 확정

잠재집단 수	BIC
1	35675.33
2	32987.99
3	32732.35
4	32678.77
5	32689.39
6	32707.59

자료: 김지범 등. (201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가. 가족가치관의 네 가지 잠재집단

〈표 7-3〉과 〈그림 7-1〉은 4개 가치관유형의 개별 문항 동의율을 수치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가치관유형(잠재집단)의 문항별 동의율을 통해 각 가치관유형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11개 문항(진술문)은 성역할태도, 세대관계, 가족우선주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11개 진술문에 동의하는 것은 전통적 태도를 나타내고 반대하는 것은 탈전통(반전통)적 태도를 나타내도록 부호화하였다.

잠재집단1은 모든 문항에 대해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여주는 집단이다. 따라서 가장 탈전통주의적 태도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a2(남편이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와 a1(불경기에는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해도 좋다), b2(가계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낮았다. 이 집단은 명시적인 성차별에 반대하고 젠더에 따라 배타적인 역할, 의무,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는 태도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반차별주의적 태도는 다른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의율이 가장 낮은 유형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성의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모든 잠재집단 중 가장 낮은 비율로 동의하기는 했지만, 잠재집단1도 c3(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c2(자식은 부모에게 명예가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와 같이 가족 내 수직적 관계와 관련된 권위주의나 의무 등에 대한 반대 정도는 성차별주의와 성역할분리에 대한 반대 정도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이 집단의 성격을 반성차별 반전통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표 7-3〉 잠재집단분석 2: 가족가치관 유형과 특징

문항	잠재집단1	잠재집단2	잠재집단3	잠재집단4	합계
	반차별 반전통주의	반차별 가족주의	성역할옹호 반전통주의	전통적 가족주의	
a1	0.026	0.047	0.228	0.330	0.631
a2	0.009	0.081	0.635	0.840	1.566
a3	0.040	0.205	0.683	0.891	1.818
b1	0.148	0.354	0.238	0.620	1.361
b2	0.101	0.498	0.329	0.904	1.832
b3	0.377	0.911	0.559	0.885	2.733
b4	0.353	0.526	0.583	0.712	2.174
b5	0.330	0.740	0.515	0.762	2.346
c1	0.399	0.804	0.815	0.951	2.969
c2	0.437	0.731	0.656	0.905	2.729
c3	0.586	0.857	0.858	0.955	3.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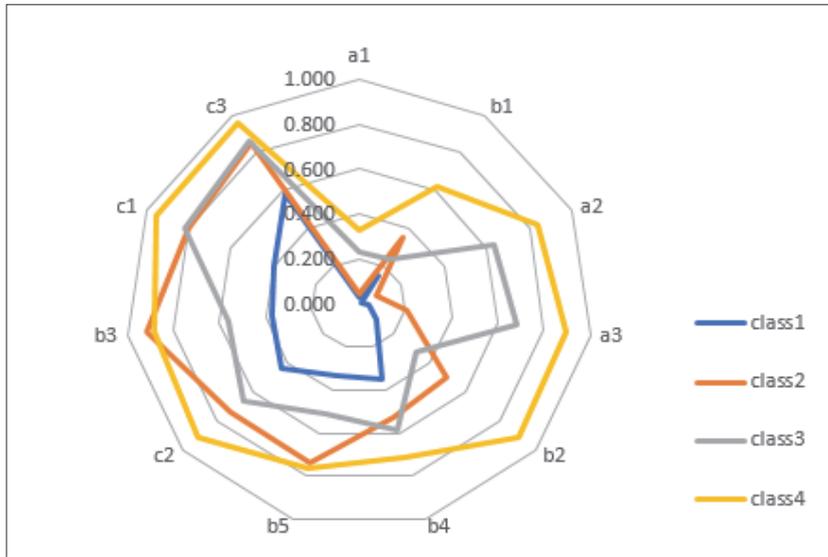
자료: 김지범 등. (201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주: 각 문항의 값은 조건부 동의확률로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며, 합계는 4개 집단의 합계로서 0~4의 값을 갖는다.

반면 잠재집단4는 모든 문항에 대한 동의확률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4개 집단 중 잠재집단4는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가치관을 대변한다. 특히 개인에 대한 가족의 우선성으로 요약되는 강한 가족주의적 가치관(c1: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의 안녕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확률이 0.95로 측정되었다. 그와 연관된 범주들, 특히 아버지의 권위와 아들의 책임에 대한 높은 동의율이 발견된다. a1(‘불경기 여성우선해고’)에는 동의 정도가 낮았지만 남성과 여성이 상이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 관념에 대한 지지정도가 강하고, 결혼, 이혼, 출산 등에 대한 관념도 이와 연관하여 전통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노동 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른 상이한 책임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

가 더욱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잠재집단4 역시 모든 집단 중 가장 동의비율이 높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고용과 해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대적인 태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잠재집단4는 가부장적 가족주의로 명명한다.

[그림 7-1] 가족가치관 잠재집단의 문항별 조건부 동의확률 분포



자료: 김지범 등. (201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잠재집단2와 잠재집단3은 기존의 가치관 유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을 보여준다. 불경기에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각(반차별주의)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은 아들(장남)에게 있다든지 가계를 잇기 위해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잠재집단4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잠재집단2의 복합성은 이들이 아들 중심의 가족문화에서 성장하고 생활해온 이들로써 아들 중심의 세대관계에서 파생된 규칙을 내면화하고 있

지만, 부부관계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과 가계 기여를 이미 생활 속에서 실천하거나 수용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잠재집단3은 앞의 잠재집단1이 전반적으로 반대했던 성차별/성역할분리에 대해 선택적인 찬성과 반대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계계승이나 노부모부양 등을 아들이나 장남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가족의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부부간 역할배치는 성역할 분리를 지향한다. 흔히 남성생계부양자/여성전업주부의 성역할 배치를 전통적 농업문화와 산업사회 임금노동 문화 모두를 아우르는 현상으로 이해하지만, 정확히 보자면 남성과 여성의 배타적인 성역할 배치는 산업사회적인 현상이다. 결혼제도에 대한 태도(b3~b5)가 잠재집단1에 이어 가장 자유주의적인 태도에 가깝다는 것도 잠재집단3이 전근대적인 가치관보다는 근대적인 가치관 내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잠재집단3은 성역할 분리형 핵가족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

나. 가족가치관의 변화: 2006년과 2016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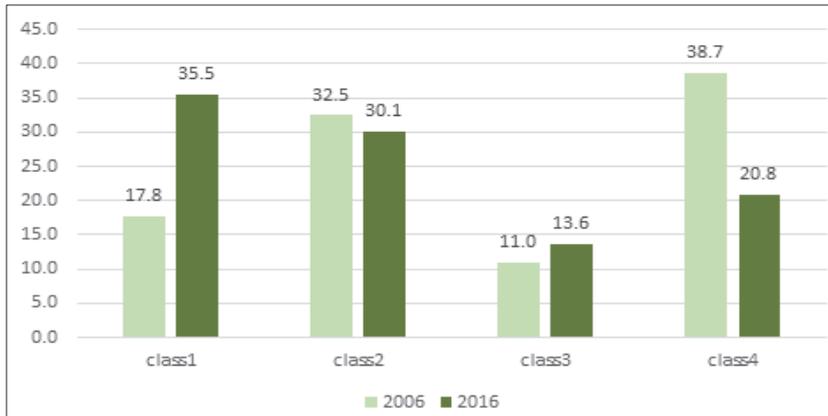
그렇다면 잠재집단1에서 잠재집단4에 이르는 네 개 잠재집단의 상대적 비중은 2006년과 2016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2006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집단은 잠재집단4였다. 성역할 분리와 위계를 지지하고 개인보다 가족이 우선하며, 가족(자녀와 부모)을 위해 희생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집단이 잠재집단4였다. 그러나 2006년에도 이미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06년에 잠재집단1의 비중은 17.8퍼센트에 불과하여, 전통주의적 가족가치관이 수적으로 우세한 가치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주의적 가족가치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32.5퍼센트에 해당하는 반

차별주의적 전통주의(잠재집단2)였다. 그 다음을 차지한 것이 잠재집단3으로서 11.0퍼센트 비중이었다.

2016년에는 이러한 구도가 크게 바뀌었다. 10년 전 약 40퍼센트를 차지했던 전통주의(잠재집단4)는 20.8퍼센트로 하락했다. 반면 10년 전인 2006년 17.8%의 비중을 불과했던 잠재집단1은 2016년 조사에서는 35.5%를 차지하여 가장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가장 우세한 가치관인 잠재집단4가 전체의 38.7%에 불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 가장 우세한 가치관인 잠재집단1이 차지하는 비중도 35.5%에 불과했다.

[그림 7-2] 4개 잠재집단비중의 변화: 2006년과 2016년의 비교



자료: 김지범 등. (201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년과 2016년 사이, 잠재집단2의 비중은 근소하게 감소했고 잠재집단3의 비중은 근소하게 상승했다. 여전히 이행기적 특징인 반차별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약 30퍼센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마찬가지로 핵가족지향의 자유주의적 시각을 보여주는 잠재집단3은 2006년이나 2016년이나 그다지 높은 비중을 점하지는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가족의 의미와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

1. 연구방법과 자료: 초점집단 구성

한국인의 가족태도와 가치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두 시점의 객관적 비교에 용이한 대규모 양적 조사 자료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평균적인 한국인의 가족가치관이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선호되었다. 그러나 특정한 규범적 진술문에 대한 동의 또는 반대 형식으로 측정된 조사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동의여부 이면의 의미체계와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수반된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지만, 전통적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을 해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2절에서 KGSS 자료의 잠재집단분석은 네 가지 가치관 유형을 보여주었으며,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고 개인의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종속에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앞서 2절에서 고찰한 가치관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행위자들이 가족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족관련 실천과 선택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해 한국 가족변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가족의 의미, 가족의 범위, 가족관계(세대 및 젠더)에 대한 견해 및 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가치를 집단면접 방식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2010년대 이후 한국가족문화의 변화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초점집단면접과 집단설계

이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초점집단면접에서 초점은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도출되며 자료는 집단 내 상호작용으로부터 생산된다”(Morgan, 1997, p.6). 집단면접의 참여자들은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설득력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정교화하여 전달한다. 특히 유사한 사회적 위치(성, 연령, 계층 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된다면, 집단면접의 상황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 갖고 있는 태도나 가치를 더욱 선명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 줄 수 있다(Morgan, 1997).

이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된 여러 개의 초점집단을 각각 면접하여, 각 집단의 특징적인 가족의식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이 연구는 이미 결혼을 하여 가족을 형성한 사람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미혼자와 기혼자는 가족태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미혼집단은 가족가치와 젠더/세대 관계에서 개인의 자율을 강조하는 편인 반면, 기혼집단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개인보다 가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혼집단은 상대적으로 변화에 둔감하고 생애과정의 경과에 따라 더 보수적이거나 가족지향적인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했을 때, 기혼집단 내에서의 가족의식과 태도를 관찰하는 것은 변화의 정도와 성격을 과장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대졸이상 고소득집단으로 한정하여, 사회

계층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언론이나 대중문화, 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과대 대표되어 있는 집단이다. 1980-90년대 급격한 근대화/산업화로 인한 의식변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 도시 중산층 고학력자들이었다. 그러한 전제를 2000년대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한편으로 가족문화는 계속해서 탈전통화되고 개인주의나 페미니즘 등 비전통적인 이념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한 추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집단이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중산층은 고유한 보수적 가족문화의 담지자들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인구집단 중에서 가장 변화에 민감한 집단이나 개인을 통해 가족의 변화와 다양화를 논의하였다. 이와 달리 중산층 기혼자(유자녀 남녀)를 대상으로 설계한 이 연구에서는 가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경제적으로 안정된 대졸 이상 도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참고로 본 조사는 참조집단으로 미혼집단과 중위소득 집단을 대상으로도 FGI를 실시했다.

5개 집단(과 2개 참조집단)에 대한 면접은 2020년 8월 18일~2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제시한 모집 기준에 따라 외부 조사업체가 위탁을 받아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연구자가 인터뷰 상황을 관찰한 것과 녹취록 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나. 초점집단 설계와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기혼자(유자녀 남녀)를 대상으로 설정한 후, 연령과 젠더에 따라 집단을 다시 구분하였다. 애초에 모든 집단의 참여자는 6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불참한 경우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면접이 이루어졌다. 25-34세 기혼남성(집단 1)과 기혼여성(집단 2)은 나이가 가장 어린 집단이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혼 경과년수가 짧다.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35-49세 기혼남성(집단 3)과 기혼여성(집단 4)은 모두 자녀가 있으며 자녀의 연령(첫 아이 기준)이 낮게는 7세에서 18세에 걸쳐 있다. 집단 1부터 집단 4까지 모든 기혼집단에는 맞벌이와 남편외벌이가 포함되어 있다. 기혼여성 집단(집단 2와 집단 4)의 면접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현재 남편외벌이 상태에 있는 경우 육아나 최근의 코로나 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결혼 직후부터 현재까지 상당 기간의 맞벌이 기간을 거친 경우가 절대적인 다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5(55~69세 결혼한 자녀를 둔 남녀)는 남녀를 모두 포함하며 한 명 이상의 자녀가 결혼한 경우를 모집하였다. 이것은 기혼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기혼자녀 측의 시각과 노인부모 측의 시각을 대조해보기 위한 것이다.

(표 7-4) 5개 초점집단 구성과 참여자 특징

구 분	나이	자녀 수 및 나이	경제활동	비고	
집단 1 25~34세 기혼남성	A 이00	만 28세	5세, 3세	맞벌이	-
	B 김00	만 34세	5세, 3세	외벌이	-
	C 신00	만 32세	6세, 4세	맞벌이	-
집단 2 25~34세 기혼여성	A 김00	만 28세	무자녀	맞벌이	사무직
	B 홍00	만 26세	무자녀	남편외벌이	코로나 휴직
	C 송00	만 32세	5세, 6개월	남편외벌이	임신 후 퇴직
	D 홍00	만 34세	3세	맞벌이	간호사
	E 김00	만 33세	3세	남편외벌이	-
집단 3 35~49세 기혼남성	A 장00	만 35세	6세	맞벌이	엔지니어
	B 이00	만 39세	2세	남편외벌이	건설회사 사무직
	C 최00	만 40세	9세	남편외벌이	무역회사 사무직
	D 이00	만 43세	5세, 9세	남편외벌이	유통업
	E 하00	만 49세	18세	맞벌이	일반 사무직
	F 전00	만 48세	15세	맞벌이	금융 IT
집단 4 35~49세 기혼여성	A 조00	만 35세	13세, 10세	맞벌이	보험회사 사무직
	B 김00	만 36세	7세, 3세	남편외벌이	코로나 휴직(간호사)
	C 김00	만 41세	11세, 8세	맞벌이	일반 사무직
	D 정00	만 44세	12세	남편외벌이	아이 9살 때까지 일함.
	E 백00	만 45세	15세	맞벌이	일반 사무직
	F 이00	만 48세	18세	남편외벌이	-
집단 5 55~69세 결혼한 자녀가 있는 기혼남녀	A 이00	만 57세 남성	30세(결혼), 22세	배우자, 미혼자녀와 동거	
	B 안00	만 58세 여성	35세, 32세(결혼)	배우자, 미혼자녀와 동거	
	C 나00	만 64세 남성	31세(결혼), 28세	배우자, 미혼자녀와 동거	
	D 이00	만 64세 여성	40세(결혼), 38세, 31세(결혼)	배우자, 미혼자녀와 동거	
	E 백00	만 66세 남성	38세(결혼), 35세	배우자, 미혼자녀와 동거, 퇴직 후 경제활동	
	F 한00	만 65세 여성	40세(결혼), 37세	기혼자녀와 동거, 정년퇴직	

다. 구조화된 면접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진술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해당 쟁점에 대한 일반적인 규범이 존재하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핀치와 메이슨(Finch and Mason, 1991, p.1994)이 1980년대 영국 사회에 세대 간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범이 존재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구조화된 면접방법을 사용하였다. 핀치와 메이슨은 ‘일반적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자의 제3자적 시각과 답변을 통해 사회규범의 존재를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들은 당시 영국 사회에 친족권 의무와 책임에 대한 합의나 합의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본 연구는 집단면접 상황에서 이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시각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아래와 같이 구조화된 질문영역을 구성하고 각 영역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개의 연구집단과 2개의 참조집단에 대해 같은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상호 대조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설계는 집단면접 상황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뿐, 전체적인 논의의 내용을 미리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은 질적 연구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각 질문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해석과 응답방식에 따라 대화의 내용은 달라졌다. 또한 각 집단의 생애주기와 성별을 고려하여 질문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을 달리한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FGI 주제와 세부내용은 다음 <표 7-5>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에서 면접 결과와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표 7-5〉 FGI 주제와 세부내용

주제	세부내용
가족의 의미와 범위	- 가족의 이미지 - 가족 범위의 기준 - 결혼의 의미: 비혼 동거, 비혼 출산, 동성애 가족 등에 대한 태도
가족 조직의 성격	- 역할구분과 권력위계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개인과 가족의 관계	-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나의 위치 - 배우자와의 관계 및 세대(자녀 및 노부모와의) 관계

2. 초점집단 면접 결과

가. 가족의 일상적 개념

1) 가족의 이미지

우선 중산층 가족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이미지와 가족의 범위를 통해 일상적 가족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질문했고, 그러한 이미지의 가족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가족구성원을 나열하였고, 비관습적인 가족유형들을 예로 들어 이러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는가를 질문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일상적 개념을 구성할 수 있었다.

우선 가족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애뜻함’, ‘따뜻함’, ‘미안함’ 또는 ‘든든함’ 등과 같은 정서를 표현하거나, ‘동반자’, ‘내 편’, ‘울타리’, ‘공동체’, ‘핏줄’ 등 가족관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40대 중년층에서는 가족구성원에게 갖는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

다. 젊은 층에서는 친밀성이나 절대적인 지지와 같이 가족구성원에게 기대하는 바를 통해 가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년층은 친족제도나 법적인 규정을 의식하고 가족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집단 간의 차이는 대략적인 것일 뿐 확고한 것은 아니다.

여러 연령층 남녀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가족 이미지는 그 자체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가족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족에 대한 통념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족을 정의하거나 느낌을 설명한 것이다. 이하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이들이 밝힌 가족이미지의 새로움보다는 그러한 가족이미지를 동원하는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40대 기혼남성들은 '애뜻함'과 같은 연민의 정서나 미안함 등으로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묘사했다. 이들은 다른 집단과 달리,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집단으로 가족을 정의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기혼남성들은 가족에 대해 편익을 제공하고 만족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도 애뜻함을 생각했었는데요. 가족은 그런 거 같아요. (...) 잘해줬다고 생각을 해도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 뭔가 좀 부족한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못해준 거에 대한 애잔함이 또 있고(43세 기혼남성, 3-D).

가족이라고 하면 애뜻함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제 위치가 누군가의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자식이기도 한 입장이다 보니까 애들이 커가는 걸 보면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집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못 줬던 미안함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도[에 대해서도] (...) 그런 부분에서 애뜻함 같은 걸 느끼죠(48세 기혼남성, 3-F).

상대적으로 젊은 기혼남성집단에서는 가족을 동반자나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는 팀으로 묘사했다. 젊은 기혼남성들은 가족을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년 남성들이 보여준 일방적인 책임의식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젊은 기혼여성집단에서는 내 편, 따뜻함, 지지 등을 가족과 연관지었다. 참여자들은 타인과 달리 자신을 특별히 보호하고 아껴주는 관계로 가족관계를 이해했다. 특히 여성 참여자들이 가족을 보호와 지지집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가족관계가 주는 특수한 만족은 '내 편'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가족은 친밀할 뿐만 아니라 지지하고 후원하며 외부로부터 가족구성원을 지켜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한테는 굉장히 따뜻하고,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구분되어있는 사람이고... 제일 가까운, 가장 가까운(33세 기혼여성, 2-E).

무조건 나의 편. 음... 제 의견을 들어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28세 기혼여성, 2-A).

저도 비슷한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제일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닐까(26세 기혼여성, 2-B).

가족의 이미지에 대한 이상의 진술들은 실제 가족의 현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조건 아래에서 가족을 해석하는 문화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Holstein and Gubrium, 1999).

이상적 가족은 현실적 가족과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이상적 가족에 대한 진술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은 수많은 곤란에 부딪혀 혼란과 불안정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족의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채로 번성할 수 있는 것이다(Gillis, 2004, pp.989-990).

가족학자들은 가족구조와 가족행태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함축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들은 점점 더 가족의 정서적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 생활에서 개인들이 원자화될수록 친밀함과 소속감을 더욱 원하고 최종적인 보호망으로서 가족의 보호적 기능을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다(이여봉, 2018, p.377).

연구참여자들이 밝힌 따뜻하고 보호적인 가족의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 외부의 사회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지난 20-30년간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노동시장의 불안정화, 치열한 경쟁 등으로 특징지어져 왔다.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통해 가족을 확대해가는 일은 평범한 가치의 산물이 아니라 능력과 자원을 갖춘 상태의 표현이 되었다. 이에 따라 행태적 가족은 크게 변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따뜻함과 무조건적인 지지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현실이 가족행태를 크게 바꿀수록 그러한 사회와 정반대의 기능과 가치를 제공해주고 지지하는 가족에 대한 기대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 의무와 헌신의 강도가 높은 40대 여성들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한 명 이상 두고 있고, 결혼 생활도 오래 한 40대 여성들은 가족에 대해 더욱 양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현재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거나 아이양육 때문에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들은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희생과 포기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

이다. 그러한 이 여성들 사이에서도 가족이 제공해주리라 기대하는 것의 이미지가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이란] 내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요. 그런데 조금은 약간 족쇄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44세 기혼여성, 4-D).

저는 부정적인 게 많기도 한데, 긍정적인 게 요만큼만 있어도 [부정적인
감정을] 엮어요. 긍정은 자그마할 수 있는데...(41세 기혼여성, 4-C),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게 많이 있지만, 그조차도 가족이기 때문에 굉장
히 일순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고, 덮어지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제가 살아가
야 할 에너지, 힘을 얻는 그런 구성원이라고 생각해요(45세 기혼여성, 4-E).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징적 가족에는 도덕적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 40대 기혼남성들이 가족에 대해 갖는 애뜻함이라는 정서에는 가족구성원의 행복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의식(역할 기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책임과 의무의 수행자이고자 하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도덕적 측면은 일과 가족 사이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가족에 부여하는 가치에도 나타난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 전후보다는 자녀 출산 전후로 인생에 대한 생각
이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것에 정성을 쏟고 또 몰두를 하는 것도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그것을 위해서는 저도 건강해야 하고, 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요. 그런데 이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화목과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구요(45세 기혼여성, 4-E).

요컨대,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현대적 가족을 전통가족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생활에서 개인들이 원자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용 등에서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가족이 제공하는 안전과 보호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대에는 자기 자신의 역할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다. 화목하고 안락하고 친밀한 가족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도 감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일상적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다. ‘내 편’이 되어 주는 사람들, 외부의 위협과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울타리, 내가 책임지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 언제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미안함과 애뜻함의 대상이 가족 개념화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이처럼 현재 결혼생활 내부에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관계의 가치를 정서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의 제도적인 측면(법적 결혼과 혈연관계)이 사소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본 FGI에서는 비관습적인 동거형태들을 나열하고 이 중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관계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집단 내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집단 간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진지한 가족관계로 생각한다면 어떤 제도적 형태를 취하든 가족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부분의 집단에서 개진되었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서 참여자들의 다수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미혼 남녀’라든지, ‘법적 혼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혼동거 중인 동성커플’에 대해서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러한 태도의 근거에 표명하지 않은 차별주의적 정서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집단면접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 무엇보다 가족의 요건이었다.

가족의 공통분모는 책임감과 지속성이었다. 참여자에 따라 그러한 책임감과 지속성이 법적 승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경험에서 나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간혹 혈연관계 그 자체가 가족을 묶어주는 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모든 경우, 가족의 정체성을 지시하는 공통분모는 쉽게 해체되지 않아야하고 외부로부터 그 관계의 안정성을 승인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실효성있는 책임과 의무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가족이라는 것이었다.

한편에 울타리라는 사적 보호망으로서 가족이 있다면,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기억과 경험의 공동체로서 가족이 있다. 그것은 법과 혈연과 같은 관계 외부적 규정에 의해 구축된 배타적이고 밀착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친구 같은 경우도 좋을 때는 같이 붙어 있다가도 힘든 일이 있으면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 같은 경우는 힘든 부분에서도 돌아서진 않잖아요. 같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좋은 시절도 있지만 힘든 시절도 같이 겪어가는 게 가족이 아닌가 생각해요(44세 기혼여성, 4-D).

다들 부부싸움도 한 번씩 해보셨겠지만 진짜 저도 끝까지 가다가 이게 법적으로 맺어 있는 그런 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35세 기혼남성, 3-A).

결혼이나 이혼이나 동거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만든 사회적 규범안의 제도에 의한 표현이지 가족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동거인이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고 보는 건 아닌 거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들이 갖는 유대감이 어느 정도냐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48세 기혼남성, 3-F).

어떤 참여자들은 가족을 진정한 관계이고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관계로 이해했고, 그럴 때 가족애란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집단 1의 공통점)와 같이 낭만주의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처럼 나 자신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진정한 관계에 대한 열정이 가족관계에 숨어 있다는 것은 가족의 근대적 성격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욱 현실적인 가족은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것”(4-D), ‘내 자신이 가장 뒷전으로 밀려나도록 만드는 관계’(4-B), ‘굉장히 많은 것을 희생하도록 만드는 관계’(4-E), 결국 “나의 족쇄”(4-A)라는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이 이러한 자아와 가족 사이의 긴장을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도시 중산층 기혼남녀가 인식하고 있는 가족은 법과 혈연이라는 구속 내에서 보호와 정서적 유대를 제공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한편으로 기꺼이 내 자신을 내놓도록 만들 만큼 진정한 관계로 이해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아에 위협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관계였다. 가족은 여타의 친밀한 관계들과 혼동되지 않았으며, “남(타인)”으로부터 나를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관계로 기대되고 있다.

2) 가족의 범위

아래 표는 2015년 가족실태조사에서 결혼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지 않는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자신의 가족으로 인식하며, 비슷한 비율로 형제자매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었다.

(표 7-6) 결혼한 사람들의 주관적 가족범위 (2015)

구 분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성	86.5	75.0	72.6	52.1
여성	82.9	71.3	68.6	48.9
전체	84.9	73.3	70.4	50.4

주: 각 친족관계에 대하여 '우리 가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으로 측정함.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항목은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따로 살고 있는 유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2015년 가족실태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최선영(2020, p.212)에서 재인용

이렇듯 넓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범위와도 일치하지 않는 가족범위가 어떻게 유지되고 이해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와 그 관계들의 우선순위를 질문했다.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가족이라는 어휘 자체가 미분화되어 여러 종류의 관계가 모두 가족이라고 뭉뚱그려진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해석하고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을 드러내었다. 그러한 과정은 참여자들이 과연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즉 가족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결혼한 커플의 절대 다수는 새로 독립된 주거지를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제단위를 꾸려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 다수는 자신의 가족 범위 내에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포함시켰다. 25-34세 집단 1과 집단 2, 35-49세 집단 3과 집단 4에서 다수의 견은 부모와 형제자매를 가족에 포함하였다. 흥미롭게도 가장 고령집단인 집단 5에서는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가족이라는 핵가족 의식이 나타났다.

결혼한 지 몇 년 경과하지 않은 젊은 집단에서는 결혼이전부터 맺어왔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지속됨으로써, 가족의 범위에 부모와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양상이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은 오랜 가족생활을 함께 해온 경험과 기억의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은 결혼 이후에도 부모와 주말과 여가를 함께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결혼 경과 년 수가 10년을 넘긴 40대 집단에서도 이러한 견해가 나타났다. 이들이 가족의 범위를 부모와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넓게 유지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친밀성이나 기억의 문제라기보다는 혈연관계와 가족을 동일시하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결혼 후 경제와 주거를 분리한 부모와 성인자녀 관계를 가족 개념으로 포함하려는 시도에 갈등과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부모를 둔 중산층 젊은 기혼남녀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경제적/시간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된 가족개념으로 인한 긴장이 덜 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세대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노년세대는 가족이란 함께 사는 식구를 지칭한다고 단순하게 가족을 정의했다. 물론 여기에는 지나온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추(‘저희 때도 다 그랬어요’)와 기대하는 대로 자식들이 따라주지 않는 데서 오는 ‘체념’(‘자식이니 가족은 아닌 거예요’)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의 부모를 가족에 포함하는 것과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으로 포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양측 부모 및 형제자매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포함할 것인가는 훨씬 더 선택적인 문제였다. 부계주의적인 가족의식을 전면에 내세우는 연구참여자들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원칙적으로 아내(또는 남편)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가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

지만, 그들 각각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참여자 D는 배우자의 부모나 친인척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말했다. 참여자 D는 혈연과 혼인으로 형성된 넓은 범위의 친인척 집단으로부터 ‘내 가족’을 구분하면서 결국 가족이란 어려울 때 무조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편찮으셨을 때 실제로 병간호를 해주 시고 옆에서 소위 수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식과 부인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친척 분들, 넓은 범위로 가족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했는데 어쩌다 병문안 한두 번 정도 와주는 정도인 거고 실제로 그런 어려운 일이나 조금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지원해주고 케어해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말 가족, 그런 사람들은 딱 그 범위, 부인과 자식들. 딱 그 정도 선인 거 같아요(43세 기혼남성, 3-D).

참여자 B는 거리감이 없이 가까운 사람들로 가족을 정의했다. 이러한 그의 기준에는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원가족 부모와 형제자매도 포함되었지만, 배우자의 원가족은 제외되었다.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요,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번호를 누르면 이거는 가족이 아닌 거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눌러서 ‘뭐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39세 기혼남성, 3-B) 배우자의 부모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참여자 F에게 가족은 공동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그러한 참여자 F에게는 결혼으로 맺어진 배우자 인척과의 관계는 기존 자신의 가족 범위에 편입되기가 어렵다.

우선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공동의 어떤 관심사나 추억들을 공유할 수 있는. 특히 무슨 일이 있으면 모이고 때 되면은 같이 놀러 가기도 했던, 그 교집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저는 거기까지는 가족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48세 기혼남성, 3-F).

참여자 A와 C는 유일하게 배우자의 부모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한 기혼 남성이었다. 참여자 A는 자신과 배우자 부모(장인, 장모)와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친근하고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좋은 관계이므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 개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집단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동거단위인 핵가족(부부와 미혼자녀)으로만 한정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족의 범위를 핵가족으로 제한하는 것,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전통적 규범이나 가족윤리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주관적인 가족 범위가 그러한 규범적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기혼남성들도 제도와 형식보다는 감정, 기억, 실질적인 관계의 강도 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무적 가족과 실질적 가족 사이의 괴리는 기혼여성 참여자들이 더욱 민감하게 의식한다. 25-34세 기혼여성 집단(집단 2)과 35-49세 기혼여성 집단(집단 4)에서 참여자들이 친족들 사이에서 내 가족의 경계를 확정하는 일은 기혼남성들보다 더욱 예민한 문제로 나타났다.

배우자까지는 내가 선택을 한 거고, 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고, (...) 제 부모님은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 아직까지 시부모님들은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남편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가족이긴 하지만, 정말 내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26세 기혼여성, 집단 2-B).

저도 친정 부모님까지 가족이라는 느낌은 있는데, 사실은 시부모님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친정 부모님은 제 그냥 근본적인 가족이었고, 결혼을 하면서 늘어난 지금의 가족이 있고요. 시부모님은 약간 의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44세 기혼여성, 집단 4-D).

집단 4의 여성들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부모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유급노동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친정부모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그러한 부모의 도움은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와 맺었던 사랑과 후원, 지지와 지원의 관계가 지속되고 심지어 강화되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달리, 일상적인 지원과 접촉이 덜한 시부모와는 친부모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여기에는 남편의 부모가 며느리인 자신들을 대하는 가부장적 태도에 대한 반감도 포함되어 있었다.

친정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시부모와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면서('내 편이 되어주고') 실질적인 도움(경제적 원조나 돌봄 제공)을 줄 수 있는 관계를 가족의 요건으로 간주하는 가족의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낮은 참조집단(집단 7)의 기혼여성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었다.

저도 가족이라면 예전 같으면 대가족끼리 살았으니까 그때는 가족이 부모님까지 생각했을 거 같은데, (...) 우선 저희 가족만이 딱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자매들이나 형제들도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나 오빠들도 자기만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요즘의 가족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48세 기혼여성, 참조집단 7).

친족 간에 주고받을 경제적 자산이나 시간(돌봄노동)의 여유가 없는 중간소득층에서는 결국 소득을 공유하는 단위로 가족은 협소하게 정의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중산층 남성에게서도 나타난다. 그는 “내 월급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35~49세 기혼남성, 4-C)이 가족이라고 날카롭게 가족을 정의했다. 그러한 가족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부가적인 설명이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소득상위계층은 대체로 가족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특히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 내에 포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거리감 없는 가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의 공유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여가를 함께 보내거나 재정적, 시간적 자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넓은 범위의 가족 내부에는 우선순위와 중요성이 서로 다른 하위 관계들이 내포되어 있다. 서구사회에서 발전한 근대적 핵가족의 중심이 부부관계였던 반면, 한국의 근대적 핵가족은 부모-자녀관계가 핵심을 차지해왔다(이재경, 2003). 본 연구참여자들에게서도 자녀의 중심성이 확인된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가족생활의 중심은 자녀이다.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알려졌다.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우자는 제가 없어도 혼자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성인이고... 아이는 제가 없으면 안 되고 지켜줘야 하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1순위예요(36세 기혼여성, 4-B).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는 돌봐줘야 하는데, 남편은 언제든지 헤어지고 따로 자립해서 각자 살 수 있는 (웃음).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내가 낳았는데 이 아이는 내가 어느 정도 부양할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애는 내가 돌봐야 하는 아이고, 남편은 돌보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48세 기혼여성, 4-F).

어떤 의미에서 배우자는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함께 수행하는 양육의 동반자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의 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집단 4의 참여자 C가 말하듯이, 아이를 위해서도 부부관계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는 부부관계를 되돌아볼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함께 인생을 헤쳐 온 배우자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면서 배우자가 다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부상하기도 한다.

저도 원래는 자식이 먼저였어요. 아이가 먼저고 그 다음이 남편이었는데, 몇 년 전에 둘째가 좀 어렸을 때 남편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 너랑 나랑 헤어지면 아이가 없는 거야. 우리 사이가 중요해라고 해서 곰곰이 몇 년을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헤어지면 그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헤어져도 아이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애네들 인격 형성에 좋은 것 같아서 바뀌었어요. 남편이 1순위로(41세 기혼여성, 4-C).

전에는 아들이 먼저였어요. 아내는 저보다 나이가 좀 연상인데 요즘은 갱년기도 오고 같이 여생을 겪었고 여러 가지로. 또 처가 쪽도 외롭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먼저 위해준다고 할까? 생각한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49세 기혼남성, 3-E).

그렇다면 가족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많은 응답자들은 자녀-배우자-부모-나의 순서로 자신을 가장 하위에 위치시켰다. 자신이 가장 마지막에 놓인다는 것에 대해 한 여성 참여자는 그런 게 가족이라고 설명했다. 나를 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44세 기혼여성, 4-D).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부양하고 돌보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중심’이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드러내듯이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가 동원되고 있다.

제가 있어야 저희 가족을...음... 뭐랄까, 가족을 케어하는 사람으로서도 우선 제가 중심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없으면 가족의 의미가 많이 흩어지잖아요. 어차피 저를 중심으로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러다 보니 제가 제일 건강하고 제가 중심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48세 기혼남성, 3-F).

그러나 여성 참여자들도 가족을 잘 보살피기 위해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자아와 가족(헌신)은 분명 뚜렷한 긴장의 요소였다. 헌신 그 자체에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 희생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무너지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와 가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중산층 가족에서 중심은 부부인가 자녀인가가 지금까지 가족관계를 해명하는 핵심질문 중의 하나였다면, 실제 가족생활을 해나가는 행위자들의 수준에서 핵심질문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였다. 자녀중심적 가족생활로 인해 부부관계가 주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부모로서의) 의무가 만족을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후반 한국 가족문화는 핵가족의 원리와 대가족의 원리가 갈등과 긴장을 내포한 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다(이재경, 2003). 한국의 근대적 가족이념이 핵가족주의와 대가족주의의 절충에 있다고 한다면, 21세기 초반 중산층 가족 역시 그러한 절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가족주의를 떠받치던 제도와 이념은 개인들의 주관적 가족의식을 더 이상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핵가족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족 생활이 이상이나 규범과 일치하는가가 아니라, 개인에게 정서적 만족과 도움이 되는가에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기능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소규모 핵가족 내에서 충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대(혈연)적으로 연결된 부모가족과 성인자녀가족이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연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나. 세대관계와 가족

한국인의 일상적 가족 개념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가족의 범위가 부모와 형제자매로 넓게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관계가 밀접할 뿐만 아니라, 의무와 권리 등 제도적 요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세대적 위치와 무관하게 사회(또는 가족) 구성원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를 수 있는 규범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세대간의 관계를 그러한 규범과의 일치여부로 파악될 수 있는가에 있다. 오히려 현재 중산층 성인자녀세대는 규범에 따른다는 감각없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모세대의 이타주의적 가치를 편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적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성미애와 이재림은 전통적 가족규범과 현대적 가족규범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유리하도록 규범을 편의주의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가족의 특징(성미애, 2006; Sung & Lee, 2013)이라고 지적하며 성인자녀의 도구적 부모 의존 현상을 그 예로 들었다. 부모세대는 성인자녀가 적어도 결혼한 이후에는 부모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성인자녀가 겪는 생활상의 곤란을 해결해줄 책임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성인자녀세대는 효 규범을 절대적인 것으로 수용하지 않으며 부모의 노후부양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년의 어머니에게 손자녀 돌봄을 맡길 때에는 그 젠더/세대적 전통관념의 모순을 인식하기보다는 그저 개인적인 고마움의 문제로 사소화해버린다는 것이다(이재림, 2015).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성인자녀 간의 자원 이전 관계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주거나 받는가에 주목하였고, 자원 이전의 흐름이 일방적으로 되는 현상을 ‘비호혜적인’ 상태로 간주했다.

그러나 관계의 호혜성 판단에서 ‘단기와 장기’의 시간적 구분은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되돌려 주지 않은 일방적인 이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되돌려 주는 호혜적 관계로 평가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 사이의 선물은 상대로 하여금 빚진 상태에 놓이게 만들어 끊어지지 않는 사회적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물질적 편익의 주고 받음만으로 세대간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1) 성인 자녀세대의 시각: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내리사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들은 자신의 노인 부모에게서 돌봄 자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는 부모세대에서 성인자녀세대로의 일방적인 (시간적) 자원 이전의 한 사례이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은 ‘내리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빚진 상태의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전환시켰다.

집단 4의 참여자 E는 소득 상위층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중요성이 거의 동등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기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어머니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도덕적 의무이지 되돌려 받을 채권을 갖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원을 가진 부모가 자원을 결여한 자식을 지원하는 일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라고 그녀는 주장한다.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저희한테 해 주신 만큼 저도 자식한테 해 주는 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식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잘 살아가는 게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요(35~49세 기혼여성, 4-E).

참여자 E는 자신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결혼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일이었다고 말했다. 아이는 “거부할 수 없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이면서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했다. 참여자 E는 어머니가 된 이후, 자신과 아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엄마가 걸어온 삶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고, 얼마나 나한테 모든 걸 내려놓고, 저한테 헌신하신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도움들을 여러 다방면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45세 기혼여성, 4-E).

다소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참여자 E는 부모-나-아이로 이어지는 세대적 흐름에서 자신의 도덕적 의무와 역할을 위치 짓게 된 것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식을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빚진 존재로 생각하는 전통적 유교 윤리와 충돌한다. 유교적 효 규범은 의무수행의 측면에서 상향식이라면, 참여자 E의 논리는 선물과 의무가 하향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기이익의 최대화만을 추구하는 비도덕적 이기주의와도 다르다. 부모가 자신에게 해 준 희생을 자신은 자신의 자녀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러한 견해는 집단면접에 참여한 25-39세 유자녀 여성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었다.

가정을 새로 꾸린 거니까... 가정에 충실해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살 때야 엄마, 아빠니까 1순위 될 수 있지만, 그때[새로 가정을 꾸린 후-필자 주]는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가 먼저였으면 좋겠고(35세 기혼여성, 4-A).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렇고,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만큼 도움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도 대우를 받아야 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체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 전 지금도 그래요. 니가 결혼하면 니가 잘 살고 니 가족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고,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뭘 잡고 이런 거 절대 그런 걸 하지 말아라. (...) 니네는 니네들이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48세 기혼여성, 4-F).

전통적 유교윤리나 관습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에 대해 채무감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성인자녀세대가 부채의식을 결여하거나 호혜적 보상에 무관심한 것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고 ‘편의주의적’이라거나 제 값을 치르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대신한다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이재림, 2015).

기혼남성 집단 3 F씨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는 늘 부모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각자 각자의 삶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 역시 자신의 능력이 되는 한 자녀에게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그거를 그렇다고 다시 부모님한테 100% 돌려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다시 능력이 되는 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 분들이 더 바라는 바가 아닐까. 또 제 아이들도 그걸 보고 또 자기의 아이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48세 기혼남성, 4-F).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리 사랑’만 존재한다는 관념이 정당인가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평가가 아니다. 중산층 노년세대는 이미 계층적 성취를 한 상태라면, 청장년세대는 부모의 중산층 지위를 재생산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투자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다. 더욱이 자녀 양육기에 있는 부모들에게는 미성년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 세대는 대부분 부부가 모두 소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도 크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서 전통적인 효 가치, 즉 성인자녀가 부모를 시간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중산층의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리 사랑’이라는 풍속의 용어를 빌어 와서 자신들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산층 기혼여성과 남성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모를 자기 가족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자녀가 부모와 맺는 관계는 상향식의 자원이전이나 유교적인 효 관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부모세대의 의사에 달린 것이다.

2) 노년기 부모세대의 시각: “내 자식이지만 가족은 아니예요”

노년세대는 결혼한 자녀를 자기 가족 범위에 포함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 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명의 참여자는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를 가족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거나 적어도 모호하다고 답했다.

결혼한 자녀의 원가족으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은 이미 보편적인 세대 간 생활형태이다. 그러나 노인부모들이 분리 독립한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규범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중산층 중노년기의 부모세대는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돌봄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결혼한 자녀와 그들의 배우자를 자기 가족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지원 교환의 범위와 가족의 범위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함께 살지 않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의 주고 받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성인자녀가 부모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아 감정적인 서운함을 느끼는 등 성인자녀를 자기 가족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 모호한 상태에 있는 노인부모 세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성인자녀의 관심과 애정적 돌봄을 기대하지만 함께 생활하지 않는 자녀에게 함께 사는 식구들만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노동자계층에서 자녀로부터의 도움 없이 자립적인 노년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반적인 교육기간의 연장과 취업의 어려움, 주거비용의 상승 등은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의 지연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년기를 재정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많은 노년세대를 양산하게 된다.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산층 노년세대는 자녀의 교육비용은 물론 결혼 주택자금과 손자녀 돌봄까지 경제적 자원은 물론 시간적 자원까지 투여하고 있다. 6명의 연구참여자 중 5명의 참여자는 자녀(특히 아들)의 집을 마련해 주었으며, 두 명의 여성 참여자는 현재 아들과 딸의 손자녀를 돌봐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과 앞서 성인 자녀세대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인자녀의 결혼과 손자녀 양육에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모세대들이 자녀세대로부터의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고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함께 살지 않는 자녀세대로부터 각별한 애정적 관계가 지속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얻기는 어려운 듯해 보였고, 그러한 점을 한 남성 참여자가 강조했다.

큰 아들은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고 있으니까, 가족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내 아들이라는 생각만 들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같이 밥을 먹고

해야 가족이 되는 거지... 내 아들이지만서도 가족이다...하고 아직 생각을 들지만 점점 멀어지는 감이 있는 거죠(64세 기혼여성, 5-D).

특히 더 이상 부양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아들에게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기는 어렵다.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

옛날에는 가족이라 했을 땐 가족에서 그게 뭐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병수발까지 다 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럼 한 집에 살고 있는 배우자가 서로가 의지를 하고 살게 되는데,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서도, 과연 내가 아팠을 때, 당신이 아팠을 적에, 자식이, 아들이, 며느리가 해 주느냐는 거예요? 못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혈연관계일 뿐이지...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66세 기혼남성, 5-E).

집단 5에 참여한 B씨는 결혼한 아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에 속하지만 먼 먼 가족이 되어 버린 현실을 인정한다. 그녀는 자신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한다.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옛날 일을 돌이켜 보면(웃음). 그래서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모랑 살 때는 몰랐는데, 벌써 지 가족을 꾸리고 나니까 부모님이랑은 또 멀어지는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58세 기혼여성, 5-B).

또 다른 여성 참여자도 유사한 시각에서 결혼한 자녀와의 분리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한 애는 남편도 있고 애 둘 있고, 그렇게 사
 느라고 저한테도 금전적인 거나 (이러 저러한 것들을), 저도 잘 살지만 (제가
 잘 살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를 챙겨주긴 어려워요(64세 기혼여성, 5-D).

중산층 가족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분리·독립하여 가족을 형성하고 확
 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시간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전한다. 그러
 나 그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세대 자신도
 그러한 호혜성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호혜적인 세대 간
 관계는 한국 가족과 세대 간 관계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었다. 이를
 테면, 정병은(2007)은 사회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일반화된
 호혜성’(Portes, 1998; 정병은, 2007, p.507 재인용) 개념으로 한국 가
 족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관계를 개념화한다. 일반화된 호혜성은 “보상-
 대가의 논리에 따라 교환의 균형 또는 형평을 추구하지 않고, 도덕적 의
 무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후하게 보상하는 방식의 교환”이다(정병은,
 2007, p.506). 부모-자녀 관계를 일반화된 호혜성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부모-자녀 간 자원 이전은 도구적 동기보다는 완성적 동기(consumma-
 tory motivation)와 관련된다. 완성적 동기란 관습이나 개인의 내면화된
 규범에 의해 만들어진 ‘의무감’이 행위를 동기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이전하는 동기가 미래에 돌려받으
 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면, 그러한 기대를 좌절시킨 ‘불균형한’ 교환관계는
 부모-자녀 사이에 갈등과 긴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와 달리 부모는 단지
 부모 스스로가 내면화한 규범에 의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자녀가 적절한 지원을 되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의 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일견 중산층 노인부모세대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도구적 가
 치를 앞세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추상적인 도덕적 가치를 앞세울 수 있을

만큼 확고한 도덕적 가치와 의무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우선 한국 가족의 세대 간 관계에서 도구적 동기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단기적 보상과 장기적 보상, 그리고 물질적 보상과 비물질적 보상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상적 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가족의 세대 간 관계를 도구적 동기와 완성적 동기의 이분법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세대 간 관계를 일반적인 가족 범위 외부에 위치 짓는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의 세대 간 관계에는 가족 개념이 결부되어 있다. 즉 성인자녀의 독립적 가족형성 이후에도, 부모세대는 성인자녀의 새로운 가족을 자신의 가족의 일부로 간주해왔다. 마찬가지로 성인자녀 역시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가족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의 가족은 상황에 따라 경계가 좁혀지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는 속성을 지닌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미혼 자녀만을 포함하는 핵가족으로 가족의 경계를 좁히기도 하고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도록 가족의 경계를 확장하기도 한다.

중산층 성인 자녀세대와 노인 부모세대 각각의 집단 면접에서 발견한 것은 좁은 가족경계와 넓은 가족경계 사이의 구분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좁은 가족경계 외부에 놓인 노인 부모세대와 성인자녀세대 사이의 관계를 ‘가족’이나 ‘혈연’이라는 관념에 기초하여 도덕적으로 규율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대 관계가 (적어도 중산층 내에서) 약화되리라 전망하기는 어렵는데, 어느 세대도 완전한 자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규범이나 도덕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충족 여부, 즉 합리적이고 교환적인 관계가 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노인들이 성인자녀에 대해 가졌

던 기대가 어긋남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기대가 정서적인 가족공동체 관념이나 추상적인 혈연 관념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젠더관계와 가족

1) 가장이 존재하는가?

가족은 빈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조직이기도 하다. 가족에서 다양한 자원을 구성원 내·외부에 배분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가족은 수평적으로 민주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가 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가족 내 가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미혼이거나 35세 미만의 기혼여성들은 남편이 가장이라는 관념을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전체 연령대의 기혼남성들과 35세 이상의 기혼여성 집단은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관념을 수용하는 사람이 다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남녀 모두에서 나타났다.

일부 남성 응답자는 집단면접 과정에서 생각의 변화를 겪기도 했다. 집단 1의 참여자 A는 당연히 남성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성역할 규범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니 굳이 남성만이 가장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의문스러워졌다고 말했다.

기혼여성들은 연령집단에 따라 견해가 달라졌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집단 2에서는 집 안에 권위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집단 4나 고령자 집단에서는 가족의 생계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의미로 가장을 정의했으며, 그에 따라 누구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 4의 한 여성 참여자는 가장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가장 정직하게 다룬다면, 오히려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은 여성이지 않는가라고 되묻는다(집단 4-A).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노동의 대부분을 여성이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 경험, 숙련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여성이다. 이러한 여성 대신 가정생활에 유능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 남성들이 의사결정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문제를 제기한다.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이나 사무직으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남성적 권위를 자연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관습에 의거하여 수용하도록 하는 일은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 여성들이 보기에 남성이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맡도록 하는 것은 남성이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상 남자가 (여자에 비해-인용자 주)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제가 나를 대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똑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똑같이 대리를 달고 있어도 여자는 대리를 달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연봉도 되게 적어요. 근데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서른 몇 살만 되면 벌써 대리를 달아줘요. 연봉도 벌써 5천이예요. 여자는 대리까지 오래 걸리는 데... 이런 걸 보면서 사회 구조상 남자가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나마 이런 돈도 벌지 못하면 남자는 정말 쓸 데 없다(35세 기혼여성, 4-A).

집단 4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A의 견해에 동조했다. 그러나 결론은 남성이 주된 생계부양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만큼 적어도 겉으로는 남성을 가장으로 대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대부분 직장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여성들의 가정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만큼, 가족구성원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일이 또 얼마나 힘든가도 잘 알고 있

다.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과증하고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남성 배우자가 그러한 역할을 ‘남성적으로’ 잘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는 여성 스스로의 이해관계와도 충돌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매력도 반감된다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땐 일단 주수입원이 남자가 되는 게 가정이... 기본적으로 평안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걸 보수적인 생각일 수 있긴 한데, (...) 예를 들어 요즘은 여자들이 주수입원이 되고, 남자들이 전업주부인 남자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 여자가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실질적인 주수입원이 돼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고, 희생해야 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45세 기혼여성, 4-E).

이처럼 중산층 기혼여성과 기혼남성들은 명시적인 남성적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시대에 뒤쳐지거나 타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성들이 경제적 책임을 떠맡고 그에 집중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나 가부장적 관념을 수용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젠더위계와 아동돌봄 책임의 여성화 등에 적응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연구참여자들의 중산층 지위가 결정적으로 남성배우자 또는 남성 자신의 노동시장 지위, 즉 남성 배우자의 높은 소득에 의존하여 구축된 것이라는 점도 반영되어 있다. 중산층 가족은 남녀 모두 고학력이고, 부모의 중산층 지위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계층지위는 자녀의 계층지위를 직접적으로 결정짓지는 못한다. 혼인과 노동시장을 통해 중산층 지위가 재생산되며, 노동시장 지

위는 ‘사회구조상 남자가 돈을 잘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 남성의 지위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2) 생계부양·가사·육아를 둘러싼 젠더 갈등과 타협

육아부담이 큰 유자녀 가구에는 자녀양육과 가사를 둘러싼 상당한 긴장이 존재한다. 남성들은 대체로 자신이 상당한 정도로 가사노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여성들은 남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보다 가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20년 사이에는 여성들의 소득활동이 늘어나면서 남성의 가사와 육아참여가 적극 요구된다. 그러나 여성들의 시선에서, 남성들은 육아와 집안 일을 자신의 주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아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이고 무능한 편이다.

직장생활을 전에 했을 때는 나도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일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고, 그걸 보면서 이런 식의 결혼생활이라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엄청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똑같이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는데 나는 아이 숙제도 봐줘야 하고, 요리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남편은 시키지 않으면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더니 뭘 해야 하는지 시켜 달래요(48세 기혼여성, 4-F).

좀 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남성들은 자신들도 가사와 육아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배우자 여성과 가사와 육아를 공평하게 나누어 맡고 있는가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맞벌이 가구의 남성들은 ‘비교적’ 가사와 육아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아내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사실상 주로 아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일단 집 오면 힘 많이 드는 것, 애 들고 씻기고 하는 건 제가 하고, 와이프는 나오면 로션 발라주고 옷 입히는 것. 저는 와이프가 식사를 차려주면 제가 또 설거지를 하고, 아내는 책을 읽어주든지, 저는 청소하고 분리수거 같은거 하고, 이런 식으로 반반 하는 것 같아요. 세탁기 돌리는 건 아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고(29세 기혼남성, 1-A).

(사실) 아내랑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 같네. 서로 나눠 하자'고 했어요. 내가 안해도 아내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일깨워줬죠(29세 기혼남성, 1-A).

맞벌이를 하는 집단 1의 A는 아내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변화된 사례로 보인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참여자들(집단 2)도 맞벌이를 하는 경우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동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맞벌이가구의 부족한 시간자원을 보충해주는 존재는 부부 양측의 부모, 특히 아내의 친정어머니이다. 또한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집단 2의 D는 간호사로서 3세 자녀를 두고 있다. 30대 초반인 이 여성 참여자는 “아직까지는 가장은 아버지나 남편이 되어야 하고, 당연히 가장이 아내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핵심적인 역할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라는 생각은 “굉장히 조선시대 생각”이라고 거부한다. 아래 참여자를 비롯하여 젊은 여성들은 육아는 ‘반반해야’(반반으로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안일은 돈을 더 벌어드는 사람이 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맞벌이여서 육아는 반반 하고 있고. (질문: 반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반인가요?) 늘 같이. 시간 되는 대로. 집에서 애기랑 같이 있는 시간에 서로 하고 있고, 그래도 둘 다 힘드니까 같이 육아를 하고 있고, 집안일 같은 경우는 남편이 거의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서 평일에는 거의 안 하고, 요리도 잘 못하니까... 저랑 저희 엄마가 많이 하는 편이고, 남편은 빨래 정도만 하고... 웃긴게 정확히 어떻게 하라고 시켜야 하니까(웃음), 그리고 본인이 요리를 하겠다고 해도 난리가 나서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드니까... 차라리 아이를 봐라 하죠. 그러니까... 한.. 8:2?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남편이 좀 더 벌고(34세 기혼여성 맞벌이, 2-D).

그렇다고 해도 일하고 육아하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여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가 부부간의 역할 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아래 사례처럼 더 이상의 소통을 포기하고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남편이 빨리 들어오면 평일 저녁에 가족이 도란도란 얘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없고, 저녁 때 저희 엄마가 집에 가면 그 외의 시간에는 제가 다 보고, 나머지 정리하고,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하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그 시간이 로드가 되는데. 남편은 아니에요(34세 기혼여성 맞벌이, 2-D).

얘기를 해 봤는데, 진짜 얘기가 어렸을 때는 저녁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거의 하루 종일 봤거든요. 그때는 엄마 집도 멀어서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요. 남편은 ‘그러면 잘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라서 그냥 포기하게 됐어요(34세 기혼여성 맞벌이, 2-D).

과연 남성들은 집안일과 육아를 여성과 ‘반반으로’ 나눠서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인가. 많은 여성 참여자들은 일단 남편의 귀가 시간이 자신보다 늦다고 이야기한다. 남성들의 노동시간이 좀 더 길다는 것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남성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가정경제가 더 많이 의존하는 소득은 아내의 소득이 아니라 남편의 소득이다. 이러한 경우 남편의 소득원을 더욱 보호하고 배려하도록 여성들이 적응하고 체념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40대 남성 참여자는 남성이 가족부양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와 육아를 아내와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평등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각은 앞의 25-34세 젊은 기혼여성집단에서 나온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의 책임을 지고, 덜 버는 사람이 소득을 보충하거나 (소득과 무관하게 자기 일을 하고) 가사와 육아에 더 많이 헌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사분담과 관련하여, 많은 참여자들이 요즘 남성들은 가사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과거의 가정생활과 비교하여, 현재의 가정생활이 눈에 띄게 변화한 점 중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성 외벌이 가구에서조차 남성들이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할 만큼,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해졌고 남성들의 발언권은 그만큼 약화되었다는 해석도 나타났다. 남녀가 엄격하게 성에 따라 역할을 분리하고 문화적으로 부과된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즉 ‘분업’의 모델이 현대적이고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제적 역할은 가족의 계층적 수준을 방어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부부간의 동등한 관계, 협력적 관계 등이 강조되면서도 더 많은 경제적 책임을 갖는 남성의 역할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 의해 강조되고 있었다. 다만, 그러한 남성의 역할을 남성의 자연적/신

분적 지위보다는 노동시장의 기회구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 남녀간 위계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역할 구분이 있었고, 이를 정당화하면서도 갈등과 긴장 수준도 높았다. 임의적인 정당화 수단이 그다지 완전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산층에서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격차가 컸으며, 그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생활의 측면에 개인의 자율보다는 사회적/제도적 조건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평범한 개인들의 가족에 대한 시각과 해석을 중심으로, 지난 20-30년 간 가족문화의 변화를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두 시점의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2000년대와 2010년대 사이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과 성/연령에 따른 차등주의가 완전히 주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관찰된 일련의 변화와 연속선 상에 있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원칙이나 이념보다는 현재의 삶에 이로운 것을 채택함으로써 가족을 둘러싼 물질적/정서적 필요를 감당하고 있다. 전통적인 차등주의가 사회(가족)구성원 다수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반차별주의 또는 성평등주의가 완전한 우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부부간의 성역할 분리를 옹호하면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태도가 하나의 잠재유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개인과 가족의 관계에서 개인보다 가족이 우선한다는 시각은 여전히 사회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의무와 헌신은

여전히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가치이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세대 간의 헌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셋째, 가족우선의 가치와 반차별주의 가치가 공존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부계중심주의를 약화시키는 힘이 ‘개인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가족생활과 가치관에서 나타나는 ‘탈전통화’(detraditionalization) 추세는 뚜렷한 이념으로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확산된 결과가 아니라, 사회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일상적 가족개념을 유연하게 변화시킨 결과이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Bauman, 2005). 지난 20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원인이 아니라 변화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그렇기 때문에 가족가치관의 특징은 전통적 차등주의와 성평등주의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의 또는 성역할 분리주의와 같은 전통적 요소와 반차별주의 또는 개인주의와 같은 반전통적 요소를 조합하는 다면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일상적 가족개념의 다면성은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산층의 여러 세대와 남녀 모두에게서 구성원 간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크게 보였다. 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여전히 아들과 딸의 ‘기능’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러났고, 젊은 남성들도 자신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대접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에 대해 남성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것이 부부간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가계부양의 책임은 남편에게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이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3절의 초점집단면접에서는 가족의 의미와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개념을 수집하였다. 이에 따르면, 면접자들은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차이는 주로 지속성과 배타성이었는데, 남녀 모든 응답자 자신의 필요에 부응한다고 간주했다. 면접대상자들이 이미 결혼제도 내부로 진입한 이들이라는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생애과정과 젠더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특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남성과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기’라는 것은 가족관계나 역할/의무에 의해 소멸하거나 해소되지 않는 뚜렷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역할’에서 ‘역할과 자아’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가족의 범위에 대한 면접자들의 응답은 생애과정에 따라 가족의 경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의식과 유년기의 대가족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층은 ‘혈연과 가족’의 차이를 가장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오히려 결혼 초기에 있는 남녀, 자녀양육을 위해 친족자원에 의존하는 남녀가 가족과 부모를 구분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미 자녀양육기를 거쳐 자녀의 결혼과 독립을 경험한 노년세대는 자식과 가족은 다른 것이라는 ‘핵가족’ 개념을 구성해 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 가족이 가족의식과 태도 면에서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로서 가족보다는 현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관계로서 가족 개념이 여러 세대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념적 차원에서 성평등주의 또는 반차등주의는 가족의식의 면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상호관계의 성격을 근본적

으로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관계 내에서 충족시켜야 할 필요, 즉 경제적 부양, 가족 내 돌봄, 정서적 만족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들은 때로는 평등주의를 내세우고, 때로는 남녀의 상이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비밀관성은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핵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단위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고 그 외부에 놓인 부모-성인자녀 관계는 중요한 관계망일 뿐 실질적인 가족으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 중산층을 대상으로 가족개념과 가족의식을 관찰한 결과에 토대를 둔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근 경제적 불안정성의 심화와 가족인구학적 변화 등 외부에서, 비교적 안정된 핵가족과 친족 네트워크를 갖춘 계층을 대상으로 가족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화될 수 없는 계층적 속성도 이 연구에서는 포착될 수 있었다.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 사이의 뚜렷한 구분, 가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 등이 이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반대로 참조집단으로 설정한 중위소득 집단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이외의 친족에 대한 언급 자체가 많지 않았다. 가족이 뚜렷하게 무언가를 주거나 받는 관계로서 부각되지 않았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8장

미래 전망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미래 가족의 변화 전망

제2절 정책적 함의



제 8 장 미래 전망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미래 가족의 변화 전망

이번 연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가족의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기존연구 정리를 통하여 한국의 핵가족화와 다양성의 확장, 젠더 관계의 변화요구와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쟁점으로 제안한 바 있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 가족의 변화는 다양성의 확장 속에서 그동안 추구했던 변화의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데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형태적 핵가족이 여전히 중심적 추세지만 그 비중은 감소하고 다양성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성의 측면에서 후기근대적 요소가 일부 관찰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기근대적 양상이 지속 또는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과 관계의 속성의 복잡성, 결혼과 출산 행동에서, 그리고 경제활동에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관찰되고, 변화의 방향은 근대적 전형의 생애경로를 벗어나는 추세가 관찰된다. 반면 핵가족의 부부중심성은 온전히 평등주의적이지 못하고 차등적이거나 평등적이거나 하며, 성별에 따라 각각 갈등요소로 남아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가족 내 돌봄 영역과 노동시장에서 젠더관계의 불평등은 지난 30여년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의 부양 기능과 관련하여 개발국가 체제의 가족주의도 역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 제도가 발전하면서 돌봄과 양육의 공공

서비스 의존도가 증가하였지만, 가족의 부담이 비용, 시간 등의 측면에서 크게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었어도 사회가 구조적으로 재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변하지 않은 것이다.

미래의 가족 변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다. 사회는 더 빠른 기술변화와 세계화 속에서 변화를 거듭할 것이고 가족을 구성하는 새로운 세대는 어느 방향으로 변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곧 다가올 미래의 가족은 다양성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며, 더욱 유연한 개인과 가족의 경계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설정한 가족의 다섯 가지 측면을 구분하여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의 인구학적 구조 변화 전망

우리나라 가족의 기반을 이루는 인구구조는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해 0~14세의 유소년인구와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가족변화는 가족 규모의 축소, 핵가족화 및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가족세대의 단순화라는 특성을 보였다. 향후에도 계속되는 개인주의 확산, 학업·취업으로 인한 가족분거, 저출산·고령화, 만혼화·비혼화, 이혼·별거 증대 등으로 한국가족은 더 빠른 핵가족화와 소규모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현상이 더해지면서 전형적인 핵가족의 비중은 축소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된 가족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2세대 핵가족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나 점차 그 위상이 약화되고 1인가구와 부부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향후 가족형태가 핵가족

구조 내에서 더욱 개체화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가족은 이제는 전형화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기존의 전형으로 간주되던 핵가족 이외의 가족들이 사회에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향후에는 다양성이 가족의 속성을 규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대두할 것이다. 비전형적 가족의 증가는 가족기능을 포함하여, 가족부양 및 가족관계, 가족문화, 가족형성 및 가족주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래적 탐구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혼인 행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혼인 연령의 상승추세이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향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출생 코호트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향후 변화가 급속할 것이라는 점이 비교적 뚜렷하다. 즉 40세 기준 미혼율 추정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 출생코호트부터 미혼율이 이전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런 추세는 1980년대 및 199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 강화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출산 행태에서도 코호트에 따른 변화추세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197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출생코호트의 코호트 합계출산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혼인과 출산 행태에서 이와 같은 세대효과가 두드러지고 있고 향후에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혼인과 출산이 사회적 조건에서 미시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혼인과 출산 행태에서 최근 청년세대의 특징이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기인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향후 사회적 조건이 개선된다면 최근 출생코호트의 이와 같은 추세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의 경제활동 변화 전망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변화에서 그동안의 추세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가 뚜렷했다. 남성은 연령과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상승추세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고 산업의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서 나타나는 최근 출생코호트의 노동시장 이탈 비율의 감소와 이탈 후 재진입 비율의 증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한국과 같이 일가정양립 여건이 열악한 국가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전형적으로 M자 곡선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최근 출생 코호트의 M자 곡선 추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개선 추세가 강력하게 일반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는데, 우선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가 생애경로의 노동시장 이탈의 개선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소득계층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고소득 계층의 맞벌이 비중 증가 추세가 유독 두드러진다. 계층화와 맞벌이 비중의 연관성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더 분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여성이 더 불리함이 드러나고 있는데(안주엽, 오선정, 최세림, 2019), 이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소득계층 양극화를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이중구

조와 연계된 소득계층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맞벌이 비중의 계층화 역시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서 비전형적 고용의 확산은 세계적 추세이며(Emmenegger, Hausermann, Palier, Seeleib-Kaiser, 2012), 한국 노동시장에서도 이 같은 구조적 특성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계층에 따른 맞벌이 비중의 격차는 젠더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소득 계층이나 중간소득 계층에서 맞벌이와 같은 이인생계부양자 모델이 보편화되지 않는다면, 젠더 관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3. 가족 기능의 변화 전망

가족 내 부모 돌봄과 부양은 고령 집단의 상황과 자녀 집단의 특성과 지원의 내용에 따라 향후 부양의 중심적인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와 2000년대 10년 사이의 노인들 스스로의 부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김정석, 2005)에 따르면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 인식은 노인의 개별 특성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들의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 것이며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노년층은 앞으로 노인 돌봄을 가족책임보다는 개인이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부머 집단이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한국의 고령자 집단의 특성이 달라지고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정년 연장 등 사회 상황의 변화로 자녀로부터의 돌봄과 부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의하면 점차 자신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경향이 나

타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48.6%는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10년 전보다 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자 집단의 경제 상태는 여전히 낙후치 않다. 2016년 이후 한국 고령자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통계청, 2019). 즉 부부 중심의 핵가족 가치와 구조가 보편화되고 돌봄의 탈가족화로 직접적으로 돌보는 신체적이고 도구적인 수발은 줄어들고 노년기 경제 상황에 따라 자녀의 경제적 부양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대응하면서 노인집단의 특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노인집단의 돌봄과 부양에서 노인 집단 스스로의 개인적 책임에 대한 강조와 함께 공적 혹은 사회복지적 차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두 입장이 공존하여 나타날 것이다(김정석, 2005).

한편 자녀세대에게 부모 부양의 문제는 여전히 자녀로서의 의무로 수행될 것이다. 다만 청년세대가 젊어져야 할 사회문제가 있으므로 자녀세대의 성별, 계층적 그리고 연령 집단별 특성에 따라 부모 돌봄에 대한 태도와 대응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만 앞에서 노인집단이 향후 자신의 돌봄에 대한 책임 인식이 가족에서 개인과 사회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망했으나 이러한 변화 경향은 자녀 세대와 동일한 추세로 나타나기는 어렵다. 실제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세대별로 노후부양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큰 차이를 보이는데 45~64세 비고령집단은 개인책임>국가책임>가족책임 순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고령집단은 가족책임>개인책임>국가책임 순으로 나타났다(석재은, 2009). 자녀 세대에 20~30대가 포함되지 않은 분석이지만 자녀세대의 부모 돌봄 인식의 차이는 확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세

대별 부양관의 차이는 가족 내에서 노부모 돌봄과 부양에 대한 기대 불일치를 발생시키며, 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 부부 및 가족 해체 등 가족 내 노인 돌봄 및 부양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가족 내 노인 돌봄의 문제는 갈등이 예상된다. 가족이 여전히 노인 돌봄의 주담당자인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은 어느 가정에서나 예상되는 일이며,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생애단계에서의 다양한 이벤트 - 결혼, 출산, 취업, 주거 문제 해결, 은퇴 등-의 수행과정에서 공적 서비스와 정책이 얼마나 조용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의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노인 돌봄은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다(양난주, 2013; 이진숙, 2014; 최희경, 2018). 한국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노인 돌봄에 대한 탈가족화의 요구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보장 수준이 낮아서 여전히 가족에 의한 돌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요양수급자로 한정하더라도 가족과 공식 서비스를 같이 받는 비율이 66.4%에 이르고 있으며(정경희 등, 2015),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적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가족 돌봄이 병행되고 있어서 노인 돌봄의 보편적 사회화를 통한 탈가족화는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최희경, 2018).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는 가족 돌봄을 보상, 촉진하는 제도인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가 존재함으로써 탈가족화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노인 돌봄의 공적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 내 주부양자 돌봄 부담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노인돌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보고(이창주, 2011; 권현정, 조용운, 고지영, 2011; 이효자, 2013)도 있으므로 향후 공적서비스를 통한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가족의 변화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 아동양육 기능의 주요한 변화는 가족 밖의 돌봄이 확대된 것이었다. 아동 연령이 2세 이상일 때 그 변화가 더욱 분명하다. 0~1세 아동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환경 등으로 인해 가족 내 돌봄이 일정 비율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관련 정책 지원이 강화될수록 취업 여성들도 0~1세 아동을 가족 안에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동이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12개월까지는 본인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선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족 내 양육 시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간 사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양육 할애 시간이 모두 증가했지만, 여성의 증가 폭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에 대해 관리하거나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고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활동 이외에 교육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양육 문화로 인해 여성의 영유아 돌봄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아동을 먹이고 재우거나 씻기는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돌봄에서 나아가 놀이, 책읽기, 가르치기 등의 활동이 가족 내에서도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 아동을 돌보는 시간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아동 양육에 투자하며 주 양육자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속된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양육 시간은 계속 증가하거나 가장 최고점에서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남성의 양육 시간 또한 증가하지만 여성 양육 시간의 증가 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강조되는 평등한 양육 문화로 인해 맞벌이 가족의 남성 양육 시간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4. 가족관계의 변화 전망

가족변화는 가족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향후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만혼화·비혼화의 확산, 소가족화·핵가족화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직장과 학업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가구의 분거와 함께 이혼·별거·사별로 인한 가족 유연성의 증대가 예상되며 이러한 가족변화 현상은 가족관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는 가부장적인 구조가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부부의 의사결정권 및 자녀양육, 가사부담 등 가정 내 부부의 역할 등에서 가부장적인 위계 관계가 약화되고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이 높아지면서 향후 부부관계는 수평적·양성평등적인 관계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사분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가치관의 빠른 변화와 실제 부부생활 간의 역할 괴리로 인해 부부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맞벌이 부부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가구의 분거 및 가족원의 개체화 등으로 부부간에 구조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예상되어 부부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한편, 부모와 미성년자녀관계에서 자녀의 가치 및 양육관은 관련이 높다.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성장이 부모 인생에 주는 즐거움과 부모와 자녀 간에 성공 일치도 및 노후의 자녀 필요도는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으며, 자녀양육의 책임 기준도 자녀의 학교 졸업과 취업 등으로 책임범위가 최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만혼·비혼의 확산에 따른 자녀의 독립지체로 부모 의존의 장기화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기대치가 상이한 세대 간의 가족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만성적 가족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가족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마련이 요구된다.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는 가족형태와 관련이 높으며, 동거 형태와 교류는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여 부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급속한 소가족화·핵가족화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동거는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가구의 분거와 가족원의 개체화와 함께 부부중심의 관계 강화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비동거 자녀와의 교류는 자녀와의 연락에 의한 비접촉 교류는 활발한 편이나 만남을 통한 심층적인 교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결속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초고령사회의 급속한 이행에 비해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비동거 형태의 확대와 낮은 결속력은 가족보호체계의 약화와 함께 노부모의 부양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김유경 등, 2018)이 전망되어 노부모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5. 가족 문화의 변화 전망

지난 20-30년간 한국인들의 가족실천은 크게 변화하였다. 결혼/출산/거주 등의 인구학적 행동이 변화하였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부부간 부양형태도 변화하는 중에 있다. 아동과 노인의 돌봄은 탈가족화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평등과 민주적 관계에 대한 요구와 그로 인한 갈등은 가족관계 그 자체를 변형해가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가족 문화에서 ‘문화’를 단순히 ‘삶의 방식’(ways of life)으로 정의한다면, 이상과 같은 가족실천의 변화는 그 자체로 가족 문화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라는 개념에는 삶의 방식이라는 행위적 측면뿐만 아니라, 의미와 가치라는 정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변화무쌍한 삶(생활)의 가변성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와 가치이다.

가족의 현대적 변화과정에서 이러한 정신문화적 요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스럽다. 사실 앞서 언급한 가족실천의 변화 중 상당수는 가족 외부의 경제적 구조 변화에 개인과 가족이 일방적으로 적응한 결과이지, 새로운 가치와 이념이 출현하고 그로 인한 개인의 선호와 지향을 실현한 결과라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혼과 비혼의 확산, 자녀 출산의 감소 등이 노동시장 조건의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자녀)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것 또한 줄어든 가구소득과 늘어난 재생산비용(교육비, 주택가격 등) 등의 경제적 압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젠더/가족 의식의 국제비교 연구결과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들에게 남성과 마찬가지로 소득별이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사회적 권리와 대우에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성평등을 요구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여성들은 일단 가족 내부에 진입한 이후 노동시장의 젠더위계와 타협한다.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남성들의 (더 많은) 소득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회계층 전반으로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최근 청년세대의 높은 비혼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남성과의 결혼이 젠더 위계와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다면,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젠더타협으로서의 결혼에 진입하지 않는 것은, 타협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도 중산층 기혼여성들이 남편의 고

소득과 성역할 규범 사이의 교환을 시도하는 것에 상당한 긴장과 불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과거의 가족문화와 비교하여 최근 20년 사이 확산된 경향은 차별과 위계를 거부하고 소통적이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가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핵심적인 기능인 경제적 부양과 구성원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배치와 그것의 문화적 정당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껏 더 많이 버는 사람과 덜 버는 사람 사이의 배분으로 정당화하는 이른바 1.5 생계부양자 유형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여전히 물질적 기능을 충족하는 데 급급할 뿐 그러한 물질적 기능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문화적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서는 직접적인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산층 기혼남녀와의 집단면접을 통해 가족생활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명료한 규범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계로 느슨하게 정의할 것이라 전망된다. 물론 현재에는 도시 중산층의 보수적 태도, 즉 가족은 명료한(법적) 경계가 있고 혈연적 배타성이 중요하다라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30년 사이 장남과 차남 이하 사이의 차등과 여성과 남성의 차등과 차별보다는 평등하고 공평한 관계에 대한 지향이 널리 확산된 것과 같이, 평등주의라는 가치를 통해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닌 가족도 가족의 한 형태로 점차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대 가족에서 정부의 가족지원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족형태를 엄격한 혈연주의와 법률혼주의에 가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비혼과 만혼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등은 경제적 압력과 노동시장구조 등의 가족 외부적 압력에 적응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가치와 의미 상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한국사회는 지난 20세기 내내 여성의 생애(교육, 노동, 임신/출산, 가사/양육)를 가부장적 가치와 제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 의존하여, 가족형성과 인구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었다. 여성적 생애를 직조해 온 가족이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력이 되지 않고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형태였다고 해도 말이다. 최근 20-30년 사이에 일어난 인구변화는 그러한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실업이나 불완전취업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현상과 달리, 비혼/만혼, 여성의 경제활동에는 여성의 삶을 특정한 틀로 가두어 온 낡은 문화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의 성격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 사회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나, 여성의 주된 역할은 가사와 돌봄이라는 데 대해 대부분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이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30년 사이 가족문화의 변화는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에 대한 요구 또는 차등이나 차별에 반대하는 태도의 확산이다. 또한 성별에 따라 배타적인 역할을 부과하는 것, 특히 여성에게 가족적 삶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가족이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 속하고 여성일수록 이러한 가치의 수용정도가 강하지만, 중고령자나 남성도 배타적인 성역할을 고수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를 당연시 하는 전통적 관념을 거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가족문화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가족관계가 그러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수용하면서도 가족구성원

의 안전, 보호, 부양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달리 말해, 여전히 가족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기능이 배타적 가족주의, 젠더 차별주의, 성역할 규범에 의존한다면, 앞서 언급한 가치와 태도 면에서의 지향이 가족문화를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며, 가족문화는 지향보다는 타협의 산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중산층 가족에서 반차별주의 및 평등주의와 더불어, 성역할 분리 옹호 및 가장권위의 제한적 수용 등이 나타나는 것은 가족관계가 노동시장, 복지제도, 교육 및 보육 제도 등과 상호작용하는 열린 체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사회제도의 변화 없이 가족관계와 가족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30년의 가족 문화 변화가 한편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제도 개혁의 미흡함, 노동시장의 성별 위계, 불안정화 확산 등은 여전히 가족을 통해 자원을 이전하고 가족에 의존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등 가족의존성을 심화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시장이 제공하는 돌봄이나 가사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과 상관없이, 삶의 불안정성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안정된 가족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도시 중산층 가족의 문화는 이러한 두 가지 힘이 타협을 이룬 결과로 보인다. 생애과정 상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에서 특히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즉 여전히 경제적 부양의 책임은 남성에게 있었고, 자녀 양육과 가사는 여성이 주로 떠맡고 있었다. 이러한 배치는 결혼경과기간이 늘어날수록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라 시장노

동으로부터 멀어진 중산층 여성들은 가족관계 그 자체에서 보호와 안정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유연한 관계라기보다는 혈연과 법적 의무관계에 의해 공식화된 관계로 가족을 정의하는 기혼여성들의 태도는 한국 중산층 가족 성별 분업의 지속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자연적 차이나, 전통적 관습에 의해 이러한 성역할 배치를 수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소득별이를 전문화하고 나머지 사람이 가사와 돌봄을 전문화하는 합리성의 논리로 이해되고 있었다.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의 성역할 배치 구도는 개인들이 희망했던 삶의 결과가 아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둔 결과이고,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을 지속하느라 돌봄/가사를 외부화하는 것이 전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적절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들은 여전히 결혼(출산)과 취업 사이에서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통한 소득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즉 결혼(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족에서 성인남녀는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구적 수단으로서 가족을 정의하기보다는 정서적 공동체로 가족을 정의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서적 가치와 나란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미덕에는 여전히 (외부로부터의) 보호와 안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 이후에도 지속되는 세대 간의 밀접한 관계는 협소한 핵가족 개념을 넘어서 가족이 여전히 자원을 주고받는 넓은 의미의 경제적 공동체라

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대 간 자원이전은 단지 한국사회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러나 자원이전의 빈번함과 규모 등은 공적인 자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의 산물이다.

따라서 세대 간 관계는 점차 가족 범위 밖의 친족관계로 위치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인자녀세대는 노인부모세대와 밀접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부모세대에 대한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인자녀세대는 자신들의 자원을 자기 가족의 내부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강했다. 이와 달리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세대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수용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자녀로부터 기대했던 보상(직접적 돌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중산층 가족에서 세대 간 자원이전은 성인자녀세대의 필요에 반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전의 관계가 여타 의무와 권리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도록 가족의 경계(범위)를 확장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이러한 현상을 두고 과거의 대가족이나 직계가족을 연상할 필요는 없다.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점차 가족 개념의 바깥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세대의 도덕적 동기나 문화적 지향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이러한 부모세대에 의한 성인자녀 지원은 점차 교환적 동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현재처럼 되돌려 줄 수 없는 지원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관계에서 비호혜성은 장기적으로 세대 관계에 균열을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수준에서의 모순적 태도와 가치에 주목한 분석,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가족개념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미시적 차원에서 가족은 변화를 지속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가족을 개념화하고 가족의 가치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진 것은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기대였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한국인들은 여전히 개인의 이해보다 가족의 이해를 우선시하고, 또 그런 가족주의적 가치가 지속되도록 만드는 사회제도적인 맥락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족주의적 가치는 개인의 선호나 가치를 희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와 충돌하는 측면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오히려 뚜렷한 것은 현재 한국 가족 문화에서 가족관계의 유지와 지속에 기여하는 것의 가치만큼 개인의 선호와 필요를 존중하는 문화가 저발달되어 있어서, 후자가 충족되지 못함에 따른 갈등과 긴장이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 중산층에 속한 응답자들은 가족을 법률혼 및 혈연관계와 등치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계로서 가족은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믿음도 강했다. 물론 가족의 본질이 '제도'나 '정상성'에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은 가족생활의 양상이 더욱 유연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제도나 이념적 수준에서 수용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들 사이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된다.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는 갈등과 긴장의 요소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 현재 도시 중산층 가족에서 성별에 따른 상이한 역할의 부과는 거대한 긴장요인이었다. 남성이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동에 전념하고 있었고, 여성은 남녀의 역할 차이를 규범적으로 승인해서가 아니라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그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사와 자녀양육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나오는 갈등은 중산층 남녀가 대체로 가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부관계와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중산층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이러한 긴장을 유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러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상황에서는 이미 상당한 갈등이 표면화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 가족의 문화적 특성 그 자체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하고, 개인에 따라 그러한 문화적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공평성, 평등, 자율 등의 보편적 가치를 점차 가족이 수용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그러한 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갈등, 긴장, 적대, 우울 등 다양한 심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유경 등, 2014).

제2절 정책적 함의

가족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사회변동과 함께 진행되며, 인구변동은 그 결과이자 재귀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 변동을 통해 사회변동과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가족 연구를 통하여 가족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및 인구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하여 가족의 제반 측면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들은 가족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었고, 이런 연구 결과들은 가족정책, 사회정책, 인구정책의 맥락에서 여러 가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이번 연구 결과에서 우리는 가족의 다양성이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가족변화는 가족규모의 축소, 핵가족화 및 1인가구 증가로 인한 가족세대의 단순화 특성을 보였다. 여전히 핵가족이 중심적 가족형태에 해당했지만,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

며 형태상으로 다양성은 확장되고 있었다. 이혼 및 재혼, 별거, 다문화가족 등은 일찍이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추세는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가족의 형태는 하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평생 동안 한 가지 형태의 가족생활을 유지하기는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사회 보편적으로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지만,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가족의 경로 측면에서 비혼이나 만혼, 비출산이나 지연 출산은 결국 부모의 개인적 측면의 생애경로와 가족 단위의 경로에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출산시작부터 출산완료까지의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단축되고 있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변화는 경제활동이나 다른 사회참여의 확장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개인과 가족의 경계가 훨씬 더 가변적이 될 것이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개인으로 빠져나오는 생활유형이 반복될 수 있다. 한 가지 가족형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가족의 변화가 더 유연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유연성의 증가는 가족구성의 복잡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 향후 혈연에 의한 구성을 넘어서는 더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조합으로 가족의 성격이 복잡성을 띠게 될 수 있다.

이런 가족의 변화는 정책적, 제도적으로도 더 유연한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변화와 정책이나 제도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다. 제반 사회정책과 제도가 가족의 근대적 전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유연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한 가지 형태의 가족을 전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재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 무기준 논의는 이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부양자와 피부양자 관계로 설정된 점, 국민연금의 온전한 개인단위 논의도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제공 기준, 조세지원

단위, 현금성 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서 이런 쟁점들이 더욱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세밀히 토해야 한다.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가족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였다. 노부모 돌봄과 부양의식에서 전통적인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에서 점차 노부모의 자기부양을 비롯하여 국가 및 사회 등 공적부양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있었다. 자녀의 부모 부양이 전통적 효사상에 의한 당위적이고 자발적인 책임 행위로부터 필요에 의한 조건적인 선택 행위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주돌봄을 가족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특성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에게 받는 돌봄보다 외부 공적 서비스의 돌봄 기제가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자녀와의 동거 감소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이제는 노부모와 자녀 세대의 거주 분리가 보편화되고 있다.

아동 양육 분야에서, 돌봄 주체가 가족 내에서 가족 밖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다만 0~1세 영아에 대해서는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일을 하더라도 휴가제도 활용을 통해 영아기 자녀를 양육자가 직접 돌봄을 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었다. 아동 돌봄 시간의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돌봄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이라도 학습을 돕거나 관리해야 할 양육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노부모 부양과 아동 양육에서 공적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증가한 것은 정책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공적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를 증가시킨 것이다. 돌봄 영역에서 공적 서비스의 확대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탈가족화의 기초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

나 여전히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노부모 돌봄의 주돌봄 주체와 영아기 아동돌봄이 아직도 가족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탈가족화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요양보호를 지원하거나 방문요양 서비스가 확장되는 것은 탈가족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장기요약기관의 집단 생활은 이용자의 욕구를 해소하기보다는 공급자의 편의를 위한 측면이 더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인 돌봄에서 정부가 중점을 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가 탈가족화와 이용자의 욕구를 더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체화 및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양육수당을 신설하여 현금지원을 확대한 것이 영아기 가족돌봄을 고착화해서는 안 된다. 현재 아동양육을 위한 현금지원 수준이 국제기준에 비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더 확대 필요가 있으나, 이와 함께 기관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여, 아동 돌봄의 탈가족화 기조는 지속되어야 한다. 부모 부양과 돌봄 역시 모계 중심의 친족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실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며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더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젠더관계의 변화과정을 고찰한 결과, 평등주의적 변화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부관계는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태도는 약화되고 양성평등적 태도가 강화되는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의 가사분담태도와 실제 가사분담 실태는 차이가 있었다. 태도와 인식은 부부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 내 부부관계는 가부장적 가족관에 근거한 위계적인 구조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 측면에서 가족 가치를 분석했을 때, 반차별주의가 중요한 가치

로 부상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반차별주의 또는 성평등주의가 완전한 우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 차등주의가 퇴조하고 반차별주의가 부상하였지만, 가족관계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태도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이념적 차원에서 성평등주의 또는 반차등주의는 가족의식의 면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상호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내 노인돌봄의 주담당자는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며느리의 돌봄 비율이 감소하면서 친자녀 중심의 돌봄이 증가하였다. 돌봄자의 비율이 ‘배우자’ 다음으로 ‘딸’이 차지하는데, 이는 며느리의 돌봄이 감소했지만 또 다른 여성으로 돌봄의 책임이 이동한 것이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이나 신체적 지원과 다르게 경제적 지원에서 여전히 장남 중심으로 지속되어 가부장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아동 양육 영역에서 영아기에 서비스를 활용한 것은 여성인 경우가 더욱 빈번하였고, 여성과 남성의 양육 시간 활용 결과를 보더라도 가정 내 남아있는 양육을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아동 돌봄이 가족 이외에서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가족 내 돌봄에 대해서는 여성 위주의 돌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양육 할애 시간이 모두 증가했지만, 여성의 증가 폭이 남성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더욱 중요하게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양상이 계층에 따라 그 의미와 성과가 이질적인데, 그 어떤 것도 충분히 젠더 평등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변화에서 그동안의 추세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변화가 뚜렷했다. 남성은 연령과 학력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상승추세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소득계층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고소득 계층의 맞벌이 비중 증가 추세가 유독 두드러진다. 소득계층에 따른 격차는 생애경로에서 노동시장 이탈의 개선을 더디게 하여, 결과적으로 불가피한 시장노동과 불평등한 비시장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자녀를 돌보는 여성의 지위는 더 취약해질 수 있다. 가족의 돌봄과 부양을 위한 노동자 모델과 젠더 관계 설정이 의미 있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가족 변동 관점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근대적 불평등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노동시장 성평등 기조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직장에서 경력관리의 성평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성과로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하여 성차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 아동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과 돌봄 시간에서 젠더 균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일가정양립 제도는 고용보험 틀 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제도적 한계가 곧 일가정양립 제도의 한계로 귀결된다. 현재의 제도 틀 안에서 지원수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성별 사각지대와 고용 형태상 사각지대를 해소는 방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형성기의 세대효과이다. 혼인과 출산 행태에서 이와 같은 세대효과가 두드러지고 있고 향후에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가족의 확장기에, 즉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의 가족 형태는 여전히 핵가족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결혼 전 생애경로와 자녀 출산 이후의 생애경로에서 가족의 다양성은 확장된다. 결혼으로 진입하지 않거나 늦추는 경향이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점차 강화되고, 출산의 시기와 자녀 수를 조정하면서 근대적 전형의 생애경로에서 벗어나는 추세가 확인된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 및 가족 생애주기에서 삶의 중요한 기점으로 포함된다. 생애기획에서 기본적인 물질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가족형성은 그만큼 힘들어 질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차 개인 및 가족의 경제적 생활기반이 취약해지고 있고 계층에 따른 차이가 구조화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개인의 생애기획의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청년세대에서 두드러진다.

이런 취약성은 인구현상으로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혼인과 출산이 사회적 조건에서 미시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혼인과 출산 행태에서 최근 청년세대의 특징이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기인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향후 사회적 조건이 개선된다면 최근 출생코호트의 이와 같은 추세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 가족 형성 초기에 개인 및 가족의 생활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책은 출생아수와 출산율을 목표로 하는 국가주의적 근대 초기의 인구관점을 벗어나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국가 통제식 인구정책을 폐기하고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가족의 생활기반을 강화하고,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개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는 사회조건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가족형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한 영역으로 고용과 주거 안정을 들 수 있다.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정부가 쉽게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 임금수준을 올리려는 노력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화 정책

을 검토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정책은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 공급의 경우 그 규모가 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주택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향으로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강이수 편저. (2009). **일, 가족, 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가족 딜레마**. 서울: 한울.
- 강이수. (2007). 산업화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 관계. **페미니즘연구**, 7(2), 1-35.
- 강이수. (2011). 취업 여성의 남편과 일-가족 문제. **젠더와 문화**, 4(1), 43-87
- 계봉오, 김영미. (201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미애, 김양지영, 김창연, 서민자, 이원형, 홍지영. (2005). '일/가정 성별화'와 기혼여성의 노동: 30-40대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여성민우회. 1-154.
- 권현정, 조용운, 고지영.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 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3(4), 301-326.
- 김동춘. (2020). **한국인의 에너지, 가족주의: 개인의 보호막과 지위상승의 발판인 가족**. 서울: 피어나
- 김두섭, 박경숙, 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 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90.
- 김상욱. (1999). 노인부양행위의 결정요인 II: 인과모형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38, 33-67.
- 김상욱. (2000). 노인부양의 불일치: 태도-행위의 세대내 불일치 및 세대간 불일치. **한국사회복지학**, 42, 41-82.
- 김수정,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수정. (2015). 누가 맞벌이화를 주도하는가? 맞벌이 이행에서 시기, 연령, 코호트 효과분석. **한국여성학**, 31(4), 147-180.
- 김수정. (2018). 1990년대 이후 코호트 간 소득 격차와 빈곤위험 분석, **비판사회**

정책, 5, 69-102.

김승권, 장경섭, 이현송, 정기선, 조애저, 송인주. (2000).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29-256.

김연숙. (2007). 근대 가족과 프라이버시의 탄생. (이진경, 엮음).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 현대문화론 강의**. 서울: 그린비.

김영미. (2009). 한국의 복지체제와 젠더: 일가족양립정책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5(4), 281-305.

김유경. (2017).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부양 환경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2, 6-28.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 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이여봉, 최세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 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8).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이진숙, 이재림, 김가희. (20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진미정, 송유진, 김가희. (2013).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주, 서영희.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아 경험 연구. **육아지원 연구**, 7(1), 93-114.

김정석. (2005).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년. **한국노년학**, 25(4), 1-11.

김지미. (2018). 한일 복지체제 재편과 가족의 위상 변화: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4(4), 61-91.

김지범, 강정한,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최슬기, 김솔이. (2017). **한국**

종합사회조사 2003-2016.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지현, 강현철, 한상태. (2015). 잠재클래스분석을 이용한 패널데이터의 군집화 사례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4), 1849-1860.
- 김지현, 강현철, 한상태. (2015). 잠재클래스분석을 이용한 패널데이터의 군집화 사례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4), 1849-1860.
- 김진옥. (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5, 197-220.
- 김혜경, 남궁명희. (2008). 아들가족에서의 노부(모) 돌봄 연구: 부부와 노인의 생애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4), 180-220.
- 김혜경. (2012).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 비판적 가족담론의 변화: 비동시성의 동시성. **가족과 문화**, 24(4), 166-195.
- 김혜경. (2014). **역사 속의 가족: 근대 100년의 한국 가족과 가족론**. 김혜경 등,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 김혜경. (2019). 가족구조에서 가족실행으로: 가족실천과 가족시연 개념을 통한 가족연구의 대안 모색. **한국사회학**, 53(3), 217-253.
- 김혜영. (2016). '동원된 가족주의'의 시대에서 '가족 위험'의 사회로. **한국사회**, 17(2), 3-44.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 서. **한국사회학**, 49(1), 179-212.
- 김희연. (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Policy Brief**, 39, 2-19.
- 남궁명희. (2009). 가족돌봄관계 연구경향 분석 및 제언: 기혼 성인자녀와 노부 모간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학연구**, 20(3), 49-79.
- 노영애. (2020). **가족구조의 변화와 세대간 통합의 효 연구**(석사학위논문, 성산호 대학원대학교, 인천). <http://www.riss.kr/link?id=T15548081>에서 인출
- 노지현. (2012. 3. 14.). '0점 예측'...무상보육 재원 9월이면 바닥.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20313/44746742/1>에서 인출.

- 마경희, 이재경. (2007). 동아시아 복지체제 재편과 젠더 - 한국과 일본의 자녀 양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91-116.
- 문소정. (2008). 한국가족 다양화담론의 다양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아시아여성 연구**, 47(2), 73-107.
- 박경숙. (2007). **노년의 제도화와 복지: 기능, 갈등, 시선들.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pp.253-300). 서울: 풀빛.
- 박관동. (2020). **국제결혼 한족여성의 가족관계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석사 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군포). <http://www.riss.kr/link?id=T15511860>에서 인출.
-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이신영, 조준행, 김혜령, 김은주, 김정선, 이재모, 김은정, 임영미, 홍귀령, 송준아.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박복순, 박선영, 김영란, 정다운, 류민희. (2020).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민. (2017). 비혼을 통해 본 결혼의 탈제도화와 문화적 영향력의 지속. **가족과 문화**, 29(4), 94-121.
- 배은경, 박기남, 류임량, 박혜림, 엄혜진, 최은영, 위선주, 김한나. (2009). **생활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20~30대 여성 심층 조사**. 서울: 여성부.
- 배은경. (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페미니즘 연구**, 9(2), 39-82.
- 백경훈. (2015). 여성주의 논의 확장을 위한 '아동중심적' 아동돌봄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아동과 권리**, 19(1), 1-25.
- 석재은, 유은주. (2007).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한국가족법학회**, 21(1), 31-56.
- 석재은. (2009). 세대별 노후부양관의 차이와 영향 요인. **보건사회연구**, 29(1), 139-163.
-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2006-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

학교출판부.

성미애 (2006).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59-72.

신경아. (2011).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노인의 경험. **한국사회학**, 45(4), 64-96.

신경아. (2014a). 가족과 개인, 개인화. 김혜경 외,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다산출판사.

신경아. (2014b).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4), 153-187.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http://www.riss.kr/link?id=T7110828>에서 인출

신윤정, 이명진, 박신아. (2019). **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주엽, 오선정, 최세림. (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일자리(I)**.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안호용. (1991). 한국가족의 형태분류와 핵가족화의 의미. **한국의 사회와 역사**. 서울: 일지사.

양난주. (2013).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 97-129.

양옥경. (2001). 가족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8, 119-147.

양현아. (2012). **한국 가족법 읽기 -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서울: 창비.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5a).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5b).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오영희, 송진숙, 송영란, 양승지. (2009). **가족학의 이론과 실제**. 파주: 21세기사.
- 옥선화, 성미애, 신기영. (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 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1-17.
- 윤자영. (2012). 외환위기 이후 기혼가구의 노동공급 변화요인. **여성경제연구**, 9(1), 99-122.
- 우명숙. (2019). 탈산업화 과정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탐색: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22(2), 31-68.
- 우해봉, 이지혜. (2019).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 분석과 정책 과제**. 세종: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유계숙, 유영주. (2002). **서울시민의 가족개념 인식 및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40(5), 79-94.
- 유계숙·강민지·윤지은. (2018). 청년층의 가족개념과 가치관: 2001년과 2017년 20대 미혼 청년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3), 42-69.
- 육아정책개발센터,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가족부.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 은기수, 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덕재. (2018). 경제사회양극화와 트릴레마. **경제와사회**, 14-41.
- 이미숙, 조병은, 강란혜. (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대한가정학회지**, 42(4), 69-84.
- 이미진. (201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월간 복지동향** (228), 28-38.
- 이미화. (2014). 한국 여성노동지원정책의 변화와 함의(1998-2007년). **사회과학연구**, 30(4), 571-605
- 이병호. (2020). 제2차 인구변천 이론, 1986-2020: 특징, 논쟁, 함의. **한국인구**

- 학, 43(4), 37-68.
- 이삼식, 최효진, 윤홍식. (2015). **가족변화에 따른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정책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선영. (2016). 노인 돌봄 정책의 탈가족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일본문화학보**, 69, 295-314.
- 이여봉. (2006). **가족 안의 사회 사회 안의 가족**. 파주: 양서원
- 이윤경. (2014). 노인의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1994~2011년의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5(211), 45-54.
- 이이효재. (2003). **조선조 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
- 이재경, 김보화. (2015). 2,30대 비혼여성의 결혼전망과 의미. **한국여성학**, 31(4), 41-85.
- 이재경. (2003). **가족의 이름으로: 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이재경. (2015).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 가족 - 정상성에서 유연성으로 -. **한국문화연구**, 29, 283-310.
- 이재림. (2015). 부모는 영원한 봉인가?: 20-30대 성인자녀의 도구적 의존 재조명. **한국가족을 말하다: 현상과 쟁점**(pp.379-403).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이진숙.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가?. **가족과 문화**, 26(2), 126-150.
- 이창주.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전달체계가 부양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재가서비스이용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매개변수로 해서**(박사학위논문, 성경대학교 대학원, 안양). <http://www.riss.kr/link?id=T12266659>에서 인출.
- 이태열. (2020). 우리나라 혼인을 급락의 구조적 특징, **KIRI 리포트(포커스)**, 489, 8-15.
- 이효자.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 돌봄 주 부양자의 부양 부담 변화에 관한 사례 연구**(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익산) <http://www.riss.kr/link?id=T13097770>에서 인출.

- 장경섭. (2001).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정신문화연구**, 24(2), 161-202.
- 장경섭. (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파주: 창비.
- 장경섭.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3), 한국사회정책학회.
- 장경섭. (2019).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 장현섭. (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국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장혜경, 김영란, 김소영, 이아름, 안경희, 류연규, 이한나 (2014).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V)**.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재관, 변용찬,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등(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 오영희,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김혜영, 진미정.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윤경, 황남희, 김경래, 오신휘, 박보미, 신현구, 이금룡.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병은. (2007). 세대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노인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7(2), 503-518.
- 정운태, 서용석. (2015). 노인부양 조직화 유형에 관한 근거 이론적 접근: 며느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29-53.

- 정운태, 서재욱. (2016). 노인 돌봄 의식의 국제비교 연구: ISSP(2012)의 37개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3), 335-357.
- 조은. (1993). 한말 서울의 가족 구조.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9**. 서울: 문학과지성사.
- 조정문, 장상희. (2001). **가족사회학: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 주현정, 김용득. (2018). 공공성 담론으로 보는 돌봄서비스-상호의존의 조직화와 공동생산 제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 233-262.
- 최선영, 장경섭. (2012). 압축산업화 시대 노동계급가족 가부장제의 물질적 모순. **한국사회학**, 46(2), 203-230.
- 최선영. (2020).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 재편과 혼인행동의 변화**.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최유정·최셋별·이명진(2011). 세대별 비교를 통해 본 가족 관련 정체성의 변화와 그 함의. **가족과 문화**, 23(15), 1-40.
- 최재석. (1983).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서울: 일지사.
- 최희경.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돌봄 정의. **한국사회정책**, 25(3), 103-13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산업사회학회. (1998). **사회학**. 파주: 한울.
- 함인희. (1995). **사회변화와 가족.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pp.35-75).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함인희. (2002). 한국 가족의 위기: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가족과 문화**, 14(3), 168-84.
- 함인희. (2014). 가족사회학 연구의 흐름과 쟁점. 김혜경 등,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 황정미. (2014). 가족·국가·사회재생산. 김혜경 등,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통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00~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 여성가족부. (2005, 2010, 2015). **제1-3차 가족실태조사**.
- 통계청. (1985~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 통계청. (2005~201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 ~2047**.
-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2020.11.21. 03:48\)](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2020.11.21. 03:48))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각년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2. 23:27\)](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2. 23:27))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연도 행동분류표, 설계서 및 코드집**.
-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 통계청. (1998-2014). **사회조사**.
- 통계청. (2000).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00년)_행정구역/성/연령/혼인상태/거처의 종류별 1인 총조사가구”(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 통계청. (2000).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00년)_행정구역/성/연령/혼인상태/거처의 종류별 1인 총조사가구”(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 통계청. (2005).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05년)_가구의 성/연령/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 통계청. (2005).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05년)_가구의 성/연령/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 통계청. (2007~2018). **주민등록인구자료**.
- 통계청. (2009-2019). **사회통계조사**.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10년)_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1인 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10년)_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1인 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 통계청. (2011, 2015, 2018). **다문화인구동태통계**.
-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15년 이후)_성 및 연령별 1인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총조사가구(2015년 이후)_성 및 연령별 1인가구-시군구”자료(<https://kosis.kr>에서 2020.12.15. 인출).
- 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2015~2065**.
- 통계청. (2017). **한국의 사회동향 2017**.
- 통계청. (2019). **고령자 통계**.
- 통계청. (2020. 7. 3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161에서 인출.
- 통계청. (2020a).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인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 인구(2015년 이후)>표본(20%)부문(2015년)>표본기본표>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인구.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 2020.9.12.인출
- 통계청. (2020b).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인구>인구총조사>인구부문>총조사인구(2015년 이후)>표본(20%)부문(2015년)>여성·아동(20%표본)>연령별/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에서 2020.9.12.인출.
- 통계청. (각 연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통계청. (각연도). **인구동향조사-출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3(2020.11.03. 20:59)
- 통계청. (각연도). **사회조사 원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에서 2020. 7. 1. 인출.
- 통계청. (각연도). 온라인간행물>주제별>노동>경제활동인구연보>제3부 전국 연평균자료.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에서 2020. 7. 1.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각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연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행정안전부. (2007~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e-나라지표. 보육시설, 유치원 개소: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3,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5

〈외국어 자료 및 번역본 자료〉

Bauman, Z. (2005). **액체근대**. (이일수, 옮김). 서울: 도서출판 강.

Beck, U. &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Publications.

Beck, U., & Beck-Gernsheim, E. (2010). **위험에 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한상진, 심영희, 편저). 서울: 새물결.

Beck, U., & Beck-Gernsheim, E. (1999). 배은경, 권기돈, 강수영(옮긴이).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 사랑, 결혼, 가족,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근원적 성찰**. 서울: 새물결.

Bourdieu, P & Wacquant, L. (2015).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부르디외의 사유의 지평**. (이상길, 옮김). 서울: 그린비.

Brinton, M. C. and Lee, D.-J. (2016). Gender-Role Ideology,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st-industrial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3), 405-433.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York: Wiley.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 sciences*. NewYork: Wiley.
- Coontz, S. (2009). **진화하는 결혼**. (김승욱, 옮김). 서울: 작가정신.
- Eagleton, T. (2021). **문화란 무엇인가**. (이강선,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 Emmenegger, P., Hausermann, S., Palier, B., & Seeleib-Kaiser, M. (2012). **이중화의 시대 탈산업 사회에서 불평등 양상의 변화**.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Finch, J. & Mason, J. (1991). Obligations of Kinship in Contemporary Britain: Is There Normative Agreement?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2(3), 345-367.
- Finch, J. & Mason, J. (1994). *Negotiating Family Responsibilities*. Routledge.
- Finch, J., & Mason, J. (1991). Obligations of Kinship in Contemporary Britain: Is There Normative Agreement?.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2(3), 345-367.
- Giddens, A. (2001).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 친밀성의 구조 변동**. (배은경, 황정미 옮김). 서울: 새물결.
- Giddens, A., & Sutton, P. (2014). **현대사회학 7판**. (김미숙, 김용학, 박길성, 송호근, 신광영, 유홍준, 정성호,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 Gillis, J. (2004). Marriage of the Min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4), 988-991.
- Gittins, D. (1997). **가족은 없다: 가족이데올로기의 해부**. (안호용, 김홍주, 배선희, 옮김). 서울: 일신사.
- Gubrium, F. J., & Holstein, J. A. (1997). **가족이란 무엇인가? -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가족담론**. (최연실, 조은숙, 성미애, 옮김). 서울: 하우.
- Holstein, J. A., & Gubrium, J. (1999). What is family? Further thoughts on a social constructionist approach. *Marriage and Family Review*, 28, 3-20.
- Knight, C. R. & Brinton, M. C. (2017). One Egalitarianism or Several?

- Two Decades of Gender-Role Attitude Change in Europ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5), 1485-1532. doi: 10.1086/689814.
- Knight, C. R. and Brinton, M. C. (2017) One Egalitarianism or Several? Two Decades of Gender-Role Attitude Change in Europ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5), 1485-1532.
- Lareau, A. (2012). **불평등한 어린시절**. (박상은,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 Morgan, David L. (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옮김). 서울: 군자출판사.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 Putnam, R. D. (2016). **우리 아이들: 빈부격차는 어떻게 미래세대를 파괴하는가**. (정태식, 옮김). 서울: 페이퍼 로드.
- Sainsbury, D.(ed.).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ung, M., & Lee, J. (2013). Adult Sibling and Sibling-in-law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Continuity and Change of Confucian Family Norm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4(5), 571-587.
- Sung, M., & Lee, J. (2013). Adult sibling and sibling-in-law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Continuity and change of Confucian family norm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4, 571-587.
- Weigel, D. J. (2008). The Concept of Family. *Journal of Family Issues*, 29(11), 1426-1447.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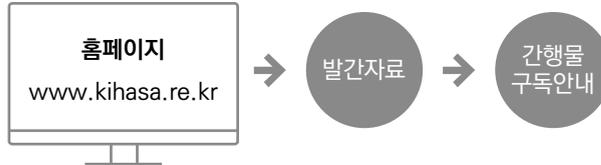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